

漁城十景唱和詩

李容璇



양양문화원



漁城十景唱和詩

李容璇



양양문화원

우리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개인 문집이나 시화집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문화원에서는 귀중한 문집과 시화집 중 어성 십경창화 시문을 발굴 번역하여 “어성십경창화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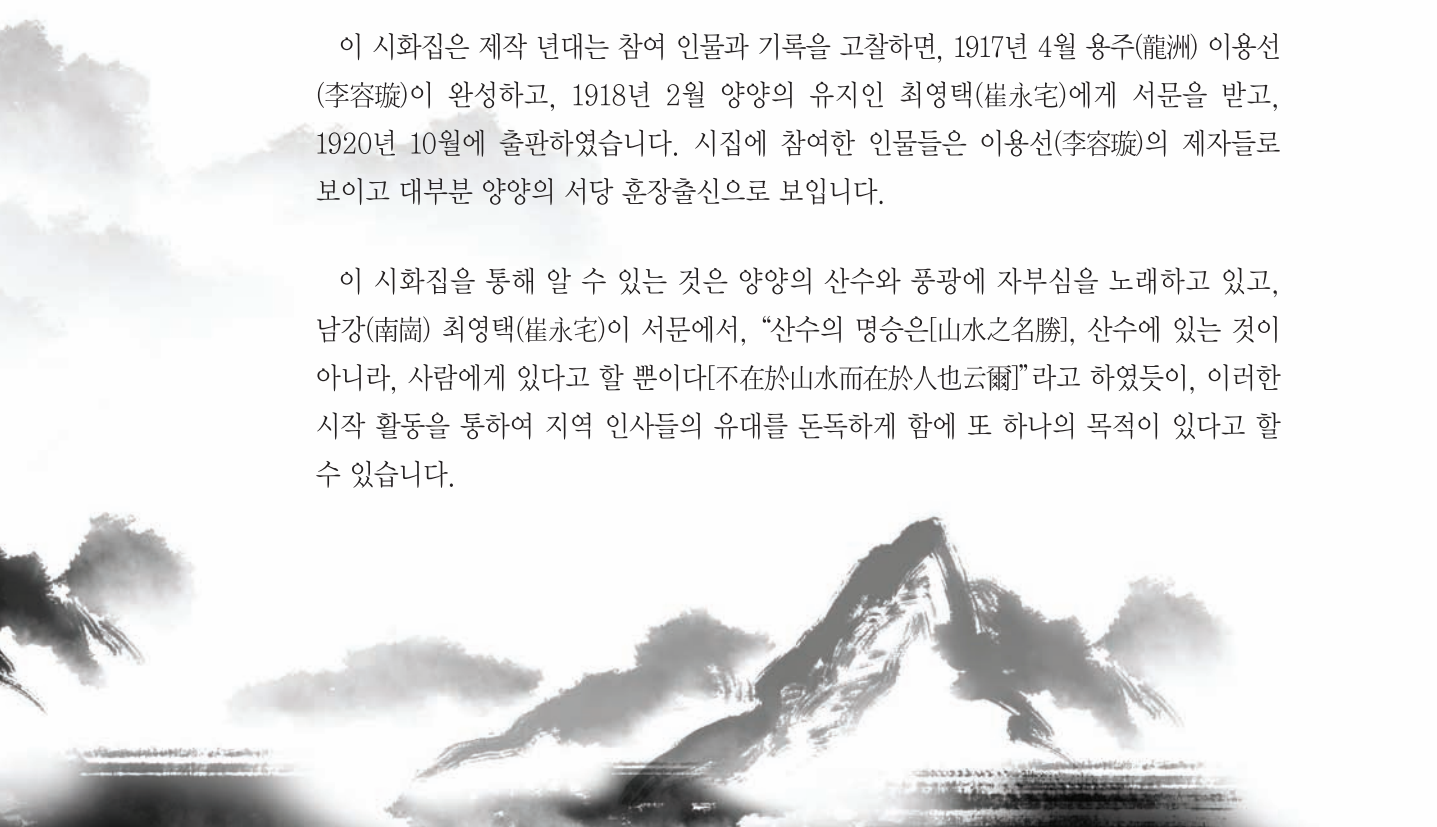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는 어성전 일대의 풍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성전의 유래는 주위의 산이 산성처럼 둘러 있어 이름 하였습니다. 기름진 전답이 수 만 평이 있고,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남대천으로 흘러오면서 크고 작은 계곡이 합류 하면서 장관을 이루며, 물고기가 많아 풍족한 삶을 살면서 당시 문사들의 이상향으로 자주 탐방하며 감회를 표현하였습니다.

시에서 어성전의 명주사, 용소, 운문암, 폭포 등의 소재로 작품들이 정겹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화집은 제작 년대는 참여 인물과 기록을 고찰하면, 1917년 4월 용주(龍洲) 이용선(李容璇)이 완성하고, 1918년 2월 양양의 유지인 최영택(崔永宅)에게 서문을 받고, 1920년 10월에 출판하였습니다. 시집에 참여한 인물들은 이용선(李容璇)의 제자들로 보이고 대부분 양양의 서당 훈장출신으로 보입니다.

이 시화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양양의 산수와 풍광에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고, 남강(南崗) 최영택(崔永宅)이 서문에서, “산수의 명승은[山水之名勝], 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할 뿐이다[不在於山水而在於人也云爾]”라고 하였듯이, 이러한 시작 활동을 통하여 지역 인사들의 유대를 돈독하게 함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수의 명승은 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노래한 것으로 보아 혼장으로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 인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양의 지식인들은 산수와 풍광으로 양양인이 돈독하게 유대를 이어 왔으나 항상 인재양성의 문제점을 고민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집은 중국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의 8가지 경치를 읊은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의 전통을 잇고 있고, 소상의 여덟 경치는 많은 문인들이 방문하여 시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그림으로도 그려져 그림을 통한 창화(唱和)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우리 동방에는 고려 후기에 이러한 전통이 들어 온 이후 많은 지역에서 팔경이 정해지고, 그것들을 시로 읊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되었으니, 관동팔경과 여성십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화집을 통하여 문사들의 훌륭한 학식과 시적 재능을 알 수 있고, 양양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후학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문집번역을 통하여 우수한 양양문화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양양문화원장 윤 여 준



목차

漁城十景唱和詩

1. 漁城十景總題	어성 10경을 함께 쓰다. -----	10
2. 雲門泉石	운문(雲門)의 샘과 바위 -----	27
3. 烏峴烟樹	오현(烏峴)의 안개 낀 나무 -----	43
4. 花嶝落照	화등산(花嶝山)의 낙조 -----	60
5. 銀潭瀑布	은담폭포 -----	77
6. 爐峰明月	향로봉의 밝은 달 -----	93
7. 龍沼鳴灘	용소에 우는 여울 -----	110
8. 高積浮雲	고적치(高積峙)의 뜬구름 -----	127
9. 柰川游魚	내천에 노니는 물고기 -----	144
10. 山庵暮鍾	산 암자에 저녁 종소리 -----	160
11. 帽巖漁笛	모암(帽巖, 관모암)의 어부 피리 소리 -----	177
12. 追錄	덧붙여 쓰다. -----	194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 해제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의 제작 년대는 참여 인물과 내용을 고찰해 보면 1917년 4월에 용주(龍洲) 이용선(李容璇)이 시집을 완성하고, 1918년 2월에 지역 유지인 최영택에게 서문을 받았고, 1920년 10월에 발간하였다.

이 시집(詩集)의 체제는 아래와 같이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漁城十景總題 : 어성 10경을 함께 쓰다.
2. 雲門泉石 : 운문(雲門)의 샘과 바위
3. 烏峴烟樹 : 오현(烏峴)의 안개 낀 나무
4. 花嶝落照 : 화등산(花嶝山)의 낙조
5. 銀潭瀑布 : 은담폭포
6. 爐峰明月 : 향로봉의 밝은 달
7. 龍沼鳴灘 : 용소에 우는 여울
8. 高積浮雲 : 고적치(高積峙)의 뜬구름
9. 柰川游魚 : 내천에 노니는 물고기
10. 山庵暮鍾 : 산 암자에 저녁 종소리
11. 帽巖漁笛 : 모암(帽巖, 관모암)의 어부 피리 소리
12. 追錄 : 덧붙여 쓰다.

1장은 어성 십경을 종합적으로 읊은 것이고, 2장부터 11장까지가 10경이다. 12장은 빠진 사람들의 시를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 사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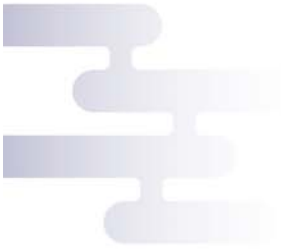
이 시집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직접 10경을 답사한 후에 시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최영택의 시에 보면, “그 속에 기이한 경치을 알고자 하니[欲識箇中奇絕景], 10폭 그림이 생생하게 둘러싸고 있구나[環屏十幅畫圖生].”라고 한 것을 보면, <어성십경도(漁城十景圖)>가 존재했었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 그것을 보고 시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시집에 실린 시는 대부분 7언 율시이다. 이는 여타 다른 시집에서 보기 힘든 경우이다. 시의 운자를 같이하더라도 5언으로 충분히 시를 지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집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아마도 서당의 훈장이었던 이용선(李容璇)의 제자들이었고, 작시(作詩) 공부에 가장 모범인 7언 율시를 대상으로 시를 짓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시집에 있어서 예외는 있다. 오직 동명(東溟) 이상섭(李相燮)만은 7언 또는 율시라는 체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를 구사하고 있다.



漁
城
十
景
唱
和
詩

李容璇



漁城小序

大凡天下山水之名勝，不在山水而在於人也。武夷之九曲，以晦庵而扨名，香山之八節，白傅而傳名。且如峴山之小者，而因叔子而著名，如桃源之僻焉，而因漁子而知名。然則今此漁城十景，亦非其因人而成名者耶。蓋漁城，余所景慕之地，而一年一度處也。地在郡之南五十里，幽深靜僻之間，山明水麗泉甘土肥，猶爲可居之地，而但人文未闢，風俗淳尙而已。溯其往跡，則曾有梅月翁採芝之墟，又有蔡希菴打楸之詩而後，則無聞焉。李友容璇，訓學于漁城之二年，獨得山水之趣，粧點泉石品題，雲樹第十景，而詩以記之。仍求詩於一郡之文人，歌詠而贊美之。於是乎漁城之勝名，著於襄之南矣。余故曰，山水之名勝，不在於山水而在於人也云爾。

戊午仲春上澣南崗散人崔永宅謹序

어성소서(漁城小序)

무릇 세상 산수(山水)의 경치가 좋은 곳은 산이나 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무이(武夷)¹⁾의 구곡(九曲)은 회암(晦庵)²⁾ 선생 때문에 이름을 떨쳤고, 향산(香山)의 팔절(八節)³⁾은 백부(白傅, 백거이)가 이름을 전하였다. 또 현산(峴山)⁴⁾과 같은 작은 것은 숙자(叔子, 양호의 자)로 인하여 이름을 드러냈고, 도원(桃源)⁵⁾의 후미진 곳도

- 1) 무이(武夷): 복건성(福建省) 송안현(崇安縣)에 있는 산 이름인데, 산 안에는 아름다운 아홉 골짜기가 있어 이를 무이구곡(武夷九曲)이라고 한다. 주자(朱子)가 일찍이 이곳에서 살았다.
- 2) 회암(晦庵): 주희(朱熹)로, 자는 원회(元晦)·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회옹(晦翁)·운곡노인(雲谷老人)·둔옹(遜翁)이다. 존칭하여 주자(朱子)라고 한다.
- 3) 향산(香山)의 팔절(八節): 향산은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 용문산(龍門山) 동쪽에 있다. 당나라 회창(會昌) 연간에 백거이(白居易)가 형부 상서(刑部尚書)에서 치사(致仕)한 뒤에 이곳에 석루(石樓)를 짓고 향산거사(香山居士)라 자호(自號)하였으므로 향산은 백거이의 이칭으로 쓰인다. 백거이는 이때 낙양에서 여덟 명의 노인[八節]과 함께 구로회(九老會)라는 시사(詩社)를 결성하고 서로 술과 시를 즐기며 여생을 보냈다. 『新唐書 卷119 白居易列傳』
- 4) 현산(峴山): 현산은 중국 호북성(湖北省) 양양시(襄陽市) 남쪽에 있는 산이다. 진(晉)나라 양호(羊祜)가 양양을 지키면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항상 추윤보(鄒潤甫)와 함께 현산에 올랐었다. 그가 죽자 후세 사람이 덕을 추모하여 현산의 그 자리에 비를 세웠는데 비를 보는 사람마다 슬퍼했다 한다. 그래서 타루비(墮淚碑)라 한다.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襄陽)에도 현산이 있으며, 양양의 이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 5) 도원(桃源):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약칭으로, 전하여 선경(仙境)을 의미한다.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동진(東晉) 태원(太元) 연간에 무릉(武陵)의 한 여부가 시내를 따라 한없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도화림(桃花林)이 찬란한 선경을 만나 그곳에 들어가서, 일찍이 선대(先代)에 진(秦)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처자를 거느리고 들어와 대대로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수일 후에 그곳을 떠나서 배를 얻어 타고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왔는데, 그 후로는 다시 그 도화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陶淵明集 卷6』

어부(漁夫)로 인하여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성(漁城)⁶⁾의 십경(十景) 또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유하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는 것인가?

대개 어성은 내가 우러러 좋아하는 곳이지만, 일 년에 한 번 가는 곳이다. 땅은 군(郡, 양양)의 남쪽 50리의 그윽하고 깊어 고요하고 궁벽한 사이에 있지만, 산은 밝고 물은 아름답고 샘물은 달고 땅은 비옥하니, 오히려 거처할 만한 땅이다. 그러나 단지 인문(人文)이 궁벽하지 풍속(風俗)은 순수하고 넓은 뿐이다.

지난 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매월옹(梅月翁)⁷⁾이 영지(靈芝)를 채취하던 곳이며, 채희암(蔡希菴)⁸⁾의 호두를 따는 시[打楸之詩]⁹⁾ 이후에는 들은 바가 없다. 벗인 이용선(李容璇)이 어성에서 2년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홀로 산수(山水)의 흥취를 얻어 샘물과 바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구름과 나무를 평하여 순서에 따라 열 가지 경치를 시로 썼다. 이에 군(郡) 안의 문인들에게 시(詩)를 구하니, 그것을 읊고 찬미하였다. 이에 어성의 아름다운 이름이 양양 남쪽에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그래서 산수(山水)의 경치가 좋은 곳은 산이나 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고 할 뿐이다.

1918년 2월 초순(初旬)에 남강산인(南崗散人) 최영택(崔永宅)¹⁰⁾이 삼가 쓰다.

漁城山水錄

峴之南四十里，有漁城田，山圍如城，水深可漁，林壑窈窕，場圃相望，一峽中名區也。其東北諸山，卽五臺之北，滿月山之一麓，逶迤北來，行八九十里，磅礴扶輿爲神仙鐵甲等嶺及草田峙諸山也。鐵甲嶺之原麓，又向東北來爲綱嶺峙，卽漁城之東北諸山也。就中一

6) 어성(漁城): 현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漁城田里)
 7) 매월옹(梅月翁): 김시습(金時習, 1435-1493)으로 호가 매월당(梅月堂), 자는 열경(悅卿)이다. 21세 때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는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사른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특히 경관과 인심이 좋아 양양을 자주 찾아 심회를 표현하였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그 시신을 수습하여 노량진 가에 임시 매장하였다고 전한다. 저서로 『금오신화(金鰲新話)』, 『매월당집(梅月堂集)』 등이 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8) 채희암(蔡希菴): 채팽윤(蔡彭胤, 1669-1731)을 말한다.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은와(恩窩),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벼슬을 지냈고 시와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희암집(希菴集)』이 있다.
 9) 호두를 따는 시[打楸之詩]: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없다.
 10) 최영택(崔永宅): 금계(錦溪) 이근원(李根元, 1840-1918)의 『동유일기(東遊日記)』에 양양(襄陽)에 거처하는 걸출한 선비라 한 것으로 보아, 금계와 비슷한 연배나 혹은 약간 앞선 시기의 인물로 보인다.

峯，峻拔插天者曰，香爐峰，俗稱火爐峰。予改火爲香，蓋此峰於綱嶺，爲最高。登臨遠眺之景，不下於漢南諸峰。南望溟州之花飛，北瞻水城之銀峰，凡數百里之內，千峰萬壑，崛崎蹲伏，如星羅而棋布。東指滄海，則萬里風濤，渾渾無涯，可以寬丈夫之胸次矣。至於三五月，盈水輪淡泊宛轉於此峰之上，真可愛也。香爐峰之東北一里許，左右支峰相引坡陁中，有一原坐東而向西者曰，圓通庵。檜松森蔚，水石佳麗，左右山房，極爲清淨，對案有文筆峰。故俗傳居僧多能文詞云。庵之法堂前軒，有梵鍾，每當薄暮冥冥，鯨音噌吰，彷彿寒寺夜鍾也。喚牛峴在庵之南，鷄鳴巖在庵之西洞口。路右紗帽巖在庵之東數里許。自庵之西北，踰一小峴，有明珠寺，卽襄州四寺之一也。中葉以來，屢經回祿，今則因其古址，僅築數間梵宇，以誌焉。寺之西南曰臥牛臺，其東北曰青蓮庵，洞古有青蓮無心二庵，今廢焉。自寺之西南，以及青蓮庵，洞碑塔重重，許舫山薰所撰聳岳禪師碑銘，亦在焉。烏峴，在青蓮庵之東北，俗稱葛梧峴。地勢平坦，厥土肥饒，有數十人家。村前樹木，緣溪成列，膠葛蒙翳，四時炊煙，淡蕩帶籠。望之隱然庶幾有遯世者。而挽近居民，芟夷墾田，未免牛山之斧斤，可勝惜哉。自烏峴之東北，峯巒相連，至道雲坪，丹崖翠壁峻極，臨水爲漁城之捍門也。草田峙之東麓，蔓延爲開田里及八美洞。其西麓左旋，而爲高積峙，雄壯峻嶒，蟠據于漁城之西南，而左右分枝，林立環擁，又其原麓，如鶴膝蜂腰，自南向北，直出于漁城之中，與烏峴相望。其北，則居人所謂坪村也，其南，則上村也，其西，則陽村也。蓋茲山，勢厚而氣積。故天將霖雨，則浮雲觸石，或三夏雨晴，金柯玉葉，英英都都，盡出千萬奇峯，足爲隱者之悅怡也。其西南諸山，卽鷹鳳嶺之一麓，自西而東，萬疊千重，而行五六十里，爲綿玉峙。又自綿玉峙，東行六七十里，爲三峰及花澄諸山與高積峙，南北相對，實漁城之西南諸山也。花澄之上，多生杜鵑躑躅。每當春，和景明葩藥爛熳，如錦繡相錯。在西郵，夕暉返照之際，光線直射，淡雲輕烟，爲之玲瓏，亦可翫也。花澄之東，爲龜瑞峰。此峰之後麓，自北稍東，懸崖絕壁，崔嵬臨渚，風景絕勝。舊傳，明珠寺之西，有清心臺，而未詳其處云。予按其地勢，因名曰清心臺。花峰之北，爲黃場峙，而諸峰巉巖與道雲坪，隔水相對，關鎖緊密，爲一洞之水口也。銀潭在花澄之南，源出綿玉峙之道明村，至陽村之上，有盤石。當流平鋪，下成一潭。高可數丈，潦水漲溢，則銀濤雪浪，倒流狂奔，聲如萬雷，望之若廬山瀑布。上流有麻姑聚石，下流東入于漢水焉。漢水之源，出于五臺之北神仙嶺下，萬折北流經于釜淵及法水峙之洞，凡六七十里。至香爐庵，瀉出于雲門，蓋香爐雲門二庵之廢，已久矣。雲門之洞南北兩岸石壁，巖阻直立千尺。上下數里許，奇巖怪石，磐牙臨流，或如龍蟠虎伏，或如象舞鳳翔，氣像萬千，而緣溪清泉，滂然涌出。

下流之北，磐石屹然可坐百人。石面有刻雲門庵三大字，即李鹿隱衡翼之筆跡，可想雲門泉石之勝也。稍北巖上有履齒痕，故老相傳云，壯士登臨處也。妄誕未可信。雲門巖之北，巨石相對齊起，高可八九丈，中有一沼，深不可測者，乃龍沼也。若歲值大旱，居民祈雨，則輒有靈驗焉。龍沼之下仍成一灘，白石鑿鑿，綠波潺潺。風清月白之夜，天陰雨濕之夕，高枕山窓，洗心靜聽，則潺湲澎湃，或有碎玉鳴珂之聲，或有擊鉦振鼓之勢，感發情懷，使人有鐵衣東征之想矣。龍沼之下一里許，有石當中流，上尖下圓，形如冠帽。居人號曰冠帽巖，即帽巖也。層巖頑石，盤錯南岸，清流激湍，映帶左右，時有漁翁釣客，虹竿月鉤，悠然自得。日過半陽，則弄笛相和，有折柳落梅之調，穿雲裂石之響，寥亮清絕風物之佳麗，宛如西湖。帽巖之下波流，稍急而漸成滄瀆。水深魚肥，而東岸之上，柰木成林，柰川之名，職此故也。銀梭玉尺，出沒游泳，靜觀物理，真是活潑潑地也。柰川之水，東流至烏峴村，過道雲坪而出洞口焉。高積以南之水，有二源，一出八美洞，一出明珠寺。谷合流至烏峴，而入于漢川，此其漁城山水之大略也。噫關東雖僻在一隅依山阻海，而風土之美，不下於嶠南湖西。至漁城之一山水一木石，快為濟勝之資，而寥寂千載湮沒無聞。蓋吾東之俗，不喜山水之游覽而然哉。俗傳尹明齋拯年少時，讀書于雲門庵之僧舍，而未詳其真贗。金梅月堂時習，嘗僑居于香爐庵，而採芝於達洞，又蔡希菴彭胤，莅茲土時，嘗與賓僚打獵于雲門柰川之間，有雜詠幾篇，載在公之文集云，而一未得覽，可恨，其孤陋寡聞也。歲在乙未冬，予僑留于漁城之里，墊越明年春，與二三冠童，屢及于山水之間，俯仰逍遙，得十景而歸次，而吟詠之。以予鹵莽之學，不足為山水之輕重，而幸賴一郡多士之長於詩者。傳相和應，至於數十餘家，可以占漁城山水之顯晦。若乃花木楓林之勝，烟靄霜雪之景，四時變態，足以共往來者之達觀，而將與峴山之名，并著於海左云爾。

丁巳孟夏龍洲散人李容璇書

어성산수록(漁城山水錄)

현산(峴山, 양양)의 남쪽 40리에 어성전(漁城田)이 있으니, 산이 둘러 쌓아 성(城)과 같았고 물은 깊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며, 골짜기가 깊으나 채소밭(場圃)을 서로 마주한 것이 한 골짜기 중의 명승지였다.

그 동북쪽의 여러 산은, 곧 오대산(五臺山)의 북쪽으로, 만월산(滿月山)의 한 기슭이 북쪽으로 뻗어 와서 80~90리를 가면 큰 바위들이 뒤엎켜 신선령(神仙嶺)·철갑령(鐵甲嶺) 등의 고개와 초전치(草田峙) 등의 여러 산이다. 철갑령의 산기슭은 또

동북으로 향하여 와서 강령치(綱嶺峙)가 되니, 곧 어성(漁城) 동북의 여러 산이다.

그 가운데 한 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을 향로봉(香爐峰)이라 하는데, 세상에서는 화로봉(火爐峰)이라고 한다. 내가 화(火)자를 고쳐 향(香)자로 했으니, 대개 이 봉우리는 강령(綱嶺)에 있어서 가장 높기에 올라서 멀리 보는 경치가 한수(漢水) 남쪽의 여러 봉우리보다 못하지 않다. 남쪽으로 명주(溟州, 강릉)의 화비령(花飛嶺)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수성(水城, 간성)의 은봉(銀峰)을 마주하니, 무릇 수백 리(里) 내에 천 개의 봉우리와 만 개의 골짜기가 우뚝 솟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별이 늘어서고 바둑돌이 펼쳐진 듯하다. 동쪽으로 푸른 바다를 가리키면 만 리에 바람과 파도가 넓고 넓어 끝이 없어 대장부(大丈夫)의 심회를 펼칠 만하다.

3월부터 5월이 되면 이 봉우리 위에 구름과 달이 담박(淡泊)하게 바뀌어 참으로 사랑할 만하다. 향로봉의 동북으로 1리(里) 쯤에 좌우로 갈라진 봉우리가 서로 끌어온 비탈 속 한 언덕에 동쪽으로 자리 잡고 서쪽으로 향한 것을 원통암(圓通庵)이라 한다. 회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하고 물과 바위가 아름다워 좌우의 산방(山房)이 매우 청정(淸淨)하며, 마주하는 곳에 문필봉(文筆峰)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전하기를 사는 스님들이 문사(文詞)에 능한 이가 많다고 한다. 암자의 범당 앞의 집에 범종(梵鍾)이 있는데, 항상 저물녘이 되어 어두워지면 고래 소리를 요란히 내어 한적한 절의 밤 종소리와 같았다.

환우현(喚牛峴)은 암자의 남쪽에 있고 계명암(鷄鳴巖)은 암자의 서쪽 골짜기 입구에 있다. 길 우측 사모암(紗帽巖)은 암자의 동쪽 몇 리(里) 쯤에 있다. 암자의 서북쪽으로부터 한 작은 고개를 넘으면 명주사(明珠寺)가 있으니, 곧 양양(襄州)의 네 절 가운데 하나이다.

중엽 이래 자주 화재(火災)를 겪었으니, 지금은 그 옛터로 인하여 겨우 몇 간의 불사(佛舍) 짓고 지(誌)를 기록하였다. 절의 서남쪽을 와우대(臥牛臺)라 하고, 그 동북쪽을 청연암(靑蓮庵)이라 하는데, 골짜기에는 예로부터 청연암과 무심암(無心庵) 두 암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여 졌다.

절의 서남쪽으로부터 청련암에 이르기까지 골짜기에 비석과 탑이 첩첩한데, 방산(舫山) 허훈(許薰)¹¹⁾이 지은 「용악선사비명(聳岳禪師碑銘)」 또한 거기에 있다.

11) 허훈(許薰, 1836-1907): 자는 순가(舜歌),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林隱洞)에서 태어났다. 허조(許祚, 1817 -?)의 아들이고, 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의 문인이

오현(烏峴)은 청련암의 동북쪽에 있는데, 세상에서 갈오현(葛梧峴)이라 한다. 지세가 평탄하고 땅이 비옥하여 수십의 인가가 있다. 마을 앞의 나무는 시냇물을 따라 줄을 이루고 칙녕쿨이 숲을 덮었으며, 사계절에 밥 짓는 연기가 맑게 두르고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 은연중에 거의 세상에 은둔한 것 같다. 그러나 근처에 사는 사람이 풀을 베고 밭을 일꾼 것을 만류하여도 우산(牛山)의 도끼와 자귀¹²⁾ 면하지 못하니 애석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오현의 동북쪽으로부터 봉우리와 산이 서로 이어져 도운평(道雲坪)에 이르면, 붉은 벼랑과 푸른 절벽이 매우 험준하게 물가에 있어서 어성(漁城)의 방위하는 문[捍門]이 된다.

초전치(草田峙)의 동쪽 기슭은 넓게 퍼져 개전리(開田里) 및 팔미동(八美洞)이 된다. 그 서쪽 기슭이 좌로 돌아 고적치(高積峙)가 되니, 웅장하고 험준한 것이 어성(漁城)의 서남쪽에 우뚝 서려 있으면서 좌우로 나누어진 숲이 둘러싸고 있다. 또 그 원래 기슭은 학의 무릎[鶴膝]이나 벌의 허리(蜂腰)와 같기도 하면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향하다가 어성(漁城)의 중앙으로 곧바로 나와 오현(烏峴)과 서로 마주한다. 그 북쪽을 거쳐하는 사람들이 평촌(坪村)이라 하며, 그 남쪽은 상촌(上村)이며, 그 서쪽은 양촌(陽村)이다.

대체로 이 산은 세(勢)가 두텁고 기(氣)가 쌓여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장맛비를 내리려 하면 뜬구름이 바위에 닿거나, 혹은 석 달 여름 동안의 비가 개면 금 같은 가지와 옥 같은 잎이 영롱하게 아름다움은 모두 천만의 기이한 봉우리에서 나오니, 은자(隱者)가 기뻐할 만한 것이다.

그 서남쪽의 여러 산은 곧 응봉령(鷹鳳嶺)의 한 자락으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수없이 거듭되는데, 50~60리를 가면 면옥치(綿玉峙)이다. 또 면옥치로부터 동쪽으로 60~70리를 가면 삼봉산(三峯山) 및 화등산(花燈山) 등 여러 산과 고적치(高積峙)가 남과 북으로 서로 마주하니 실로 어성(漁城) 서남쪽의 여러 산이다. 화등산의 위는 두견화(杜鵑花)와 철쭉꽃이 많이 핀다. 항상 봄이 되면 온화한 경치에 밝은 꽃이 화

다. 저서로는 『방산집(舫山集)』이 있다.

12) 우산(牛山)의 도끼와 자귀: 맹자(孟子)가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무성하여 아름다웠으나 큰 나라의 교외에 있는 탓에 도끼와 자귀로 베어내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는 바와 우로(雨露)가 적셔 주는 바에 싹과 움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건만 소와 양이 또 따라서 뜯어 먹으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하여, 사람의 성품이 본래 선(善)하지만 물욕(物慾)에 침해당하는 것을 비유하였다.

려하여 비단을 수놓은 것이 서로 섞인 것 같다. 서쪽 역참에 저녁 빛이 반사될 때에 광선이 담담한 구름과 가벼운 안개를 직접 비추는 것이 영롱하여 기쁘게 볼 만하다.

화등산(花燈山)의 동쪽은 구서봉(龜瑞峰)이다. 이 봉우리 뒷 비탈이 북쪽으로부터 점차 동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높이 솟아 물가에 있어 풍경이 빼어나다.

구전(舊傳)에 명주사(明珠寺)의 서쪽에 청심대(淸心臺)가 있었으나 그 장소는 상세하지 않다고 한다. 내가 그 지세를 살펴보고 이름을 청심대(淸心臺)라 하였다. 화등산 봉우리의 북쪽은 황장치(黃場峙)인데, 여러 봉우리와 가파른 바위가 도운평(道雲坪)과 함께 물을 건너 서로 마주하고 빗장을 걸어 문을 잠금이 긴밀하여, 한 골짜기의 수구(水口)가 된다.

은담(銀潭)은 화등산의 남쪽에 있으니, 근원은 면옥치(綿玉峙)의 도명촌(道明村)에서 나와 양촌(陽村)의 상류에 이르면 넓고 평평한 바위(磐石)가 있다. 물이 흐르는 곳에 평평하게 퍼져 있고, 아래에는 한 못(潭)을 이루었다. 높이는 몇 길쯤 되는데, 장맛비가 내려 더욱 불어나면 은빛 파도와 눈 같은 물결은 폭포수 쏟아지듯 미친 듯이 달리고, 소리는 만 가지 우레와 같아, 바라보면 여산(廬山)의 폭포(瀑布)와 같다. 상류에는 마고(麻姑)¹³⁾가 돌을 모아 둔 것이 있고, 하류는 동쪽으로 한수(漢水)로 흘러 들어간다.

한수(漢水)의 근원은 오대산(五臺山)의 북쪽 신선령(神仙嶺) 아래로, 만 번 굽이쳐 북쪽으로 흘러 부연(釜淵)과 법수치(法水峙)의 골짜기를 경유하니, 모두 60~70리이다. 향로암(香爐庵)에 이르면 운문(雲門)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모두 향로와 운문 두 암지는 폐하여 진지 이미 오래이다. 운문의 골짜기는 남쪽과 북쪽 양쪽 기슭이 석벽으로 바위가 험하여 곧게 선 것이 천 길이다. 상하로 수십 리가 기암괴석(奇巖怪石)으로 펼쳐지고 솟아 물가에 있어, 어떤 것은 용이 몸을 감고 있고 범이 엎드려 있는 듯하며, 어떤 것은 코끼리가 춤을 추고 봉황이 날갯짓하는 듯하여 타고난 모양이 각각 다르고 시냇물을 따라 흐르는 맑은 샘물이 빠르게 솟아난다. 하류의 북쪽은 너럭바위가 높이 솟아 백여 사람이 앉을 수 있다. 바위 표면에 운문암(雲門庵)이라는 큰 세글자가 있으니, 곧 녹은(鹿隱) 이형익(李衡翼)의 필적으로, 운문 풍경의

13) 마고(麻姑): 한나라 환제(桓帝) 때의 선녀 이름인데, 손톱이 새 발톱처럼 생겼으며, 삼천 년마다 한번 변하는 동해(東海)가 세 번이나 뽕나무밭으로 변하도록 아주 오래 살았다고 한다. 『神仙傳 麻姑』

빼어남을 생각할 수 있다.

조금 북쪽 바위 위에 나막신 자국이 있어 노인이 서로 전하여 이르기를 장사(壯士)가 올랐던 곳이라 한다. 허망한 소리로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 운문함(雲門巖)의 북쪽에 큰 바위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가지런히 솟아 높이가 8~9길이며, 가운데에 한 소(沼)가 있으나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 곧 용소(龍沼)이다. 만약 해가 큰 기운을 만나면, 거주하는 백성들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 문득 영험함이 있다.

용소 아래는 곧 여울을 이루는데, 흰 돌들이 삐죽삐죽하고 초록 물결이 잔잔하다. 바람이 맑고 달이 밝은 밤과 흐린 날 비 내리는 저녁에 산속 창가에 한가로이 누워 마음을 씻고 귀를 맑게 하면 잔잔히 흐르는 물결과 부딪히는 거친 물소리가 간혹 옥(玉)을 부수거나 옥돌을 울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간혹 징을 치거나 북을 울리는 세가 정회(情懷)를 감동하게 해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동쪽으로 정벌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용소 아래 1리쯤에 바위가 흐르는 물결 속에 있는데, 상류 쪽은 뾰족하고 하류 쪽은 둥굴어 모양이 관모(冠帽)와 같다. 시는 사람들이 부르기를 관모암(冠帽巖)이라 하니, 곧 모암(帽巖)이다. 층암(層巖)과 완석(頑石)이 남쪽 기슭에 섞여 있어 맑은 물이 여울지며 좌우를 비추니, 때로 물고기 잡는 늙은이와 낚시하는 나그네가 무지개 같은 장대와 달 같은 낚시바늘로 유연히 자득한다. 해가 정오를 지나면 피리를 희롱하며 서로 화답하여, 절유(折柳)와 낙매(落梅)의 곡조가 있어 구름을 뚫고 바위를 찢는 울림이 매우 맑아서 풍물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서호(西湖)와 같다.

모암의 아래에 물결 흐름이 조금 급해지다가 점차 고인 물을 이룬다. 물은 깊고 물고기는 살찌 동쪽 기슭의 옆은 능금나무(柰木)가 숲을 이루어 내천(柰川)이라는 이름은 오로지 이 때문이다. 팔뚝만 한 물고기가 나타나 헤엄치니, 가만히 사물의 이치를 보면 참으로 활기 생동한 곳이다. 내천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 오현촌(烏峴村)에 이르러 도운평(道雲坪)을 지나 골짜기 입구를 나간다. 고적치(高積峙) 남쪽의 물은 두 근원이 있으니, 하나는 팔미동(八美洞)에서 나오고, 하나는 명주사(明珠寺)에서 나온다. 골짜기가 합류하여 오현(烏峴)에 이르면 한천(漢川)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어성 산수의 대략이다.

아! 관동(關東)이 비록 치우쳐 안쪽 모퉁이에 있으며,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있으나, 풍토(風土)의 아름다움은 교남(嶠南, 영남)과 호서(湖西, 충청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성(漁城)의 한 산수(山水)와 목석(木石)에 이르러서는, 흔쾌히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으나 고요히 천 년 동안 묻혀있어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우리 동방의 풍속은 산수(山水) 유람하기를 즐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세상의 전함에 명재(明齋) 윤증(尹拯)이 나이가 젊었을 때에 운문암(雲門庵)의 절집에서 책을 읽었다고 하나, 그 진위는 자세하지 않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일찍이 향로암(香爐庵)에서 잠시 거처하며, 달동(達洞)에서 지초(芝草)를 캐고 하고, 또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이 이 땅에 왔을 때, 일찍이 운문(雲門)과 내천(奈川) 사이에서 동료와 사냥을 하며 잡영(雜詠) 몇 편이 있어서, 공의 문집에 실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같이 보지 못했으니, 고루하고 듣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해는 을미년 겨울로, 내가 어성(漁城)의 마을에 잠시 거처하다가 해를 넘겨 이듬해 봄에, 어른과 아이들 2~3명으로 산수(山水) 사이에 이르러 둘러보고 우러러보며 노닐다가 십경(十景)을 얻어 돌아가려는 때에 그것을 읊었다. 나의 거칠고 졸렬한 학문으로 산수의 경중을 따지기에 부족하지만, 다행히 한 군(郡) 내에 많은 선비가 시(詩)에 뛰어남에 힘입었다. 전하고 서로 화답함이 수십여 사람에게 이르니, 어성(漁城) 산수의 드리남과 감추어짐을 점칠 수 있었다. 곧 꽃나무와 단풍나무 숲의 빼어난 풍경과 구름안개와 서리와 눈의 경치와 같은 것은 네 계절 모양을 바꾸어 오고가는 사람의 달관 된 경지를 충족할 수 있으니, 앞으로 현산(峴山)의 이름은 함께 해좌¹⁴⁾(海左 丁範祖)의 기록에 드리날 뿐이다.

1917년 4월에 용주산인(龍洲散人) 이용선(李容璇)¹⁵⁾이 쓰다.

14) 양양부사 역임, 문집으로 『海左集』 있다.

15) 이용선(李容璇): 이용선의 생몰 연대 등 신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 시집(詩集)의 발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에 관한 기록은 1928년 제작되어 양양 김해김씨 가에 보관된 「용사계(隆師契)」라는 문서에 나타나 있다.



1. 漁城十景總題

어성 10경을 함께 쓰다.



10

吾人浪迹遍漁城	우리가 어성(漁城)을 두루 유람하며
搜怪探奇十景成	기이한 경치 찾아 10경을 이루었네.
漢地山川傳太史	한(漢)나라의 산천은 태사공(太史公) ¹⁶ 이 전하였고
仙源花竹記淵明	선원(仙源)의 화죽은 도연명(陶淵明) ¹⁷ 이 기록하였지.
世無眞隱誰能賞	세상에 참된 은자 없으니 누가 잘 감상할 수 있으랴?
詩得假鳴乃有聲	시가 우는 소리 빌릴 수 있어야 곧 명성이 있으리라.
說播笛鍾雲與月	피리와 종소리와 구름과 달을 말로 전달함에
魚龍泉瀑夕烟生	저녁 안개는 폭포에서 어룡처럼 피어난다.

龍洲(용주) 李容璇(이용선)

漁肇得名錫此城	고기잡이로 일찍 이름 얻음이 이곳에 내려져
水回山抱亦天成	물도 산을 감아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
打楸餘韻風吟好	호두 따는 시 ¹⁸ 의 여운은 바람에 윽기 좋고

16) 태사공(太史公): 『사기(史記)』를 지은 사마천(司馬遷, BC145경-BC85경)을 말한다.

17) 도연명(陶淵明, 365-427): 동진, 유송 대의 시인으로 당나라 이후 남북조 시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동진 시대 지방 하급 관리로 관직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일평생 은둔하며 시를 지었다. 술의 성인으로 불리며, 전원시인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여기서 '선원(仙源)의 화죽(花竹)'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도화원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18) 호두 따는 시: 본 문집의 서문에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이 이곳 어성(漁城)을 소재로 호두를 따

鉞石遺毫月鑑明 돌에 새겨 남겨진 붓 자국은 달이 비추어 밝구나.
 誰識千年藏別界 천 년을 별천지 감추어져도 누가 알겠나?
 爲題十景播新聲 10경을 써서 참신한 운율을 알리노라.
 遊人奇覽從今始 노니는 사람의 특별한 유람은 이제 시작이니
 隨處登臨樂意生 가는 곳마다 즐거운 뜻 생겨나네.

星史(성사) 李三在(이삼재)

晴川碧樹繞漁城 맑은 시냇물과 푸른 나무가 어성을 둘러쌌는데
 戶始成村村號成 집이 처음 마을을 이룰 때부터 어성이라 불렀네.
 泉石居然多擅美 물의 경치 여전히 많은 아름다움을 뽐내고
 人文自是互開明 인간의 문명은 이로부터 서로 밝음을 열었어라.
 剩占釣水樵山樂 낚시와 땔나무 하는 즐거움에 넉넉히 여유롭고
 穩聽耕雲讀月聲 흐르는 구름과 달빛에 독서 소리 편안히 들네.
 欲識箇中奇絕景 그 속에 기이한 경치를 알고자 하니
 環屏十幅畫圖生 10폭 그림이 생생하게 둘러싸고 있구나.

南崗(남강) 崔永宅(최영택)

襄南十景一漁城 양양 남쪽 10경 가운데 첫 번째가 어성으로
 畫手猶難盡意成 그림으로 그 풍광 다 표현하기 오히려 어렵네.
 筆下雲烟連樹暗 붓 아래 안개는 숲으로 이어져 어둡고
 鏡中水月繞山明 거울 속에 물과 달은 산을 둘러 밝구나.
 梅老遺居高世志 매월옹 유거지는 고상한 세상의 뜻이요
 蔡公詩韻大家聲 희암공 시의 운치는 대가(大家)의 소리로다.
 鍾得地靈多淑氣 땅이 신령하여 맑은 기운 많이 모아 얻으니
 幾人魁傑此間生 이곳에서 난 뛰어난 인물들 그 얼마이런가?

秋畹(추원) 宋達顯(송달현)

龍洲健筆畫漁城 용주(龍洲)¹⁹⁾는 씩씩한 필치로 어성을 그려내었는데

는 시[打楸之詩]를 지었다는 문구가 있다.

其妙應從所見成	그 묘함은 응당 본 것을 따라 이룬 것이러오.
居人別業同摩詰	사는 사람의 별장은 마힐(摩詰, 王維)과 같고,
隱者草堂做孔明	은자의 초당은 제갈공명과 같네.
移山磅磚多包氣	산의 울퉁불퉁함을 옮기니 기를 가득 품었고
記水淺深只欠聲	물의 얇고 깊음은 기록해도 다만 소리가 없구나.
爲余來說丹青裡	나를 위하여 와서 그림 안에 머물라 하는데
不老景光十處生	늙지 않는 풍경 열 곳이 생겼구나.

東溟(동명) 崔燦時(최찬시)

五臺北落一層城	오대산의 북쪽 끝에 한 층의 성이 있으니
兩水合流村復成	두 물이 합쳐 흘러 마을이 거듭 이루었구나.
多小人家烟樹暗	많은 인가에 밥 짓는 연기로 숲은 어둡고
皞熙世界洞天明	태평한 세상에 골짜기 하늘은 밝기도 하네.
秋來鷄黍居田味	가을이 오면 닭과 기장밥은 전원에 시는 맛이요
日暮漁樵嗅渡聲	저물녘 어부와 나무꾼은 건너온 냄새에 소리 낸다.
直欲遍尋幽絕處	곧장 경치 좋은 곳을 두루 찾고 싶으니
與君偕隱送餘生	그대와 함께 은거하여 남은 생을 보내리라.

小山(소산) 李濟眞(이제진)

城外青山山外城	성 밖에 청산 있고 청산 밖에 성이 있으니
滿城新景品題成	성안 가득 새로운 경치를 시로 읊네.
谷蘭莫恨幽香沒	골짜기 난초 그윽한 향 없다 한하지 말지니
淵玉終能寶氣明	연못의 옥(玉) 끝내 보배로운 기운 밝으리라.
烟月雲暉多物態	안개와 달빛에 흐린 구름은 많은 자태를 만들어도
笛鍾泉瀑古音聲	피리와 종소리 폭포 소리는 옛 소리 그대로다.
何時漁子觀魚法	어느 때나 어부의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까?
龍沼無人急瀨生	용소(龍沼)는 사람이 없어도 급한 여울 생기네.

錦樵(금초) 黃晚源(황만원)

19) 용주(龍洲): 어성십경의 시모임을 주도한 용주(龍洲) 이용선(李容璇)을 이름.

行尋佳境到漁城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어성에 도착하니
 奇景重重別局成 기이한 경치 거듭하여 별세계를 이루었네.
 瀑魚灘烟泉樹合 샘과 나무 만남에 폭포에 물고기, 여울에 안개 있고
 雲鍾月笛多暉明 석양이 밝으니 구름에 종소리와 달빛에 피리 울리네.
 勝城林庄閑了處 아름다운 어성의 숲속 별장은 한가로운 곳이요
 騷人風律自然聲 문객이 읊는 시 가락은 자연의 소리로다.
 有誰能作琴書客 어떤 거문고를 잘 타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이
 活計清真度一生 평생 맑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石樵(석초) 秋鴻求(추홍구)

五臺一脉繞漁城 오대산의 한 줄기가 어성을 둘렀는데,
 淑氣渾然別界成 맑은 기운이 참으로 별세계를 이루었다.
 層巒處處風烟好 첩첩한 이곳저곳 바람과 안개가 좋고,
 平野漫漫日月明 넓은 평야는 온 벌판에 해와 달이 밝구나.
 原竹澗松千古色 언덕 대나무와 계곡 소나무는 옛 빛깔 그대로요
 午春夕杼一村聲 낮 절구질과 저녁 길쌈하는 소리 마을에 가득하다.
 箇中識得東南景 그 가운데 동남쪽의 경치를 알게 되면
 無限詩歌次第生 끝없는 시가가 차근차근 우리나라라.

近溪(근계) 李東洙(이동수)

不見漁郎遠市城 젊은 어부를 성 안에서 보지 못했는데
 桃源未必別天成 도원이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구나.
 門巖深邃雲常有 운문암(雲門巖) 깊은 곳엔 구름이 항상 있고
 達洞清虛月獨明 달동(達洞)의 맑고 빈 곳엔 달이 홀로 밝네.
 水石多年誰復管 물과 바위 여러 해 동안 누가 다시 다듬었길래
 笛鍾斜日自爲聲 피리와 종처럼 저녁노을에 스스로 소리를 내는가?
 愛山詩客如舟子 산을 사랑하는 시인은 뱃사공처럼
 更覓今春景色生 올봄의 경치가 나타나는 곳을 다시 찾았구나.

峴愚(현우) 李現在(이현재)

襄州名勝有漁城	양양(襄州)의 명승지는 어성에 있는데
關地爲田里落成	농사를 위해 땅을 개간하여 마을을 이루었네.
一洞中開頗廣濶	한 골짜기 안을 열어보면 자못 광활하고
四山高出最虛明	사방의 산은 높이 솟아 가장 환히 밝도다.
閑情人癖烟霞氣	한가한 마음에 사람들 연기와 노을 기운에 편벽되고
俗尙家傳誦讀聲	세속의 숭상 집안에서 책 읽는 소리 들리는 것이네.
記得此間多少景	이 속에 있는 약간의 경치를 기억한다면
文章詩興倍增生	문장과 시의 흥취 배나 생생하리라.

笑堂(소당) 朴永煥(박영환)

詩仙醉筆品漁城	시선은 취한 필치로 어성을 평했는데
城下田村別業成	성 아래 전촌(田村)에 별장을 만들었다네.
泉石中分雙水合	샘물은 바위 중간에서 갈라졌다 합하고
洞天南坼四山明	골짜기 하늘은 남쪽으로 열려 사방의 산이 밝구나.
居人未祛烟霞癖	사는 사람은 연기와 노을의 고질병을 버리지 않고
勝地又聞絃誦聲	명승지에서 다시 거문고와 독서 소리를 듣는다.
我欲尋眞君舉手	참된 경치 찾아 그대에게 손짓하고자 하니
景光歷歷指頭生	경치는 손끝에 역력하리라.

雪隱(설은) 李國範(이국범)²⁰⁾

20) 이국범(李國範, 1869-1931): 강원도 양양 현북면 출생,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도천면(道川面)과 강현면(降峴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지역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 인산에 참례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지니고 귀향한 이석범(李錫範)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석범은 그의 아우인 이국범과 아들인 이능렬(李能烈)을 앞세우고 쌍천학교(雙川學校) 졸업생을 동원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유학자로서 평소 일제의 강제병합에 분개하고 있던 중, 광무황제의 폭봉(暴崩) 소식을 듣고 군내 양반 유생들에게 양양읍 밖에서 요배식(遙拜式)을 거행하도록 하는 등 항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형으로부터 만세운동 계획을 들은 이국범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 김영경(金英經)·장세환(張世煥) 등과 도천면과 강현면 주민들을 동원하여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연 6일 동안 읍내 대포(大浦)·물치(物淄)·왕도(旺道)·기사문(其士門) 등지에서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依峽臨江漁有城 협곡에 의지한 강가 어촌에 성(城)이 있으니
 古云隱者一村成 예로부터 은자들이 한 마을을 이루었다 하네.
 千釣呂磯雲寂寞 천 개의 낚시의 여기(呂磯)²¹⁾는 구름이 적막하고
 一絲嚴瀨月空明 한 가닥 엄리(嚴瀨)²²⁾는 달이 하늘에 밝구나.
 鳴泉老石多精毓 울리는 샘물과 늙은 바위는 정기를 기름이 많고
 朽梓良蹄待價聲 썩은 재목과 좋은 발굽은 흥정을 기다란다오.
 欲識此中奇絕處 이 가운데 기이한 절경이 있는 곳 알고자 하면
 試看十景別天生 시험 삼아 10경의 별천지가 생기는 것을 보게나.

蓮宇(연우) 李鍾萬(이종만)

逐水漁舟泊古城 강물을 거슬러 오른 고깃배 옛 성에 정박하니
 十區佳景類天成 열 개의 아름다운 풍광 하늘에서 이루었네.
 撫琴蓬海清商發 동해에서 거문고 다듬어 청상곡(淸商曲) 연주하고
 採玉荊山寶氣明 형산(荊山)에서 옥 채취하니 보배로운 기가 밝구나.
 隱士盤旋林不愧 은사가 머물러도 숲은 부끄럽지 않고
 詩人裝綴畫舞聲 시인이 꾸민 것은 춤추는 소리를 그림 그린 것이네.
 龍洲書室憑高矚 용주(龍洲)의 서실(書室) 높이 올라 보아야 하니
 谷裡蘭香自此生 골짜기 안의 난꽃 향기 이곳으로부터 생긴다오.

素山(소산) 權宗胤(권종윤)

漁樵一路掛西城 어부와 나무꾼이 다니는 길 서쪽 성에 비껴있는데
 踏盡烟霞歷歷成 연기와 안개를 밟고 다니며 역력히 이루었네.
 佳境未曾料如此 아름다운 경치 이렇게 좋은 것이 없으니
 故人自得記分明 옛사람은 스스로 분명히 기억했으리라.
 殷勤點拈雲無跡 은근히 구름 한 점을 집었으나 자취가 없고

21) 여기(呂磯): 어성(漁城)의 지명으로 추측됨.

22) 엄리(嚴瀨): 엄리는 은거하는 곳을 뜻한다. 중국의 절강성(浙江省) 동려현(桐廬縣)의 동강(桐江)에 있는 지명으로 엄릉리(嚴陵瀨)라 하는데, 후한(後漢)의 은사(隱士)인 엄광(嚴光)이 은둔하여 낚시질한 곳이라 한다. 엄광은 어려서 광무제(光武帝)와 친한 사이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곧 성명을 바꾸고 부춘산(富春山) 속에 은거하여 낚시질하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한다. 『後漢書』 卷113, 「嚴光列傳」.

次第登詩畫有聲 차레로 시를 올림에 그림에 소리가 있구나.
 曲曲溪山誰管領 굽이굽이 계곡과 산은 누가 맡아서 다스리길래
 鶴龜松竹恣長生 학과 거북, 소나무와 대나무가 모두 장수하는가?
 白又(백우) 李顯奎(이현규)

漁罷更何唱渭城 고기 잡기 마치고 어찌 다시 위성곡²³⁾을 부를까?
 自酣泉石膏盲成 자연의 경치를 스스로 사랑하는 고질병이 생겼네.
 怒瀑和灘消寂歷 성난 폭포는 여울과 어울려 적막해지고
 暮鍾伴月發神明 저녁 종은 달을 벗 삼아 신명을 발한다.
 遠樹浮雲何所意 먼 나무와 뜬구름은 무엇을 뜻하며
 斜陽釣笛自爲聲 석양에 낚시와 피리 소리는 저절로 시가 되네.
 景光如許無人識 풍광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허여한 듯하니
 我獨任之快樂生 나 홀로 임하는 유쾌함이 생기는구나.
 龔岩(농암) 金鍾冕(김중면)

16

南畔五臺疊作城 남쪽 오대산은 첩첩이 성을 이루었는데
 僧藍俗宇共生成 불사(佛舍)와 세속의 집이 함께 시는구나.
 雙峰寂寂花陰重 쌍봉은 적적하고 꽃그늘 지천이요
 二水沄沄峽氣明 두 물은 소용돌이치니 협곡 기운 밝도다.
 眠狗村邊看虎跡 먼구촌(眠狗村) 가에서 호랑이 자취 살피고
 葛鳥峴下聽鶉聲 갈오현(葛鳥峴) 아래에서 두견새 소리를 듣네.
 誰寫曲屏云十景 누가 병풍을 그려 10경이라 했는가?
 宛如竿籟壁間生 마치 대숲 소리가 벽 사이에서 생기는 것 같네.
 蕉史(초사) 金商黈(김상경)

23) 위성곡(渭城曲): 당(唐)나라 왕유(王維)의 시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에 “위성의 아침 비 가 베풀은 먼지 적시니[渭城朝雨浥輕塵], 객사엔 푸릇푸릇 버들빛 싱그럽네[客舍青青柳色新].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 권하노니[勸君更進一杯酒],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가 없다오[西出陽關無故人].”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시에 곡을 입힌 것이 이른바 「양관곡(陽關曲)」 또는 「위성곡(渭城曲)」으로, 이별곡을 뜻한다. 『全唐詩 卷128 送元二使安西』 『樂府詩集 卷80 近代曲辭2 渭城曲』

只聞傳誦詠漁城 단지 어성의 시가 읊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十景重重筆下成 10경이 거듭거듭 붓끝에서 이루어졌구나.
 此物云佳全草味 이 물건은 아름답다 하지만 모두 풀에 묻혀
 其然將寫未分明 그런 까닭에 무얼 그려야 할지 분명하지 않네.
 心頭碧落群山色 마음속에 푸른 하늘은 못 산의 색이요
 耳畔寒流衆水聲 귓가에 찬흐름은 여러 물소리라오.
 依樣葫蘆君莫笑 조롱박을 본뻗다고²⁴⁾ 그대 비웃지 말게
 石林頽臥老書生 비스듬히 누운 석림(石林)은 늙은 서생 같구나.

石下(석하) 李濟說(이제열)

晚來探景到漁城 늦게야 경치 찾아 어성에 도착하니
 水水山山磨琢成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갈고 닦아 이루어졌네.
 古汀石白雲初起 옛 물가 바위 흰 곳에 구름 처음 일어나는데
 芳樹烟靑月復明 꽃나무에 안개 푸르고 달은 다시 밝구나.
 龍淵銀瀑呈佳色 용연(龍淵)에 은빛 폭포는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고
 魚笛珠鍾奏別聲 어부의 피리와 주옥같은 종은 특별한 소리 연주하네.
 花嶼柰川其下地 화등(花嶼)과 내천(柰川)이 그 아래의 땅이니
 隱居行義幾董生 은거하며 의 행함은 얼마나 동중서²⁵⁾ 같은가!

松隱(송은) 金冀鎔(김기용)

訪山問水到漁城 산 넘고 물 넘어 어성에 도착하니
 奇景玲瓏滿數成 영롱하고 기이한 경치 가득 이루어졌네.
 月笛雲鍾烟外起 달과 구름에 피리와 종소리 안개 밖으로 일고

24) 조롱박[葫蘆] 본뻗다고: 옛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창안해 냄을 이른다. 송 태조(宋太祖)가 한림 학사(韓林學士) 도곡(陶穀)을 조롱하기를, “듣건대 한림학사는 제서(制書)를 초할 때 옛 사람의 작품을 베껴 가며 조금씩 말만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바로 세속에서 이른 바 ‘조롱박 모양만 본뻗어서 그려 낸다[此乃俗所謂依樣畫葫蘆耳].’ 는 것일 따름이니, 힘쓴 것이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한 데서 온 말이다. 『東軒筆錄 卷1』

25) 동중서(董仲舒): ‘동생(董生)’은 한(漢)나라 때의 대유(大儒)인 동중서(董仲舒)로, 그가 일찍이 ‘휘장을 깊이 내려 치고 방 안에 들어앉아 글을 강독하면서[下帷講誦],’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3년 동안이나 밖을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精進)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깊이 들어앉아 독서에 전념하는 것을 비유한다.

魚灘石瀑夕西明 물고기 여울과 폭포는 저녁 서쪽에서 빛난다.
 筆端甲乙難題品 붓끝으로 우열 가려 등급 쓰기 어렵고
 匣裡峨洋未放聲 상자 안의 거문고는 아직 소리를 내지 않았네.
 別有靈區人不識 별도로 신령스러운 곳 있어도 사람이 알지 못하니
 碧蘿深處紫芝生 푸른 담쟁이 넝쿨 우거진 곳에 붉은 영지 자란다오.

迂軒(우헌) 金聖濟(김성제)

五臺來脉護漁城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즐기 어성을 보호하고
 峰壑重重景十成 봉우리와 골 겹겹이 펼쳐져 10경을 이루었다.
 洞口深深多別怪 골짜기 입구 깊고 깊어 괴이한 경치 많아
 指頭歷歷數分明 손끝으로 하나하나 분명하게 수를 세보네.
 地氣精靈無俗界 땅 기운의 정령 세속에는 없고
 村容窈窕有名聲 마을의 모습 아름다워 이름이 높도다.
 欲盡諸詩鱗次詠 여러 시를 차례대로 다 읊고자 하니
 自然還愧繁華生 자연에 도리어 변화함 생겨 부끄럽구나.

南溪(남계) 李容海(이용해)

環里皆山繞作城 온 동네 다 산으로 둘러 일부러 성을 만든 듯하고
 無邊十景此中成 끝없는 10경이 이 안에 이루어져 있구나.
 墾田多實人家給 일군 전답은 결실도 많아 인가가 넉넉하고
 曠野疏通日月明 넓은 들은 막힘없어 해와 달이 밝구나.
 前川烟淨鳥相語 앞 내는 안개도 맑아 새가 서로 대화하고
 古寺風輕鍾落聲 옛 절은 바람도 경쾌히 종소리 전하네.
 泉石居然茅棟結 아름다운 경치 있는 곳에 떃집을 지어
 清閑志趣付平生 맑고 한가로운 뜻에 평생 의지한다오.

退齋(퇴재) 李憲在(이헌재)

山環水麗是漁城 산을 휘감은 수려한 물이 어성인데
 有數景名次第成 여러 아름다운 경치가 차례로 이루어졌구나.

斜日花潭銀色射 해 질 무렵 꽃핀 연못은 은빛을 비추고
 晚風巖笛曲分明 저녁 바람은 바위 피리 되어 노래를 부른다.
 雲月滿籠烟樹岸 구름과 달이 가득한 안개처럼 숲 언덕을 두루고
 魚龍出聽寺鍾聲 어룡도 나와서 절의 종소리를 듣는다오.
 從今此地區諸別 지금부터 이 구역은 모두 특별하니
 草木猶爲精彩生 초목도 오히려 아름다운 광채를 발한다네.

訥庵(늘암) 權重皙(권중석)

疊山長水繞漁城 첩첩의 산과 긴 강이 어성을 들렀는데
 十景列羅勝地成 10경은 차례대로 늘어서 명승지를 이루었네.
 日斜烏峴寺鍾起 날 저무니 오현의 절에 종소리 울리고
 天關雲門峰月明 하늘 열린 운문의 봉우리에 달빛이 밝구나.
 川灘百里知魚樂 냇가 여울은 백 리에 걸쳐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巖瀑四時和笛聲 바위 폭포는 사계절 내내 피리 소리와 어울린다.
 別有風烟詩以畫 별도의 바람과 안개는 시 있는 그림이요
 幾人到此筆花生 몇 사람이나 이곳에 이르러 시를 지었을까?

石澗(석간) 尹周炳(윤주병)

天開古洞是漁城 하늘 열린 옛 골짜기를 어성이라 하는데
 取次風光十樣成 차례대로 경치가 10가지 모양 이루고 있네.
 鍾笛瀑灘聽仔細 종과 피리, 폭포와 여울 소리 자세하게 듣자니
 月雲樹石記分明 달과 구름, 나무와 돌은 분명하게 기억한다오.
 清川入澤游魚隊 맑은 물 못에 흘러 물고기 무리는 노닐고
 落照橫林亂鳥聲 노을빛 숲을 비춰 어지러운 새소리 어지럽도다.
 幽峽仍爲名勝地 그윽한 골짜기 이에 여전히 명승지로 삼을만하니
 品題一一警書生 일일이 평가하여 서생들 놀라게 하네.

菊下(국하) 黃學源(황학원)

葛鳥立馬上高城 갈오현(葛鳥峴)에 말 세웠다 높은 성으로 오르니

兩岸溪流一境成 양쪽 언덕에 계곡물 흘러 한 경계를 이루었네.
 野渡漁樵暄薄暮 들을 건너 어부와 나무꾼은 황혼 무렵 떠들썩하고
 雲隣鷄犬鬧平明 구름과 가까운 닭과 개는 새벽 무렵 시끄럽다.
 烟霞匝地多精彩 안개와 노을은 땅 가득 뛰어난 광채가 많고
 泉石須人倍價聲 빼어난 경치는 사람 필요해 가치 있는 소리가 많네.
 此間十景誰料得 이 속에 10경을 누가 헤아려 얻었을까?
 龍洲書室畫中生 용주(龍洲)의 서재가 그림 안에 생생하구나.

滄農(창농) 金鴻植(김홍식)

十方現出象香城 세상에 나타난 향기로운 성을 본떠
 發秘千年特地成 천 년의 비밀이 발한 특별한 곳 이루었네.
 佛笏隨緣入定久 부처님 홀기가 인연 따라 들어와 정한지 오래요
 仙洲分勝飛來明 신선의 섬 좋은 곳을 나누어 날라온 것 분명하다.
 寒梅曾隱林和靖 차가운 매화는 일찍이 은거한 임화정(林和靖)²⁶⁾이요
 上蔡今傳陸樹聲 상채(上蔡)²⁷⁾는 지금 육수성(陸樹聲)²⁸⁾에게 전하였네.
 拈指頭頭雙手點 하나하나 양손의 손가락 끝으로 짚으며
 峨洋琴我復鍾生 아양금(峨洋琴)²⁹⁾ 연주에 내 다시 종자기가 되었네.

26) 임화정(林和靖): 송(宋) 나라 임포(林逋, 967~1028)를 말한다. 화정은 시호이며, 자는 군복(君復)이다. 서화(書畫)에 능하고 시(詩)를 잘하였으며, 불구자로 부귀공명을 추구하지 않고 평생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하였다. 매화와 학을 사랑하면서 독신으로 생애를 마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梅妻鶴子].” 라는 말이 나왔다. 행서(行書)를 잘 쓰고 시를 잘 지었다. 그의 시는 풍화설월(風花雪月)을 평담(平淡)한 표현으로 읊은 것이 많으며, 매화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매화를 노래한 작품에 걸작이 많다. 저서로 『임화정집(林和靖集)』이 남아있으며, 시호는 인종(仁宗)이 하사한 화정선생(和靖先生)이다.

27) 상채(上蔡): 사양좌(謝良佐 : 1050~1103)를 말한다. 자는 현도(顯道),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상채(上蔡) 사람이다. 정호(程顥)가 지부구사(知扶溝事)로 있을 때 그에게 수학하였다. 상채학파(上蔡學派)의 비조이며 상채 선생으로 불렸다. 그의 사상은 다분히 선불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에 『논어해(論語解)』가 있다.

28) 육수성(陸樹聲): 생몰년은 자세하지 않다. 자는 여길(與吉)로 호는 평천(平泉)·주가각인(朱家角人)이다. 송강(松江) 화정(華亭)사람이다. 1541년(가정20) 회시에서 일등을 하고 진사에 합격하였다.

29) 아양금(峨洋琴): <아양곡(峨洋曲)>이라는 거문고 곡조를 말한다.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백아(伯牙)가 금을 타면서 뜻이 높은 산에 있으면 종자기(鍾子期)가 말하기를 ‘좋구나, 아아(峨峨)하기 태산(泰山)과 같구나.’ 하고, 뜻이 흐르는 물에 있으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좋구나, 양양(洋洋)하기 강하(江河)와 같구나.’ 라고 하였다.” 하였으므로, 백아의 거문고 곡을 <아양곡>이라 불렀다. 이 또한 산수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晚翠(만취) 朴長喜(박장희)³⁰⁾

聊將十景畫漁城 부족하나마 어성의 10경을 그리려 하는데
 峴樹門泉自樂成 고개의 나무와 운문의 샘은 저절로 즐겁구나.
 花磴落照堂前沒 화등(花磴)의 저녁노을 집 앞에서 지고
 石瀑清潭鏡裡明 바위 폭포의 맑은 연못은 거울 속처럼 밝도다.
 爐峰月白千秋色 향로봉의 달은 천년의 빛으로 희고
 龍沼灘鳴萬古聲 용소의 여울 소리 만고에 소리로 울리네.
 積峙雲林魚得所 고적치(高積峙)의 운림은 물고기가 터 잡은 곳이니
 寺鍾巖笛此平生 절의 종과 바위의 피리는 이곳에서 평생 울리리라.

東溟(동명) 李相燮(이상섭)

襄州南畔僻漁城 양양의 남쪽 물가에 후미진 어성은
 物外居人村落成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었네.
 鳥峴歸雲籠樹白 오현에 돌아온 구름은 나무를 둘러 희고
 華峰斜日透窓明 화봉에 기운 해는 창을 비춰 밝구나.
 山將畫意青紅色 산은 청홍의 빛으로 물들며 그림과 같고
 水有琴心續斷聲 물은 끊어지고 이어지며 거문고 소리 같아라.
 梅月希庵何處去 매월옹과 채희암은 어디로 갔는가?
 遺風餘韻至今生 남긴 풍류와 여운은 지금도 생생하네.

竹翁(죽옹) 全鴻斗(전홍두)

毫端十景華漁城 붓끝으로 이룬 10경이 화려한 어성이니
 田宅重重別樣成 밭과 집은 겹겹이 다른 모양 이루었구나.
 農隙蜂蚕時本業 농사 틈틈이 벌과 누에 치는 것이 본래 일ियो
 雲中鷄犬日平明 구름 속에 닭과 개는 첫새벽을 알린다오.
 居民自飽鋤禾力 주민들은 스스로 배부르기 위해 김매기에 힘쓰고

30) 박장희(朴長喜):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그가 1935(기해)년에 고흥두(高光斗)에게 보낸 간찰이 양양(陽壤)의 제주고씨가에 보관되어 있음.

溪友相求代木聲 은거하는 벗은 서로 찾으며 벌목 소리 내네.
 梅月千秋非寂寞 매월옹은 오랜 세월에도 쓸쓸하지 않았으니
 至今名價李先生 지금 평판은 이 선생과 같도다.

寄隱(기은) 全在政(전재정)

地饒人衆舊漁城 땅 넉넉하고 사람 많은 옛 어성(漁城)은
 在在景光隨處成 있는 곳곳의 풍경은 가는 곳을 따라 이루어졌네.
 日暮龍雲鍾寺出 해 저무는 용 구름 속에서 종소리가 절에서 나오고
 月中漁笛石潭明 달빛 아래 어부의 피리 소리에 석담(石潭)이 밝구나.
 四時風物爭來色 사계절의 경치는 빛깔 바꿈을 다투고
 十里江山不盡聲 십리의 강산은 소리가 다하지 않았다네.
 聞道李君先見得 말하는 것 들은 이군이 먼저 보고 깨달아
 題詩携酒送閑生 시를 짓고 술을 가지고 한가로운 삶을 보내는구나.

素軒(소헌) 朴鍾泰(박종태)

群山中斷闕漁城 문 산이 중간에 끊어져 어성을 열었으니
 耕鑿人民勤儉成 경작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검소하네.
 四面漁樵乘薄暮 사방의 어부와 나무꾼은 해 질 무렵 되었는데
 一春蚕績啓新明 한 봄에 누에 치고 길쌈하며 신명 난다오.
 到今始抃十勝地 지금에 이르러 처음 10경의 땅임을 알리니
 自古猶聞三樂聲 예로부터 오히려 세 즐거움³¹⁾을 들었다네.
 窮村風物逢人著 가난한 마을의 풍물이 사람이 드러냄을 만나
 能以先知覺後生 선지자가 후생을 깨우칠 수 있구나.

金文式(김문식)

聞道漁城疊似城 듣자니 어성은 첩첩하여 성과 같다는데

31) 세 즐거움: 맹자 삼락(三樂)을 말한다. 맹자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굽어 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천하에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得天下英才而 教育之 三樂也].”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진심(盡心)」

山回溪曲數村成	산을 돌아 계곡에 두세 마을을 이루었네.
鄉俗全淳人太古	시골 풍속 모두 순박하여 태고의 사람ियो
往賢遺跡地文明	떠난 현인의 남긴 자취 문명의 땅이로다.
東土元來多勝界	동쪽 땅엔 원래 좋은 경치 많으니
襄州自此擅新聲	양양은 이로부터 새로운 소리 떨치는구나.
聊知十景誰爲主	겨우 10경이 누가 주창한 줄 알았으니
這裡文章托一生	이 속에서 문장으로 일생의 의탁하네.

朴齊根(박제근)

五臺北麓是漁城	오대산의 북쪽 기슭이 어성인데
磅礴斯間十景成	울퉁불퉁한 사이로 10경이 이루어졌네.
魚龍潭沼烟雲起	어룡의 연못에는 안개와 구름이 일고
鍾笛山門日月明	종과 피리의 산사 문에는 해와 달이 밝도다.
多年久被荒涼色	여러 해 동안 오래도록 황량한 빛 입었는데
今日始聞壯麗聲	오늘 비로소 장엄하고 화려하다는 소리 들었네.
地理非徒山水美	땅의 형상은 단지 산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將看英俊比肩生	장차 영준한 사람에 비견되는 삶을 바라보고자 하네.

尹惠重(윤덕중)

地藏別界有漁城	땅이 감춘 별세상 어성이 있으니
斗屋間間一路成	작은 집과 사이사이로 한 길이 이루어졌네.
年深洞口春何晚	해가 가도 골짜기 입구는 봄이 어찌 그리 늦으며
夜久峰頭月亦明	밤이 깊어도 봉우리 끝에는 달 또한 밝구나.
遠岫暮雲多雨色	먼 산봉우리는 저녁 구름이 비가 오려는데
長汀流水帶秋聲	긴 물가에 흐르는 물은 가을 소리 들렸네.
此中十景誰知否	이 속에서 10경을 누가 알까?
好置田庄可寄生	전원의 별장 두기 좋아 생을 의지할 만하구나.

金漢奎(김한규)

漁城不是舊漁城 어성은 예전의 어성이 아니니
 始得文章陶冶成 비로소 문장 도야함을 이루었구나.
 巖上雲烟川沼起 바위 위의 안개 시냇물에서 일어나고
 山中日月石潭明 산속의 해와 달에 석담(石潭)이 밝도다.
 陋巷誰知瓢飲樂 누추한 거리의 청빈한 즐거움을 누가 알랴?
 武夷閑聽棹歌聲 무이(武夷)의 뱃노래 소리 한가로이 듣네.
 時人休說瀟湘八 사람들여 소상팔경(瀟湘八景) 말하지 말게나
 這裡景光恣甚生 이 속의 경치도 모두 더욱 생생하도다.
 雲巖(운암) 金復來(김복래)³²⁾

水似湯池山似城 물은 온천과 같고 산은 성과 같은데
 漁樵別業箇中成 어부와 나무꾼은 그 안에 별장을 이루었네.
 魚龍潛躍烟雲起 어룡이 뛰어오르며 안개가 일어나고
 巖石參差日月明 암석이 들쭉날쭉하며 해와 달이 밝구나.
 千載寂寥多俗狀 오랜 세월 적막하여 세상 모습 많더니
 一朝膾炙有名聲 하루아침에 회자 되어 명성이 생겼구나.
 所過草木皆精彩 지나온 초목도 모두 생기가 넘치니
 自得賢人十景生 자득한 현인 10경을 만들었네.
 勉齋(면제) 姜駿乘(강준병)

襄州勝狀在漁城 양양의 아름다운 모습 어성에 있으니
 水綠山青活畫成 초록빛 물과 푸른 산이 살아 있는 그림 같다.
 龍沼銀潭言次第 용소(龍沼)와 은담(銀潭)은 차례대로 말하며
 雲門鳥峴記分明 운문(雲門)과 오현(鳥峴)은 분명히 기록하네.
 漁巖笛奏川邊興 어부가 바위에서 피리를 연주하니 물가가 흥겹고
 僧寺鍾鳴月下聲 중이 절에서 종 울리니 달빛 아래에 소리 퍼지네.
 此地浪吟稱十景 이곳에서 10경에 대해 마음대로 읊조리니

32) 김복래(金復來): 자세한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그가 1928년 제작되어 스승인 용주 이용선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용사계(隆師契)」라는 문서가 양양 김해김씨 가에 보관되어 있다.

斜陽花嶺白雲生 석양이라 화등(花嶺)에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구나.

金昇柄(김승우)

漁水耕田住一城 물고기 잡고 농사를 지으며 한 성에 사는데
 多般景物箇中成 갖가지 경물들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네.
 暮朝淡蕩烟雲起 아침저녁으로 맑은 안개 피어오르고
 今古昇平日月明 예로부터 지금까지 평안하니 해와 달이 밝도다.
 飛瀑長川南北岸 세찬 폭포와 긴 시내는 남북 언덕에 있고
 梵鍾漁笛兩三聲 범종과 어부의 피리가 두세 소리 들린다오.
 不須圖畫傳于世 그림으로 세상에 전할 필요 없으니
 膾炙嘉名筆下生 회자 되는 아름다운 이름 붓 아래에서 이루어지네.

誠軒(성헌) 咸基復(함기복)

漢南山水最漁城 한수 남쪽 산수 중의 최고 어성은
 收拾景光十箇成 풍경을 모아 10개를 이루었네.
 飛瀑歸雲勝地大 날리는 폭포와 돌아가는 구름에 명승지로 유명하고
 長烟皓月洞天明 긴 연기와 밝은 달에 골짜기 하늘이 밝구나.
 東西巖石經題品 동서의 바위를 폼평하며 지나고
 日夜川灘學海聲 밤낮으로 개울은 바닷소리를 배운다.
 瓊幅相傳名下士 아름다운 옥 같은 이름 하사(下士)에 전하니
 居人淸福樂平生 사는 사람들 맑은 복에 평생을 즐거워하네.

敬窩(경와) 咸基成(함기성)

近聞十景在漁城 근래 들으니 10경이 어성에 있다고 하는데
 地坼名區各擅成 땅 갈라진 명승지 각자 뽐내는구나.
 雲斷爐峰天外碧 구름이 끊어진 향로봉(香爐峰)은 하늘 밖으로 푸르고
 日晴龍沼鏡中明 날 개인 용소(龍沼)는 거울처럼 밝도다.
 帽巖長笛斜陽釣 모암(帽巖)의 긴 피리 소리는 석양을 낚고
 山寺暮鍾夜半聲 산사의 저녁 종은 한밤중에 울린다.

銀瀑東流烏峴北 은빛 폭포 동으로 오현(烏峴) 북쪽에 흐르는데
村客如畫柰川生 시골 나그네 그림 같은 내천이 생생하네.

金昌樞(김창우)

行行短策到漁城 짧은 지팡이로 가고 또 가 어성에 도착하여
爲賀主人茅棟成 주인이 덧집 지음을 축하하였네.
繞宅風篁幽且邃 집을 두른 대숲의 바람은 그윽하고도 깊으며
臨門山水媚還明 문 앞의 산과 물은 아름답고도 밝구나.
哺逢故老談堯世 늙은 친구 만나 먹으며 요임금 시절 말하고
牖使群蒙誦孔聲 어리석은 자들이 깨우치도록 공자의 말 외게 한다.
盤谷誰知居李愿 이원(李愿)이 반곡(盤谷)에 은거한 줄 누가 알리오?
聊將膏秣度平生 장차 수레를 몰아 평생 살지를 헤아려보네.

黃崑(황근) 李夔在(이기재)

一區風物在漁城 어성에 있는 한 지역 풍물을
勝覽方輿又續成 잘 살피니 경치 좋은 곳 또 이어졌구나.
特地山川稱小夏 특별한 산천을 작은 하나래(小夏)라 하고
仁天日月似皇明 어진 하늘의 해와 달은 명나라(皇明)와 같도다.
三時烟歇因雲色 종일 낀 안개가 걷히니 구름이 빛나고
十里鍾鳴又笛聲 10리에 종소리 울리다가 또 피리 소리 울리네.
自是居人精彩倍 이로부터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광채 배가 되어
昭然記得筆花生 환하게 붓꽃[筆花]³³⁾이 피어남을 기억한다오.

金炳濟(김병제)

33) 꽃[筆花]: 양(梁)나라 때 문장가인 강엄(江淹)이 한번은 야정(冶亭)에서 잠을 자는데, 곽박(郭璞)이라고 자칭하는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내 붓이 그대에게 가 있는 지 여러 해이니, 이제는 나에게 돌려다오.” 하므로, 품속에서 오색필(五色筆)을 꺼내어 그에게 돌려준 꿈을 꾸었는데, 그 후로는 좋은 시문(詩文)을 전혀 짓지 못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필화는 곧 오색필을 말하며, 전하여 뛰어난 문재(文才)를 의미한다.



2. 雲門泉石

운문(雲門)의 샘과 바위



石根泉脈絡雲門	돌부리와 샘의 맥이 운문(雲門)으로 이어져
磨洗千秋不盡痕	오랜 세월 갈고 닦여도 흔적 다하지 않았구나.
題品尙遲分甲乙	등급 씬이 오히려 더더도 우열을 나누고
盈科漸進有淵源	구덩이를 채우고 점차 나아가 연원이 있도다.
使君來獵楸根打	사또가 와서 사냥하며 가래나무 뿌리를 두드리고
壯士登臨屐齒齮	장사가 오른 나막신이 자국이 찍혀있네.
川上巖留三字鏡	시냇가 바위에 세 글자 ³⁴⁾ 가 새겨져 있는데
此間一片亦堪言	이 사이에 무슨 한마디 말이 필요하랴!

龍洲(용주)³⁵⁾

坎泉良石關雲門	샘물과 바위가 있는 운문동(雲門洞)이 열리니
洞口山青太古痕	골짜기 입구의 산은 푸르러 태고의 흔적이네.
楓葉秋林斜遠逕	단풍잎의 가을 숲에 멀리 길이 비껴있고
桃花春水覓仙源	복숭아 꽃잎 뜬 봄물에서 선원(仙源)을 찾는구나.

34) 세 글자: 운문동(雲門洞)이라는 세 글자로 추측됨.

35) 용주(龍洲): 이 모임을 주관한 용주(龍洲) 이용선(李容璇)을 이른다. 이 이후로는 이미 앞에 나 온 사람이므로 이름을 생략하고 호만 썼다.

冽清爲酒翁皆醉
黑白分碁世幾翻
茅棟居然吾欲問
琴書寂寂更無言

星史(성사)

맑은 물로 술빛으니 노인들은 모두 취하고
흑백을 나뉜 바둑처럼 세상은 얼마나 변했는가?
멋집에 거처하려 내가 묻고자 하나
거문고와 책은 적막하여 더는 말이 없네.

臨泉巖石號雲門
不許蒼苔食字痕
釋子來觀疑佛界
漁卽時復覓仙源
飛花逐水人間出
返照穿林壁上翻
茅棟居然成管領
主人風月與誰言

南崗(남강)

샘 옆에 바위와 돌을 운문(雲門)이라 하니
푸른 이끼가 글자 흔적 먹음을 허락하지 않네.
승려가 와서 보고 부처님 세상인가 의심하고
어부는 때로 다시 신선 세계를 찾는다오.
날리는 꽃 물결 쫓아 인간 세상 벗어나고
석양빛 숲을 뚫어 벽 위에 움직이네.
멋집은 저절로 다스림을 이루니
주인의 풍류를 누구와 함께 말하랴?

古人筆力關雲門
巖面參橫刻字痕
全石無非來佛骨
一泉應是自仙源
葉千秋老飛時下
花萬春流激處翻
晚矣名區曾往事
居翁白髮爲余言

東溟(동명)

옛사람의 필력에 운문동을 열었는데
바위에는 세 글자 새겨진 흔적이 있네.
모든 돌은 오신 부처의 모습이요
한 샘물은 응당 저절로 선원이라도.
나뭇잎은 오랜 시간 지며 때때로 떨어졌고
꽃잎은 오랜 봄 동안 흘러가며 물결쳐 뒤집혔나?
늦었도다! 명승지에 일찍이 가야 했던 일
사는 늙은이 백발로 나를 위해 말을 하네.

雲影重重關洞門
清泉白石洗塵痕
斷崖老立嶒嶸骨

구름 그림자 겹겹한 골짜기 문을 여니
맑은 샘 흰 바위에 속세의 흔적을 씻었네.
깎아지른 벼랑은 늙어도 험준한 기골로 서 있고

別澗分流活潑源
細逐浮花山外出
亂收返照壁間翻
居然此物誰非我
恐使他人或漏言

秋暉(추원)

나누어진 계곡은 나뉘어 활발한 발원에서 흐른다.
떠가는 꽃잎은 산 밖으로 나가며 가늘게 흐르고
석양은 벼랑 사이에서 비치며 어지러이 거두네.
도도한 이 자연에서 누군들 나를 잊지 않으랴?
다른 사람이 혹시나 누설할까 걱정스럽구나.

一區泉石曰雲門
不見飛塵點染痕
回想瑤溪非別界
到頭活水是真源
嶽僧留偈白雲在
蔡老題詩紅葉翻
此地從來仙佛境
誰家能筆肇名言

小山(소산)

한 지역의 이름다운 경치를 운문이라 하는데
날리는 먼지에 오염된 흔적 보이지 않는구나.
이름다운 계곡을 회상하니 별도의 세상이 아니요
흐르는 물 거꾸로 오르니 참된 근원이네.
산 중이 남긴 게(偈) 흰 구름 속에 있고
채희암이 쓴 시 붉은 낙엽에 나부낀다.
이곳은 예로부터 신선과 부처의 경계였으니
누가 뛰어난 필치로 일찍이 명언 남겼나?

泉石作家雲作門
也知眞宰費精痕
何來大筆題前面
尙說仙居在上源
幽境轉深松桂老
古庵想像鶩鴻翻
靑山似護神慳地
萬疊回回不欲言

錦樵(금초)

자연이 집을 짓고 구름이 문을 만들었으니
조물주가 힘을 쓴 흔적 또한 알겠구나.
언제 와서 대필로 전면에 글씨 썼는가?
오히려 말하기를 신선 거처 상류에 있다 하네.
그윽한 경계 소나무와 계수나무 늙어 오히려 깊고
옛 암자에서 제비와 기러기 나는 것 상상한다오.
청산은 신이 아끼는 땅을 지키는 것 같은데
만 겹으로 돌고 돌아 말하려 하지 않는다.

幽泉邃石關雲門
俗累全空一点痕

그윽한 샘물 깊은 바위에 운문이 열리니
세속의 때는 한 점의 흔적으로 모두 사라지네.

層壁奇岩開佛界
曲流清瀉達眞源
客來篆跡溪山重
僧去庵容歲月飜
到此悠然多古想
居人習誦世傳言

石樵(석초)

기암의 층층 벽은 부처 세계를 열었고
맑은 폭포 굽이 흐르는 진원에 도달하네.
나그네 온 아련한 흔적 계곡과 산은 첩첩하고
스님 떠난 암자 모습 세월에 바뀌는구나.
이곳에 도착하니 유유히 옛 생각 많아지고
사는 사람 세상에 전하는 말 익히고 외우네.

萬朵浮雲護洞門
別區泉石古留痕
千層巖立青山麓
半畝鑑開活水源
坐愛平圓苔蘚碧
急流曲折痕花飜
分明三字誰題刻
想得當年野老言

近溪(근계)

만 갈래 뜬 구름이 골짜기의 문을 지키고
특별한 산수의 경치에 옛 흔적이 남아 있네.
천 층의 암석은 푸른 산의 기슭에 서 있고
작은 거울은 살아 있는 물의 근원에 열렸구나.
평평하고 둥근 바위에 앉기 좋아하니 이끼는 푸르고
굽이굽이 급히 흐르며 도화 꽃잎 뒤집힌다.
선명한 세 글자 누가 새겼을까?
생각해보니 그 해에 시골의 늙은이라 하네.

青山佛劫老雲門
水石參差漲落痕
頂上奇岩曾李篆
眼前別地可桃源
翠崖霧捲晴嵐滴
丹壁霞生返照飜
願作膏盲茅棟結
興來携酒欲無言

峴愚(현우)

청산의 부처는 영겁 동안 운문에서 늙어가고
수석은 들쭉날쭉하고 오르고 내린 흔적 있구나.
정상의 기이한 암석에는 일찍이 이 씨의 전서가 있고
눈앞의 별천지는 가히 도원이라 할만하구나.
푸른 벼랑에는 안개 걷혀 아지랑이 나타나고
붉은 벽에는 노을 반사되어 비추다가 뒤집어진다.
고질병처럼 멧집을 만들기를 원하며
흥이 올라 술도 마시니 말하고 싶지 않다오.

常常雲氣覆雲門

늘 구름의 기운이 운문을 덮고 있어

知有新龍降雨痕 새로운 용이 비를 내린 흔적을 알게 되네.
 人向洞中開別業 사람이 골짜기를 향하니 안에 별장이 있고
 水從天際注深源 물을 하늘 끝을 따라 깊은 근원으로 흐르는구나.
 樹林翳日烟霞遠 숲이 해를 가려 안개와 노을이 깊고
 峰嶂沉洲錦繡翻 산봉우리는 물에 잠겨 수놓은 비단같이 나무꾼다.
 巖上書留三字鉞 바위 위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文章往跡可堪言 문장의 지난 자취는 말을 대신할 만하네.
 笑堂(소당)

一道飛泉出石門 한 길로 떨어지는 폭포 석문에서 나오고
 雲空巖老有書痕 구름 뜬 하늘에 바위는 늙어 글씨 흔적 있네.
 莫教人掃寒梅逕 사람들 찬 매화 길 쓸어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共得天光活水源 하늘빛과 맑은 물의 근원을 모두 얻을 수 있네.
 山客成茅仁智樂 나그네는 떃집을 만들어 산수를 즐기고
 吾家留筆古今翻 내 집에 남은 글씨 고금을 찾아본다오.
 偶遊此地居然得 우연히 이곳을 유람하다가 뜻밖에 얻었는데
 感慕夕陽歸未言 석양에 마음이 끌려 말하지 못하고 돌아가네
 雪隱(설은)

山南泉石一雲門 산의 남쪽 아름다운 곳에 하나의 운문이 있으니
 我脚未登耳有痕 나는 아직 오르지 못하였고 소문만 들었네.
 倒壁錯盤平鋪地 절벽은 어지럽고 평평한 땅이요
 澄潭落瀑上流源 맑은 연못에 떨어지는 폭포에 상류는 근원이라 하네.
 春水桃花漁子至 봄 물에 복숭아꽃 피어 어부도 이르고
 夕陽楓葉亂鴉翻 석양에 단풍잎 어지러이 갈까마귀 날아오른다.
 紫芝達洞人何在 붉은 지초 있는 달동(達洞)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棲息當年欲無言 거처하는 그해에 말하려 해도 말이 없구나.
 蓮宇(연우)

西南林壑鎖雲門
百道飛泉瀆石痕
夕氣蒼涼通絕峽
天光活潑露眞源
巖間歲月人情積
山外烟塵世事纏
鷗夢不驚沙渚暖
閑翁志趣與誰言

素山(소산)

서남쪽의 산 깊은 곳에 운문이 숨겨져 있는데
백 갈래 내리는 폭포에 온갖 돌들이 담겨 있네.
저녁 기운 황량하니 험한 협곡으로 통하고
하늘빛 활발하니 참된 근원이 드러나는구나.
바위 사이에서 지나는 세월에 인정이 쌓이고
산 밖에 먼지는 세상일로 번다하다.
갈매기 꿈꾸다 모래밭의 온기에 놀라지 않고
한가로운 늙은이의 흥취를 누구와 말하라!

雲藏泉石護爲門
地迥稀看杖屨痕
楓林繞山穿客逕
桃花照井訪仙源
鳥啼落日蒼蒼下
魚戲清波白白翻
欲問斯間多小景
漁翁樵豎願他言

白又(백우)

구름이 감춘 풍경 보호하듯 문을 이루고
땅이 먼 지팡이와 신의 흔적 보기 드물다.
단풍나무 숲이 산을 둘러싸도 나그네는 길을 뚫고
복숭아 꽃 우물에 비추자 선원(仙源)을 방문하네.
새 지저귀고 지는 해는 푸르고 푸르게 지는데
물고기 노니는 맑은 물결은 희고 희게 뒤집힌다.
이 사이 작은 경치 얼마나 많은가 붙고자 해도
어부와 나무꾼은 고개 돌려 탄소리 하네.

白雲紅樹掩山門
飛錫幾多訪舊痕
造物奇形留石面
溢瓢甘味有泉源
翠壁秋暮楓光暮
閑境月明鶴舞翩
歸路回思前古事
庵虛隱隱聽經言

聶巖(농암)

흰 구름과 붉은 숲이 산문(山門)을 가렸는데
스님은 방문한 옛 흔적 얼마나 많은가?
사물을 만든 기이한 형상은 돌에 남아있고
박에 가득한 단맛은 샘에서 비롯되었네.
푸른 벽 가을 저녁에 단풍 빛 저물고
한가로운 경계 달 밝고 학이 춤을 추네.
돌아오는 길에 옛일을 다시 생각하는데
암자는 비었는데 은은히 경 읽는 소리 들린다.

清寒子亦出雲門 청한자(淸寒子, 김시습)도 운문(雲門)을 나섰는데
 蔡相仙書尙有痕 채상(蔡相, 채팽윤)의 신선 글씨 오히려 흔적 남았네.
 石臼多年如遺鉢 절구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발 같고
 山臺無處覓靈源 산의 누대는 신령스러운 근원을 찾을 곳 없구나.
 水白便令巢許洗 물 맑으니 문득 소부와 허유³⁶⁾가 귀를 씻도록 하였고
 桃紅焉識晉秦穢 도화 붉어도 어찌 진(晉)과 진(秦)이 바뀔을 알랴?
 斷磚殘礎餘仙址 깨진 벽돌의 부스러기가 신선의 터에 남아있는데
 我欲辨眞已忘言 나는 진실을 분별하고자 해도 이미 말을 잊었네.
 樵史(초사)

數家村落隔雲門 몇 집 사는 마을이 운문(雲門)과 떨어져 있는데
 幾個居人道舊痕 사는 사람이 다니던 길 흔적이 몇 개 있구나.
 剛斧乍攀昇桂殿 단단한 도끼를 잠깐 들어 훌륭한 집을 짓고
 蹇槎輒入溯河源 뺨뺨해진 뗏목으로 문득 강의 근원을 거슬러 오른다.
 祥泉迸嵌籠山去 상서로운 샘은 깊은 굴에서 솟아 산을 휘감아 흐르고
 老石懸崖倒水飜 늙은 바위는 깎아지른 절벽에서 물을 거꾸로 쏟네.
 孰有詞如陶謝手 누가 도연명과 사영운과 같은 글솜씨 있어서
 起余十景盡情言 나에게 10경을 진정으로 말할 수 있으랴?
 石下(석하)

清泉白石關雲門 맑은 물과 흰 바위가 열린 곳이 운문이니
 曾是仙翁過去痕 일찍부터 신선의 과거 흔적이 있구나.
 芳草生間商洛界 향기로운 풀 피어나는 사이가 상락(商洛)³⁷⁾ 같고
 桃花通底武陵源 도화꽃 통하는 끝이 무릉도원이리라.
 老蛟藏氣朝烟歎 교룡이 기운을 감추니 아침 안개 사라지고

36)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소부가 순임금으로부터 천하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영수에 귀를 씻고 소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그 이야기를 소부로부터 들은 허유가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귀를 씻어 낸 물을 먹일 수 없다며 더 상류로 올라가 물을 먹었다는 고사를 말한 것이다.

37) 상락(商洛): 진(秦)나라 말기에 시황(秦始皇)의 학정을 피하여 상산사호(商山四皓)가 은거하였던 상락(商洛)의 남전산(藍田山)을 말한다. 상산사호는 동원공(東園公),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角里先生), 기리게(綺里季)이다.

小鳥盡情夕照飜 작은 새 마음껏 석양에 날아가네.
 欲問古人採藥處 옛사람이 약초 캐는 곳 묻고자 해도
 千峰萬壑摠無言 천 개 봉우리 만 개의 골짜기는 말하지 않는구나.
 松隱(송은)

一景雲間關洞門 한 경치는 구름 사이에 골짜기 문이 열렸는데
 清泉白石洗塵痕 맑은 샘과 흰 바위는 먼지 흔적 씻는구나.
 半山風雨呈新骨 반 산은 비바람에 새로운 기골 드러내고
 百道氷霜秘舊源 백 갈래 길은 서리에 옛 근원을 숨졌네.
 芹葉微開銀索轉 미나리 잎이 약간 피어 은빛 줄을 두른 듯하고
 蘚花錯落錦紋纒 이끼 꽃 들쭉날쭉 비단 무늬 나부긴다.
 至今巖面龍蛇篆 지금도 바위에는 용과 뱀 같은 글씨 있는데
 留得庵名永有言 머물러 암자 이름 얻었음은 영원히 전하리라.
 迂軒(우헌)

居然泉石助雲門 변함없는 자연이 운문(雲門)을 도우니
 不染世間累跡痕 세간의 거듭된 흔적에 물들지 않았네.
 別界有天疑杞國 별계에 있는 하늘 세상 기(杞) 나라인지 의심하나니
 武陵何地是桃源 무릉(武陵)이 어는 곳인지 이곳이 도원(桃源)일세.
 箇中不識風霜劫 그 속에 풍상의 영겁(永劫)을 알지 못하니
 此外渾忘歲月飜 이 밖에는 세월의 흐름을 모두 잊었네.
 歸家若問如斯景 돌아가 이 같은 경치 묻거들랑
 難以形容未敢言 형용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 하게.
 南溪(남계)

石上雲生古寺門 옛 절 문 바위 위에 구름 생기고
 千秋佛劫尙餘痕 영겁의 세월에도 오히려 흔적 남았구나.
 蘚花自補青山骨 이끼 꽃은 절로 청산의 뼈를 보충하고
 茅棟彙成活水源 몇집이 무리는 살아 있는 물의 근원을 이루네.

暮景清閒風正好
洞天寥寂鳥雙飛
佳麗名庄如許樂
居人永矢不忘言

訥庵(늘암)

저녁 경치 맑고 한가로운 풍경 정말로 아름답고
골짜기 하늘 적막한 속에 새가 쌍으로 나는구나.
아름답고 유명한 별장 즐거움을 허락한 듯
사는 사람 맹세코 말을 잊지 못하리라.

洞口深深雲作門
古來泉石別盤痕
秦城築日曾餘物
禹鑿當時得導源
奔流百里清川濶
盤錯千秋劫雨翻
此間應有考槃樂
故使行人指點言

石澗(석간)

골짜기 입구 깊고 깊어 구름이 문을 만드니
예로부터 자연에는 특별한 반석에 흔적 있었네.
진나라 성 축조하던 때는 남는 물건이었으나
우임금 살피던 당시는 근원으로 인도했다오.
백 리를 어지럽게 흘러가는 맑은 시내는 드넓어
천추의 세월에 뒤섞여 많은 비에 뒤집혔으리라.
이 사이에 은거(隱居)하는 즐거움이 있어
행인을 가리키며 말하겠지.

杖藜徐步過雲門
一逕依稀戴舊痕
石立怪奇無俗狀
泉流活潑見眞源
日華鮮晶斯間動
風色清涼這上翻
峽叟樵兒能識否
晚來自得付詩言

菊下(국하)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 운문을 지나니
한 길은 희미하게 옛 흔적을 의지하고 있네.
바위는 서서 괴이하게 속세의 모양이 없고
샘물은 흘러 활발하게 참 근원을 보여주는구나.
해는 화창하여 고운 수정 빛이 이 속에 발하고
풍경 빛은 청량하게 이 위에서 바뀌네.
골에 늙은이와 나무하는 아이는 이를 아는가?
저녁 되자 스스로 깨달음을 시로 읊나니……

仙居佛氣關雲門
奇石寒泉漱篆痕
錦蘚晶瑩侵滑履

신선 살고 부처 기운 있는 운문이 열리니
기이한 바위와 찬 샘물은 글씨 흔적 양치질하네.
비단이기 수정처럼 빛나 미끄러운 신발에 침범하고

玉波紺碧鑑清源
秋光關辣蒼苔老
夏雨禡褙白鳥飜
想得居然歸我有
清堪謀耳片堪言

晚翠(만취)

옥 물결 검푸른 옥 같아 맑은 근원을 보여주누나.
가을빛에 다락문 닫혀 푸른 이끼에 늙어가고
여름비에 깃털이 나 흰 새가 날갯짓하는구려.
은근히 나의 거처로 돌아갈 생각 하자니
청량함을 도모할 뿐 말하기 어렵구나.

烟霞洞府關雲門
人過百年尚有痕
白石蒼苔留李篆
落花流水似桃源
魚聽琴韻峨洋古
鳥下碁盤日月飜
恨不此生茅棟結
回頭塵白欲無言

滄農(창농)

안개 낀 골짜기에 운문이 열렸으니
사람은 백 년이 지나도 오히려 흔적 남겼구나.
푸른 이끼 흰 바위에 이형익(李衡翼)이 글씨 남겼고
흐르는 물은 꽃잎 떨어져 도원(桃源) 같구나.
물고기는 아양곡(峨洋曲) 거문고 곡조를 듣고
새는 세월이 흐른 바둑 두던 반석에 내려앉네.
이곳에 나서 멋짐 짓지 못함을 한하나니
속세로 머리 돌리면 말하지 않으려 한다오.

36

白雲山門
泉飛下石留痕
何彼清清也皓皓白
千年瘦骨萬里長源
誰能撼我牢牢志
風不 打雨不飜
於斯自得逍遙趣
慎勿傳余非是言

東溟(동명)

흰 구름 어린 산의 문에
샘물 휘날려 떨어지니 바위에 흔적 남았네.
어찌 저리 맑고도 맑으며 희고도 하얀가?
천 년의 마른 뼈 만 리 멀리에 근원 하였으니
누가 나의 강직한 뜻을 흔들 수 있을까?
비바람 치나 치지 않으나 바뀌지 않는다네.
이에 소요하는 뜻을 자득하였으니
삼가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리라.

漁城田上有雲門
泉石淙淙過雨痕

어성의 전답(田畝) 옆에 운문이 있으니
샘물은 바위에서 흘러 빗물 흔적이 있네.

別業誰云輞川界	별장에 누가 망천(輞川)의 경계 ³⁸⁾ 를 이야기했나?
名區知是武陵源	명승지인 이곳이 무릉도원임을 알리라.
洋洋盈耳清音奏	맑은 음악 연주가 귀에 가득 넘쳐흐르고
鑿鑿孱顏細浪翻	가는 물결 속에 높은 산 비추어 보이네.
恐汚俗塵頻嗽口	자주 입에 올려 속세의 때에 물들까 두려우니
於人最可不能言	남에게 말하지 않음이 가장 좋아라.
竹翁(죽옹)	

居然泉石鎖雲門	의연한 자연은 운문을 걸어 잠그고
竹下苔連依舊痕	대나무 아래 이끼는 옛 흔적과 이어 있네.
水落寒沙精鑿色	물 떨어지는 찬 모래는 깨끗이 씻은 빛이요
鑑開半畝活來源	거울 열린 반이랑은 활수가 오는 근원이라도.
爐峰藏屋人烟起	향로봉(香爐峰)은 집을 감추어 연기만 일고
高積倒江夕照巖	고적치(高積峙)는 강에 비쳐 석양에 빛나는구나.
那得尋眞深入意	어찌 진경을 찾아 깊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
漁樵指點到今言	어부와 나무꾼은 손으로 가리켜 지금도 말을 하네.
寄隱(기은)	

竇泉盤石踞雲門	바위구멍 샘물에 반석은 운문에 걸터앉아
滑膩不曾經斧痕	매끄러워 일찍이 도끼 흔적 지난 적 없으라.
若有米卽先拜丈	만약 양식 있으면 먼저 어른 찾아뵈 텐데
未知漁子更尋源	어부를 알지 못하니 다시 근원을 찾네.
玉含遐谷清輝發	옥을 머금은 먼 계곡은 맑은 광채 발하고
壁近長江返照翻	절벽 가까운 긴 강은 되돌아 빛이 비춘다.
看見刻書懷古蹟	새겨진 글자 보며 옛 자취 생각함에
此山一岸亦堪言	이 산 한 절벽 또한 말할 만하다네.
素軒(소헌)	

38) 망천(輞川)의 경계: 당대의 대시인이자 문인화가인 왕유의 별장과 주변 경관을 이르는 것임.

洞口泉甘石作門
 頽碑傾塔尚餘痕
 盤谷土肥歸李愿
 武陵春晚訪桃源
 賢人陳跡丹書在
 古寺遺墟碧海翻
 嗟呼壯士去何處
 水自潺潺山不言
 文式(문식)

골짜기 입구에 샘물은 달고 바위는 문을 만들었는데
 쓰러진 비석과 기운 탑은 여전히 흔적 남았네.
 반곡(盤谷)은 토양이 비옥해 이원(李愿)이 은거했고
 무릉(武陵)은 봄이 다해 도원(桃源)을 찾았대요.
 어진 사람이 베푼 자취에 붉은 글씨 남아있고
 옛 절의 남은 터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린다.
 아! 장사(壯士) 어느 곳으로 갔는가?
 물은 스스로 잔잔하고 산은 말이 없구나.

千年古寺是雲門
 泉石猶存舊日痕
 怪怪奇奇多佛態
 潺潺曲曲達眞源
 上流洗鉢孤僧去
 古局踈棋落子翻
 往跡蒼忙無問處
 斜陽啼鳥解人言
 齊根(제근)

천년의 옛 절이 운문이니
 샘과 바위는 여전히 옛 흔적 있어라.
 괴이하고 기이하게 부처님 모양 많고
 잔잔한 골마다 참된 근원에 이를 수 있네.
 상류에서 사발 씻던 외로운 승려는 떠났고
 옛날 바둑 두던 성근 바둑판에 열매 떨어져 구르네.
 옛 자취 물을 곳 없음에 아득히 서글픈데
 지는 해에 우는 새가 사람 말 이해하누나.

白雲深處是雲門
 泉石依然萬古痕
 他山淑氣千秋色
 活水精神百里源
 潺潺澗溪琴聲和
 鑑鑑磐牙玉色翻
 知是前人多愛惜
 至今猶有誦來言
 敬堂(경당)

흰 구름 깊은 곳이 운문이니
 샘물과 바위는 의연히 만고에 흔적이 있네.
 저 산의 맑은 기운은 천추의 빛이요
 살아 있는 물의 정신은 백 리의 근원이라.
 시냇물은 잔잔한 흐름 거문고 연주와 어울리다가
 너럭바위 엇갈림에 흐름 부딪혀 옥빛이 뒤집힌다.
 옛사람 애석하게 여김이 많은 줄 아나니
 지금에 오히려 암송하던 것 와서 이야기하네.

名區泉石近雲門
滌瘦形容過雨痕
幾多俗客題詩品
可愛前人學道源
別有山中因勝槩
曲流林下更回巒
禽聲春色紅塵外
蔡老文章與共言

漢奎(한규)

샘물과 바위는 명승지인 운문에 가까우니
파리한 모습 씻어 비 지나간 흔적 같네.
얼마나 많은 속세의 객이 시를 지어 평하였나?
옛사람의 도를 배운 근원은 사랑할 만하다.
산속에 별도의 세계가 있음은 승경(勝景) 때문이요
숲 아래에서는 굽어 흐르다 다시 돌며 뒤집히네.
새 소리와 봄 경치는 세상 밖의 일이니
채팽윤(蔡彭胤)이 문장과 함께 말하였구나.

天藏地秘作雲門
泉石居然有古痕
冬出蘇仙歌赤壁
春來漁客問桃源
龍蟠虎伏形容怪
金躍壁沉影子巒
十里蒼苔多小景
箇中難與俗人言

復來(복래)

하늘과 땅이 감추어 운문을 만들어
샘물과 바위에 의연히 옛 흔적 남겼구나.
겨울에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가 나왔고
봄에 어부가 도원(桃源)을 물어 찾아왔다오.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모양 괴이해
금빛 빛나고 옥이 잠겨 있는 그림자 어리네.
십리에 푸른 이끼 소소한 경치 있으니
그 속에는 속세 사람의 말을 함께 할 수 없어라.

雲門泉石繞山門
肇錫嘉名訪古痕
蹲虎蟠龍開別界
跳珠噴玉發洪源
貪廉豈有人情變
甲乙曾經歲月巒
上有香庵奇絕處
于今記得古傳言

駿秉(준병)

운문의 샘물과 바위는 산의 문을 두르고
아름다운 이름 처음으로 지어 옛 흔적 찾았네.
웅크린 호랑이 서린 용이 별세상 열고
튀는 구슬 토한 옥이 넓은 근원을 발하였어라.
탐욕이 청렴하게 변함이 어찌 인정이 변해서라?
갑을의 순서 일찍이 세월의 변함에
위에는 향로암의 빼어난 곳이 있으니
이제야 옛날 전하는 말 얻었구려.

石磐泉洌古雲門
 三字侵巖不蝕痕
 萬玉參差猶見勢
 兩峰瀉出可尋源
 犬牙如錯深根固
 龜鑑無塵倒影翻
 這裡誰知風景好
 聊將奇怪向人言

昇栢(승우)

너럭바위 샘물 흐르는 곳이 예로부터 운문이니
 세 글자 바위에 써 넣은 흔적 지워지지 않았네.
 만가지 옥은 들쭉날쭉 오히려 세를 드러내고
 두 봉우리 사이로 물 흘러 근원을 찾을 수 있어라.
 개이빨처럼 들쭉날쭉 섞인 깊은 뿌리 견고하고
 거북등 같은 바위 보니 티 없는 그림자 아른거리네.
 이 속에 풍경 아름다운 줄 누가 알겠나만
 애오라지 기괴한 풍경이 사람에게 말하리라.

香爐巖下有雲門
 白石清泉特著痕
 次第奇形題甲乙
 上頭活水有眞源
 隕星昔日蒼穹濶
 歸海他時碧痕翻
 巖額猶存司馬筆
 照然陳跡後人言

基復(기복)

향로암(香爐庵) 아래에 운문이 있으니
 흰 바위와 맑은 샘이 특별히 은적 드러내었네.
 차례대로 기이한 모양 갑을을 다두고
 상류의 살아있는 물 참된 근원이 있어라.
 옛날 별 떨어진 푸른 하늘은 넓고
 다른 때 돌아간 바다 푸른 흔적 일렁인다.
 바위 머리에는 사마(司馬)의 글씨³⁹⁾가 남아 있고
 환하게 펼쳐진 필적이 후인에게 말을 하네.

兩岸青山雲出門
 中臨泉石不磨痕
 千年題品多奇狀
 百里沿流見本源
 漁翁垂釣銀梭躍
 文士登臨筆陳翻
 寓目斯間眞趣足
 有時嗽玉可堪言

양쪽 언덕의 푸른 산은 구름이 문에서 나오고
 가운데 샘물과 바위는 흔적 지워지지 않았네.
 천 년 동안의 풍평 속엔 기이한 형상 있고
 백 리를 따라 흐르는 물은 근원을 볼 수 있구나.
 어옹(漁翁)이 낚시 드리우니 은빛 북이 뛰고
 문사(文士)가 오르니 필적이 펼쳐진다.
 이 사이에 눈을 두니 참된 맛이 족하여
 때로 옥을 흐르는 물을 말 할 만하네.

39) 사마(司馬)의 글씨: 녹은(鹿隱) 이형익(李衡翼)의 쓴 '운문암(雲門庵)' 세 글자를 말한다.

기성(基成)

始觀一景自雲門	운문으로부터의 경치 이제야 보니
臨水層巖帶舊痕	물 옆의 층층의 암벽은 옛 흔적 남아 있네.
能耐風霜經浩劫	풍상에도 인내하고 오랜 세월 지나왔나니
不休晝夜得眞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참된 근원 찾을 수 있구나.
頭頭列立山根錯	머리마다 늘어선 산이 뒤섞여 있고
曲曲鳴來玉影翻	골짜기마다 울려오는 옥 그림자 어리네.
昔日禪菴墟尙在	옛날 절 암자 터는 아직도 있으니
今人指點以傳言	요즘 사람이 가리키며 말을 전하는구나.

昌楫(창우)

何嘗禹斧導雲門	어찌 일찍이 우부(禹斧) ⁴⁰ 가 운문으로 이끌었나?
矗立潺流邃古痕	우뚝 선 바위 잔잔히 흐르는 물 깊이 옛자취 있네.
一見能知顛米芾	한 번 보니 먼저 미불(米芾)의 서체임을 알고
遍尋猶似辨桃源	두루 찾으니 오히려 도원(桃源)을 찾는 듯하네.
漱餘氣味茶甌爽	양치질 후에 맛은 차사발처럼 시원하고
棋罷風儀羽袂翻	바둑 둔 후에 풍모는 신선 옷소매 휘날렸네.
從古膏肓醫不得	예로부터 고향(膏肓) ⁴¹ 치료했음을 듣지 못했으니
遊人到此復奚言	노니는 사람 여기에 이름을 다시 어찌 말하랴?

黃崑(황곤)

翠壁浮雲鎖洞門	푸른 절벽에 뜬구름은 골짜기 문을 잠그고
泉流噴玉石苔痕	흐르는 물이 뿜는 옥구슬 바위에 이끼 흔적 만드네.
龜形削出神功力	거북 모형은 귀신 공력으로 빗어냈고

40) 우부(禹斧): 우 임금이 가지고 있던 도끼를 말한다. 우 임금이 천하 하천(河川)의 물길을 다스릴 적에 이 도끼로 용문산(龍門山)을 끊어 물길이 통하게 하였다고 하며, 중국 전체를 구주(九州)로 나누어 다스렸다고 한다. 『淮南子』

41) 고향(膏肓): 심장의 아래쪽과 횡격막의 윗부분 사이로, 인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 병이 생기면 낫기 어렵다. 불치병의 뜻으로 쓰임.

漁城十景唱和詩

雲影徘徊活水源	구름 그림자 살아있는 물 근원을 배회하는구나.
山下孤菴桑海變	산 아래 외로운 암자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했고
岩頭刻字筆花翻	바위 머리에 새긴 글자는 붓의 꽃이 어렸어라.
烟波十里清溪上	안개의 물결 10리의 맑은 계곡 가에
翫客逍遙可與言	감상하는 나그네 거닐며 이야기할 만하다오.
炳濟(병제)	



3. 烏峴烟樹

오현(烏峴)의 안개 낀 나무



峴樹深含重翠烟
 居人鑽燧幾多年
 垂楊帶綠依朝日
 芳草暖青和遠天
 聽去乃知禽語處
 看來不辨鶴巢邊
 長條特許秋千戲
 每到禁烟作半仙

龍洲(용주)

고개의 나무는 깊이 짙푸른 안개를 머금어
 사는 사람 불씨 만듬이 그 얼마였던가?
 수양버들은 푸른빛으로 아침 태양에 의지했고
 꽃다운 풀은 별에 푸르러 먼 하늘에 조화롭네.
 들으며 가면 새 우는 곳을 알 수 있으나
 보며 와도 학 둥지 주변을 구분하기 어렵구나.
 긴 가지는 특별히 그네 놀이를 허락하여
 항상 한식(寒食)에 이르면 반은 신선이 되네.

烏啼峴樹碧生烟
 滿地繁陰日似年
 翠且幾重迷遠洞
 蒼然一色共長天
 林疎晝暖輕籠際
 柳綠朝來更無邊

까마귀 우는 고개 푸른 나무에 연기 생기면
 온 땅에 음기 가득하면 하루가 일 년 같네.
 푸르고 또 몇 겹으로 먼 골을 희미하게 하였나?
 푸르게 한 빛으로 긴 하늘과 같도다.
 숲 성글고 날 따듯해 가벼이 두른 때에는
 버들 푸르른 아침이 와도 다시 주변이 없다오.

龐隱鹿門如許否 방덕공(龐德公)이 은거한 녹문(鹿門)⁴²을 허여하는가?
可接賢者不宜仙 어진 사람 살 만하나 신선은 마땅하지 않으리라.
星史(성사)

鳥巒碧樹滿籠烟 오현의 푸른 숲 가득 연기가 들렸으니
遙憶山人舊隱年 아득히 산 사람 옛 은거하던 때를 생각하네.
滴滴翠嵐含暮景 방울방울 푸른 산 기운 저녁 풍경 머금었고
濃濃佳氣接春天 무성한 아름다운 기운 봄 하늘과 접하였네.
尋巢孤鶴來雲裡 등지 찾는 외로운 학 구름 속에 오고
翻葉寒鴉返日邊 날리는 잎에 찬 까마귀는 태양 가에서 돌아온다.
最是林間斜照際 숲 사이의 햇빛 사이에 가장 좋은 것은
樵歌一曲望如仙 나무꾼 노래 바라보는 신선과 같네.
南崗(남강)

烟籠於樹樹籠烟 나무에 연기가 두루고 나무가 연기를 두루니
看似霧花對老年 보니 마치 안개꽃 같아 늙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같네.
萬朵浮濃長護地 만 갈래로 떠서 무성하게 오래도록 땅을 보호하고
百梢中鬱半遮天 백 가지 속은 울창하여 반쯤 하늘을 가렸어라.
夕陽山色翻紅裡 석양의 산색 붉은 노을 속에 바뀌고
朝雨溪聲漲綠邊 아침 비에 계곡의 소리 푸른 시냇가에 번져가네.
指點景光烏峴下 오현 아래의 광경을 손가락으로 가르킴에
居人炊樂不求仙 사는 사람 밥 짓는 즐거움에 신선을 구하지 않는다.
東溟(동명)

峴南樹色滿籠烟 오현 남쪽은 나무색이 가득히 둘러 안개 끼니
眼界依迷亦老年 시계가 희미함은 또한 늙어서이겠지.
下擁閭閻低撲地 아래는 여염집을 안아 땅 가득 낮게 있고

42) 녹문(鹿門): 은자가 사는 곳을 뜻하는 말이다. 후한(後漢) 말엽의 고사(高士) 방덕공(龐德公)이 녹문 산(鹿門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일생을 마쳤던 데서 유래한다.

上探星斗近參天
亂帆踈雨滄溟外
遠店斜陽漢水邊
澗戶巖扉開一逕
可藏高躅伴遊仙
秋曉(추원)

위는 별들을 탐하여 하늘을 아울러 가깝네.
푸른 바다 바깥에 성근 비가 뭇배를 어지럽히고
한수(漢水) 옆 석양에 주점을 멀리하노라.
시내의 문은 바위를 사립문으로 하여 한 길이 열려
높은 자취는 노니는 신선을 짝하여 은둔할 만하네.

峴樹蒼蒼日暮烟
南飛烏鳥昔何年
疑雲爲雨終歸峽
似鶴非鴉便上天
北極群山千萬疊
東溟三島有無邊
深林掩翳迷歸所
不知何處訪隱仙
小山(소산)

오현의 나무 푸르고 푸른데 석양에 안개 끼니
남쪽으로 까마귀 난 것은 옛날 몇 년이었나?
구름은 비가 되어 끝내 골짜기로 돌아가는 듯하고
학은 까마귀 아니라 문득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하네.
북쪽 끝까지 여러 산은 천만 겹이요
동쪽 바다 세 섬은 있고 없는 한계가 없구나.
깊은 숲이 가려 돌아갈 곳 희미하니
어느 곳에서 숨은 신선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

鳥峴朝朝暮暮烟
烟間樹老不知年
雲重林暗疑無路
風拖峰回更別天
一杖僧歸空寂界
十家人在綠蒼邊
看來幽興成爲癖
欲學灘頭赤鯉仙
錦樵(금초)

오현의 아침과 저녁마다 안개가 끼어
안개 사이 숲은 늙어 나이를 모르겠네.
구름은 무겁고 숲은 어두워 길 없나 의심하고
바람 불어 봉우리 도니 다시 별천지를 이루었네.
한 지팡이에 스님은 자취 없는 세계로 돌아가고
십여 인가 푸르고 푸른 주변에 있구나.
보며 오는 그윽한 흥에 고질병이 되어
여울머리에서 붉은 잉어 신선을 배우고자 하네.

峴樹翠籠裊裊烟
閑雲野鶴不知年

오현 숲은 푸른데 간드러진 안개가 둘러
한가한 구름과 들판의 학은 나이를 모르네.

松森檜老群山畔
嵐滴霞流一洞天
繁陰交映深深處
爽籟自生落落邊
林壑東南真可愛
品題時景坐詩仙

石樵(석초)

못 산 언덕에 소나무 울창하고 회나무 늙어
한 골짜기 하늘은 아지랑이 방울지고 노을 흐른다.
깊고 깊은 곳은 번성한 그늘 교대로 비추고
홀로 떨어진 주변은 상쾌한 소리 저절로 생기네.
숲 계곡 동남쪽은 참으로 사랑할 만하니
때로 경치를 폼평하며 앉아 있는 신선이로구나.

渴鳥峴樹繞蒼烟
還似霧中老去年
細含千條迷尺地
遙看一色共長天
化域昇平今有像
幽人清趣更無邊
景光最好斜陽裡
幾箇世間火食仙

近溪(근계)

메마른 오현(鳥峴)의 나무에 푸른 안개가 둘러
흠사 안개 속에 늙어가는 것 같구나.
가늘게 머금은 천 가닥에 한 치 앞 땅도 희미하고
멀리 보이는 한색은 긴 하늘을 함께 하였네.
혜택받은 땅이라 편안하여 지금 기상이 있으니
그윽한 사람의 맑은 정취 다시 가없다오.
풍경 가장 좋은 석양 속에서
세상에 몇 사람이나 화식(火食)하는 신선이런가!

46

烟含樹色樹含烟
鬱翠不分松栢年
鳥亂尋沒喧落日
雲歸失擁逗暝天
帶返碧柳千絲外
啼盡青山一幅邊
況是森森齊九點
無垠下視玉清仙

안개가 나무색을 머금고 나무는 안개를 머금어
울창하고 푸르니 소나무와 잣나무를 분간 못하네.
새는 어지러워 깊이 잠겨 석양에 시끄럽고
구름은 돌아가며 흩어져 저무는 하늘에 머물렀네.
푸른 버들 천 개의 실 밖으로 깔린 안개 걷히고
청산은 한 폭의 풍경 옆에 새 울음 그쳤구나.
하물며 울창한 숲도 구점(九點)의 연기⁴³⁾일 뿐이니
끝없이 옥청(玉淸)⁴⁴⁾의 신선을 내려다본다오.

43) 구점(九點)의 연기: 중국의 구주(九州)도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면 아홉 개의 운무 덩어리로 보인다는 말인데, 풍진세상을 가리킨다. 당(唐)나라 이하(李賀)의 시 「몽천(夢天)」의 “遙望齊州九點煙”에서 비롯된 것이다.

44) 옥청(玉淸): 도교에서 말하는 선경(仙境)인 삼청(三淸)의 하나. 또는 그 선경에 있다는 세 존신(尊神)

峴愚(현우)

蔚彼峴頭萬樹烟	울창한 저 오현 머리의 숲에 안개 끼어
風霜閱歷幾多年	풍상을 겪어 온 것이 그 얼마의 세월인가!
斜陽十里迷山逕	석양(夕陽) 십 리에 산길이 희미하고
細雨三時覆洞天	가랑비는 세 계절 ⁴⁵⁾ 내내 골짜기 하늘을 덮는다오.
此屋相連叢影裡	모두 그림자 속에서 이 집이 서로 이어지고
行人不絕綠陰邊	녹음 가에서 지나는 사람 끊이지 않는구나.
自何鍾落虛無界	어찌 종소리는 허무한 세계로 사라지는가?
欲向西峰問智仙	서쪽 봉우리로 향하려 하며 지혜로운 신선을 묻는다.

笑堂(소당)

渴鳥飲啄飽人烟	배고픈 까마귀 인가에서 먹고 배 불리고
峴樹借棲今幾年	오현의 나무 빌려 산 것이 그 얼마인가?
重翠村容如近市	거듭 푸른 마을의 모습은 저자와 가까운 듯하고
生寒野色欲低天	일어나는 차가운 들 빛은 하늘 아래 잠기고자 한다.
溪娥汲水斜陽裡	기운 별에 시냇가 예쁜 처녀는 물을 기르고
野客隨陰暮雨邊	저녁 비에 들 나그네는 그늘을 따라가는구나.
這裡幽居多癩癖	이 속에 그윽이 거처하면 고질병도 많아
此山知有學神仙	이 산에서 신선을 배움이 있음을 알리라.

雪隱(설은)

參差烏峴樹籠烟	들쭉날쭉 오현(烏峴)의 나무를 안개가 들렀고
三五爲家地百年	십여 채의 인가는 백여 년이 되었어라.
纖隨風力平低地	평평히 낮은 땅에는 바람의 힘에 고운 모습 따르고
散作雲態半上天	반쯤 위로 보이는 하늘엔 구름 모습 흩어지네.
今古文章抽弗聿	고금의 문장은 붓 아닌 것에서 나왔고

의 하나. 삼청은 옥청원시천존(玉清元始天尊), 상청영보천존(上清靈寶天尊), 태청도덕천존(太清道德天尊).

45) 세 계절: 봄, 여름, 가을을 이룸.

暮朝氣像漲無邊 아침저녁의 기상은 가없이 펼쳐지는구나.
 閑中滋味誰優得 한가한 속에 맛을 누가 잘 얻을 수 있나?
 大福人間火食仙 큰 복 누린 사람이 화식(火食)하는 신선이라도.
 蓮宇(연우)

峴樹重重籠抹烟 오현의 나무 첩첩히 안개가 끝을 둘러
 風光旖旎亦多年 깃발 나부끼는 듯한 풍광 오래도 되었네.
 依山翠滴雲深處 산을 의지하여 비취색으로 방울진 구름 깊은 곳이요
 近水靑連草色天 물 가까이 푸른색 이어진 풀빛의 하늘이라.
 淺黛微茫渾不識 열은 눈썹처럼 희미하여 모두 알 수 없으니
 高陰的歷忽無邊 높은 그늘의 선명함은 홀연 끝이 없네.
 居人籬落棲其下 사는 사람 그 아래에 울타리 들렀으니
 朝暮漁霞便學仙 아침 저녁의 노을에 문득 신선을 배우네.
 素山(소산)

48

峴鳥繞樹帶秋烟 오현을 두른 나무에 가을 안개 내림이
 巢隧山光滴萬年 봉홧불 같은 산빛에 만 년 도록 방울졌네.
 楓葉淺黃濃滿地 단풍잎은 옅은 황색으로 온 땅을 물들였고
 檜松凝翠直參天 회나무, 소나무는 푸르름으로 삼천(參天)⁴⁶⁾에 곧구나.
 龍眼莫狀丹青裡 단청(丹青) 속에 용의 눈 형용할 수 없고
 鳥語猶聞隱映邊 그늘 비춘 가에 새 소리 들리는 듯하다.
 一抹夕陽梢外盡 한 번 눈 비비니 석양은 나무끝 밖으로 다하고
 白雲斜路下樵仙 흰 구름 기운 길로 나무꾼 신선이 내려오네.
 白又(백우)

烟非眞樹樹非烟 안개에 진짜 나무 아닌 듯하고 나무도 안개 없는 듯
 英英奇狀幾多年 영롱하고 기이한 모양 얼마나 많은 세월 흘렀나?

46) 삼천(參天): 하늘을 말한다.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옛날 성인이 『역』을 지을 적에……하늘에서 3의 숫자를 취하고 땅에서 2의 숫자를 취하여 수를 붙였다.[昔者聖人作易也……參天兩地而倚數.]” 라고 하였다.

雲箔飄揚開畫境
霞紗隱映掩藍天
覽物閑筇遊賞後
清風獨鶴往來邊
別界必有非常應
誰識那時不降仙

龔岩(농암)

구름발은 표풍에 드날려 그림 같은 경계를 열었고
노을 깃은 은근히 비추어 쪽빛 하늘을 가렸네.
사물을 보며 한가롭게 지팡이 짚고 노닐며 감상하니
맑은 바람에 외로운 학은 왕래하는 주변에 있구나.
별세상은 반드시 특별한 응함이 있으니
어느 때 신선이 내려오지 않을 줄 누가 알까?

漁城南望接人烟
鳥啄泉甘羅濟年
經霜紅葉明秋谷
映日晴絲媚遠天
古木荒藤鳴鹿外
陽坡軟草臥牛邊
自憐十載紅塵客
高積孤臨問洞仙

蕉史(초사)

어성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니 인가 연기 접하고
까마귀 단 샘물 마시고 비단 경치에 해를 보내네.
서리 맞은 붉은 잎은 가을 계곡을 밝히고
해 비치자 아지랑이 먼 하늘에 아름답구나.
고목과 황폐한 등나무숲 밖으로 사슴 우는 소리 있고
양지마른 언덕 부드러운 풀 주변에는 소가 누워있네.
십 년 동안 속세의 나그네 됄이 가련하니
높게 쌓인 어덕에 홀로 가 골짜기 신선을 묻는다오.

峴鳥蒼蒼綽細烟
烟間老樹不知年
欹如翠盖抹秦道
籠作青紗入楚天
還巢飛鳥徘徊際
尋路行人指點邊
此地居民耕且讀
三分事業十分仙

石下(석하)

오현은 푸르고 푸른데 미세히 가는 안개 끼어
안개 사이의 늙은 나무는 나이를 분간하기 어렵네.
기운 듯한 푸른 지붕은 진(秦)나라 길로 돌아가고
둘러서 푸른 깃 만들며 초(楚)나라 하늘로 들어간다.
나는 새가 배회하는 사이에 등지로 돌아오고
행인은 가리키는 주변에서 길을 찾는구나.
이곳에 사는 사람 밭 갈고 글 읽으니
셋으로 나뉜 사업 모두 신선 같아라.

我看鳥峴樹籠烟

내 보니 오현 나무에 안개가 둘러

氣像有占快活年	기상으로 짐을 치니 좋은 해 보내겠네.
初從葉低斜平地	처음에 나뭇잎 아래로부터 평지에 기울더니
更向枝頭結半天	다시 나무 끝을 향하여 반쯤 하늘을 가렸구나.
青歸堯野月明裡	달 밝은 속에 푸르름 요(堯) 임금 들로 돌아가고
綠入洛城雲影邊	구름 그림자 옆에 녹음은 낙양(洛陽)으로 들어간다.
居民耕鑿生涯足	사는 사람 먹고사는 생애가 풍족하면
自是人間火食仙	이로부터 사람은 화식(火食) 하는 신선이리라.

松隱(송은)

50

二景烏峰裊裊烟	두 경관의 오봉(烏峯)에 간드러진 안개 끼고
烟間林樹亦多年	안개 사이 나무숲 또한 오랜 세월 되었구나.
青紗步障連三里	청색 비단 보장(步障) ⁴⁷⁾ 이 삼 리(里)에 이어지고
碧玉欄干起半天	푸른 옥 같은 난간은 반쯤 하늘로 솟았네.
一帶橫圍山欲斷	한바탕 펼쳐져 에워싼 산은 끊어지려 하는데
千重稠疊野無邊	천 겹으로 겹쳐진 들은 끝이 없어라.
行人望氣難尋跡	행인들 기미를 바라보고도 자취 찾기 힘드니
疑有山中煉藥仙	아마 산속에 단약(丹藥) 만드는 신선 있나보다.

迂軒(오현)

遙看烏峴樹如烟	멀리 오현을 바라보니 숲은 안개와 같고
烟樹蒼蒼幾度年	안개 숲 푸르고 푸르게 얼마의 세월 보냈나?
容與暫登雲半壑	구름 반쯤의 골짜기 용납한 듯 잠시 오르니
浪吟飛下洞中天	골짜기 속 하늘에서 시 읊는 소리 쏟아져 내린다.
翠微滴滴森羅處	푸른 산 펼쳐진 곳에 빗 방울지니
白日遲遲縹緲邊	대낮에도 아득하여 더디고 더디네.
自是遊人行樂地	이렇게 노니는 사람 즐기는 곳으로부터

47) 보장(步障): 옛날에 귀인(貴人)이 출행(出行)할 때에 바람과 먼지를 가리기 위하여 길 좌우에 천 휘장을 말하는데, 진(晉)나라 때 부호(富豪)인 석송(石崇)이 너무도 사치스러워서 50리 길이의 비단 보장을 만들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汰侈』

塵心庶幾近神仙 때 묻은 마음이 거의 신선(神仙)이 되었다오.
南溪(남계)

烏啼樹綠晚含烟 까마귀 울고 푸른 숲은 늦도록 안개 머금었는데
唯有長松不記年 오직 장송(長松)은 나이를 알 수 없구나.
蒸霧繞侵空哺月 두터운 안개가 둘러 공연히 달을 먹으니
歸雲擁蔽謾遮天 돌아가는 구름이 끼어 멋대로 하늘을 가렸구나.
花開細雨三春裡 가는 비 내려 꽃 핀 삼월 봄 속에
家住斜陽十里邊 석양에 집은 십 리가에 있다오.
眼下青浮齊九點 시선 아래에 푸른 빛이 대부분이라
欲隨閑鶴伴神仙 한가로운 학을 따르려 하니 반쯤 신선이라네.
退齋(퇴재)

烏峴樹林鎖翠烟 오현의 숲이 푸른 안개를 가두어
種期記得百餘年 그런 시간이 백여 년이 되었구나.
細嵐常礙晴朝日 가는 산 기운은 아침의 개인 해에 항상 막히고
淡靄多生不雨天 담담한 아지랑이 비 내리지 않은 하늘에도 많네.
鶯歌鶯語深深裡 깊고 깊은 속은 앵무새 노래와 제비 지저귀고
犬吠鷄鳴隱隱邊 은은한 주변은 개 짓고 닭 우는구나.
隱下若存長醉石 은둔 한 속에 오래 취한 바위처럼 있다면
遊人便作酒中仙 노니는 사람이 문득 주중선(酒中仙)이라 하리라.
訥庵(늘암)

烟籠寒樹樹籠烟 안개는 찬 숲을 두르고 숲도 안개를 둘러
一色蒼蒼不盡年 한 빛으로 푸르고 푸름은 온 해가 아니라오.
暮朝鎖燧居人宅 사는 사람의 집엔 아침저녁으로 불씨 감추고
雨露發榮舊國天 오랜 나라의 하늘엔 비와 이슬이 꽃을 피우네.
夕陽影落青山裡 석양에 푸른 산속은 그림자가 지고
夏日陰濃綠水邊 여름 해는 푸른 물결 가에 녹음이 질구나.

密葉疎枝凝九点 뽕뽕한 잎과 성근 가지엔 아홉 운무 덩어리가 엉겨
 望之如見玉清仙 멀리서 바라보면 옥같이 푸른 신선을 보는 듯하네.
 石澗(석간)

碧樹重重滿帶烟 푸른 나무 겹겹하고 안개는 한가득 들렀는데
 居人此地幾多年 이 땅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세월 보냈나?
 交窓繁影因朝旭 창에 교차한 무성한 그림자는 아침 해 때문이요
 繞郭濃陰暗暮天 둘레를 두른 무성한 그늘은 저녁 하늘에 어두워지네,
 樵客路通緣這裡 이 속에 나무꾼의 길이 통하고
 野禽棲定噪其邊 그 옆에서 시끄러운 들새가 산다오.
 忽聞遠遠笙簫裡 갑자기 아득히 들려오는 피리 소리 속에
 疑是來遊鶴上仙 학 옆에 신선이 와서 노니는지 의심한다오.
 菊下(국하)

52

烏峴村前碧樹烟 오현 마을 앞 푸른 숲에 안개 끼어
 山中甲子木知年 산중에 세월은 나무가 나이를 아네.
 數家砧杵依林壑 몇 집의 다듬이 소리는 숲 골짜기에 의지했으니
 萬劫風霜護洞天 만겁의 풍상 속에 골짜기 하늘 보호하였구나.
 龐老庄迷秋水外 가을 물 멀리 큰 늪은이 농막 희미하고
 薊門城失夕陽邊 석양 가는 계문(薊門)⁴⁸⁾의 성(城)을 잊어버렸구나.
 松雲深處低回首 소나무 구름 깊은 곳에 머리 돌려 숙이니
 往往笙歌下鶴仙 가끔 들리는 생황 소리는 내려온 신선인가?
 滄農(창농)

烏峴蒨葱一簇烟 오현에 우거진 파와 조릿대에 안개 끼니
 薊門樹色語同年 계문(薊門)의 숲⁴⁹⁾ 풍경과 같은 나이라 하네.
 濃陰圖畫平鋪地 짙은 그늘 그림이 땅에 넓게 퍼졌고

48) 계문(薊門): 청나라 수도 북경(北京)을 이르는데, 여기서서는 변화한 한양을 이름.

49) 계문(薊門)의 숲: 북경 팔경(北京八景)의 하나인 계문 연수(薊門煙樹)가 있기때문에 이른 말이다.

搖影風雲掃淨天 흔들리는 그림자는 바람과 구름에 하늘을 쓸어내네.
 碧帳掀開春雨裡 봄비 속에 푸른 장막 활짝 열렸고
 銀濤奔湧夕陽邊 석양 가에 은빛 파도 세차게 일어난다.
 綠靈若得時相遇 녹음에 신령을 때때로 서로 만나면
 就是凡夫骨也仙 곧 범부(凡夫)의 육신이 신선이 되는 게지.
 晚翠(만취)

鳥飛古峴樹末蒼烟 까마귀 나는 옛 언덕 나무 끝은 푸른 안개 끼어
 不老樹烟長在 늙지 않는 나무에 안개가 오래 있구나.
 主人行樂幾多年 주인이 즐긴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工素乎繪別有者 공교한 소질로 별세계를 그렸어라.
 天第茨戶半開風 하늘이 차례로 지붕 이어 문이 반쯤 열린 풍경이요
 一邊月一邊我自有 한쪽은 달이 뜨고 한쪽은 절로 내가 있네.
 流年逸樂君莫道 세월 지나도 빼어난 즐거움을 그대 말하지 말게
 地上仙酒中仙 땅 위의 신선이요 술 속의 신선이러니……
 東溟(동명)

峴樹蒼蒼鳥帶烟 언덕의 숲 푸르고 푸른데 까마귀는 안개에 앉았고
 花開葉落度芳年 꽃 피고 꽃잎 떨어져 꽃다운 해로다.
 濛濛似霧還籠樹 자욱한 안개 같다가 다시 나무를 둘러
 都都如雲接遠天 몽게몽게 구름 같은 것이 하늘과 접해있네.
 日照紫生香岵上 해 비치자 향로봉(香爐峰) 위로 붉은빛 생기고
 風吹靑入柳溪邊 바람이 불자 버들 시냇가에 푸른빛 도는구나.
 齊州九點知何處 제주 구점연(九點煙)⁵⁰⁾이 어는 곳인지 아는가?
 洞裡隱然若降仙 골짜기 안에 은거해 있으니 신선이 내려온 것 같네.
 竹翁(죽옹)

50) 제주 구점연(九點煙): 제주(齊州)는 중주(中州) 즉 중국으로, 중국의 구주(九州)도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면 아홉 개의 운무 덩어리로 보인다는 말인데, 당(唐)나라 이하(李賀)의 시 「몽천(夢天)」의 “遙望齊州九點煙”에서 비롯된 것이다.

鳥峴樹林濕作烟
 靜中太古畫如年
 暮山凝紫連藏壑
 芳草和青暖漫天
 好鳥啼花春色裡
 樵歌伐木夕陽邊
 繞松鎖柳深深處
 遠害朝看走角仙
 寄隱(기은)

오현의 나무숲 습하여 안개 만들고
 태고의 고요함 속에 한해가 그림 같네.
 저녁 산은 붉은빛 엉겨 골짜기로 이어지고
 무성한 풀은 푸른빛 조화로워 하늘 가득 따스하네.
 봄빛 속에 아름다운 새는 꽃 속에 울고
 석양 가에 나무꾼 노래는 나무 베며 울린다.
 소나무 두르고 버들 장막이 단힌 깊고 깊은 곳에
 아침에 해 없는 달리는 빨 달린 신선⁵¹⁾을 보리라.

林林密密樹如烟
 春滿山中長幾年
 飛伏從歸能得地
 綠青齊色可參天
 坐深滴滴晴嵐裡
 望遠蒼蒼落日邊
 欲採紫芝終不見
 道人疑是去神仙
 素軒(소헌)

숲은 뻥뻥하여 나무가 안개와 같으니
 봄 가득한 산속은 오래도록 몇 년이었나?
 비복(飛伏)⁵²⁾이 따라 돌아와 땅을 얻었으니
 녹색과 청색의 가지런한 빛을 하늘을 아울렀네.
 자리가 깊어 맑은 아지랑이 속에 물소리 일고
 전망이 멀어 석양 가에 푸르른 빛 우거졌구나.
 묵은 영지 캐려 해도 끝내 볼 수 없고
 도인은 아마 떠나서 신선이 되었는가?

蒼松翠柞雜如烟
 古老相傳近百年
 銀潭水色來幽谷
 高積山光押遠天
 慟灰經歷風霜裡
 惠澤生長雨露邊

푸른 소나무에 비췌빛 떡갈나무는 안개 같아
 옛날 어른이 서로 전함의 가까이만 백 년이네.
 은담(銀潭)의 물빛은 깊은 골짜기로 들어오고
 고적치(高積峙)의 산빛은 먼 하늘에 번쳐 있구나.
 몇 겁(慟)을 지나온 풍상(風霜) 속에
 은혜로 나고 자란 우로(雨露)의 가라네.

51) 빨 달린 신선: 두보(杜甫)의 「제장씨는거(題張氏隱居)」라는 칠언율(七言律)에, “피해가 없는지라 사슴 때가 노니는 걸 아침에 보노매라[遠害朝看麋鹿遊.]” 라는 말의 점화(點化)이다. 『杜少陵詩集 卷1』

52) 비복(飛伏): 괘상(卦象)으로 나타난 것을 비(飛),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복(伏)이라 한다. 비는 미래를, 복은 과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

別味此間多藥草 이 속에 별미의 약초가 많으니
 武陵何必訪神仙 하필이면 무릉(武陵)의 신선을 찾으랴?
 文式(문식)

依依峴樹鎖蒼烟 의젓한 오현의 숲이 푸른 안개를 가두어
 太古山光今幾年 태고의 산빛이 지금 얼마나 되었나?
 如水杳忙明月夜 달 밝은 밤은 물처럼 아득하고
 隨風濃滴夕陽天 석양의 하늘은 바람 따라 물방울 떨어진다.
 鳥語雙雙歸影裡 새는 울며 쌍쌍이 그늘 속으로 돌아가고
 樵歌隱隱自那邊 목동은 노래하며 은은히 어떤 곳에서 자유롭네.
 岸容凝紫螺鬢翠 물가의 모양은 푸른 봉우리에 노을 어러
 夸娥矜粧謾學仙 아름다움 뽐내며 멋대로 신선을 배우네.
 敬堂(경당)

鳥峴樹林帶翠烟 오현의 숲은 푸른 안개를 둘러
 星移物換幾多年 별이 옮겨가고 사물 바뀐 지 지금 얼마인가?
 暖靑芳草相和地 청색은 따스해 풀이 우거져 당과 서로 조화롭고
 帶綠垂楊掩映天 녹음의 띠는 버들에 드리워 하늘빛을 가렸구나.
 野鶴疑雲飛下處 들 학은 구름인가 의심하여 내리는 곳ियो
 居人鎖燧卜居邊 사는 사람은 불씨 감추고 사는 곳이라고.
 薊門物色應如此 계문(薊門)의 풍경 응당 이와 같으리니
 棲息閒情不遠仙 살면서 한가로운 마음 신선과 멀지 않다네.
 敬堂(경당)

鳥峴樹高積翠烟 오현의 나무에 푸른 안개 높이 쌓였는데
 此中佳景已多年 이 속에 아름다운 경치 이미 오래되었네.
 鳥聲盡日雲深處 구름 깊은 곳은 종일 새소리 울리고
 花氣空林雨霽天 비 갠 하늘에 빈 산도 꽃 기운 돈다.
 半出靑山皆這裡 반쯤 열린 청산도 모두 이 속에 있으니

捲來碧海浩無邊 말아 온 푸른 바다는 호탕이 끝이 없네.
 一抹稀迷寥寂裡 조금의 희미하고 고요한 속에
 停車指點降遊仙 수레 멈춘 곳에 신선이 내려왔다고.
 漢奎(한규)

葛烏村裡樹含烟 칙닝쿨 오현의 마을 속 숲은 안개를 머금어
 清景悠悠幾許年 맑은 경치 유유히 얼마나 많은 세월 흘렀나?
 雨露沾濡生長日 비와 이슬에 흠뻑 적셔 성장하는 날이요
 靄雲雜出太虛天 아지랑이와 구름에 섞여 나오는 때라오.
 濃陰先拂板橋上 농염한 그들은 나무다리 위에 먼저 드리우고
 淡影必從葦屋邊 담담한 그림자는 오두막 가를 반드시 따르네.
 白鶴來棲青鳥宿 흰 학이 와서 푸른 새 자던 곳에서 사니
 此間庶幾有神仙 이 사이에 거의 신선이 있으리라.
 復來(복래)

綠樹深深繞翠烟 푸른 숲을 깊고 깊게 비쭈빛 안개가 둘렀는데
 一村烏峴已經年 한 마을 오현에서 이미 한 해를 보냈네.
 鹿門誰說幽棲地 녹문(鹿門)⁵³⁾은 누가 그윽히 사는 곳이라 했는가?
 玉洞更聞別有天 옥동(玉洞)⁵⁴⁾은 별천지라는 말을 다시 듣네.
 雨後光凝芳草路 비 온 뒤에는 풀 무성한 길에 광채가 응축되고
 風前影倒碧溪邊 바람 앞에는 푸른 시냇가에 그림자 어리네.
 夕飡朝饗居人事 저녁 찬과 아침밥이 사는 사람 일이니
 平地歸來好作仙 평평한 땅으로 돌아오니 신선이 되기 좋아라.

53) 녹문(鹿門): 은자(隱者)가 사는 곳을 말한다. 한(漢)나라 말기에 현산(峴山)의 남쪽, 면수(沔水)의 물가에 방덕공(龐德公)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성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날마다 밭갈이를 하면서 지내었다. 이들 부부는 서로 간에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하였으며, 실 적에는 두건을 바르게 쓰고 단정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악기를 뜬었다. 그 뒤에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약초를 뜯으러 녹문산(鹿門山)으로 들어갔다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高士傳』

54) 옥동(玉洞): 신선이나 은자가 거처하는 암동(巖洞)을 가리킨다. 참고로 당나라 허훈(許渾)의 시 「증왕산인(贈王山人)」에 “요즈음 듣자하니 단약을 굽는 곳[近來聞說燒丹處], 옥동의 복사꽃 만 나무가 봄이라지[玉洞桃花萬樹春].” 라고 하였다. 『全唐詩 卷535 贈王山人』

駿秉(준병)

樹木參差帶翠烟	숲의 나무는 들쭉날쭉 푸른 안개를 둘렀는데
溪頭種得百餘年	계곡 머리에 자리하여 백여 년이 되었구나.
婆娑影落三更月	삼경에 달은 한가로이 그림자 드리우고
淡蕩光凝一洞天	한 골짜기에 하늘은 초연히도 빛이 어렸네.
居人第屋星星處	사는 사람의 집 드문드문 한 곳이요
高士林樊往往邊	고사(高士)의 숲 울타리 가끔 있는 곳이라고.
犬吠鷄鳴花竹散	개 짖고 닭 우는 속에 꽃과 대나무 흩어져 있나니
此間共住武陵仙	이 사이에 함께 사는 것이 무릉(武陵)의 신선일세.

昇楫(승우)

村前有樹樹生烟	마을 앞은 나무마다 안개가 이니
雨露曾沾五百年	비와 이슬은 일찍이 오백 년을 적셨어라.
十里參差溪上路	시냇가 길은 십 리에 들쭉날쭉하고
四時淡蕩洞中天	계곡 안 하늘은 사계절 초연하다.
春風楊柳鶯啼後	봄바람 버들 뒤에서 피꼬리 울고
夜月梧桐鶴夢邊	달 뜨는 오동나무 가에 학이 잠드네.
薊北鹿門疑在此	계북(薊北) ⁵⁵⁾ 과 녹문(鹿門)이 여기인 듯하니
雲窓時望坐如仙	신선처럼 앉아 안개 낀 창을 때로 본다오.

基復(기복)

烏峴村前樹立烟	오현 마을 앞엔 숲은 안개가 감돌아
古人種得已多年	옛사람이 심은 지 이미 오래로다.
秋風葉落聽疎雨	가을바람에 낙엽 지며 성긴 빗소리를 듣고
夏日陰濃掩半天	여름날 그늘 짙어 반쯤 하늘을 가리네.
一片雲山幽邃處	한 조각 구름에 산 깊은 곳에
三重茅屋隱然邊	세 겹의 초가에 은둔한 곳이라고.

55) 계북(薊北): 계주(薊州)의 북쪽 지역으로, 지금의 북경(北京) 일대에 해당한다.

枝間特許來接鶴
遯跡渾如羽化仙

基成(기성)

가지 사이는 특별히 허락하여 학이 와서 살고
숨은 자취 흐리하여 날개 난 신선 같아라.

第觀二景穿山烟
萬樹森森幾百年
露葉蒼茫時滴雨
雲林鬱密尙遮天
樵歌野豎斜陽裡
亂噪暮鴉遠岵邊
僻在一村鳥峴下
居人靜態學神仙

昌柄(창우)

집에서 본 두 경치 산안개를 뚫고
온갖 나무 뻗뻗이 몇백 년이 흘렀나?
이슬 맺힌 잎은 아득히 때로 빗방울 내려서요
안개 낀 숲 울창하여 오히려 하늘을 가렸어라.
석양에 시골아이는 나무꾼 노래 부르고
먼 봉우리 가에는 저녁 까마귀가 어지러이 운다.
한 마을이 오현(鳥峴) 아래에 떨어져 있으니
사는 사람 조용한 자태가 신선을 배웠으리라.

峴樹參差擁夕烟
野春村吠隔如年
林俱昏黑雲過壁
山與迷濛雨滿天
孤鶴寒鴉爭遞相
和柯籠葉渾無邊
看看易失樵夫下
渠亦塵寰去遠仙

黃崑(황곤)

오현의 숲은 들쭉날쭉 저녁 안개를 안았는데
들 방아 찼고 마을 개 짖음이 예년과 다르네.
숲이 모두 저물어 어두워도 구름이 절벽을 지나고
산과 함께 흐려 비가 하늘에 가득하네.
외로운 학과 찬 까마귀 서로 다투며 쫓고
온화한 가지에 두른 잎은 흐려서 끝이 없구나.
보고 봐도 나무꾼 내려오는 것 잃기 쉽지만
어찌 또 속세에서 신선을 멀리하랴?

烟籠寒樹樹籠烟
鳥峴一區太古年
山色有無千嶂雨
村容幽邃四時天
消慮第見篁樓外

안개는 찬 숲을 들렀고 숲도 안개를 둘러
오현의 한 구역은 태고의 해 그대로 이리라.
온 봉우리에 비가 내려 산빛은 있다가도 없고
사계절 하늘에 마을 모양은 깊고 깊다네.
근심 삭히며 대숲 밖을 차례로 보나니

裊細宛然石竈邊 곱고 가냘픈 모양 돌 아궁이 주변에 완연하다.
又有江楓漁火地 또 강 단풍에 물고기 잡는 불 있는 곳은
居人清趣便如仙 사는 사람 맑은 정취가 문득 신선 같으리라.
炳濟(병제)



4. 花嶝落照

화등산(花嶝山)의 낙조



60

落照拖紅染嶝花	낙조가 화등산을 붉게 물들이자
婆娑人影向東斜	한가로운 사람 그림자 동쪽으로 기울었네.
翩翩飛下尋巢鶴	날갯짓하며 내려와 학은 둥지를 찾고
啞啞啼歸帶影鴉	각각 울며 돌아와 까마귀는 그림자 드리운다.
百代光陰弦上箭	오랜 세월은 시위 위의 화살 같았고
一時烟火水邊家	한때의 안개가 물가 집에 어렸구나.
牛山昔日齊公淚	옛날 우산(牛山)에서 제나라 경공 ⁵⁶ 도 눈물 흘렸으니
垂老人生孰不嗟	늙은 인생에 누가 탄식하지 않으랴?

龍洲(용주)

嶝花西畔藿傾花	화등산 서쪽 두둑은 콩잎이 꽃으로 기울어
奄奄遲遲照半斜	약하고 더딘 모습으로 비쳐 반쯤 기울었네.
震影長天歸短鴈	움직이는 그림자는 긴 하늘에 짧게 기러기 돌아가고
剥陰古木集寒鴉	그늘 가득한 고목에는 찬 까마귀 모였어라.

56) 제나라 경공: 춘추 시대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우산(牛山)에서 노닐다가 자연경관에 감탄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고사가 있음.

一聲樵笛來山路 나무꾼 피리 한 소리 산길에 들려오고
 數點炊烟近水家 불 때는 연기 몇 점은 물가 집에 가깝구나.
 誰有止戈能係索 누가 있어 싸움을 그치게 하고 계통 찾을 수 있을까?
 世間耆耄戾嗟 세상에 늙은이들 새벽에 떠나며 탄식하네.
 星史(성사)

嶠西落照眼迷花 화등산 서쪽 낙조는 희미한 꽃 보는 듯하니
 故曳雲紅半壁斜 예로부터 구름을 붉게 만들어 반쯤 벽에 기울었네.
 遠路短鞭催去馬 먼 여정에 짧은 채찍으로 가는 말 재촉함에
 群山暮景帶來鴉 못 산의 저녁 경치에 오는 까마귀 모였어라.
 蒼涼氣色懸林木 처량한 기색은 숲 나무에 달려 있고
 散射靜神入野家 흩어지는 정신에 들 집으로 들어간다.
 請看陰陽消長理 음양(陰陽)이 쇠하고 성하는 이치 보기를 청하니
 何須齊淚作嗟嗟 어찌 반드시 모두 눈물 흘리며 탄식하라?
 南崗(남강)

不老嶠頭不落 늙지 않는 화등산 머리는 꽃도 지지 않아
 花邊返照影東斜 꽃 주변에 반사된 빛 그림자 동쪽으로 기울었네.
 蒼生遠樹投雙鳥 백성들 먼 나무에 쌍조(雙鳥)의 시(詩)를 던지고
 紅斂孤城帶一鴉 붉은 석양의 외로운 성에 까마귀 무리 지었네.
 樵曲還催村北路 초동의 곡조는 마을 북쪽 길을 다시 재촉하고
 炊烟先起水西家 불 때는 연기는 물가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는구나.
 日之出沒陰陽理 해가 뜨고 지는 음양(陰陽)의 이치 속에
 謾使景公見以嗟 멋대로 경공(景公)을 보고 탄식하게 하라?
 東溟(동명)

57) 쌍조(雙鳥)의 시: 백성들의 근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유(韓愈)의 「쌍조(雙鳥)」 시에, “두 마리 새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不停兩鳥鳴, 만물이 모두 시름겨워할 것이요[百物皆生愁], 두 마리 새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不停兩鳥鳴], 봄과 가을도 없어질 것이요[自此無春秋], 두 마리 새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不停兩鳥鳴], 해와 달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것이요[日月難旋轉], 두 마리 새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不停兩鳥鳴], 나라의 큰 정치도 홍범(洪範)의 구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大法失九疇].” 라는 구절이 나온다. 『韓昌黎集 卷5』

窓西葵影半傾花
 忽忽蒼蒼冉冉斜
 芳草前溪歸巷犢
 寒烟古木向棲鴉
 老僧飛杖尋山寺
 遠客停鞭問酒家
 千古人生於此老
 更看白髮正堪嗟

秋暎(추원)

창 서쪽은 해바라기 그림자 반쯤 기운 꽃이니
 홀연히 푸르고 푸른 빛이 점점 기울었네.
 앞 시내 꽃다운 풀에는 송아지가 골목으로 돌아가고
 고목의 찬 연기에는 까마귀 등지로 향한다.
 노승은 나는 지팡이로 산사를 찾고
 먼 나그네는 채찍 그치고 주막을 묻는구나.
 이곳에서 늙어가는 천고에 인생
 다시 백발을 보고 탄식하는구나.

玉蓮千丈上開花
 花嶝奇觀日欲斜
 丹穴玲瓏盤下鳳
 寒林歷落倒飜鴉
 看看祇是流年處
 望望還如待月家
 只信此山青不老
 人生何必空長嗟

小山(소산)

옥 같은 연꽃이 천 길 위에서 꽃을 피우니
 화등산의 기이한 경관에 해는 지려고 하네.
 단혈(丹穴)⁵⁸⁾은 영롱하여 봉황이 돌아내리고
 찬 숲은 쇠락하여 까마귀가 거꾸로 날갯짓하네.
 보고 또 봐도 다만 세월 흐르는 곳ियो
 바라보고 바라보니 문득 달 기다리는 집 같구나.
 단지 이 산은 푸르려 늙지 않음을 믿으니
 사람이 살아가며 하필이면 공연히 길게 탄식하라!

花嶝嶝外半殘花
 萬丈花嶝自倒斜
 夾澗蒼涼爭下鳥
 遠山紅斂欲飜鴉
 轉收巷北漁樵逕
 勝出汀東泚澗家
 費盡光陰天亦老

화등산 고개 밖에 반쯤 꽃이 지니
 만 길의 화등산이 저절로 거꾸로 기우네.
 끼인 계곡은 스산해도 새들 다투어 내려앉고
 먼 산에 노을 물들자 까마귀 날갯짓하려 한다.
 거리 북쪽에 돌아 난 곳은 어부와 나무꾼의 길이요
 물가 동쪽에 빼어나게 난 곳은 빨래터 있는 집이네.
 시간을 다 쓰면 하늘 또한 늙어가나니

58) 단혈(丹穴): 단혈은 전설상의 산 이름으로, 이곳에 오색 영롱한 봉황새가 산다고 한다. 『山海經 南山經』

幾人到此不長嗟 몇 사람이나 여기에 이르러 길게 탄식하지 않으랴?
 錦樵(금초)

暈紅將斂滿嶝花 붉은 해가 지려 함에 온 고개가 꽃이니
 暮景尤奇夕照斜 저녁 경치 더욱 기이하게 석양에 기울었네.
 遠天孤度隨陽鴈 먼 하늘은 해 따르는 기러기의 헤아림이 외롭고
 古木亂飜吊影鴉 고목은 그림자 조문하는 까마귀 날갯짓 어지럽다.
 牧笛歸來山下路 목동의 피리 소리는 산 아래 길로 돌아오며 울리고
 炊烟齊起水西家 불 땀 연기 물가 서쪽 집에서 나란히 일어나네.
 牛峯垂淚這何事 우잠(牛岑)에 눈물 흘리니 이 무슨 일인가?
 謾使浮空生自嗟 제멋대로 허공에 탄식하게 만드는구나.
 石樵(석초)

緩步花山濃眼花 느린 걸음으로 화등산 오르니 눈 가득 꽃이요
 殘霞紅斂日將斜 남은 노을 붉은빛 사라지고 해도 기울어 간다.
 齊飛樹末投來鳥 새는 나란히 날다가 나무 끝으로 던지듯 오고
 閃影雲端尺去鴉 까마귀는 번득이는 그림자 구름 끝을 자질하며 가네.
 千秋寅錢義和宅 천추에 해를 공경히 전별하는 희화(羲和)⁵⁹⁾의 집이요
 晚世狂歌趙俠家 말세에 미친 노래 부르는 조협(趙俠)의 집이랴오.
 人生反覆如斯否 인생이 반복된다면 이와 같겠는가?
 萬劫塵寰正可嗟 만 겁 세월의 속세는 탄식할 만하구나!
 近溪(근계)

花嶝落暉遍是花 화등산에 지는 노을이 곧 꽃이니
 殘紅欲斂返仍斜 남은 붉은 빛 사라지려 함에 반사되는 빛도 기운다.
 山雄黃處呼其犢 산은 웅장해 누렇게 물든 곳에서 송아지를 부르고
 日色蒼時彩亦鴉 햇빛 푸를 때 무늬 또한 까마귀 같네.

59) 희화(羲和): 중국의 고대 신화에 의하면, 여와씨(女媧氏)가 오색 돌을 구워서 터진 하늘을 꿰매고[補天], 희화(羲和)가 감연(甘淵)에서 해를 목욕시켰다고[浴日] 한다.

飜入鳥聲來谷樹 곱짜기 나무로 오는 새소리 뒤집혀 들리고
 巨垂樵影下蹊家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나무꾼 그림자 드리우네.
 漁城便作霞城赤 어성이 문득 자하성(紫霞城)⁶⁰의 붉음을 이루어
 欲訪仙標一發嗟 신선 풍모를 방문하고자 하니 탄식이 나오네.
 峴愚(현우)

夕暉照嶝眼生花 저녁노을 고개를 비춤에 눈에 꽃이 생기니
 坐看乾坤萬景斜 앉아 세상을 봄에 모든 경치가 기울어 간다.
 始識百年如過驥 백 년이 지나는 천리마와 같음을 비로소 알았으나
 胡然納日忽沉鴉 석양에 홀연히 사라지는 까마귀가 어찌 그렇겠는가?
 天光陰映雲間樹 하늘빛은 구름 사이 나무에 그늘 드리우고
 山影參差水上家 산 그림자는 물가의 집에 들쭉날쭉하다.
 蓋有浮生堪笑處 모두 헛된 인생 웃음 감내하는 곳이 있으니
 齊岑泣落彼何嗟 제잠(齊岑)⁶¹이 눈물 흘린 저곳을 어찌 탄식하라?
 笑堂(소당)

64

落照紅於滿嶝花 온 화등산에 낙조가 붉어
 孤城將斂路前斜 외로운 성은 길 앞에 기운 빛도 거두어 가네.
 遠天聲急隨陽鴈 먼 하늘에 소리 급함은 기러기가 태양 따름이요
 古木寒生帶影鴉 고목에 한기 생기자 까마귀가 그림자 드리운다.
 僧舍鳴鍾知供佛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부처님 공양하는 줄 알고
 漁村閑笛忘歸家 어촌의 한가한 피리 소리에 귀가(歸家)함을 잊는구나.
 此中半是半山淚 이곳은 반은 이렇고 반은 산의 눈물이니
 老去人情可發嗟 늙어가는 사람의 마음 탄식이 나오네.
 雪隱(설은)

60) 자하성(紫霞城): 주왕산(周王山)에 있는 산성으로 일명 주방산성(周房山城)이라고도 하는데, 신라의 왕자인 김주원(金周元)이 고려의 군사를 막기 위하여 쌓은 성이라고 한다.
 61) 제잠(齊岑): 제잠은 당대(唐代)의 시승(詩僧) 제기(齊己)와 시인 잠삼(岑參)을 병칭한 말이다.

寒食東風杜宇花 한식날 동쪽 바람에 두견화 피어
 登山取醉日將斜 산에 올라 취하고 나니 해가 기울려고 하네.
 西雲彷彿初生月 서쪽 구름은 처음 뜨는 달과 비슷하고
 遠樹依倚一色鴉 먼 나무는 한 빛의 까마귀와 같구나.
 萬念悠悠君看句 그대가 본 시구(詩句)에 오만 생각이 그윽하고
 百年擾擾我爲家 내가 집으로 삼은 것은 백 년 도록 요란하네.
 明朝應是來無盡 내일 아침에도 응당 와서 무궁하리니
 瑞彩扶桑堪可嗟 부상(扶桑)⁶²⁾의 상서로운 빛에 탄식하지 않으랴?
 蓮宇(연우)

夕暉倏似賞殘花 저녁노을 빠르기는 남은 꽃 보는 것 같으니
 雲際熒熒木杪斜 구름 사이로 등불이 나무 끝에 기울었네.
 將夜運機旋磨蟻 다가오는 밤에 운행함은 도는 맷돌에 붙은 개미⁶³⁾요
 俄朝揚彩過金鴉 아침에도 빛 드날림은 지나가는 금아(金鴉)⁶⁴⁾라네.
 天邊紫焰文章色 하늘가에 자줏빛 불꽃은 문장(文章)의 빛이요
 石上丹霞道士家 바위 위에 붉은 노을은 도사(道士)의 집이라오.
 荏苒流光還易失 덧없는 세월 흐르는 빛처럼 쉽게 사라지니
 及時努力莫長嗟 이르는 때에 노력하고 탄식하지 말지어다.
 素山(소산)

殘照危於欲落花 남은 별이 떨어지려는 꽃잎을 위태롭게 함에
 靑山銜半返東斜 푸른 산은 반쯤 머금어 동쪽으로 기울었네.
 偏明右翼歸秋鴈 돌아가는 가을 기러기 우측 날개로 치우쳐 밝고
 盡向西頭起暮鴉 일어난 저녁 까마귀 서쪽 머리로 모두 향하는구나.
 啼鳥小亭催客杖 작은 정자에서 우는 새는 나그네 지팡이를 재촉하고

62) 부상(扶桑): 동해(東海) 속의 신목(神木)으로, 해가 뜰 때 이 나뭇가지를 떨치고서 솟구쳐 올라온다고 한다.

63) 도는 맷돌에 붙은 개미[磨蟻]: 해와 달이 천구(天球) 상에서 운행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64) 금아(金鴉): 태양 속에 있다는 세 발 가진 신조(神鳥)로 '금오(金烏)' 또는 '삼족오(三足烏)라고도 한다.

炊烟平野散人家
桑榆枝上誰能係
惜老吾生堪可嗟

白又(백우)

평야에 불 때는 연기는 인가에 흩어져 있도다.
뽕나무 느릅나무 가지 위에 누가 매달릴 수 있나?
내 생애 늙어감이 애석하니 탄식하지 않으랴?

嶺半餘暉幾落花
有力難回冉冉斜
顧吾遐壽長如水
瞻彼流光忽去鴉
過隙繁陰皆北面
背牆倒影盡東家
送君堪下悵然淚
何必牛山齊公嗟

龔岩(농암)

고개 반쯤 남은 별은 얼마나 꽃을 지게 했나?
힘으로 돌리기 어려워 점점 기울어간다.
나의 오래 삶이 길게 물과 같음을 돌아보고
저 흐르는 빛에 홀연히 가는 까마귀를 보네.
빨리 지나가는 변화한 그들은 모두 북쪽에 있고
담을 등진 그림자는 모두 동쪽 집의 것이라.
그대 보냄에 구슬피 눈물 흘리니
하필이면 우산(牛山)의 제공(齊公)을 탄식하라!

磻途委曲落藤花
澗澗紅暉入峽斜
一杖歸僧何處寺
數聲樵笛此林鴉
榭樹烟沉灌稻水
杏花影倒酒旗家
半入圓通庵底洞
磬聲偈語可堪嗟

樵史(초사)

계곡 길은 굽고 등나무꽃도 지는데
넘실넘실 강에 별은 골짜기에 들어 기울어가네.
돌아가는 중은 어는 절로 지팡이 짚고 가나?
목동의 피리 소리에 숲에 까마귀 우는구나.
논으로 물을 대니 떡갈나무숲에 안개가 끼고
술집 깃발에 앵두나무꽃 그림자 거구로 늘어졌네.
반쯤 원통암(圓通庵) 아래 골짜기로 들어오니
경쇠 소리와 계송(偈頌)이 탄식하게 하는구나.

嶺前落照艷如花
檜桂深深映共斜
光射晴林聞過鳥
影翻古木帶寒鴉

고개 앞에 낙조는 요염하기 꽃과 같고
무궁화와 계수나무 깊이깊이 비추어 기울었네.
광채 비추는 개인 숲에는 지나는 새소리 들리고
그림자 뒤집힌 고목엔 찬 까마귀들 앉았다.

飯鍾唄圻山中寺 어성에 있는 한 지역 풍물을
 浣杵漂縵水上家 잘 살피니 경치 좋은 곳 또 이어졌구나.
 下有高標賢老士 특별한 산천을 작은 하나라라 하고
 愁看華髮共歎嗟 어진 하늘의 해와 달은 명나라와 같도다.
 石下(석하)

返照入林燈是花 반사된 빛 숲으로 들어 고개가 꽃이 되니
 千形萬影盡東斜 천의 모양, 만의 그림자가 모두 동쪽으로 기울었네.
 午雨新晴吟水鳥 낮 비가 새로 개어 물새가 노래하는데
 夕烟方散躍金鴉 저녁 안개 흩어짐에 금빛 까마귀 뛰어노는구나.
 寒樹蒼蒼高下岸 찬 숲은 높고 낮은 언덕에 푸르고 푸르며
 衆峰歷歷兩三家 여러 봉우리 역력하고 두서너 집이 있도다.
 依然坐我牛山客 의연히 앉은 나는 우산(牛山)의 나그네이니
 舉目徘徊起遠嗟 눈 들어 배회하며 길게 탄식한다오.
 松隱(송은)

三景抻天萬丈花 삼경(三景)⁶⁵의 하늘을 늘리어 만 길의 꽃이 되니
 也知西嶺夕暉斜 서쪽 고개에 저녁노을 기울었음을 또 알았네.
 蕭蕭遠渡倚織馬 여윈 말에 의지하여 쓸쓸히 먼 나루를 건너니
 歷歷寒空飜隻鴉 한 마리 까마귀 날아 역력히 찬 하늘을 나는구나.
 白水噓涼凝草葉 맑은 물은 찬 기운 불어 풀잎에 영겨있고
 紫烟帶暖護人家 자색 안개 따스하게 끼어 인가를 호위하네.
 眼前淪沒非終盡 눈앞에 물결 가라앉음은 끝내 다 한 것이 아니니
 回首扶桑莫怨嗟 고개 돌려 부상(扶桑) 바라보며 탄식하지 말게.
 迂軒(우현)

落照斂紅等落花 낙조의 붉음을 거뭇이 떨어지는 꽃과 같으니

65) 삼경(三景): 천상(天上)에 3동(洞) 3원(垣)이 있다 하여 도교(道敎)를 배우는 사람들을 삼경제자(三景弟子)라 한다.

花飛西嶺影東斜
有約前霄迎玉兔
無端此地送金鴉
忽然暝色迷三逕
而已夕烟出數家
可笑炎涼如許變
人人瞻彼那堪嗟

南溪(남계)

꽃잎 지는 서쪽 고개는 그림자가 동쪽으로 기울었네.
약속한 전날 하늘에서 옥토끼 만나기로 했는데
까닭 없이 이 땅에 금아(金鴉)를 보냈구나.
갑자기 어두운 빛이 삼경(三逕)⁶⁶⁾을 희미하게 하니
이미 다한 저녁연기 몇 집에서 나온다.
변덕 부리는 세대를 허락한 듯함이 가소로우니
사람마다 저를 보고 어찌 탄식하지 않으랴?

掛嶺落紅猶勝花
暮雲欲霽夕陰斜
青山影倒齊飛鷺
丹壁光生尺去鴉
銀臺碧樹色千種
濃霧翠烟春萬家
浮世人如駒過隙
風燈泡沫正堪嗟

退齋(퇴재)

고개에 걸려 떨어지는 붉은 빛 좋은 꽃과 같으니
저문 구름 개려 할 때 저녁 그늘도 기운다.
푸른 산의 그림자 드리워 제비는 나란히 날고
붉은 절벽에 광채 생겨 까마귀는 자질하며 가네.
은빛 누대의 푸른 나무는 천 종의 색이요
짙은 안개의 푸른 연기는 집집마다 봄이로구나.
헛된 세상에 사람들 망아지 틈을 지나는 듯하니
바람 부는 등에 물거품 어찌 탄식을 감당하랴?

落照惹紅上嶺花
婆娑影子兩相斜
知還古道深林鳥
啼罷荒城古木鴉
聲聲餘柝監門里
點點新烟作飯家
到此浮生多曠感

낙조가 붉은 노을 이끌어 화등산에 오르니
한가로운 그림자 양쪽으로 서로 기울었네.
깊은 숲에 새는 옛길로 돌아갈 줄 알고
고목에 까마귀는 황폐한 성에서 울음 그친다.
문지기 있는 마을은 소리마다 열리고
밥 짓는 집은 점점이 새 연기 뿜는구나.
이에 이르러 헛된 인생 공허한 느낌 많아

66) 삼경(三逕): 세 오솔길이란 뜻으로, 한나라 때 은사(隱士) 장후(蔣詡)가 자기 문정(門庭)에 세 오솔길
을 내놓고 구중(求仲)과 양중(羊仲) 두 사람하고만 종유했던 데서 전하여 은자의 처소를 가리킨다.
『三輔決錄』 또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세 오솔길은 묵었으나[三逕就荒],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 있도다[松菊猶存].” 라고 하였다. 『陶淵明集 卷5』

謾吟齊岵景公嗟 멋대로 제(齊)나라 봉우리에서 경공의 탄식을 읊노라.
訥庵(눌암)

瞻彼花峰欲訪花 저 화등의 봉우리가 꽃 피려 함을 봄에
花林寂寂日光斜 꽃 핀 숲은 고요히 애가 기울었네.
風聲自北驚飛鴈 바람 소리에 기러기 북쪽으로부터 놀라 날고
樹影向東亂噪鴉 나무 그림자에 까마귀 동쪽 향해 어지러이 운다.
隱隱鍾聲雲裡寺 구름 속 절에서 은은한 종소리 들리는데
蕭蕭漁笛水邊家 물가 집에는 쓸쓸한 어부의 피리 소리 울리는구나.
牛山落照應如此 우산(牛山)의 낙조가 옹당 이와 같아서
謾使景公感歎嗟 멋대로 경공(景公)을 탄식하게 했겠지.
石澗(석간)

漸斂暈紅棲嶝花 화등산에 붉게 깃든 노을이 점점 걷힘에
蒼涼倒入半窓斜 푸르고 서늘하게 거꾸로 들어 반쪽 창에 기울었네.
澗途曲屈招鳴犢 계곡 길 굽고 굽어 우는 송아지 부르고
嶺樹依微帶去鴉 고개 나무는 희미하여 까마귀 앞았다 가는구나.
倏爾光陰忙石火 빠르기도 한 세월 바쁘기가 부싯돌 같은데
於焉烟抹起山家 어언 연기 뭉게뭉게 산가(山家)에서 피어나네.
回首因問齊公事 머리 돌리니 제공(齊公)의 일 물어보기에
塵世浮生亦一嗟 속세의 덧없는 인생에 또 한 번 탄식한다오.
菊下(국하)

牛山之木峴山花 우산(牛山)의 나무와 현산(峴山)의 꽃은
共歎人間夕照斜 모두 사람을 감탄하게 하며 저녁 별이 기울었다.
歷歷平沙愁隻鴈 역력히 평평한 모래에는 외기러기가 근심하고
蒼蒼遠樹集群鴉 푸르고 푸른 먼 나무에는 못까마귀가 모였구나.
相逢劔筑還迷路 서로 만나 축(筑)에 검무 추다 돌아오는 길 잃고
爭渡漁樵各返家 다투어 건너는 어부와 초동은 가자 집으로 돌아간다.

所見何殊今古眼 옛날과 지금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 다르랴?
 一過西嶝發咨嗟 서쪽 비탈에 한 번 오르니 탄식이 나오는구려.
 滄農(창농)

返照盈空入嶝花 반사된 별 하늘에 가득하여 화등산에 들었으니
 嶝花影亞枝枝斜 고개와 꽃 그림자 가지마다 기울었네.
 寒流明滅銀腮鯉 찬물 흐르는데 은빛 붕어 비늘에 반짝이고
 霞末橫翻紫翮鴉 노을 끝에 자줏빛 깃의 까마귀 나는구나.
 凝澹靄靄疑烟岸 응축된 담담한 아지랑이는 언덕에 안개인가 의심하고
 餘景暉暉對月家 남은 경치 빛나고 빛남은 달 뜬 집에서 마주한다오.
 登臨竟日宜春酒 올라서 해 다하도록 봄술 마심에
 不似齊山赴怨嗟 제나라 산 같지 않음을 원망하며 탄식하네.
 晚翠(만취)

70

青嶝日落拖紅 푸른 고개에 해가 지자 붉은 노을 펼쳐지고
 看花白雪歌終 꽃을 보자 백설의 노래⁶⁷⁾도 끝이 나네.
 長進酒光陰舍 세월의 집에서 길게 술 올리니
 我夢中斜 나의 꿈속도 기우는구나.
 高呼者雲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구름과 학이요
 陣追者巢鴉 진을 쳐 따르는 것은 등지의 까마귀로다.
 山前花落春無跡 산 앞에 꽃이 지니 봄은 자취가 없고
 流水聲中一兩家 흐르는 물소리 속에 한두 집이 있네.
 生収理貫萬物 삶의 이치를 터득하면 만물도 관통하니
 歡悲人事揔咨嗟 기쁨과 슬픔의 인생사 모두가 탄식이로구나.
 東溟(동명)

奇峰削立散天花 기이한 봉우리 깎아지른 듯 서서 하늘의 꽃 뿌림에

67) 백설의 노래: ‘백설(白雪)’은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가곡 이름으로, ‘양춘(陽春)’과 함께 남이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 고상한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山寺鍾鳴日欲斜 산사의 종소리 울리고 해는 지려 하네.
 紅蓼洲邊秋下鷺 붉은 여뀌 핀 모래톱 가는 가을이라 해오라기 내리고
 黃雲城上暮棲鴉 붉은 노을 성 위는 저녁이라 까마귀 깃드는구나.
 樵兒負策歸田舍 어린 나무꾼은 지팡이 짚고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釣客穿魚訪酒家 낚시꾼은 물고기 꿰어 술집을 방문하네.
 但覺年光從此老 다만 세월 속에 이로부터 늙어감을 깨달으니
 牛山何夕景公嗟 우산(牛山) 어느 저녁에 경공이 탄식했던가?
 竹翁(죽옹)

桑榆晚作片時花 뽕나무 느릅나무 저녁 순간에 꽃을 지으니
 回磴西連落照斜 고개를 돌아 서쪽으로 이어져 낙조가 기울었네.
 下野烟林高盡鳥 아래들 안개 낀 숲에 새는 높이 날아 사라지고
 滿山楓葉亂翻鴉 온 산 단풍잎에 까마귀 어지러이 나는구나.
 浮生百代光陰客 헛된 인생은 오랜 세월 속의 나그네와 같고
 世界三分造化家 세계는 셋으로 나뉜 조화(造化)의 집이다.
 齊淚燕歌多慷慨 제(齊)나라 눈물과 연가(燕歌)⁶⁸에 슬퍼함이 많아
 忽忽人事日余嗟 뒤숭숭한 사람의 일에 내가 탄식한다고 하네.
 寄隱(기은)

俄看深竹復迷花 잠시 깊은 대숲이 다시 희미한 꽃이 뒹을 보니
 咫尺峰天夕照斜 가까이 봉우리의 하늘은 석양이 기울었네.
 歸影各飛知鴈鶩 돌아가는 그림자 각자 날며 기러기와 집오리를 알고
 亂聲爭墜見烏鴉 어지러운 소리 다투어 떨어지니 까마귀를 본다오.
 空林寒氣來層嶂 빈 숲에 찬 기운이 층층의 산으로 오니
 近水孤烟出數家 가까운 물에 외로운 연기가 몇 집에서 나오는구나.
 回憶人間今日盡 돌이켜 생각함에 인간은 오늘 생명 다한다 해도
 奔忙心事興于嗟 바쁜 마음의 일 일어 탄식한다오.

68) 연가(燕歌): 강개한 노래의 대명사로 고점리(高漸離)가 형가(荊軻)를 위해 지어 부른 노래로, 행역(行役)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素軒(소헌)

落日忽然似落花	지는 해는 홀연히 떨어지는 꽃과 같고
花峰嶺上半輪斜	화등산 봉우리 고개 위에 반달이 기운다.
斷霞影裡來孤鶩	끊어진 노을 그림자 속에 외로운 집오리가 오고
老柳春深藏暮鴉	늙은 버들에 봄 깊어 저녁 까마귀가 들었어라.
錦片閃閃翻石壁	비단 조각은 번쩍이며 석벽에 아른거리고
炊烟点点起山家	불 땀 연기는 점점이 산 집에서 이는구나.
人生斯世眞如此	이 세상 살아감이 진실로 이 같으니
決隙光陰莫嘆嗟	빠른 세월을 탄식하지 말게나.

文式(문식)

庭畔蜀葵西向花	정원 가에 접시꽃은 서쪽으로 향한 꽃이니
花峰而已夕陽斜	화등산 봉우리는 이미 석양에 기울었네.
古渡飽還呼母犢	옛 나루에서 어미 부르는 송아지 배불러 돌아가고
空林啄去將雛鴉	빈 숲에서 병아리 잡은 까마귀는 쪼며 간다.
露氣暗生芳草堤	잡초 우거진 제방에서 이슬 기운 은근히 생기고
烟光初散綠楊家	버들 푸른 집에는 연기 빛이 처음 흩어지누나.
暮景蒼蒼無限好	저녁 경치 아득하여 끝없이 좋은데
浮生何事堪嘆嗟	헛된 인생 무슨 일로 탄식을 감당하랴?

齊根(제근)

落日沉紅便勝花	지는 해가 붉게 물드니 문득 아름다운 꽃이요
萬峰倒影向東斜	만 봉우리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기울었네.
海岸飛過傳信鴉	기러기는 해안을 날아가며 소식 전하고
雲間啼去訪巢鴉	까마귀는 구름 사이에서 울며 둥지를 찾는다.
遠樹暝生忙客杖	먼 숲에 어둠 깔리자 나그네 지팡이 바쁘고
前村烟鎖護人家	앞마을은 연기에 잠겨 인가를 보호한다오.
南兒到此多慷慨	사나이 여기에 이르러 느끼는 것이 많으니

針孔光陰發詠嗟 바늘구멍 같은 세월에 탄식이 나오는구나.
敬堂(경당)

磴生夕照樹如花 고개에서 생긴 석양에 숲이 꽃과 같으니
盡雲遠天返影斜 먼 하늘에 온 구름은 반사된 그림자와 기울었네.
一邊霞紫飛來鶩 노을 붉은 한쪽 하늘에 집오리 날아오고
半面林紅負去鴉 숲 붉게 물든 반쪽 면을 까마귀가 등지고 가는구나.
倒入江干翻石壁 거꾸로 강언덕에 들어 석벽에 아른거리더니
乍移院落映隣家 잠시 정원으로 옮겼다가 이웃집을 비추네.
此時孰不牛山客 이때 누가 우산(牛山)의 나그네가 아니라?
感發詩情亦可嗟 시정(詩情)에 감발하니 또한 탄식할 만하다.
漢奎(한규)

山名花磴步生花 산 이름 화등에 생생한 꽃을 걸으니
返照深林影半斜 반사된 빛에 깊은 숲 그림자 반쯤 기울었네.
沙上篆來知宿鳥 모래 위에 연기 일자 지는 새를 알아보고
雲間尺去送寒鴉 구름 사이를 재고 가며 찬 까마귀를 보낸다오.
峴西倒帽山翁席 현산(峴山) 서쪽은 모자 빼딱한 산 늙은이 자리요
夔府望京杜老家 기부(夔府)⁶⁹⁾는 서울 보는 두노(杜老)⁷⁰⁾의 집이라네.
此地誰能戈止日 이곳에서 누가 전쟁 그치게 하는 날 있을까?
光陰如水一于嗟 세월이 흐르는 물 같아 한 번 탄식한다오.
復來(복래)

花磴山頭拭眼花 화등산 머리는 눈 닦아 봐도 꽃이요
西天若木日輪斜 서쪽 하늘 약목(若木)⁷¹⁾에 해가 기울었네.

69) 기부(夔府): 기부는 기주(夔州)의 별칭으로, 객지에서의 생활을 나타낸다. 두보가 만년에 기주에서 「기부에서 회포를 적다[夔府書懷]」·「가을날 기부에서 회포를 읊어 정감(鄭監)과 이 빈객에게 100운을 부치다[秋日夔府詠懷奉寄鄭監李賓客一百韻]」등 여러 편의 시를 지어 감회를 읊은 것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70) 두노(杜老): 두노는 두보(杜甫)를 말하는데, 사천성(四川省) 성도시(成都市) 서쪽 교외 금강(錦江)의 지류인 완화계(浣花溪)에 두보의 완화초당(浣花草堂)이 있었다.

郵亭十里鞭歸馬 역참 십 리 길에서 돌아가는 말에 채찍질하고
 古壑千林見宿鴉 옛 골짜기 숲에서 조는 까마귀를 본다오.
 雲氣染紅含石壁 붉게 물든 구름 기운은 석벽(石壁)을 머금었고
 烟光凝紫繞山家 자줏빛 응축된 연무(煙霧)는 산가(山家)를 둘러싸.
 流年誰解長繩係 누가 흐르는 세월의 긴 매듭을 풀 수 있을까?
 一曲詩歌詠自嗟 한 곡의 시(詩)를 읊음에 절로 탄식이 나온다.
 駿秉(준병)

若木西津起浪花 약목(若木)의 서쪽 나루는 물결 이는 꽃이니
 登高遙望日沉斜 높이 올라 아득히 바라본 해가 잠겨 기울었네.
 車鳴古巷鞭歸犢 옛길에서 돌아가려는 채찍질에 송아지가 울고
 返哺疎林止宿鴉 성긴 숲에 잠 깬 까마귀 효도할 줄 아는구나.
 林杖難追夸父力 지팡이로 과보(夸父)의 힘을 쫓아가기 어렵지만
 土圭推測曆官家 토圭(土圭)⁷²⁾로 역관(曆官)의 집을 추측할 수 있도다.
 回看石壁烟雲紫 석벽에 안개구름 붉음을 돌아보자니
 忽地光陰堪可嗟 갑자기 땅의 빛과 그림자에 탄식이 나오네.
 昇楸(승우)

花山落日等泡花 화등산 지는 해는 물거품과 같고
 穿屐去登一逕斜 나막신 버리고 오르니 한 길이 기울었네.
 遠岫將看啼杜宇 멀리 산에서 두견새 우는 것을 볼 것이오
 疎林時有托慈鴉 성근 숲에서는 인자한 까마귀 의탁함이 있으리라.
 九州烟火蒼茫界 구주(九州)⁷³⁾는 연화(煙火)에 물든 아득한 세계요
 百代光陰逆旅家 아득한 세월[光陰]은 나그네[逆旅]의 집이랴오.

71) 약목(若木): 서해의 해가 지는 곳에 있다는 신목(神木)이다. 일설에는 부상(扶桑)이라고도 한다.

72) 토圭(土圭): 고대에 해의 그림자를 재서 사시를 바로잡고 방위를 정하는 데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주공(周公)이 낙양(洛陽)을 건설할 때에 이 토규법을 사용하여 중국의 중앙을 잡았는데, 그곳이 바로 낙양이다. 『周禮 地官司徒 大司徒』

73) 구주(九州): 중국의 별칭. 고대에 중국은 그 전역을 구주(九州)로 나누었다. 송(宋)나라 육유(陸游)의 「시아(示兒)」에 “죽으면 만사가 헛될 뿐임을 원래 알지만[死去元知萬事空], 구주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게 슬플 뿐이다[但悲不見九州同]” 라고 하였음.

石壁翻江紅影射 석벽(石壁)은 일렁이는 강물에 붉은 그림자 보내고
 詩人到此詠咨嗟 시인이 여기에 이르러 시 읊으며 탄식하네.
 基復(기복)

錢日西山嶺有花 해를 보내는 서산 고개에 꽃이 있으니
 而已光線一時斜 이미 그 빛줄기가 한 번에 기울었네.
 雲間飛下青田鶴 푸른 전답의 학은 구름 사이에서 날아내리고
 樹末啼歸黑色鴉 검은 까마귀는 나무 끝으로 울며 돌아오는구나.
 素月迎時誰謫客 흰 달을 맞이할 때 누가 귀양 온 나그네이랴?
 青烟起處是人家 푸른 연기 일어나는 곳이 인가(人家)라오.
 書窓咏罷分陰惜 서재 창가에서 시 읊기를 마치고 시간을 아쉬워함에
 明暗去來堪可嗟 밝음과 어두움이 가고 옴에 탄식한다오.
 基成(기성)

漸觀三景面生花 점차로 삼경(三景)⁷⁴⁾에서 생겨난 꽃을 보고
 晚踏夕陽石逕斜 늦게 밟은 석양은 돌길이 빳겨 있구나.
 聲喧溪畔群來鳥 소리 시끄러운 시냇가에는 새 무리가 오고
 影閃天邊尺去鴉 해 빛나는 하늘 가에는 까마귀가 자질하며 가네.
 隱隱鍾聞雲裡寺 구름 속 절에서 은은한 종소리 들리고
 紛紛烟起洞中家 골짜기 속 집에서는 뭉게뭉게 연기 인다.
 倏爾殘暉誰不惜 갑자기 남은 빛에 누가 애석해하지 않으랴?
 牛山下淚景公嗟 우산(牛山) 아래서 경공(景公)도 탄식했다오.
 昌楫(창우)

一條霞暈爛成花 한 줄기 노을 무리는 찬란히 꽃을 이루고
 而已西陽嶺影斜 이미 서쪽 벌은 고개에 기울어 비치네.
 紅返平蕪招健犢 거친 들에 붉은 저녁 빛에 건장한 송아지 부르고

74) 삼경(三景): 천상(天上)에 3동(洞) 3원(垣)이 있다 하여 도교(道敎)를 배우는 사람들을 삼경제자(三景弟子)라 한다.

蒼懸古木集群鴉	고목에 푸르게 매달린 여러 까마귀가 모여든다.
唐虞正午知何世	요순(堯舜)의 정오는 어느 세상인 줄 알고
宇宙將昏各自家	천지가 저물어감에 자기 집으로 각자 가는구나.
陟彼齊山應若此	저 제(齊)나라 우산(牛山)을 오름도 이와 같아
景公所以求嘆嗟	경공(景公)이 탄식을 했으리라.

黃崑(황곤)

起吟落照筆生花	낙조를 읊조리자 붓끝에서 꽃이 피고
一抹青山樹影斜	청산 끝에서는 나무 그림자가 기울어지는구나.
白入疎松知是鶴	흰 물체 성근 소나무에 들자 학인 줄 알고
黑來疊嶂莫非鴉	검은 물체 첩첩한 벼랑에 오자 까마귀 아님이 없네.
醉翁同樂滁亭席	저정(滁亭) ⁷⁵ 의 자리에서 취옹(醉翁)과 함께 즐기고
俠士論心劇孟家	극맹(劇猛) ⁷⁶ 의 집은 협사(俠士)와 마음을 논하였지.
頓覺斯間年矢促	이 사이에서 세월이 화살처럼 빠름을 깨달으니
木強人亦爲之嗟	변통이 없는지라 사람 또한 탄식을 한다오.

炳齊(병제)

75) 저정(滁亭): 제정은 송(宋) 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제주 태수(滁州太守)로 있을 때 이름 지은 취옹정(醉翁亭)을 가리킨다. 그는 이 정자에 여러 손들과 함께 놀면서 취옹정기(醉翁亭記)를 지었다. 『古文眞寶 後集 卷6 醉翁亭記』

76) 극맹(劇猛): 낙양(洛陽) 사람으로서 서한(西漢) 때의 저명한 협객(俠客)으로 그 명예가 제후들 사이에서 대단하였다고 함.

5. 銀潭瀑布
은담폭포

廬山飛瀑化銀潭 여산(廬山)의 나는 듯한 폭포⁷⁷⁾가 은담이 되었으니
 地輒東傾水失南 지축은 동쪽으로 기울고 물은 남쪽으로 흘러가네.
 歸海終看王者像 바다로 돌아가 끝내 왕(王)의 형상을 보리니
 巖山或恐俗人談 산을 귀머개 함은 혹시 속인의 이야기를 두려워했나?
 三千尺下疑河落 삼천 길에서 떨어지니 은하수 떨어지나 의심하고
 一六行成見水淡 16줄을 이루니 물의 담담함을 본다오.
 天姥何年來聚石 천모(天姥)⁷⁸⁾ 언제 와서 바위를 모았는가?
 紫霞瓊液使人酣 붉은 노을에 옥 같은 물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네.
 龍洲(용주)

落天銀浦是銀潭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빛 포구가 은담이니
 廬瀑應移漁峽南 여산 폭포가 어성 골짜기 남쪽으로 이사 왔으리라.

77) 여산(廬山)의 나는 듯한 폭포: 중국 여산에는 큰 폭포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어서 이 백(李白)이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읊었다. 『李太白文集 卷18 望廬山瀑布 二首』

78) 천모(天姥): 천모는 전설 속에 나오는 황제(黃帝)를 보좌하던 신하이다. 또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산 이름이 천모산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이백이 천모산에 노니는 꿈을 꾸고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澗飲長虹宜俗眼
溜穿泰石匪虛談
飛流濺雪聲猶冷
倒瀉凝暉色亦淡
直下危巖高幾尺
能令觀者渾如酣

星史(성사)

계곡이 긴 무지개를 마심은 속세의 눈에 마땅하고
흐르는 물이 큰 바위를 뚫음이 허언이 아니로다.
날아 흘러 눈 뿌리듯이 소리는 차갑기도 하고
거꾸로 흘러도 빛이 응축되어 색 또한 담담하네.
위태로운 바위에서 곧장 쏟아져 높이는 몇 척인가?
보는 사람 흡사 즐겁게도 하는구나.

懸流成瀑緩流潭
一派界分山北南
飛下作雷春石面
喧來噴雪滌塵談
散沫噓涼風獵獵
餘波止靜月淡淡
遊人莫道廬山勝
逐水流觴興自酣

南崗(남강)

매달려 흘러 폭포 이루고 완만히 흐르는 못은
한 흐름의 경계가 산을 남과 북으로 나누었네.
날아 쏟아지는 우렛소리 바위 면을 방아질 하고
시끄럽게 들려오며 눈 토해내 속세 말을 씻는구나.
흩어지는 거품 찬 기운 뿜어내 바람도 거칠고
남은 물결 고요함에 그쳐 달은 담담하기만 하다오.
노니는 사람 여산의 승경(勝景)을 말하지 마시게
물결 따라 띄운 잔에 흥이 절로 좋다네.

靑山瀑布注銀潭
始識名區擅北南
照日紫烟眞可見
倚天長劔是誰談
春時堅白深如濁
退後平川淺更淡
從古壯觀惟在此
幾人詩酒咏而酣

東溟(동명)

청산의 폭포가 은담에 물을 대니
명승지가 남북으로 이름남을 이제 알았네.
해 비침에 붉은 안개는 참으로 볼만 하고
하늘에 의지한 긴 칼이라 누가 이야기하였나?
방아질 할 때 단단한 절구는 깊어도 흐리지만
물러난 후에 평온한 시내는 얇고 담담하다오.
예로부터 장관이 오직 여기에 있으니
얼마의 사람이 시와 술에 즐거워했으랴?

一帶銀河千尺潭

한 줄기 은하가 천 척의 못이니

關東疑是古廬南
 晴天不斷轟雷響
 尺地難分碎屑談
 鼓出山心嫌寂寂
 落來水性愛淡淡
 九淵更問龍飛處
 楓岳秋霜已盡酣
 秋畹(추원)

관동은 아마 옛날 여산의 남쪽이었으리.
 맑은 하늘에도 큰 천둥소리 끊이지 않으니
 한 치 땅도 부수어진 말에 구분하기 어렵지.
 북소리 흘러나오니 산의 마음은 적막함 싫어하고
 떨어져나옴은 물의 본성이 담담함을 좋아함이라.
 구연(九淵)에 용이 나는 곳을 다시 묻나니
 단풍산에 가을 서리 내려 이미 즐거움 다했다오.

山上飛泉山下潭
 紫烟秋氣射山南
 眞珠碎壁堪嗟惜
 長鈞依天反笑談
 噴薄聲如霹靂急
 飄颺色似氷霜淡
 遊人始識天藏境
 醒得多年舊夢酣
 小山(소산)

산 위에서 나는 물줄기 산 아래에서 못이 되니
 붉은 안개 가을 기운이 산 남쪽을 쏘는구나.
 진주 부서지는 절벽에서 탄식을 감내하고
 장검이 하늘에 의지하니 도리어 웃으며 이야기하네.
 뿜어내는 시끄러운 소리는 벼락처럼 급하고
 드날리는 색은 얼음과 서리처럼 담담하도다.
 노니는 사람 처음 하늘이 감춘 경계(境界)를 알고
 여러 해 동안 깨어 있어도 옛꿈이 좋다오.

急處噴銀靜處潭
 長川掛在小江南
 初聞笙磬飄仙樂
 更試江河騁客談
 日照烟光生細細
 鏡明雲影共淡淡
 心神透到清幽境
 酌盡淺深不作酣
 錦樵(금초)

급한 곳에 분출하는 은빛은 고요한 곳에서 연못이요
 긴 시냇물은 소강남(小江南)에 걸려 있네.
 신선의 음악 생황과 경쇠 소리 처음 듣고
 강하에서 떠도는 나그네 이야기 다시 시험하네.
 해 비치자 안개빛 가늘고 가늘게 생기고
 달 밝아 구름 그림자 담담함을 함께 하는구나.
 마음과 정신이 맑고 그윽한 경지에 이르니
 잔은 얕고 깊음을 다하여 흥이 일지 않네.

一條飛瀑注清潭
 磐麓平鋪小嶝南
 遙看落河真勝狀
 上流聚石亦奇談
 雷轟絕壁浮泡轉
 虹飲長汀宿靄淡
 依筇據石望望立
 不覺疎衿盡日酣
 石樵(석초)

한 줄기 나는 폭포가 맑은 못에 물을 대니
 너럭바위 기슭은 평포하여 작은 고개 남쪽이네.
 멀리 떨어지는 은하를 보니 참으로 좋은 모양이요
 위에서 모인 바위에 흘러 또 기이한 이야기 있어라.
 우레 울리는 절벽에 뜬 거품 회전하고
 무지개 물 마시는 긴 물가에 아지랑이 담담하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바위에 아득히 서 있자니
 성근 옷깃 깨닫지 못하고 종일 감미롭구나.

半壁瀑流直注潭
 一條界破限西南
 雷動雪噴鳴地輶
 珠聯玉散潤詩談
 飛下長川何急急
 終歸大海更淡淡
 看來不讓廬山景
 自是遊人逸興酣
 近溪(근계)

반쪽 벽에 폭포 흘러 곧장 연못에 물을 대니
 한 줄기는 서남쪽을 한정된 경계를 깬다네.
 우렛소리 진동하고 눈 뿜어내며 지축을 진동하고
 구슬 잇고 옥이 흩어져 시 이야기를 운택하게 한다.
 날아 긴 시냇물로 떨어짐은 어찌 저리 급한가?
 끝내 큰 바다로 돌아가 다시 담담해질 것이리라.
 보고 나면 여산(廬山)의 경치에 양보하지 않으리니
 저절로 노니는 사람의 빼어난 흥 일게 한다오.

長長練匹掛銀潭
 鼓動殷雷在彼南
 眼纈圓方珠玉色
 耳攻咫尺是非談
 一壑海鳴山撼響
 九天河落水春淡
 又兼秋葉混聲裡
 壯勢千軍如戰酣
 峴愚(현우)

길고 긴 비단이 은담(銀潭)에 걸쳐 있으니
 북소리 울리자 성한 우렛소리 저기 남쪽에 있네.
 둥글고 모난 구슬과 옥 빛깔 눈에 맺히고
 지척에서 시비의 말소리 귀를 공격한다오.
 한 골짜기가 바다를 울리니 산은 흔들려 울리고
 하늘 끝에서 은하수 떨어지는 방아질 담담하네.
 또 어지러운 소리 속에 가을 잎을 겹하였으니
 천만의 군대가 싸우는 것 같은 웅장한 형세 좋구나.

誰挽銀河注此潭 누가 은하를 당겨 이 연못에 물을 보냈나?
 古來名擅漢之南 예로부터 한수 이남에서 이름 떨쳤다네.
 垂簾始信朱陵句 말 내리져 있어 비로소 주릉(周陵)⁷⁹⁾의 구절을 믿고
 如練曾從白傳談 비단 같아 일찍 이백전(李白傳) 이야기를 따랐다오.
 日照爐峰烟擁紫 해가 향로봉에 비추자 안개가 자줏빛을 감싸고
 灘鳴龍沼水增淡 여울은 용소(龍沼)에서 울며 물은 담담함을 더하였네.
 何令有友還多酒 어찌 벗이 있는데 다시 술을 많이 하였나?
 與我臨流共醉酣 나와 흐르는 물가에서 함께 취함이 좋도다.
 笑堂(소당)

銀河飛落作銀潭 은하가 날아 떨어져 은담이 만들어졌으니
 名瀑長懸擅漢南 폭포는 길게 매달려 한수 남쪽에 이름을 떨치네.
 日照香爐多絕景 해가 향로봉을 비추자 절경이 많고
 石高天姥與堪談 바위는 천모산(天姥山)에 높아 이야기 감당할 만하다.
 山人挽酌疑瓊液 산 사람은 술잔 잡고 경액(瓊液)⁸⁰⁾인가 의심하지만
 君子爲交取水淡 군자(君子)는 벗 사귄데 물의 담담함을 취하지.
 何事怒濤千尺起 무슨 일에 노한 파도 천 길로 일어나는가?
 白場詩敵戰猶酣 백일장에서 시로 대적하면 싸움이 즐거우리라.
 雪隱(설은)

遙看瀑布銀之潭 폭포와 은빛 연못을 멀리서 보니
 倒壁層層折地南 벽에 매달려 층층이 땅 남쪽을 절단하네.
 李公石筆曾過處 이공(李公)의 바위에 글씨⁸¹⁾는 일찍이 지났던 곳이요
 蔡宰楸詩已絕談 채공(蔡公)의 호두시⁸²⁾는 이미 이야기 끊어졌지.

79) 주릉(周陵):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36동천(洞天)의 하나로, 호남성(湖南省) 형산현(衡山縣)에 있다. 주릉동천(朱陵洞天)이라고도 하며, 신선이 사는 곳을 비유한다.

80) 경액(瓊液): 술의 미칭(美稱)으로, 도교에서 말하는 옥액(玉液)이다. 이를 복용하면 오래 산다고 한다. 당(唐)나라 우곡(于鵠)이 지은 시 「산중방도자(山中訪道者)」에 “죽지 않는 방술을 보여 주기 바라오니, 어느 산에 경액이 있는지 말이네[顯示不死方 何山有瓊液].” 라고 하였다.

81) 이공(李公)의 바위 위에 쓴 글씨: 녹은(鹿隱) 이형익(李衡翼)이 운문(雲門)의 바위 위에 ‘운문암(雲門庵)’이라 쓴 글씨를 이른다.

還同千尺廬山下
疑是九天河漢淡
清可濯纓君素志
晚年觴詠興猶酣
蓮宇(연우)

다시 천 길의 여산(廬山) 아래와 같으니
하늘 끝에서 은하수 인가하는 이야기라네.
물 맑으면 갓끈 씻음이 그대 평소의 뜻이니
만년에 술잔 기울이고 시 읊는 흥 오히려 좋구나.

一泓飛流銀作潭
砲車宛轉走溪南
井觀最小今初見
河辯雖雄未敢談
石竇崩騰春勢急
波心凌亂躍光淡
願將此水盃中瀉
聊與衆賓資宴酣
素山(소산)

한 흐름이 날아 흘러 은빛의 연못을 만드니
대포 수레는 완연히 굴러 계곡 남쪽으로 달리네.
우물 안에서 가장 작은 것만 보다가 지금 처음 보니
황하가 비록 웅장하다 하나 감히 말할 수 없대오.
바위 구멍 무너질 듯 올라 떨어지는 형세 급하고
물결 중심 어지러이 뒤섞여 번쩍이는 광채 담담하네.
장차 이 물을 술잔에 쏟기를 원하지만
애오라지 여러 손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음이 즐겁네.

疑是銀河落此潭
山從飛瀑圻東南
注時江漢猶難及
懸處儀秦不敢談
直下號風聲活活
虛中春月影淡淡
廬岑千尺金剛萬
在在烟霞入夢酣
白又(백우)

은하수가 이 연못에 떨어졌나 했으니
산은 나는 폭포로부터 동남으로 트였구나.
물을 댈 때 강한(江漢)도 오히려 미치기 어렵고
매달린 곳은 의진(儀秦)⁸³도 감히 말할 수 없어라.
곧장 쏟아지며 부는 바람 소리 활발하기도 하고
빈속에 방아 찧는 달그림자 담담하기도 하다.
천 길 여산(廬山) 봉우리와 만개의 금강산(金剛山)도
구름과 노을마다 꿈에 들어 즐겁구나.

幾丈流餘半畝潭

몇 길 흐르는 나머지에 반 이랑 연못이니

82) 채공(蔡公)의 호두를 따는 시: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의 ‘호두를 따는 시[打楸之詩]’ 를 말한다.
83) 의진(儀秦): 의진은 전국 시대의 유세가(遊說家)인 장의(張儀)와 소진(蘇秦)을 지칭한다.

一條瀑沫掛于南
玉碎雪催開別界
風駟雷動賸喧談
勢撼乾坤危鳥落
光爭日月陋人淡
未知那物誰主宰
灑滌胸衿渾忘酣
龔岩(농암)

한 줄기 폭포가 남쪽에 걸려 있구나.
옥 부수어지고 눈 재촉해 별세계 열려
바람 몰고 우레 동하자 본 것 시끄럽게 말하네.
형세는 하늘과 땅을 흔들어 위태한 새가 떨어지고
빛은 해와 달을 다투어 누추한 사람도 담담하구나.
어는 사물을 누가 주재한 줄 모르지만
흥금을 깨끗하게 하니 모두 잊어 즐겁구나.

一道銀河漱碧潭
乍聞北嶂又溪南
急湍定洗煩惱賊
清淨如持本色談
曬絹垂帛三分畫
亂玉飛瓊一味淡
東峽高江雷轉下
快看楚將戰兵酣
樵史(초사)

한 길로 은하수가 푸른 연못을 양치질하니
잠시 들으면 북쪽 산인 듯하고 계곡 남쪽인 듯하다.
번뇌의 적을 급한 여울에 바로 씻어버리고
본래 색을 이야기함이 청정함을 가진 듯하네.
별에 비단 늘어뜨린 듯하여 분명 그림과 같고
어지러운 옥과 날아가는 옥은 한결같이 담담하다.
동쪽 협곡에 높은 강물은 우렛소리 전해오니
초나라 장수 싸우는 것 상쾌히 보는 듯 즐겁구나.

銀瀑吁噏注碧潭
廬山雙脈鎮東南
雪催色眩千人眼
雷吼聲聳萬象談
靈感修因天地久
光輝超俗古今談
觀瀾有術吾何敢
爽氣漸醒昨夜酣
石下(석하)

은빛 폭포가 우는 소리로 푸른 연못으로 물을 대니
여산의 두 맥이 동남쪽에 자리 잡았도다.
천 사람 눈을 눈이 현란하게 하고
만상을 이야기하는 우레 울리는 소리가 귀먹게 하네.
영감으로 인연(因緣)을 닦아도 천지는 유구하고
눈부시게 빛나 속세를 초월함을 고금에 이야기했지.
물결을 보는 데도 방법이 있으니 어찌 쉽게 하랴?
지난 저녁 즐거움이 맑은 기운에 점차 술이 깨노라.

遙看瀑布掛銀潭
 山自北來川自南
 平地海鳴渾別界
 從天河落是銀談
 空中石立能爲激
 就下水分漸且淡
 到此詩人心爽潤
 臨風那不酒杯酣
 松隱(송은)

멀리 바라보면 폭포가 은담에 걸려 있으니
 산은 북쪽에서 오지만 시내는 남쪽에서 오네.
 평지에 바닷소리 울리니 흡사 별세계요
 하늘로부터 물이 떨어져 은하수라 하는구나.
 공중에 바위 솟아 부딪치다가
 흘러내린 물 나뉘어 점차 담담해지네.
 이에 이르러 시인의 마음 상쾌하고 트여
 바람 앞에 어찌 술이 달지 않으랴?

四景銀河垂碧潭
 晴天霹靂在山南
 側聽沉吟疑夢境
 仰看快笑試雄談
 明珠落處堪嘆惜
 急雨來時忽冷淡
 萬般聲色都歸寂
 一念如醒又如酣
 迂軒(우현)

사시의 경치 은하수가 푸른 연못에 흐르니
 맑은 하늘에 벼락이 산 남쪽에 있다네.
 곁에서 들으며 시 읊음에 꿈속 정경인가 의심하고
 우리러보며 쾌하게 웃고 웅장한 이야기 시험해보네.
 맑은 구슬 떨어지는 곳은 어찌 탄식을 감당하며
 급한 비 올 때 갑자기 냉담해지네.
 모든 소리와 색이 적막한 곳으로 돌아가리니
 한마음은 술 깬 듯하다가 또 취한 듯하다.

紫烟飛瀑注銀潭
 第一名區多在南
 景致無邊曾有說
 壯觀此外復何談
 怒賁素光如玉散
 流波碧落疑河淡
 聊看白日晴雷動
 眩眩一心混混酣
 南溪(남계)

자색 안개 나는 폭포가 은담에 물을 대니
 제일의 명승지가 남쪽에 많이 있구나.
 경치가 끝없어 일찍이 이야기 있었으니
 장관을 이곳 밖에서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랴?
 성내어 분출하는 흰 광채 옥이 흩어지는 듯하고
 흐르는 물결 푸르게 떨어져 은하의 담담함 의심하네.
 애오라지 대낮에 우레 우는 것을 보라!
 어지러운 마음 섞이고 섞여 좋으리라.

遙看瀑布掛銀潭
 河落九天北斗南
 殷其雷動難爲像
 逝者流斯便可談
 白練一條雲外直
 萬斛明珠水中淡
 蒼空不遠飛湍急
 噴雪風波草色酣
 退齋(퇴재)

멀리 보니 폭포는 은담에 걸려있어
 물은 하늘의 북두가 남으로 떨어지는 듯하네.
 그 우렛소리 성하여도 형상하기 어렵고
 가는 것이 이처럼 흐른다⁸⁴)고 문득 말할 수 있도다.
 흰 비단 한 줄기가 구름 밖으로 곧고
 만 섬의 밝은 구슬이 물속에서 담담하다오.
 푸른 하늘은 멀지 않고 나는듯한 여울은 급하니
 눈 날리는 듯한 바람 물결에 풀빛도 좋구나.

上流瀑布下深潭
 飛沫亂淙卽射南
 遙看川掛文章眼
 直瀉河懸辯士談
 澎湃風前聲活活
 昭回日下影淡淡
 西山落照餘暉倒
 波影翠光隱映酣
 訥庵(늘암)

상류는 폭포요 하류는 연못이니
 나는 물방울 어지러이 흐르며 남쪽으로 쏘는 듯하다.
 멀리 시냇물 걸려 있음을 보니 문장의 눈과 같고
 곧장 은하수를 쏟음은 변사(辯士)의 말 같아라.
 바람 앞에 물결 이는 소리 우렁차고
 햇볕 아래 빛나며 도는 그림자 담담하기도 하네.
 서산의 낙조에 남은 빛 거두어 가니
 파도 그림자의 푸른 빛 은근히 비춤도 좋구나.

絕巖瀑布春銀潭
 西出長川動地南
 下飲長虹揚瑞彩
 界來翠壁作雄談
 錯認雷霆聲急急
 如傾河漢色淡淡

절벽 바위에 폭포는 은담에 절구질하니
 서쪽에서 긴 시내가 흘러 땅 남쪽을 진동한다오.
 긴 무지개를 마시며 상서로운 빛 드날리고
 푸른 절벽 경계에 와서 웅장한 이야기를 만드네.
 소리 우렁차 천둥소리인지 착각하고
 빛깔도 담담하여 은한(銀漢)을 기울인 듯하다.

84) 가는 것이 이처럼 흐른다: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시기를[子在川上],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逝者如斯夫]! 밤낮을 쉬지 않는다[不舍晝夜].’ ” 라고 한 말이 실려 있다.

飛流千尺誰云景 천 길 높이에서 쏟아지는 경치라 누가 이야기했나?
 觀者心神反眩酣 보는 사람 마음과 정신이 도리어 아련히 좋구나.
 石澗(석간)

飛出石間注碧潭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와 푸른 연못에 물을 대니
 常時驟雨在 항상 쏟아지는 비가 산의 남쪽에 있도다.
 雷鳴平地驚人耳 우리가 평지에 울려 사람 귀를 놀라게 하고
 河落九天傳客談 물이 하늘 끝에서 떨어져 나그네는 이야기를 전하네.
 古港蘚侵多滑滑 옛길에 이끼 침범하여 미끄러움이 많고
 下流波穩正淡淡 하류는 파도 평온하여 담담하기도 하다오.
 春撞亂碎銀千斛 은 천 섬도 절구질에 어지러이 부서지나니
 盡日憑看興自酣 종일 보는 것에 의지해도 흥이 절로 좋구나.
 菊下(국하)

萬里銀河掛碧潭 만 리의 은하수가 푸른 연못에 걸려 있으니
 遙看瀑布勝衡南 멀리서 보면 폭포가 형산(衡山) 남쪽보다 좋도다.
 中央大鬧馮夷窟 중앙에서 크게 시끄러운 것은 풍이(馮夷)⁸⁵의 굴이니
 咫尺難分玉女談 지척에서 옥 같은 여인들 담소해도 구분키 어렵네.
 湧作泡花生眼纈 솟는 물이 거품 꽃 만들어 눈이 호강하고
 匯開鏡面照心淡 도는 물이 거울 만들어 마음의 담담함을 비추는구나.
 微泉似欲先歸海 가는 샘물 먼저 바다로 가고 싶은 듯하지만
 怒吼相逢一戰酣 성내 소리 지르며 서로 만나 싸우는 것도 좋아라.
 滄農(창농)

誰將江海接天潭 누가 강과 바다가 하늘 연못에 닿을 거라 했나?
 翻倒飛流絕壁南 절벽 남쪽으로 거구로 날아 흐르는구나.
 敢易狂瀾回古道 감히 어지러운 물길 바꾸어 옛길 회복하려 하고

85) 풍이(馮夷): 전설 속의 황하(黃河)의 신 곧 하백(河伯)이다.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풍이는 도를 터득하여 황하에 노닐었다.[馮夷得之, 以遊大川.]” 라고 하였다.

試思懸漢較雄談 시험으로 매달린 은하수를 응담(雄談)과 비교하네.
 一條練掛青山色 한 가닥 명주 줄 매다니 청산의 빛이요
 萬貫珠連白月淡 만 개 꿰어 구슬 이으니 흰 달처럼 담담하네.
 但覺醞醑灌頂上 단지 제호(醞醑)⁸⁶를 정상에서 흘러줄을 깨달아
 灑然醒處兀然酣 맑게 깨는 곳이라 우뚝이 좋구나.
 晚翠(만취)

飛瀑掛流 나는 폭포 매달아 흘러
 上碧落下銀潭 위에서 푸른 물이 아래 은담으로 떨어지네.
 貫四時長一色 사계절 내내 한 빛으로
 青山界破崖 푸른 산의 경계를 부수었구나.
 北南夷險度 남북의 평범하고 험한 정도 따라
 來波疾徐 오는 물결 빠르고 느리다.
 胸浩浩容淡淡 가슴은 넓고 넓으며 얼굴은 담담한데
 澄不清方渚 맑거나 맑지 않음은 바야흐로 뒤섞인다.
 不濁子聽我魏晉談 탁하지 않은 그대여 나의 위진(魏晉)의 말을 듣게
 對友流觴忘百憂 벗 대하고 술 마시며 온갖 근심 잊으니
 倒裳散步不辭酣 옷 거꾸로 입고 산책함도 사양하지 않으리라.
 東溟(동명)

跋刺銀鱗泳碧潭 은빛 비늘 휘날려 푸른 연못을 헤엄치니
 遙看瀑布掛西南 멀리서 보면 폭포는 서남쪽에 걸렸구나.
 鳴時易罷蛟龍睡 울 때에는 교룡의 줄음도 쉽게 끝나고
 巖處難聞野老談 시끄러운 곳에서는 시골 노인 소리도 듣기 어렵네.
 倒瀉層崖雷響急 층층의 벼랑에서 거꾸로 쏟아부어 우렛소리 급하고
 溯洄深沼鑑光淡 깊은 소(沼)를 거슬러 가니 거울 같은 빛이 담담하다.
 提壺鳥下青山暮 술병 들리는 새 소리 아래 청산은 저물어가고
 覽物騷人興味酣 사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흥은 좋기만 하네.

86) 제호(醞醑): 제호(醞醑) 연유 위에 기름 모양으로 엉긴 맛좋은 액체.

竹翁(죽옹)

懸崖飛瀑掛銀潭
 玉峙以東漢水南
 便作泡花浮石面
 終歸灌稱洽農談
 疑是河流千尺下
 異諸涇濁十分淡
 願添泉冽新釀酒
 潦倒漁城不勝酣

寄隱(기은)

萬丈瀑流銀作潭
 眞源難辨北西南
 古人云此水心惑
 今日見之水面談
 滿地雨聲多夏急
 傾天河色近秋淡
 臨觀不畏餘波及
 快滌煩襟更欲酣

素軒(소헌)

遙看瀑布下銀潭
 闢破青山限北南
 落河駭矚文章眼
 流水如駛辯士談
 倒懸曲曲泡花出
 暴注聲聲玉色淡
 方春風浴於斯足

벼랑에 매달린 폭포가 은하를 걸어 놓은 듯한 곳은
 면옥치(綿玉峙) 동쪽과 한수(漢水)의 남쪽이네.
 문득 거품 꽃은 바위 면에 떠 있고
 끝내 물 대는 칭찬 농부의 말을 흡족하게 한다오.
 은하가 흐르는지 의심하니 천 길로 내려오고
 흐름이 탁함과 달라 매우 담담하다오.
 찬 샘물 더하여 새로 술 담기를 원하노니
 큰비가 어성에 오면 좋은 마음 이기지 못하겠네.

만 길의 목포 흘러 은빛으로 만든 연못
 북, 서, 남의 진원(眞源)을 구분하기 어렵구나.
 옛사람은 이를 깨끗한 마음의 의혹이라 했으니
 오늘날 보고 수면에서 이야기하네.
 땅에 가득한 빗소리는 여름 소나기가 많고
 하늘 기우린 물의 색은 가을의 담담함에 가까워라.
 옆에서 보면 남은 파도 이름도 두렵지 않아
 가슴의 번뇌를 씻으니 더욱 좋구나.

멀리서 보면 폭포 아래는 은담이니
 청산을 열어 부수어 남북으로 한계를 그었네.
 떨어지는 은하는 문장의 안목 같음에 놀라고
 흐르는 물은 변사의 말처럼 빠르구나.
 거꾸로 매달려 굽이마다 물방울 꽃이 피고
 폭포의 물 대는 소리마다 옥빛으로 담담하다.
 꽃다운 봄 여기에서 바람에 목욕함이 족하고

可與冠童載酒酣 관동(冠童)이 함께 가져온 술맛도 좋아라.
 文式(문식)

銀瀑飛流直下潭 은빛 폭포 날아 흘러 곧바로 은담으로 떨어져
噴咆如雪散東南 소리 내뿜으며 눈처럼 동남쪽에 흩어진다.
一聲動地雷公擊 뇌공(雷公)⁸⁷⁾이 치니 한 소리가 땅을 울리고
萬斛懸河辯士談 변사(辯士)의 입담처럼 만 섬의 은하가 걸려 있네.
斷壑烟生朝日紫 끊어진 골에 안개 일자 아침 해가 붉고
晴川虹飲水雲淡 맑은 내는 무지개를 마셔 물안개가 담담하다.
雄波激起胸濤濶 웅장한 물결 격하게 일어 가슴에 물결이 일렁이고
鬱鬱男兒氣似酣 울창한 남자아이의 기운처럼 좋기도 하다.
 齊根(제근)

一泓銀河瀉碧潭 한 줄기 은하수가 푸른 연못에 쏟아지니
晴雷自動水西南 서남쪽 물에서 맑은 우레 저절로 동한다.
聳處肩山歸壯觀 솟은 곳 어깨처럼 속은 산은 장관이요
注時胸海吐雄談 물 떨어 때 가슴 같은 바다로 웅장한 이야기 토해내네.
白練垂空千尺許 흰 비단 하늘에서 떨어져 천 길이나 되고
紫烟生照十分淡 자색 안개에 비친 빛 얼마나 담담한가!
賞心料得廬山瀑 감상하는 마음 여산의 폭포를 생각하게 하니
白也當年詠以酣 올해를 이야기함에 읊조림이 좋기도 하네.
 敬堂(경당)

上懸瀑布下銀潭 위는 매달린 폭포요 아래가 은담이니
退關群巒繞北南 뒤돌아 못 산을 열며 남북을 들렀네.
盡日送聲來耳遠 종일 보내는 소리를 귀에 원대하게 들려오고
帶秋爽氣動心談 가을에 맑은 기운 마음의 이야기를 동하게 한다.
轉挾長虹歸可賞 돌아 늘어진 긴 무지개 돌아가 감상할 수 있고

87) 뇌공(雷公): 전설상의 우레를 맡은 신이다.

飛流千尺見何淡
願棄人間多少事
遊來此地渾忘酣
漢奎(한규)

날아 흐르는 천 길을 봄이 얼마나 담담한가!
인간의 번잡한 일 잊기를 바라니
이 땅에 노닐러 옴에 모두 잊어 즐겁구나.

瀑布奔流銀作潭
峽中山水小江南
谷簾百尺誰能識
磐石千年可與談
白日雷風聲自薄
青山霞雨影生淡
漁城咫尺香爐在
緩步時登斗酒酣
復來(복래)

폭포가 분출하듯 흘러 은빛 연못을 이루니
고개 속에 산과 물은 작은 강남을 이루었구나.
골짜기 밭 백 척이라도 누가 알 수 있겠는가마는
너럭바위 천 년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네.
대낮이라 우레와 바람 소리 저절로 얇고
푸른 산이라 노을에 비 생겨도 담담하네.
어성이 지척이라 향로봉이 있어
느린 걸음으로 때로 오르며 말 술이 좋도다.

長川瀑布掛銀潭
縮地廬山示在南
泡沫東西宜嗽玉
風雷咫尺不聞談
四時幽澗長虹飲
一泓層巖活水淡
疑是銀河天上落
幾人到此酒杯酣
駿秉(준병)

긴 시냇물의 폭포가 은담에 걸려있으니
여산을 축지법으로 보니 바로 남쪽에 있구나.
물거품 동서로 날리며 옥 같은 바위를 양치질하고
바람에 우레는 지척에서 이야기가 들리지 않네.
그윽한 계곡은 사계절 내내 긴 무지개가 마시고
층층의 암벽으로 한 줄기 살아 있는 물이 담담하다.
거의 은하수가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
몇 사람이나 여기에 이르러 술을 달게 마셨을까?

瀑掛長川水滿潭
風光盡在一山南
疑河太白如今日
立石麻姑有古談

폭포가 걸려있는 긴 시내는 물이 연못에 가득한데
풍광은 모두 한 산의 남쪽에 있구나.
이태백(李太白)이 은하수를 의심함이 오늘 같았다면
마고(麻姑)⁸⁸⁾에 비석 세운 옛이야기 있었겠지.

雷動烟生山氣暗 우레 동하고 안개 생겨 사 기운이 어두워지고
 珠聯玉碎派流淡 구슬 이은 옥 부수어지는 흐림이 담담하다.
 終歸大海波濤作 끝내 큰 바다로 돌아가 파도를 만들 것이니
 玩物斯間意自酣 사물을 즐기는 이 사이에 뜻이 더욱 즐겁구나.
 昇栢(승우)

壯觀瀑布說銀潭 폭포의 장관을 보고 은담을 이야기하니
 玩客自東又自南 완상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왔네.
 白玉噴流驚俗眼 백옥을 토하며 흘러 속세의 안목 놀라게 하고
 青山界破詠詩談 푸른 산은 경계를 파괴해 시인의 이야기를 읊네.
 虹垂飲澗光文眩 무지개 드리워 계곡물 머금은 찬란한 무늬 눈부시고
 日照生烟影子淡 해 비치자 안개 생겨도 그림자는 담담하다.
 一抹廬山移在此 한끝이라도 여산을 여기에 옮겼으니
 坐臨泉石倒樽酣 풍광 옆에 앉아 술통 비움도 좋구나.
 基復(기복)

遙看瀑布掛銀潭 아득히 폭포가 은담에 걸려있음을 보니
 第一奇觀漢水南 가장 뛰어난 경관이 한수(漢水) 남쪽이네.
 萬古練如眞色相 오랜 세월 비단 같은 참된 색의 모양으로
 九天河落豈荒談 하늘에서 은하가 떨어짐이 어찌 황당한 말이라?
 谷簾搖颺風光細 골짜기의 발은 바람에 흔들려도 풍경이 세세하고
 珠玉散聯月影淡 주옥같은 매달림이 흩어지니 달그림자 담담하다.
 別有長虹垂飲澗 특별히 긴 무지개가 늘어져 계곡물 마시니
 不勝清興往而酣 맑은 흥을 이기지 못하고 감이 좋구나.
 基成(기성)

壯觀四景到銀潭 장관인 사계절 경치의 은담에 이르니

88) 마고(麻姑): 마고단(麻姑壇)이다. 마고산(麻姑山) 꼭대기에 고단(古壇)이 있는데 전설에 마고(麻姑)가 여기에서 득도(得道)하였다고 한다.

瀑布流飛絕壁南
聲學雷鳴晴日雨
勢疑河落古人談
翻珠萬斛波心白
春石千年水氣淡
驚夢雲窓閒臥起
林泉興味盡情酣

昌楫(창우)

폭포는 절벽 남쪽에서 흘러 날리네.
소리는 우렛소리를 배워 맑은 날에도 비를 뿌리고
형세는 은하가 떨어졌나 의심한다고 고인이 말하네.
뒤집히는 구슬과 만 말의 물결에 마음 깨끗해지고
바위에 쪼름이 천년에도 물기운 맑구나.
놀라 꿈을 깨어 일어나니 구름 낀 창은 한가롭고
숲과 샘물에 흥 일어 마음 다해도 좋구나.

銀瀑飛流下急潭
遙看林壑美西南
衆山雷動心無寂
一道河懸口尙談
其雨霏微旋杲矣
餘波滄蓄乃淡淡
秋來楓樹皆堪賞
素沫蒼崖獨戰酣

黃崑(황곤)

은빛 폭포 날아 흘러 아래에 급한 연못이 되니
멀리 숲과 계곡을 보니 아름답게 서남쪽에 있네.
못 산은 우레가 울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는데
한 길로 은하가 매달렸다고 여전히 이야기하네.
그 비 가늘게 뿌리다 다시 높고 높더니
나머지 과도는 멈추고 쌓여 이내 담담해졌어라.
가을이 오면 단풍나무는 모두 감상할 만하니
흰 물방울 푸른 벼랑에 홀로 팀이 좋구나.

千丈瀑流百尺潭
雷霆日夜動西南
狂奔疊石聳山岳
錯認落河駭俗談
白練飛時兼玉碎
紫烟起處又雲淡
渾身如坐香爐上
一派聲中斗酒酣

炳濟(병제)

천 길 폭포에 백 척의 연못이
낮 밤으로 천둥소리 서남에 동하게 하네.
첩첩한 바위를 미친 듯 달려 산악을 울리니
떨어지는 은하인 줄 착각했다는 속담에 놀란다.
흰 비단 날릴 때 함께 옥도 부수어지는데
자색 안개 일어나는 곳은 또 구름이 담담하구나.
온몸이 향로봉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
한 줄기 소리에 말 술도 좋구나.



6. 爐峰明月

향로봉의 밝은 달



爐烟初歇月生峰	향로봉의 안개 처음 걷힘에 달이 봉우리에 떠
近水書樓自我逢	물 가까운 서쪽 누각에서 자아(自我)를 만났네.
萬古天香丹有桂	붉은 계수나무가 있으니 오랜 세월 하늘의 향기요
千重山色碧看松	푸르른 소나무를 보니 천 겹의 산빛이네.
冰輪盈體能生魄	얼음 바퀴는 몸을 채워 생백(生魄) ⁸⁹⁾ 해지고
玉鏡無塵可鑑容	옥 거울은 티끌 없어 얼굴을 비출 수 있다오.
欲睡解衣因不寐	잠자려고 옷을 벗어도 잠들 수 없더니
微雲點綴露華濃	가는 구름 영겨 붙어 이슬 짙게 내렸네.

龍洲(용주)

爐罷夕烟月上峰	화로 꺼지고 저녁 안개에 달이 봉우리에 오르니
停盃一問幾時逢	잔 멈추고고 어느 때 만날지 한 번 물어보네.
天晴萬里蟾懸桂	만 리에 하늘 맑아 두꺼비 ⁹⁰⁾ 가 계수나무에 달렸고
夢冷三更鶴依松	삼경에 잠이 깨어보니 학은 소나무에 의지해있네.

89) 생백(生魄): 생백은 ‘백(魄)이 생기기 시작한다’ 는 뜻으로, 달이 완전히 둥글어진 날의 이튿날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90) 두꺼비: 달에 두꺼비가 산다고 하여 섬월(蟾月) 또는 섬(蟾)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碧洞虛明圖裡色 푸른 골은 허하고 밝아 그림 속의 빛이요
 遠山軒露鏡中容 먼 산 집은 이슬 내려 거울 속 모습이라.
 景光那得清如許 풍경이 어찌 저리 맑음을 수 있나?
 愛看書窓睡未濃 서재 창에서 보기 좋아해 잠도 오지 않는구나.

星史(성사)

焚香默坐對爐峰 향을 태우며 묵묵히 앉아 향로봉을 대하니
 峰與月期時適逢 봉우리와 달은 기약한 시간에 만나네.
 瑤鏡分明磨積石 옥거울 분명하니 쌓인 돌을 갈았고
 氷輪宛轉礙疎松 얼음 바퀴 완연히 등글어 성근 소나무에 막힌다.
 詩僧門下敲來子 시승(詩僧)은 문 아래에서 오는 사람 시구를 고치고
 玉女牆頭露出容 옥 같은 여인은 담장 옆에서 얼굴을 드러내네.
 遙憶草堂今夜影 멀리 초당에 오늘 밤도 그림자 어림을 생각함에
 上人應未睡眉濃 상인은 응당 잠 못 들고 눈가를 적시리라.

南崗(남강)

坐看香爐第幾峰 앉아 향로봉을 보니 몇 개의 봉우리인가?
 故人洗面喜相逢 옛사람이 얼굴 씻고 기쁘게 서로 만났으리.
 境閒林館明生竹 경계는 한가로워 숲속 집은 대나무가 밝게 자라고
 夜久山房靜入松 밤이 깊어 산속 집은 소나무 숲에 고요히 들어 있네.
 魯連海上依依影 노련(魯連)⁹¹⁾은 바다 위에서도 의연한 모습이었고
 分亮樓下淡淡容 유량(庾亮)⁹²⁾은 누각 아래서 담담한 모습이었어라.

91) 노련(魯連): 노중련(魯仲連)으로, 제(齊)나라의 장수이다. 일찍이 조(趙)나라에 머물러 있을 적에 위(衛)나라에서 진(秦)나라 왕을 황제(皇帝)로 추대하여 군대를 철수시키게 하려고 하자, 노중련은 진나라가 무도한 나라임을 역설하면서, 진나라가 칭제(稱帝)한다면 자신은 동해(東海)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하여 중지시켰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92) 유량(庾亮):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원규(元規)이다. 풍골이 준수하고 흥취가 높았던 인물이다. 『산당사고(山堂肆考)』 권3 「유량등루(庾亮登樓)」에 “진나라 유량(庾亮)의 자는 원규(元規)이다. 자사로 무창을 다스릴 때에, 좌사 은호의 무리가 가을밤 달빛 아래 남루에 올랐다. 얼마 뒤에 유량이 오자 여러 장수들이 일어나 피하려고 하였다. 유량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잠시 머물라. 내가 여기에 흥이 없지 않다.’ 라고 하고, 드디어 호상에 기대 은호 등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시를 읊었으니, 그의 탄술함이 이와 같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한편 송나라 고저(高翥)의 시에도 “유량이 황학루

青天起問來時約 푸른 하늘에 일어나 오는 때를 물어 약속하고
使我暫停酒杯濃 나를 잠시 머물게 하더니 술잔이 진하구나.

秋暉(추원)

團團明月出爐峰 둥글고 둥글게 밝은 달이 향로봉에서 나오니
相訪琴書夜夜逢 서로 방문하여 거문고와 책으로 밤마다 만나네.
長許千尋其下竹 길게 천 길을 허락한 그 아래는 대나무요
纖懸百尺這間松 가늘게 백 척을 매달린 이 사이에는 소나무로다.
再遊赤壁來清興 적벽(赤壁)에 다시 노닐어도 맑은 흥이 일고
一問青蓮坐醉容 청연암(靑蓮庵) 한 번 물으니 취한 손님 앉아 있네.
莫似君家無盡用 그대 집에 끝없는 쓰임과 같지 않아도
與梅盡得墨花濃 매화와 함께 모두 묵화(墨花)가 진하리라.

東溟(동명)

滿月山中第一峰 만월산(滿月山) 속의 가장 높은 봉우리
爐烟月色兩相逢 향로봉의 안개와 달빛 둘이 서로 만났네.
胡僧奉鉢龍潛水 서역 승려는 발을 받드니 용이 물에 잠기고
仙使降香鶴在松 도사가 향기 내려도 학은 소나무에 있네.
似欲朝元超獨立 조원(朝元)⁹³⁾ 하고자 하여 우뚝 홀로 서고
得偏迥古儼眞容 먼 옛날에 치우치니 의젓이 참된 모습 얻는다.
那能飄忽凌雲上 어떻게 회오리바람에 홀연히 구름 위로 올라갈까?
滿袖携歸紫霧濃 소매 가득 붉은 안개 가득 담아 돌아오네.

小山(소산)

月掛香爐最上峰 달이 향로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뜨니
仙娥此地若將逢 선녀를 이곳에서 곧 만날 것 같아라.

달빛 아래 피리를 불었다[庾亮笛吹黃鶴月].” 라는 구절이 나온다. 『江湖小集 卷43 答武昌吳廣文』
93) 조원(朝元): 도교(道敎) 신도들이 노자(老子)를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노자는 당(唐)나라 때에 태상현원황제(太上玄元皇帝)로 추존되었다.

法天寥廓蟾生桂
梵殿玲瓏鶴警松
昏界長明知佛力
鏡中眞面爲誰容
來生暗祝瑤皇案
一炷篆烟細欲濃

錦樵(금초)

절 하늘은 텅 비어 달이 계수나무에 떠오르고
법당(法堂)이 영롱하여 학이 소나무에서 놀란다.
저녁의 경계 오래도록 밝아 부처님 힘을 알고
거울 속의 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내생을 황태자로 태어나길 은연중에 비니
향불 하나에서 이는 연기 가늘다가 짙어지려 하네.

月光先得最高峰
十五良宵又適逢
一天軒豁蟾依桂
萬壑虛明鶴伴松
鳥峴參差千樹影
漁城的歷一村容
滿山晴景欲模得
試問誰家花墨濃

石樵(석초)

달빛이 먼저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는
15일 좋은 밤을 또 마침 만났구나.
하루 하늘 흰히 트여도 달은 계수나무에 의지하니
만 골짜기가 텅 비고 밝아 학은 소나무와 짝하였네.
오현(鳥峴)은 온갖 나무 그림자 들쭉날쭉하고
어성(漁城)은 한 마을의 모습이 분명하다오.
온 산에 맑은 경치 본뜨려 함에
시험삼아 누구 집에 꽃 그림 진한지 묻노라.

烟紫香爐上上峰
一天明月好相逢
浮來宛轉光生桂
懸在中天影透松
黃泥坂下詩仙步
碧海雲端節士容
別般清趣知人少
減却山窓睡意濃

近溪(근계)

자색 연기 향로(香爐)의 윗 봉우리를 오르니
하늘에 밝은 달을 서로 만남이 좋아라.
등근 달이 떠오니 계수나무에 달이 뜨고
하늘에 매달려 소나무에 그림자 투영된다.
황토 관 아래에 시짓는 신선의 발자취요
푸른 바다 구름 끝은 절개 있는 선비 얼굴이라.
특별히 맑은 흥취를 아는 이 적으니
문득 산집 창가에 졸음이 사라지네.

玉兔揚輝最先峰

달이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빛을 발하니

百杯恒少此時逢 이 때를 만나면 백 잔의 술도 항상 적도다.
 溪邊活水明穿石 계곡 주변 살아있는 물은 바위를 분명히 뚫고
 嶺上歸雲暮宿松 고개 위에 돌아가는 구름은 저물어 소나무에서 자네.
 白屋用光身厥罪 가난한 집에 빛을 발해도 몸은 죄가 없고
 青山得齊夜爲容 푸른 산은 가지런함을 얻어도 밤은 모두 수용한다오.
 朝來請看其椒又 아침에 와서 그 산초나무 보기를 청하니
 日照香烟紫氣濃 해 비치자 향로봉에 안개 자색 기운으로 진하도다.
 峴愚(현우)

積聚香烟秀一峰 쌓인 향기로운 안개에 한 봉우리 빼어나니
 庶幾月下玉人逢 달빛 아래 얼마나 옥 같은 사람 만났는가?
 四山環匝風鳴竹 서쪽 산을 두른 바람은 대숲을 울리고
 萬里虛明鶴返松 만리 공중을 밝힘에 학이 소나무로 돌아오네.
 吳子寧能添桂魄 오자(吳子)⁹⁴⁾ 어찌 계백(桂魄, 달)을 더할 수 있었고
 姮娥如彼冶花容 향아(姮娥)⁹⁵⁾는 저처럼 꽃 같은 얼굴 가꾸었나?
 良宵輸得無邊景 좋은 밤에 달이 끝없는 경치를 얻었으니
 酒情詩懷與共濃 술 마시는 정희와 시 회포가 함께 깊구나.
 笑堂(소당)

朝看紫烟暮碧峰 아침에 붉은 안개와 저녁에 푸른 봉우리 보며
 焚香對月好迎逢 향불 피우고 달을 대하는 만남이 좋구나.
 氷輪光近淸心水 빙륜(氷輪, 달)의 빛은 맑음 마음의 물과 가깝고
 桂魄還生望嶺松 계백(桂魄, 달)은 다시 떠 고개 소나무에 보이네.
 成色山間知寓目 산 사이에 이룬 색(色)에 눈을 돌 줄 알고
 來時盃上問從容 술잔 위에 이르는 때에 따르는 길손에게 묻노라.

94) 오자(吳子): 춘추 시대 오왕(吳王)이 오자서(吳子胥)를 죽여 강물에 던졌는데, 죽은 오자서가 물결이 치는 대로 파도를 일으켰으므로 파도를 의미하는 말이다.

95) 향아(姮娥): 달 속에 있다고 하는 선녀의 이름이다. 하(夏)나라 때 예(羿)가 일찍이 선녀(仙女)인 서왕모(西王母)에게 불사약(不死藥)을 얻었는데, 미처 먹기 전에 그의 처인 향아가 몰래 훔쳐 먹고는 달로 달아났다고 한다. 『淮南子 覽冥訓』

草堂今夜西猶在 초당에서의 오늘 밤도 서쪽에 오히려 있으니
 應是高僧睡未濃 응당 고승(高僧)은 깊은 꿈 꾸지 못하리라.
 雪隱(설은)

東來明月上爐峰 동쪽에서 밝은 달이 향로봉에 떠오르니
 霽景秋光此夜逢 개인 경치에 가을빛을 이 밤에 만났구나.
 圓如盤玉平如鏡 옥쟁반처럼 둥글고 거울처럼 평평하고
 輪掛青天影掛松 푸른 하늘에 바퀴 건 듯 소나무에 그림자 걸렸네.
 不識桂仙垂兩足 계수나무 신선 알지 못해도 모두 흡족하고
 太清瑤帝露眞容 옥 황제의 맑음이 이슬의 참된 모습이라.
 李白文章今在否 이백의 문장 지금도 남아있는가?
 江南二美宿烟濃 강 남쪽의 두 아름다움에 묵은 안개 짙구나.
 蓮宇(연우)

月滿香爐第一峰 달이 향로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가득하니
 團團金餅夜來逢 둥근 금병(金瓶)을 밤에 와서 만나는구나.
 天無私照能披霧 하늘은 사사로운 비춤 없어 안개를 열 수 있으니
 山不全含半掛松 산이 온전히 머금어 소나무에 반쯤 걸어두었네.
 瓶水淡淡眞佛性 호리병 물은 담담하여 참으로 부처의 성품이요
 鏡花激激美人容 거울의 꽃은 넘실넘실 미인의 얼굴이라.
 宇宙涵虛觀物衆 우주가 머금은 못 사물을 보니
 剩得今宵睡未濃 아마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리라.
 素山(소산)

烟歇香爐月上峰 안개 그친 향로봉 달 뜬 봉우리를
 愛看何夜不相逢 어느 밤은 서로 만나지 못하니 사랑하여 보네.
 寒蟾吐影移丹桂 찬 달이 그림자 토해내며 붉은 계수나무로 옮겨가니
 舞鶴翻光下碧松 춤추는 학은 빛에 날갯짓하며 푸른 숲에서 내려온다.
 萬里轉來輪以體 만 리를 굴러온 바퀴가 몸이요

半空懸在鏡爲容 반쯤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울이 얼굴이네.
 今宵剩得幽閑趣 오늘 밤 그윽하고 한가로운 정취를 가득 얻어
 風與雙清一氣濃 바람과 모두 맑은 한 기운이 짙네.
 白又(백우)

咫尺去天卓彼峰 하늘과 지척인 저 봉우리
 月輪夜夜最先逢 바퀴 같은 달을 밤마다 먼저 만나는구나.
 分明氣像新磨鏡 분명한 기상은 새로 만든 거울 같은데
 崇立風姿特秀松 높이 선 풍채는 특히 소나무가 빼어나지.
 一望雲山開畫境 안개 낀 산의 그림 같은 경계를 한 번 보니
 疊羅泉石盡花容 샘물과 바위 모두 꽃의 모습으로 겹겹이 펼쳐진다.
 化翁假我無雙景 조물주가 나에게 둘도 없는 경치를 빌려주어
 試把短琴興未濃 시험 삼아 단금(短琴)을 잡아도 흥이 깊지 않네.
 龔岩(농암)

明月本非在佛峰 밝은 달은 본래 부처 봉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爐中候火適相逢 마침 화로 속에서 봉화불과 서로 만났구나.
 是相匪蟾還匪桂 이 모양 두꺼비도 아니고 다시 계수나무도 아니니
 之光宜水復宜松 그 빛은 의당 물이고 다시 의당 소나무라오.
 針鋒棘葉皆同照 소나무 침과 대추나무 잎에 모두 같이 비추었고
 嫫母西施盡幻容 모모(嫫母)⁹⁶ 서시(西施)⁹⁷는 모두 미혹한 얼굴이네.
 欲識五臺奇絕處 오대(五臺)의 빼어난 곳 알려거든
 靑蓮庵下萬花濃 청연암(靑蓮庵) 아래 온갖 꽃이 무르익었나니……
 樵史(초사)

書樓閨寂對爐峰 서루(書樓)는 고요히 향로봉을 마주하여
 靜夜無眠月與逢 고요한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달과 만났네.

96) 모모(嫫母): 모모는 전설상 황제(黃帝)의 넷째 부인으로 품행은 정숙하였으나 모습이 매우 추해서
 추녀의 대명사로 흔히 쓰인다.
 97) 서시(西施): 서시는 오왕(吳王) 부차(夫差)를 유혹하여 망하게 했다는 월(越)나라의 미녀이다.

露浥薜花還笑槿
風清琴韻自生松
萬劫湖山窺色相
百年杖履不從容
如何挽住今宵影
移在胡床取興濃

石下(석하)

이슬 젖은 이끼꽃은 도리어 무궁화를 비웃고
맑은 바람에 거문고 소리는 절로 소나무에서 생긴다.
만 겁의 세월 동안 호수 산은 색의 모습 엿보았고
백 년의 세월 지팡이 아래에 조용하지 못했구나.
어찌 오늘 밤의 그림자를 끌어다 둘 수 있나?
호상(胡床)⁹⁸⁾을 옮겨 놓으니 흥이 깊구나.

團團明月上爐鋒
勝地幸斯樂事逢
雲開古殿光生桂
風走空林影隱松
宇宙千年餘本色
山河萬里露眞容
那得天心清意味
與君只可酒盃濃

松隱(송은)

등글고 등근 밝은 달이 향로봉에 떠오르니
요행히 이 좋은 곳에서 즐거운 일을 만났구나.
구름 열리는 옛 절은 빛이 계수나무에서 생기고
바람 달리는 빈 숲은 그림자가 소나무에 숨는구나.
우주 천여 년에 본래의 색이니
산하 만 리 이슬의 참모습이라.
어찌 하늘 가운데 맑은 의미를 얻어
그대와 함께 진한 술잔 기울일 수 있을까?

100

五景香爐玉作峰
奇峰嬌月好相逢
登巔一步應攀桂
危壁千尋忽倒松
似惜清光驚世眼
故從深夜露山容
數聲鍾磬知何處
近人禪門影復濃

迂軒(우현)

다섯 번째 경치 향로봉은 옥으로 만든 것이니
기이한 봉우리가 어여쁜 달과 서로 만났구나.
한 걸음 꼭대기에 오르려면 웅당 계수나무를 잡고
천 길 위태한 벼랑에 홀연 소나무가 거꾸로 솟았네.
맑은 광채가 세상의 눈 놀라게 함을 아까워한 듯
깊은 밤을 따라 산의 모습 드러내는구나.
얼마의 종소리는 어느 곳인지 아는가?
선문(禪門)에 가까운 사람 그림자 또한 진하리라.

98) 호상(胡床):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일종의 간편한 의자이다. 참고로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 〈수간(樹間)〉에 “몇 번이나 입을 적시는 이슬 아래에서, 달빛 타고 호상에 앉아있었던고. [幾回露葉露, 乘月坐胡床] ” 라고 하였다. 『全唐詩 卷229 樹間』

書窓靜對月爐峰
滿眼景光此地逢
何事山禽驚下樹
多情仙鶴舞迴松
一樣虛明晴後色
十分的歷畫中容
江山惟與都於此
始識乾坤夜氣濃

南溪(남계)

서재의 창에서 향로봉에 달을 고요히 대하니
눈에 가득한 풍경을 이 땅에서 만났네.
무슨 일로 산 새는 놀라 나무로 내려오며
다정한 신선 학은 춤을 추며 소나무에서 떨어지나?
한 모양으로 텅 빈 밝음은 개인 후의 색이요
충분히 지나온 그림 속의 모습이라.
강산이 오직 이와 함께 하나니
비로소 세상에 밤기운 짙음을 알겠네.

峰上月明月下峰
紫氣香烟此夜逢
酌酒會臨光倒水
抱琴相照影依松
雲開森木皆生色
霧捲千山盡畫容
啼猿莫近瀟湘岸
唯有孤舟旅夢濃

퇴재(退齋)

봉우리 위에 달이 밝고 달 아래 봉우리가
자색 기운 향기로운 안개를 이 밤에 만났구나.
술 마시는 모임에서 빛이 물에 거꾸로 비치고
거문고 안은 모습 비춘 그림자 소나무에 의지했네.
구름 열린 숲은 모두 생생한 색이요
안개 걸린 온 산은 다 그림 같은 모습이라.
원숭이 우는 소상(瀟湘)의 물가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오직 외로운 배에 나그네 꿈만 깊구나.

巍然特立古爐峰
月似有期夜夜逢
棲禽難定池邊樹
睡鶴穩依壁上松
敢望萍水中宵影
忽憶草堂舊日容
山下眞禪供佛否
香烟一炷淨花濃

訥庵(눌암)

높고 우뚝이 선 옛 향로봉
달은 기약한 양 밤마다 만나네.
깃든 새는 못가 나무를 정하기 어렵고
조는 학은 절벽 위의 소나무에서 편안하다.
감히 부평초 뜬 물에 밤 그림자 바라보고
홀연히 초당(草堂)에 옛 모습 추억한다오.
산 아래 참 선은 부처님에게 하였는가?
등불에 향기로운 연기에 맑은 꽃이 질구나.

天鍾淑氣作爐峰
又得月明相照逢
散步老僧移古榻
乘光白鶴舞疎松
皎皎精華窓下燭
團團影子鏡中容
每當十五揚輝夕
添送遊人酒氣濃

石澗(석간)

하늘이 맑은 기운 모아 향로봉을 만들고
또 밝은 달이 비춤을 만나게 하였네.
노승의 느린 걸음 묵은 탁자로 옮겨가고
흰 학은 광채로 성근 소나무에서 춤을 춘다.
달빛의 정화는 창 아래의 촛불이요
등근 그림자는 거울 속의 얼굴이라.
항상 보름의 밝은 저녁을 만나면
노니는 사람 슬기운 진하게 보내는구나.

初昏新月上爐峰
似是今宵有約逢
書戶生明焉用燭
清潭倒影愛看松
風收雲海玲瓏色
露洗銀盤宛轉容
閑伴些兒因問酒
杯傾隨入滿心濃

菊下(국하)

초저녁 새달이 향로봉 위로 떠 오르면
오늘 밤 약속이나 한 양 만나는구나.
서재 문이 밝아오니 어찌 촛불을 밝히랴?
맑은 못에 그림자 어리니 아껴 소나무를 본다오.
바람에 운해가 걷히니 영롱한 빛을 발하고
이슬에 은쟁반 씻기어 완전한 모습이여라.
한가로이 이러한 것들과 짝하여 술을 물으니
술잔 기울임에 따라 들어와 온 마음이 무성하네.

烟罷香爐最上峰
我來月到好相逢
山南秋老歌最桂
洞口僧歸倚古松
萬里天高雲澹泊
千江水淨夜從容
想來空色元如許
回首塵寰睡正濃

滄農(창농)

안개 다한 향로봉 가장 윗 봉우리에
내가 오니 달도 이르러 좋은 만남을 이루었구나.
산 남쪽에 가을은 깊어 빼어난 계수나무 노래하고
마을 입구는 스님이 돌아오다 고송(古松)에 의지했네.
만 리 하늘은 높아 구름이 담박하고
수천의 강은 물이 맑아 밤에도 고요하구나.
아마 공(空)과 색(色)은 원래 허여한 듯하니
고개 돌려 속세를 봄에 줄음이 한창일세.

天風吹月靜香峰 하늘에 바람 불어도 향로봉에 달은 고요하니
 峰上天低忽顧逢 봉우리 위에 하늘도 낮아 홀연 만남을 돌아보네.
 兔毫堪辨隣棲鶴 토끼털은 이웃에 사는 학과 구별할 수 있고
 桂馥紛飛落滿松 계수나무 향기 떨어진 소나무숲에 어지러이 날린다.
 現向金仙觀色相 지금 금선(金仙, 부처) 향하여 빛의 모습 보니
 絕憐玉女露眞容 옥 같은 여인이 참모습 드러냄이 가련하구나.
 前王不忘詩何已 전대의 왕을 잊지 못하니 시를 어찌 다하랴?
 風捲纖雲色正濃 바람이 얽은 구름 걸으니 색도 진하구나.
 晚翠(만취)

明月長天圓秀者 밝은 달은 긴 하늘에 둥글게 빼어난 것이나
 香爐峰無知者 향로봉(香爐峰)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오.
 俗眼有緣在初逢 속세의 눈으로도 인연 있어 처음 만나면
 佳人玉貌誰粧出 미인의 옥 같은 모습이니 누가 꾸미고 나오겠나?
 偃蹇遊來 넘어지고 절뚝거리며 노닐러 오면
 百尺松其心也 백 척의 소나무가 그 마음이요
 爽朗其步也 상쾌하고 명랑함이 그 걸음이라.
 從容峰無語月有意 차분한 봉우리는 말이 없고 달은 뜻 있으니
 淡淡銀波盡地濃 담담한 은빛 물결 온 땅에 질겠네.
 東溟(동명)

海天明月上爐峰 바다에 밝은 달이 향로봉을 비추니
 乘興良宵好友逢 흥을 탄 좋은 밤에 좋은 벗을 만났다네.
 帶影孤鴻歸遠浦 그림자 먼 외로운 기러기는 먼 포구로 돌아가고
 警光羶鶴舞長松 빛에 놀란 여원 학은 큰 소나무에서 춤을 춘다.
 赤江蘇子徘徊夕 적벽강에서 소동파가 배회하는 밤이요
 貝闕姮娥淡泊容 패궐(貝闕)⁹⁹⁾의 향아(姮娥)¹⁰⁰⁾는 담박한 용모였지.

99) 패궐(貝闕): 패궐 주궁(貝闕珠宮)의 준말로, 용궁(龍宮)의 별칭이다.
 100) 향아(姮娥): 달 속에 있다는 선녀의 이름이다.

君亦知夫丹桂秀 그대 또한 단계(丹桂)¹⁰¹ 빼어남을 아는가?
 香飄雲外霧華濃 구름 밖으로 향기 날리고 안개꽃 무성하구나.
 竹翁(죽옹)

月出香爐上上峰 달이 향로의 윗 봉우리에 떠오르르면
 梧秋梅臘好時逢 오동의 가을과 매화의 12월에도 좋은 때를 만나네.
 林泉照耀明生水 자연에 비추는 밝음은 물에도 생기고
 石壁嵯峨影掛松 석벽은 우뚝하여 그림자가 솔에 걸렸구나.
 幽鳥投棲驚澗夢 그윽한 새는 깃들었다가 물소리에 놀라 잠을 깨고
 夸娥對鏡冶山容 예뻐 자랑하고 거울 대하니 산을 도야한 모습이라.
 徘徊誰有曾同賞 배회하다가 누가 있어 일찍이 함께 감상할까?
 瀑息烟消夜色濃 소나기 그치자 안개 사라져 밤기운 짙구나.
 寄隱(기은)

漁城東畔即爐峰 어성의 동쪽이 곧 향로봉인데
 清夜常多好月逢 맑은 밤 항상 아름다운 달을 만난다오.
 依杖步蟾先問桂 지팡이에 의지해 달빛에 걸으며 먼저 계수나무 묻고
 開籠調鶴偶來松 새장 열자 길들인 학이 우연히 소나무에 왔네.
 萬垂烟靄歸無跡 수 없이 드리운 연무에 돌아가는 자취도 없고
 一片鑑明宛有容 한 조각 밝은 달을 봄에 완전한 자태가 있구나.
 山下居僧觀色坐 산 아래 사는 스님 빛을 보고 앉았으니
 千江淨水滿盂濃 온 강의 맑은 물이 사발에 가득하다오.
 素軒(소헌)

一天明月豈爐峰 하늘에 밝은 달이 어찌 향로봉만이라만
 造物名區兩適逢 조물주가 명승지 만들어 둘이 만나게 했다오.

101) 단계(丹桂): 송(宋)나라 때 두우균(竇禹鈞)의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科擧)에 합격하자 풍도(馮道)가 “영춘 한 그루 늙었다네, 단계 다섯 가지 향기롭네[靈椿一株老 丹桂五枝芳].” 라는 시를 지어 주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宋史 卷263 竇禹鈞列傳』

宛轉山頭生丈桂 또렷이 산머리에 계수나무 드러내고
 特高嶺上秀孤松 높은 고개 위에 외로운 소나무 빼어나네.
 隱隱鍾聲來古塔 은은한 종소리는 옛 탑에서 들려오고
 明明鏡面畫新容 맑고 밝은 거울 면은 새 얼굴을 그린 듯하다.
 清閑幽趣少人管 맑고 한가로우며 그윽한 정취 관장하는 이 없어
 影入誰家詩酒濃 그림자는 누구 집에 들어 시와 술이 진한가?
 文式(문식)

少焉明月上爐峰 잠시 사이에 밝은 달이 향로봉에 떠오르니
 天送姮娥夜喜逢 하늘이 항아(姮娥)를 보내 밤을 잘 만났구나.
 宇宙清虛蟾倚杖 우주에 청허(清虛)한 달을 지팡이에 의지해 보고
 江山寥落鶴翻松 강산에 쓸쓸한 학은 소나무에서 날갯짓한다.
 玉欄客倒盃中影 옥 난간에 나그네는 술잔 속 그림자를 기울이고
 珠箔女羞鏡裡容 구슬발에 여인은 거울 속 얼굴을 부끄러워하는구나.
 李白蘇仙千載後 이백과 소식 신선이 떠난 천년 후에
 令人亦愛景光濃 사람이 또 경관이 짙음을 사랑하게 한다오.
 齊根(제근)

玉輪浮上掛爐峰 옥 같은 달 떠올라 향로봉에 걸려 있으니
 峰勢崢嶸入夜逢 봉우리 세 우뚝함을 밤에 만났다네.
 吳質學仙剗肉桂 오질(吳質)¹⁰²⁾은 신선을 배우다 육계(肉桂)¹⁰³⁾를 찌고
 姮娥不老等喬松 항아(姮娥)는 늙지 않아 큰 소나무와 같구나.
 天地精神都恍惚 세상에 정신이 모두 황홀하니
 樓臺風致不從容 누대의 풍경이 조용하지 못하네.
 散步良宵庭畔立 좋은 밤에 천천히 걸다가 뜰 가에 서 있으니

102) 오질(吳質): 오질은 전설상의 선인(仙人)인 오강(吳剛)을 말한다. 질(質)은 그의 자이다. 오강은 서하(西河) 사람으로 일찍이 선도(仙道)를 배우다가 과실(過失)을 짓고 달 속으로 귀양 가서 항상 계수나무만 찌고 있다고 하므로, 당(唐)나라 이하(李賀)의 이빙공후인(李凭箏篋引)에, “오질은 잠 안 자고 계수나무만 기대 있다[吳質不眠倚桂樹].” 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03) 육계(肉桂): 5~6년 이상 자란 계수나무의 껍질을 이름.

千尋脩竹綠陰濃 천 길 깊은 대숲은 푸른 그림자가 짙어라.
 敬堂(경당)

烟亦香爐月亦峰 안개도 향로봉에 끼고 달도 봉우리에 있으니
 景光今夜意中逢 마음속에 있는 광경을 오늘 밤에 만났네.
 淡形來照千層水 담담한 모양으로 와서 천 층의 물을 비추니
 奇影獨頑數尺松 기이한 그림자 홀로 몇 척의 소나무는 완고도 하다.
 郊島客歸乘興趣 담도(郊島)에 손님은 흥취 속에 돌아가고
 吳洲人在想音容 오주(吳洲)¹⁰⁴에 사람은 음성과 모습 생각하리라.
 若使詩翁看可讀 만약 시 짓는 늙은이가 읽을 수 있다면
 無眠此際杯酒濃 잠들지 못하는 이 사이에 술이 진하리라.
 漢奎(한규)

106

天作高峰月上峰 하늘이 높은 봉우리 만들어 달이 봉우리에 떠오름에
 香烟初歇適丁逢 향기로운 안개 처음 걷힐 때 마침 만났다네.
 窓前影動千尋竹 창 앞에 그림자는 천 길의 대나무가 움직이고
 澗畔涼生百尺松 시냇가 서늘한 기운 백 척의 소나무에서 생긴다오.
 東海精神人自蹈 동해의 정신은 사람들이 저절로 찾고
 南樓風致客相容 남쪽 누각의 풍경은 나그네가 서로 용납하네.
 蟾宮深處期攀折 달 궁전 깊은 곳에서 꺾어오기 기약하니
 一樹桂花点点濃 한 그루 계수나무의 꽃은 점점이 진하리라.
 復來(복래)

漁城東畔有爐峰 어성 동쪽에 향로봉이 있으니
 十五夜來月正逢 15일 밤에 뜨는 달을 바로 만났다오.
 竹館照來琴復嘯 대숲 집에 비춰오고 거문고에 다시 퉁소 울리며

104) 오주(吳洲): 이백(李白)의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 시의, “오주에서 만약 달을 보거든 천리 밖에서 나를 생각하기 바란다[吳洲如見月 千里幸相思.]”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古文眞寶前集 卷1』

草堂遙憶水涓松
也應吳斧難於桂
料得仙娥艷彼容
清興斯間猶不淺
疎簾高捲影淡濃

駿秉(준병)

초당의 먼 생각에 물은 소나무 따라 흐르네.
응당 오질(吳質)의 도끼는 계수나무에 어렵고
신선 향아(姮娥)는 얼굴이 고움을 알겠구나.
이 사이의 맑은 흥취 알지 않으니
성긴 발 높이 걸으니 그림자는 담담하기도 하다.

香爐峰上月生峰
天借佳期夜正逢
桂魄初生從遠海
水輪宛轉掛疎松
五更樓上多豪興
萬里雲間對玉容
散步欲歸山下寺
明光入戶淡淡濃

昇栢(승우)

향로봉 위로 달이 봉우리에 뜨자
하늘이 좋은 때를 빌려주어 밤에 마침 만났네.
멀리 바다로부터 계수나무 흰백 처음 생기고
성긴 소나무에 걸린 얼음 바퀴 완전히 둥글구나.
오경에 누대 위에는 호걸의 흥이 넘치고
만 리 구름 사이로 옥의 얼굴 대한다.
천천히 걸다가 산 아래 절로 돌아가려 함에
밝은 광채 문을 비추어 담담하고 진하여라.

對案香爐月上峰
歡情猶似故人逢
初從海底臨丹闕
漸向山頭映翠松
意味箇中知料得
風流幾處不從容
今宵我欲停盃問
萬里天衢色正濃

基復(기복)

책상 마주한 향로봉에 달이 떠오르니
기쁜 마음 친구를 만난 것과 같네.
처음엔 바다 밑 용궁으로부터 나오더니
점차 산머리를 향하여 푸른 소나무를 비추네.
그 속에 의미를 이해하여 알고
몇 곳은 풍류 있어 조용하지 않는구나.
오늘 밤 술잔 멈추고 묻나니
만 리 하늘의 색은 질기만 하네.

海天明月出爐峰
豪士風流幾處逢

바다의 하늘에 밝은 달이 향로봉에 떠오르자
호방한 사람의 풍류 어느 곳에서 만나는가?

斤斧多年難斫桂
房櫳靜夜見疎松
聊知玉兔搗靈藥
正是姮娥粧美容
散步窓前眠不得
蒹葭秋水露華濃

基成(기성)

도끼는 오랫동안 계수나무 찍기 어렵고
방문 고요한 밤에 성근 소나무를 보네.
아쉬운 대로 옥토끼 영약(靈藥)을 찧음을 아나니
바로 향아(姮娥)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것이라.
천천히 걸으며 창 앞에서 잠들지 못하더니
가을 물 갈대에 이슬 꽃 진하구나.

快觀五景上爐峰
夜色如年月又逢
驚夢林禽啼碧澗
弄輝雲鶴下青松
隱映江山銀世界
玲瓏石壁玉形容
興來我欲停盃問
不識誰家酒氣濃

昌楫(창우)

다섯 번째 경치 상쾌히 보러 향로봉에 오르니
밤빛은 일 년 같이 길더니 달을 또 만났네.
숲의 새가 푸른 시내에서 울어 놀라 깨고
구름 속 학이 푸른 소나무에 내려 밝음을 희롱하네.
은은히 비추는 강산은 은빛 세계요
영롱한 석벽(石壁)은 옥을 형용한 듯하다.
흥에 겨워 술잔 멈추고 묻나니
잘 모르겠지만 누구 집의 술이 익었는가?

108

門對香爐第一峰
夜來明月好相逢
銀河光沒遙看瀑
桂子香高不礙松
上帝玉盤可長物
嫦娥寶鏡爲誰容
竹林獨坐清無寐
衿抱殷勤酒意濃

黃崑(황곤)

향로봉 가장 높은 봉우리를 문에서 대하니
밤이 되자 밝은 달을 잘도 만났구나.
은하수 빛 사라져 아득히 목포가 보이고
계수나무 향기 높아 소나무에 막히지 않네.
상제(上帝)의 옥쟁반은 오래 할 만한 물건이요
향이는 보물 거울로 누굴 위해 얼굴 단장하는가?
대술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맑아 잠들지 못하고
가슴에 은근히 술 생각 깊어진다.

月出香爐千丈峰

향로 천 길 봉우리에 달이 떠서

破昏消息夜來逢	어둠 깨뜨렸다는 소식에 밤에 와서 만났구나.
婆娑影活天香桂	한가로운 그림자 천연 향기의 계수나무에 성하고
淡泊氣清小檻松	담박한 기운 작은 난간 소나무에 맑네.
江上載歸漁子舟	강 위에는 어부의 배가 돌아가고
雲間相對美人容	구름 사이에는 미인의 얼굴을 서로 대하네.
天街夜色涼如水	하늘의 밤빛이 서늘하여 물과 같음에
完轉水輪淡復濃	완연한 얼음 바퀴 담담했다가 다시 진해지네.
炳濟(병재)	



7. 龍沼鳴灘

용소에 우는 여울



110

天開龍沼又鳴灘
 逝者如斯日夜寒
 驟雨狂風如有至
 浴鳧飛鷺久居安
 數聲砧到江村月
 一丈絲垂野老竿
 歲旱用能霖雨作
 神功寂若此中看

龍洲(용주)

하늘 연 용소가 또 여울을 울리니
 가는 것이 이와 같음에 낮과 밤이 차다.
 쏟아지는 비와 광풍은 지극한 듯하지만
 목욕하는 오리와 나는 해오라기는 오래 편안하네.
 몇 마디 다듬이 소리에 강촌에 달이 뜨고
 한 길 실 늘어뜨린 들 노인 낚시하는구나.
 가뭄에 어찌 장맛비 만들까?
 귀신의 공력 조용함을 이 속에서 본다오.

龍蟄時鳴沼下灘
 如呻如澀忽生寒
 匣琴鳴咽情何極
 枕夢清涼睡未安
 韓物送人南國路
 楚聲動竹上磯竿

용이 칩거할 때 소(沼) 아래 여울에서 우니
 읊조리는 듯 꺼리는 듯하다가 갑자기 한기 인다.
 상자에 거문고 목메게 울어 마음을 어찌 다하며
 베개의 꿈은 맑고 서늘하여 잠이 편안치 않네.
 남쪽 나라 길로 한(韓)나라 물건과 사람 보내고
 바위에 올라 낚시하며 초나라 노래에 대도 동한다.

隣翁慣識天機發 이웃 늙은이 천기(天機) 발함을 익숙히 알아
較雨量晴每點看 날씨 헤아려 늘 점을 보는구나.
星史(성사)

渟而爲沼鳴爲灘 물이 모여 소(沼)가 되고 울어 탄(灘)이 되니
錦礫潺湲龍氣寒 비단 조약들에 잔잔한 물결은 용 기운에 차구나.
天欲雨時聲欲咽 하늘이 비를 내리려 함에 소리를 토해내려 하나
海將朝處勢將安 바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곳은 형세가 편안해지네.
喧如雪浪搖蓬帆 시끄러움은 물보라가 썩대 같은 돛을 흔드는 것 같고
亂似霜風碎竹竿 어지러움은 서릿바람이 낚싯대를 부수는 것 같네.
一洗人間塵鬪耳 인간의 먼지와 시끄러움을 한결같이 씻을 뿐이니
靑山以外更何看 청산 이외에 다시 무엇을 본단 말인가?
南崗(남강)

龍去池空水自灘 용 떠난 못이 비자 물이 저절로 여울이 되어
洞天秋氣夜來寒 골짜기 하늘은 가을 기운으로 밤 되자 춥기도 하네.
書燈千古心難靜 서재의 등불은 천고에 심지를 고요하게 하기 어렵고
愁枕三更夢不安 근심의 잠자리는 삼경에도 꿈이 편하지 않다오.
賈客乘潮思發棹 상인은 조수를 타고 노 젓기를 생각하고
漁人逐浪欲投竿 어부는 물결 따라 낚시 드리우고자 하는구나.
香山八節今何在 향산(香山)의 여덟 사람¹⁰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深淺詩情較取看 깊고 얇은 시정(詩情)을 비교하여 보네.
秋畹(추원)

沼龍造化使鳴灘 소(沼)에서 용이 조화부러 여울을 울게 하니
風雨欲時氣正寒 바람 불고 비 내리려 할 때 기운은 차갑기만 하네.

105) 향산(香山)의 여덟 사람: 향산은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에 있는 산 이름이다. 당(唐)의 백거이(白居易)가 그 산을 좋아하여 거기 살면서 자호를 향산거사(香山居士)라고 하였고, 거기에서 8명의 노인 친구들과 향화사(香火社)를 결성하고는 시를 읊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모임을 자신까지 합하여 구로회(九老會)라 불렀다. 『舊唐書 卷166 白居易列傳』

却顧如常鷗夢足
熟聞無訝鵲巢安
真情動去文章筆
何事喧收釣者竿
非爾不平流性是
試從高下石頭看

東溟(동명)

문득 돌아보면 항상 갈매기는 꿈이 족한 것 같고
늘 들어도 놀랍게도 송골매 등지는 편함이 없구나.
참된 마음으로 문장을 씬에 붓을 움직여 가나니
무슨 일로 낚시하며 장대를 시끄럽게 거두나?
너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본성이니
시험 삼아 높고 낮은 바위 머리를 보라.

沼有龍潛下有灘
灘聲石氣共蒼寒
林風夜號谷相應
水族秋深棲不安
八節山中新詩社
一絲波上舊釣竿
爲何切切爲誰咽
桑海前頭君試看

小山(소산)

소에는 용이 잠겨 있고 아래는 여울이 있으니
여울 소리 바위 기운과 함께 서늘하다.
숲 바람이 밤에 부르면 골짜기가 서로 호응하고
물줄기 가을에도 깊어 삶이 편치 않다오.
여덟 사람이 산속에서 새로 시사(詩社) 만들었고
한 줄로 파도 위에는 옛 낚시대 있구나.
무엇 때문에 절절해 하며 누구를 위한 목메임인가?
앞머리가 상전벽해 됨을 시험 삼아 보시게.

112

青山白磧自鳴灘
水亦不平性偏寒
鳴咽幾時如抱恨
奔忙何意未須安
隨風攪亂峽中枕
帶雨激生磯外竿
眠驚有時驚夢起
虛汀更下却回看

錦樵(금초)

푸른 산과 흰 모래와 저질로 우는 여울은
물 또한 고르지 않아 성질이 치우쳐 차구나.
목메게 우는 것은 어느 때나 품은 한과 같고
분주하게 무슨 뜻으로 편안해하지 못하는가?
바람 따라 어지러이 골짜기 속에 누웠는데
빛가 격하게 내리자 낚시터 밖으로 장대 드리웠네.
자던 해오라기는 때로 놀라 잠에서 깨어
빈 물가로 다시 내려가다가 문득 돌아본다.

龍吟餘韻假鳴灘

용이 읊조린 여운을 빌려 여울을 울리니

靈沼深深水氣寒
 激湍轉石臨流急
 幽壑舞蛟得所安
 漂女浪驚停月杵
 漁翁竊聽倚虹竿
 時有殷雷能作雨
 名區奇驗就中看

石樵(석초)

영험한 소(沼)의 깊고 깊은 물의 기운은 차기도 하다.
 부딪치는 여울이 바위 위로 굴러 흐름이 급하고
 그윽한 골짜기는 춤추는 교룡 같아 편안함을 얻었네.
 빨래하는 여인 물결에 놀라 달 속에 방아질 멈추었고
 어부는 가만히 들으며 늘어진 낚싯대에 의지하였다.
 때로 성한 우레에 비를 만듦이 있으니
 명승지의 기이한 체험을 나아가는 중에 본다오.

門臨龍沼每聽灘
 鳴似不平本色寒
 山雨初收聲益壯
 林風微動響自安
 魚夢亂時頻激石
 鷺眠深處莫投竿
 咽咽潺潺因不絕
 細推物理這中看

近溪(근계)

대문이 용소 옆이라 늘 여울 소리 들나니
 울림이 평범하지 않으니 본래 색이 찬듯하다.
 산 비 처음 걷히자 소리가 더욱 거세고
 숲 바람 가늘게 불자 소리 절로 편안하다.
 물고기 꿈 시끄러울 때는 자주 바위를 쳤고
 해오라기 잠 깊은 곳에 낚싯대 던지지 말게나.
 목메어 울고 잔잔함이 끊어지지 않으니
 사물의 이치를 자세히 미루어 이 속을 보라.

沼裡靈湫沼下灘
 魚龍寂寞水聲寒
 盈科急勢混如怒
 激石奔波自不安
 可合亂砧明月沉
 何孤清簫夕陽竿
 肯爲灑灑長留谷
 大海將鳴逝者看

峴愚(현우)

소(沼) 안은 신령한 못이고 소(沼) 아래는 여울이니
 어룡(魚龍)은 적막하고 물소리는 차기도 하네.
 단계 채우는 급한 형세가 흡사 성난 것 같고
 바위에 부딪히며 달리는 물결 절로 편안치 못하다.
 맑은 달 지는데 어지러운 다듬이 소리 같고
 석양의 낚싯대에 맑은 피리 소리 얼마나 외로운가?
 기꺼이 쿵쿵 물 흐르는 계곡에 오래 머무를 만하니
 큰 바다로 울며 가는 것을 보라.

上有雲門下有灘
 清流泱泱入窓寒
 穿山激報徒何急
 到海成深乃可安
 村豎乘閑時弄笛
 溪翁取適每垂竿
 聞聲不覺心神活
 手把琴書倚枕看
 笑堂(소당)

위에는 운문(雲門)이요 아래는 여울이 있으니
 콧발 맑은 흐름에 한기가 창으로 든다.
 산을 뚫는 격한 알림 다만 얼마나 급한지
 바다에 이르러 깊어져야 이내 안정을 찾으리라.
 마을 총각 한가한 틈에 때로 피리를 불고
 계곡에 어부는 자적하며 항상 낚싯대 드리우네.
 소리 듣고 알지 못해도 마음과 정신 활발해
 거문고와 책 잡고 침상에서 본다오.

龍潛千古假鳴灘
 寂寞于今見水寒
 鬪野何年興白水
 登門他日在長安
 九翁偏愛香山節
 七里留名釣澤竿
 也識奔流歸海日
 從雲變化大人看
 雪隱(설은)

용이 잠긴 오랜 세월에 여울은 울음을 빌렸었고
 적막한 지금은 물의 한기만 느껴진다.
 어느 해 들에서 싸우던 때 흰 물결 일었고
 다른 날 문(門)에 오르면 장안에 있으리라.
 아홉 늙은이는 향산(香山)의 빼어남 유독 사랑하였고
 칠리탄(七里灘)¹⁰⁶에서 낚시하며 이름 남기기도 했지.
 급히 흘러 바다의 해로 돌아가는 것도
 구름의 변화로부터임을 대인은 보고 알리라.

龍沼一灘又二灘
 如何入夜水聲寒
 潺湲落處風微動
 瀕洞流時夢不安
 鴻藻文章來飲酒
 鶯花時節去垂竿

용소에 한 여울 또 두 여울은
 어찌하여 밤 되면 물소리가 차가운가?
 잔잔한 물결이 떨어지는 곳에 바람도 미동하니
 골짜기 가득 흐르는 때 꿈꾸는 것도 불안하다.
 웅건한 문장의 사람이 와서 술을 마시고
 피꼬리 울고 꽃 피는 시절 가서 낚싯대 드리우네.

106) 칠리탄(七里灘): 후한(後漢)의 은사(隱士) 엄광(嚴光)은 젊어서 광무제(光武帝)와 함께 수학하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한 뒤 그에게 간의대부라는 벼슬을 내렸으나 받지 않고, 부춘산(富春山) 아래 동강 칠리탄에서 낚시질하며 일생을 보냈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嚴光』

白石綠蒲明月女 흰 바위에 푸른 부들을 달의 여인이 밝혀주니
澆紗有約出門看 깃 빨리 약속한 양 문을 나와 보는구나.
蓮宇(연우)

一曲淙淙響碧灘 한 구비의 물소리 푸른 여울에서 울리니
玉龍頭角不勝寒 옥룡(玉龍)의 머리 뿔도 추위를 이기지 못하네.
溪花汀葉還如墜 시냇물에 꽃잎과 물가의 잎은 도리어 떨어진 듯하고
雨夜風晨竟未安 비 내리는 밤과 바람 부는 새벽은 끝내 편치 않구나.
月窟細傾珠萬斛 월굴(月窟)¹⁰⁷이 조금 기울자 구슬이 만 섬이요
霜天冷裂竹千竿 서리 내린 하늘 차갑게 찢어 대나무 천 개로다.
時時節奏清心耳 때때로 울림이 마음을 맑게 할 뿐이니
盡日尋聲却坐看 종일 소리 찾다가도 문득 앉아서 본다오.
素山(소산)

沼非鳴也也鳴灘 소(沼)가 우는 것이 아니라 여울이 우는 것이니
龍逝千秋水一寒 천추(千秋)의 세월에 용은 갔어도 물은 늘 차갑구나.
老石如龕坐無量 늙은 바위 귀먹은 듯 앉아 헤아림 없고
閑鷗慣聽夢不安 한가한 갈매기는 익숙히 들어도 꿈이 편치 않다네.
客疑風急每傾枕 나그네 바람 급함 의심하여 항상 베개 기울이고
翁占雨添先理竿 늙은이 비 옴을 짐쳐 먼저 낚싯대 다스린다.
流處高山同有響 흐르는 곳은 높은 사도 함께 울림 있으니
牙琴自在箇中看 백아(伯牙)의 거문고 절로 그 속에 있음을 본다오.
白又(백우)

一泓清流一泓灘 한 줄기 여울에서 한 줄기가 맑게 흐름에
四山寥寂自鳴寒 사방의 산 고요하니 저절로 울어 스산하다.

107) 월굴(月窟): 월굴은 달에 있다는 궁전으로, 단오는 5월 5일인데 5월은 건상손하(乾上巽下)인 구괘(姤卦)로서 음효(陰爻)가 처음 생기므로 월굴이라 일컬었다. 소옹(邵雍)의 「관물(觀物)」에 “건이 손을 만날 때 월굴이 되고, 지가 뇌를 만난 곳에 천근을 보네[乾遇巽時爲月窟 地逢雷處見天根].” 라고 하였다.

激心堪憶東征事
晦跡閑垂大釣竿
淒涼不盡英雄恨
喧聒鮮能夢寐安
怒聲却立西風立
微月書窓料理看

龔岩(농암)

마음을 격하게 한 동쪽으로 간 일을 감내하고
자취 감추고 큰 낚싯대 한가히 드리웠네.
처량하게 다할 수 없는 영웅(英雄)의 한(恨)이나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 적어 꿈자리 편안하다오.
성난 소리에 문득 서고 서쪽 바람에 서도
은은한 달빛 서창(書窓)에 비춰 이치를 헤아려본다오.

千仞崗頭七里灘
蟄龍半夜噴波寒
水聲撼壑風如助
樹影秀波月未安
曉雨暗藏園後榭
落花浮上岩前竿
爲誰鳴盡不平事
靜坐雲林拭眸看

樵史(초사)

천 길 피 꼭대기 칠 리의 여울은
용이 칩거하여 한밤에 토해내는 물결 차기도 하다.
물소리 골짜기를 흔들고 바람이 도움에
나무 그림자 빼어난 물결에 달은 편치 못하네.
새벽 비는 정원 뒤 떡갈나무에 몰래 들고
떨어진 꽃잎은 바위 앞 낚싯대 옆에 떠서 있구나.
누굴 위하여 불평한 일에 다 우는가?
고요히 앉아 안개 낀 숲을 눈 비비며 본다오.

116

小洞沉沉響碧灘
傍林草閣自生寒
雨餘飛鳥還疑墜
風後潛蛟又不安
水檻淒涼難見月
釣臺蕭瑟倦垂竿
爾從何處清怨訴
晚到磯頭爲一看

石下(석하)

작은 골짜기는 물리는 푸른 여울에 잠겼는데
옆 숲의 초가집은 저절로 한기가 일어나는구나.
비 끝에 나는 새는 도리어 추락했나 의심하고
바람 뒤에는 잠긴 용(龍)도 불안하리라.
물가 난간은 쌀쌀하여 달 보기 어렵고
조대(釣臺)는 쓸쓸하여 낚싯대 드리움도 게으르네.
너는 어느 곳에서 맑은 원망을 하소연하나?
늦게 물가 머리에 이르러 한 번 보네.

古沼龍飛石出灘

옛 소(沼)에서 용 날고 바위에서 여울 나오니

一聲秋水當宵寒 한 소리의 가을 물은 밤 되어 차기도 하다.
 浪翻如對五湖起 물결 뒤집힘이 오호(五湖)¹⁰⁸에 일어난 듯하니
 源遠終歸四海安 근원 멀어도 사해(四海)의 편안함으로 돌아가리라.
 玉人何處空吹笛 옥 같은 사람은 어느 곳에서 공연히 피리 불며
 漁子是時罷釣竿 어부는 이때 낚싯대 드리움을 꺾하였나?
 聽來轉轉還多感 들으며 와서 돌아다니니 다시 느끼는 것이 많아
 第待明朝且往看 내일 아침 기다려 아침에 또 가서 보리라.
 松隱(송은)

六景琮琤碧玉灘 여섯 경치 푸른 옥 여울은 옥구슬이 굴러
 灘頭植杖玩清寒 여울머리에 지팡이 세우고 맑고 찬 물결 희롱하네.
 微波合勢能成響 가는 물결 세를 합하여 소리가 울리고
 大石當中獨自安 큰 바위가 중앙에 있어 홀로 편안하다네.
 白白明珠翻萬斛 대낮에 밝은 구슬 만 섬이 쏟아지는데
 蕭蕭風竹碎千竿 쓸쓸한 바람에 대나무는 천 가지로 갈렸구나.
 江神不遇如相訴 강의 신을 만나지 못해 서로 하소연하는 듯한데
 擬作龍門八節看 헤아려 용문(龍門)에서 팔절(八節)을 보리라.
 迂軒(우헌)

山下沼成沼下灘 산 아래는 소(沼)를 이루고 소(沼) 아래가 여울이니
 灘鳴入戶夏猶寒 여울의 울림이 문에 들어와 여름에도 오히려 춥구나.
 龍吟澤窟千林靜 용이 연못 굴에서 우니 온 숲이 고요하고
 鷺立蘆花一世安 해오라기 갈대꽃에 서니 한세상이 편안하다.
 的歷渡頭漂母月 나루터 머리에 빨래하는 아낙 위로 달이 선명하고
 清閑磯下釣翁竿 낚시터에 낚시하는 늙은이 장대가 맑고 한가롭네.
 誰識咏歸真樂意 시 읊으며 돌아가는 참 즐거움의 의미를 누가 알랴?

108) 오호(五湖): 중국 춘추 시대 월(越) 나라 명신(名臣) 범려(范蠡)가 공을 이룬 후 물러나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태호(太湖)를, 다섯 개의 물길이 있다 하여 오호(五湖)라 부른다. 오호는 지금의 절강(浙江)·강소(江蘇) 두 성(省)에 걸쳐 작은 산들에 둘러싸인 동천복지(洞天福地)라 하는데 경치가 아름답다.

豁然流水最要看 시원하게 흐르는 물을 가장 봐야 하리라.
南溪(남계)

深爲沼也淺爲灘 물이 깊으면 소(沼)가 되고 얇으면 여울이 되니
沼下鳴灘動小寒 소(沼) 아래에서 울리는 여울에 작은 한기가 이네.
雲門泉石所無及 운문(雲門)의 자연은 비할 곳이 없으니
瀑布銀潭流在安 폭포는 은담(銀潭)에 흘러 편안하다오.
打楸詩得蔡翁句 호두 따는 시는 채희암(蔡希菴) 지은 것이요
吹笛聲多漁子竿 피리 부는 소리에 어부의 낚싯대가 많구나.
風雨時時吟一罷 바람과 비는 시시때때로이나 읊음은 한 번이니
潛龍伏處水清看 잠긴 용이 웅크린 곳 물 맑은 곳을 본다오.
退齋(퇴재)

大水雲門龍沼灘 큰물의 운문(雲門)에 용소(龍沼)와 여울은
長流激石假鳴寒 길게 흐르며 바위에 부딪히며 빌어 우는 것이 차다.
之而餘彩惟潛伏 그 남은 광채 오직 잠복하고 있으니
於物泳鱗自若安 가득히 헤엄치는 물고기는 절로 편안한 듯하네.
樂智士成沂水服 지혜를 즐기는 선비 기수(沂水)¹⁰⁹에서 옷을 이루고
忘機翁揮渭川竿 기미 잊은 늙은이 위천(渭川)¹¹⁰에 낚싯대 던졌다오.
無心沙鳥解人意 무심한 모래에 새는 사람 뜻을 헤아려
齊翼雙飛頻顧看 날개를 가지런히 하고 나란히 날며 자주 돌아본다.
訥庵(눌암)

小水聚鍾作沼灘 작은 물 모여 소(沼)와 여울이 되니
本源出自陰崖寒 본래 수원(水源)은 그늘진 벼랑 찬 곳에서 나오네.

109) 기수(沂水): 기수는 노(魯)나라 도성(都城) 남쪽에 흐르는 물 이름으로, 『논어』 「선진(先進)」에서 증점(曾點)이 “늦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관(冠)을 쓴 어른 대여섯 명과 동자(童子) 육칠 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있다.

110) 위천(渭川): 위천은 위수(渭水)를 이르는데, 강태공(姜太公)인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은 위수(渭水) 가의 반계(磻溪)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을 처음 만나 사부(師傅)로 추대되었다. 뒤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서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大洋望入聲常急 큰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는 소리는 항상 급하고
 危石穿來勢不安 위태로운 바위 뚫고 오는 형세가 불안하구나.
 明月晴窓驚客夢 밝은 달 뜬 개인 창에 나그네 꿈꾸다 놀라고
 夕陽長渚撼漁竿 석양의 긴 물가에서 어부는 낚싯대를 휘두르네.
 江干一界如張樂 강변의 한 경계는 곡을 연주하는 듯하니
 夷鼓牙琴可得看 이(夷)¹¹¹의 북, 백아(伯牙)의 거문고를 볼 수 있다오.
 石澗(석간)

瀦爲深沼淺爲灘 모여서 깊으면 소(沼)가 도고 얇으면 여울이 되니
 咽咽長鳴氣尙寒 토해내는 긴 울음은 기운이 오히려 차다.
 誤覺雨聲驚耳恟 빗소리 잘못 알아 귀를 놀라게 해 겁을 먹고
 漸聞風便洗心安 바람 편에 점차 듣고 마음을 씻어 편안하네.
 鷺兒逐浪翻飛翼 어린 해오라기는 물결을 따라 날갯짓하고
 漁子臨流伸釣竿 누가 뛰어난 필치로 일찍이 명언 남겼나?
 欲問混混源發處 샘물 솟아나는 발원처를 묻고자 하니
 傍人遙指五臺看 옆 사람이 오대(五臺)를 가리켜서 본다오.
 菊下(국하)

黑沼潛龍吼夜灘 검은 소에 잠긴 용이 밤에 여울에서 우니
 似鳴千古積愁寒 천고의 세월에 쌓인 근심과 쓸쓸함에 우는 듯하네.
 越吳惡恨聲猶在 월(越)·오(吳)의 미워한 한(恨)은 소리가 오히려 남고
 楚漢奔騰勢不安 초(楚)·한(漢)의 치달리는 형세가 편치 못하구나.
 月下搖搖懸浣杵 달빛 아래에 한들한들 씨긴 공이를 매달았고
 岸頭颯颯捲漁竿 언덕 머리는 바람이 어부의 낚싯대를 휘감는다오.
 終宵起我東征思 밤새 나의 동쪽 유람 생각을 깨우니
 時拂鐵衣開戶看 때때로 옷을 털고 일어나 문을 열고 본다오.
 滄農(창농)

111) 이(夷): 황제(黃帝) 때 처음으로 북을 만들었던 이고(夷鼓)이다. 황제의 둘째 비인 동어씨(彤魚氏)의 아들로 이름이 고(鼓)였기에, 그가 만든 북을 고(鼓)라 했다.

龍沼千尋匝下灘
 琮琤一曲洗神寒
 畫意縠紋翻翠湧
 絃聲羽急轉宮安
 醒曉喜忙霑渴肺
 聽秋暗想放漁竿
 片雲晴日高聲裡
 過雨何山指點看
 晚翠(만취)

용소(龍沼) 천 길은 아래의 여울을 들렀고
 옥소리 같은 한 굽이는 정신을 씻은 듯 서늘하다.
 그림의 뜻은 비단 무늬에 반대로 푸른빛 솟어나고
 악기 소리 화살처럼 급해도 도리어 침궁은 편안하네.
 새벽 숙취에 갈증 나는 가슴을 적심이 바빠도 좋고
 가을 소리 듣고 낚싯대 드리움을 생각함도 그윽하다.
 조각구름 맑은 날 높은 소리 속에
 지나는 비 어느 산 가리키는 곳을 보랴?

潛龍噴波上沼
 下灘濯纓自潔
 誰知趣一片江
 簾夕日寒
 款乃聲中情
 萬古孤舟泛泛載
 平安童子客來先
 鶴報臨流網
 岸插竿渚棠
 園梅莫愁風雨裡
 無玩眼不妨
 春三月載酒盡情看
 東溟(동명)

윗 소(沼)에 잠긴 용이 물결 토해내니
 아래 여울에서 갓끈 씻음이 절로 깨끗하네.
 누가 하 편의 강의 정취를 알랴?
 발 내린 저녁 날이 추워도
 정성은 소리 속의 마음이라도.
 만고에 외로운 배 띄우고 실으니
 편안한 동자와 손님이 먼저 왔구나.
 학은 흐르는 물에 어망을 알려주고
 언덕에 대나무와 물가에 팔배나무 심으니
 정원 매화는 풍우를 근심하지 말라.
 돌보는 눈 없어도 해되지 않으니
 봄날 3월엔 술 싣고 마음 다해 보리라.

120

龍沼深深下有灘
 風聲淅瀝入窓寒
 溪山石出時將晚
 晝夜波春不暫安
 月下漂娥鳴亂杵

용소 깊고 깊으며 아래는 여울이 있는데
 바람 소리 거세게 창으로 들어 스산하다.
 시내와 산은 바위 나와 있고 때맞게 저무는데
 낮과 밤으로 물결 쫄음은 잠시도 쉬지 않는구나.
 달빛 아래 빨래하는 미녀는 어지러이 방망이 울리고

磯頭釣客荷長竿
孤舟盡日橫沙際
到此行人脈脈看
竹翁(죽옹)

물가 머리에 낚시하는 나그네는 긴 낚싯대 번거롭네.
외로운 배는 종일 모래 사이에 빚겨 있고
여기에 이른 행인은 은근히 보고 있네.

龍沼長鳴活作灘
晴雷急雨動微寒
上流洗耳聞猶壯
危石爭頭渡未安
奏水泠泠琴數疊
激磯碎碎竹千竿
盈科歸海終大成
不是工夫涉獵看
寄隱(기은)

용소가 오래 울며 활발히 여울을 만드니
개였다가 우레치고 소나기 내려 가벼운 한기 동하네.
상류에서 귀 씻음에 들음이 오히려 장하고
위태한 바위 머리를 닦아 건넌이 편치 못하구나.
연주하는 물은 거문고 겹겹이 냉랭하고
물결치는 물가는 가는 천 줄기 대나무가 가늘다.
과정 채우고 바다로 돌아가 끝내 크게 이루니
공부가 아니라면 섭렵해서 보아야 하리.

急流曲曲自鳴灘
沼上四時山氣寒
百渡已知源水活
一邊可愛石盤安
寂寥高臥多生枕
清淺何心不受竿
却想無涯歸盡處
直須候月與同看
素軒(소헌)

급류의 굽이마다 저절로 여울은 울고
소(沼) 옆은 사계절 내내 산 기운이 차도다.
백 번 건넌에 근원의 물이 살아있음을 이미 알고
한 가는 너럭바위 편안하여 사랑할 만하다오.
조용히 높이 누워있음에 잠 옴이 많고
맑고 얇은 무슨 마음에 낚싯대 받지 않는가?
문득 끝없이 다하는 곳으로 돌아감을 생각함에
곧장 달을 기다려 함께 보아야 하리라.

盈科發源漸進灘
洋洋水色本清寒
飛流石澗聲如碎
鳴入夜窓夢不安

과정 채우는 발원이 점차 여울로 나아감에
넓고 넓은 물빛은 본래 맑고 찬었지.
바위 계곡에 날아 흐르는 소리 부서지는 듯하고
밤 창에 우는 소리 들어와 밤 꿈이 편하지 못하네.

過雨添波生寶瑟
閑人無事揭長竿
潛龍去後魚猶在
自躍天機這裡看

文式(문식)

지나는 비 물결 더하여 보배로운 비파소리 생기고
한가한 사람 일이 없어 긴 낚싯대 드리웠구나.
잠긴 용이 떠난 후에 물고기 아직 있으니
스스로 뛰며 이 속에서 천기를 볼 수 있다네.

坐聞龍沼自鳴灘
風便碎來氣亦寒
漂娥砧起聲相亂
沙鷺眠驚夢不安
隔岸疑聽疎葉雨
古磯浮在夕陽竿
學海千年流晝夜
能藏變化有時看

齊根(제근)

앉아 용소가 절로 여울 되어 우는 소리 들으면
바람에 실려 부서져 오는 기운이 또한 차가우리라.
빨래하는 미녀의 서로 어지럽게 다듬이 소리 일어
모래톱 해오라기 꿈이 편안하지 못해 자다 깬다오.
건너 언덕에서는 성근 앞에 비 내리는지 의심하고
옛 물가에는 석양에 낚싯대 드리웠다네.
바다를 배워 천 년간 주야로 흘러
변화를 간직해 때로 볼 수 있다오.

龍沼自鳴白石灘
江風吹送水聲寒
一勻源頭眞活潑
大凡物理不平安
歸客問津應植杖
漁翁得趣每停竿
不舍晝宵能渾渾
道之有本若斯看

敬堂(경당)

용소는 흰 바위의 여울로부터 우니
강바람 불어 물소리와 한기를 보낸다.
한 움큼의 근원 머리는 참으로 활발하고
대체로 사물의 이치 평안하지 못하느니라.
돌아가는 나그네 나무 물으며 지팡이를 세우고
어부는 흥취 얻어 항상 낚싯대 그치네.
주야로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흐르니
도가 있음이 본래 이 같음을 본다오.

一曲波鳴白石灘
龍飛古渚自生寒
何其動也心惟亂

한 굽이 물결이 흰 바위 여울에서 우니
용 날던 옛 물가는 절로 한기가 도네.
어째서 동함에 마음이 오직 어지러울까?

故欲聞之耳不安 그러므로 듣고자 하는 것은 귀가 편안하지 못하지.
 晴朝共答山兒笛 개인 아침 산 아이의 피리 소리에 함께 답하고
 陣路幾來野老竿 펼쳐진 길에 시골 늙은이 지팡이 짚음이 얼마일까?
 時時莫作黃牛峽 때때로 황우협(黃牛峽)¹¹²을 만들지 말게
 轉落聲聲學海看 점점 빠지는 소리마다 바다를 배움을 본다네.
 漢奎(한규)

龍潛於沼水鳴灘 용은 소(沼)에 잠겨 있고 물은 여울에서 우니
 一曲抱村清且寒 한 굽이는 마을을 둘러 맑고도 서늘하다.
 白鷺驚飛時直向 때로 곧장 향하자 백로가 놀라 날고
 綠蒲堪把住居安 사는 곳 편안하여 푸른 버들이 손에 잡힐 듯하네.
 聽來飛瀑依岩屋 바위에 의지한 집에서 듣자니 나는 듯한 폭포요
 坐了斜風拂釣竿 낚싯대 던지고 앉아 있으니 기운 바람이 분다.
 靈驗每多亢早日 가뭄 지극한 날엔 영험함이 항상 많아
 行雲施雨箇中看 흐르는 구름에 비 내리는 속을 본다오.
 復來(복래)

深於龍沼淺於灘 깊으면 용소요 얇으면 여울이니
 滾滾波鳴日夜寒 세찬 물결 울리며 낮과 밤으로 차다.
 風籟蕭條青嶂出 바람 소리 쓸쓸한 가지는 푸른 산에서 나오고
 雨聲浙瀝白鷗安 빗소리 거세도 흰 갈매기는 편안하다.
 村娥擊錦砧千杵 시골 미녀 다듬이질에 비단을 두드리고
 野老釣魚竹一竿 들 늙은이 대낚싯대로 물고기를 낚는구나.
 七里桐江嚴子瀨 동강(桐江) 칠리탄(七里灘) 엄광(嚴光)¹¹³의 여울과

112) 황우협(黃牛峽): 중국 장강(長江) 가운데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삼협(三峽), 즉 구당협(瞿塘峽)·무협(巫峽)·서릉협(西陵峽)을 황우삼협(黃牛三峽)이라 한다. 일설에는 서릉협, 명월협(明月峽), 황우협(黃牛峽)을 가리킨다고 한다. 물살이 매우 센 곳을 뜻한다.

113) 엄광(嚴光): 후한(後漢) 사람이다. 그가 젊었을 때 광무제(光武帝)와 같이 글을 배웠는데, 명망이 있었다. 나중에 광무가 황제가 되자, 성명을 바꾸고 부춘산(富春山) 밑 칠리탄(七里灘)에 숨어서 고기를 낚고 있었다. 광무가 사람을 파견해 그를 찾아 도성으로 데려온 다음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으로 돌아갔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一般清趣以今看 같은 맑은 정취를 지금 볼 수 있다오.

駿秉(준병)

跂石臨流便作灘 바위에 앉아 있으니 흐르는 물 문득 여율이 되어
 洞天雲濕一村寒 골짜기 하늘에 구름 습하여 온 마을이 차다.
 雨聲浙瀝松千壑 소나무 가득한 천 개의 골짜기에 빗소리 거세고
 風籟蕭條竹數竿 대나무 몇 줄기 바람 소리 쓸쓸하기만 하네.
 遠客燈前歸夢冷 먼 나그네 등불 앞에서 돌아가는 꿈이 차고
 漁翁臺下道心安 어부는 누대 아래서 도심(道心)이 편안하다오.
 峰回路轉澗澗出 봉우리 도니 길도 돌아 잔잔히 나오는데
 八節龍門以我看 용문(龍門)의 팔절(八節)을 우리가 본다네.

昇栢(승우)

一沼溪邊白石灘 한 소(沼)가 있는 시냇가 흰 바위가 여율이니
 晝宵不捨水聲寒 밤낮으로 물소리 찬 기운 그치지 않네.
 龍門八節同居易 용문(龍門) · 팔절(八節)은 백거이(白居易)와 같고
 滕閣五湖異子安 등각(滕閣) · 오호(五湖)¹¹⁴는 자안(子安)¹¹⁵과 다르네.
 太古青山浮在水 태고적 청산(靑山)은 떠서 물 위에 있고
 漁翁白髮老垂竿 어부는 백발로 늙어 낚시대 드리웠구나.
 雲窓靜夜頻成夢 구름 낀 창가 고요한 밤에 자주 꿈을 이루니
 疎雨枕邊看不看 성근 비 내리는 침소 옆은 보는가 보지 않는가?

基復(기복)

龍沼深深淺作灘 용소는 깊고 깊다가 얕아지면 여율이 되니

114) 등각(滕閣) · 오호(五湖): 등각은 중국 강서성(江西省)에 있는 등왕각(滕王閣)을 말한다. 등왕(滕王) 이원영(李元嬰)이 세우고 왕발(王勃)이 서(序)를 썼다. 오호(五湖)는 중국 오(吳) · 월(越) 지역에 있었던 다섯 개의 호수로 설이 분분한바, 일반적으로 동정호(洞庭湖) · 청초호(靑草湖) · 파양호(鄱陽湖) · 팽려호(彭蠡湖) · 태호(太湖)를 가리킨다.

115) 자안(子安): 초당(初唐)의 시인 왕발(王勃)을 가리킨다. 자안은 그의 자(字)이다. 그는 6세에 글을 지었으며, 왕발(王勃) · 양형(楊炯) · 노조린(盧照隣)과 함께 초당의 사걸(四傑)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왕자안집(王子安集)』 16권이 있다.

流波激石水聲寒
幽人窓下襟懷冷
遠客燈前夢不安
忽地風生松萬壑
有時雨打竹千竿
白鷗自信忘機久
拳足清溪不厭看

基成(기성)

흐르는 물결 바위 치며 물소리 차기도 하다.
은거한 사람은 창 아래에서 회포가 차잡고
먼 나그네는 등불 앞에서 꿈이 편하지 않네.
봄 물에 복숭아꽃 피어 어부도 이르고
석양에 단풍잎 어지러이 갈까마귀 날아오른다.
흰 갈매기는 스스로 믿어 기미를 잊은 지 오래이니
맑은 계곡에 발모아 보는 것이 싫증 나지 않네.

喜觀六景走鳴灘
龍沼汪汪水勢寒
驚起沙禽春夢惱
默聽石佛道心安
波面風來堪濺雨
磯頭流急不停竿
聖門有術誰何敢
故向其瀾仔細看

昌楫(창우)

여섯 경치 기쁘게 보고 울리는 여울로 가니
용소는 깊고 넓어 물의 기세 차기도 하네.
모래톱에 새가 놀라 일어나니 봄 꿈이 괴롭고
석불(石佛)은 묵묵히 들으며 도심(道心)이 편안하다.
수면에 바람 불어와 흩뿌리는 비를 감당하고
물가 머리에 흐름 급해도 낚시 그치지 않는구나.
성인의 문 법도 있으니 누가 어찌 감히 하랴?
일부러 그 물결을 자세히 보게나.

沼上鳴波走淺灘
深藏龍氣一吟寒
秋空急峽聲逾壯
夜撼殘村夢不安
亂石流光如疾矢
細魚逐隊謾驚竿
長時嗚咽非爲恨
天以無聞寂寂看

黃崑(황곤)

소 옆에 우는 물결 얇은 물 달리는 여울이니
깊이 잠긴 용의 기운 한결같이 찬 기운 토하네.
가을이 급한 협곡을 비움에 소리가 점점 씩씩하고
밤이 쇠잔한 마을을 요동시키자 꿈이 편하지 않네.
어지러운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빛은 빠른 화살 같고
가는 물고기는 무리를 쫓아 낚싯대에 공연히 놀란다.
긴 시절 오열함은 한(恨) 때문이 아니니
하늘이 소문내지 않음을 가만히 보게나.

深爲龍沼淺爲灘
流水潺潺夜色寒
遠客難成千里夢
棲禽未定一枝安
蒼苔白石明沙岸
細雨斜風野老竿
欲識箇中奇絕處
有時噓氣出雲看

炳濟(병제)

깊은 것은 용소요 얇은 것이 여울이니
흐르는 물 잔잔하다가 밤빛은 차구나.
먼 나그네는 천 리의 꿈 이루기 어렵고
깃든 새는 한 가지도 편안하게 정하지 못했네.
밝은 모래 언덕 흰 바위는 푸른 이끼가 덮었고
촌 늙은이 낚시하는데 기운 바람에 가는 비 내린다.
그 속에 빼어난 곳 알고자 하면
때로 부는 기운에 나오는 구름을 보라.



8. 高積浮雲

고적치(高積峙)의 뜬구름



高峰積翠出浮雲	높은 봉우리 푸르름 쌓아 뜬구름 내보내니
散聚無常合又分	흩어지고 모임은 일정치 않아 합했다가 또 나뉘네.
石鷺拂歸晴亦雨	석연(石燕) ¹¹⁶ 이 돌아가려 하니 갠 날도 비 내리고
神龍得致鬱然文	신룡(神龍)이 이르니 울창하게 문채(文彩)가 나네.
山中法侶應爲禮	산속에 승려는 응당 예를 행하고
天上仙人可與羣	하늘 위 신선도 함께 무리 지을 수 있다오.
一片野心曾被任	한 조각 들 마음으로 일찍이 남겨졌으니
卷舒自任不求聞	자임함을 접고 들림을 구하지 않았다오.

龍洲(용주)

高積峰浮數抹雲	고적치 봉우리에 뜬 여러 구름은
老龍噓氣葉柯分	늙은 용이 기운 불어 잎과 줄기로 나뉘네.
去來萬里還無跡	만 리를 오고 가도 도리어 자취가 없고
散合三時或有文	세 때는 흩어지고 합하여 간혹 글이 있어라.

116) 석연(石燕): 제비처럼 날아다니는 돌이라는 뜻이다. 상수(湘水) 부근에 있는 석연산(石燕山)의 돌이 바람을 맞으면 마치 제비처럼 공중에 날린다는 고사가 있다. 일설에는, 비가 오려 하면 날고 날이 개려 하면 앉는다고 한다. 『水經注 湘水』

此地分明接隱者	이곳은 분명 은자가 사는 곳이라
古庵何在誦禪群	옛 암자는 어느 곳에서 선(禪)을 암송할까?
唐虞事業曾如許	당우(唐虞, 요순)의 사업을 일찍 허여한 것 같아
傳到于今耳尙聞	지금에 이르도록 귀에 오히려 들리는구나.

星史(성사)

高積山頭浮在雲	고적치 산머리에 뜬구름 있으니
閑情與我共無分	한가한 마음 나와 구분이 없네.
晚天常帶烟霞氣	가득히 하늘은 연하(烟霞)의 기운 늘 띠어
絕壁時開錦繡文	절벽은 비단 수놓은 문채 때때로 열린다.
肯下陽臺神女夢	양대(陽臺) ¹¹⁷ 에 기꺼이 내리는 신녀(神女)를 꿈꿔도
長隨沙界誦禪群	불계(佛界)를 오래 따라 선(禪)을 암송하는 무리라고.
時來幾作人間雨	올 때 얼마나 사람을 위한 비를 만들었나?
驗却神功寂不聞	징험하려 해도 신공(神功)이라 고요해 들을 수 없네.

南崗(남강)

128

野心一片共留雲	들에서의 한 조각 마음 남은 구름과 함께하니
無是無非與世分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세상과 다르다오.
歌送汾河思漢武	한무제(漢武帝)를 생각에 노래를 분하(汾河)로 보내고
笑看岐岵憶周文	주문왕(周文王) 생각에 웃으며 기산(岐山)을 보네.
千年古壑龍爲氣	천년 옛 골짜기는 용(龍)의 기운이 되고
一色空林鶴失群	한색으로 빈 숲에 학(鶴)은 무리를 잃었어라.
所有吾家祇可悅	우리 집에 소유한 것 단지 기뻐할 만한 것이니
靜居不欲俗喧聞	조용히 살지 속세의 떠들썩한 소문을 원치 않는다오.

秋畹(추원)

117) 양대(陽臺): 원래 해가 잘 드는 누대를 말하는데, 남녀 간의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뜻하기도 한다. 초 양왕(楚襄王)이 일찍이 고당(高唐)에서 놀다가 낮잠을 잤는데, 꿈에 한 부인이 와서 “저는 무산(巫山)의 여자로서 임금님이 여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침석(枕席)을 같이해 주십시오.” 라고 하므로, 임금은 하룻밤을 그와 함께 잤다. 그 이튿날 아침에 부인이 떠나면서 “저는 무산의 양지쪽 높은 언덕[陽臺]에 사는데, 매일 아침이면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비가 됩니다.” 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望之高積嶺頭雲
 靉靄形容聚且分
 欲雨有時交海氣
 不風盡日定乾文
 視人富貴何多事
 隱者漁樵獨出群
 一點太虛浮像在
 唐虞至治古今聞
 東溟(동명)

고적치(高積峙) 고갯마루의 구름을 바라보면
 구름 낀 모양 모였다가 또 사라진다.
 때로 비가 내리려 하며 바다 기운 교차하고
 종일 바람 불지 않자 천문(天文)도 정하여지네.
 부귀한 사람 보면 어찌 그리 일이 많은가?
 물고기 잡고 땀나무 하는 은자는 홀로 나온다오.
 한 점 태허(太虛, 하늘)에 떠 있는 형상이 있으니
 요순(堯舜)의 지극한 다스림 고금에 듣는다오.

中天高積嶺生雲
 下界茫茫渾不分
 峽裡已空行雨夢
 山中應埋紀官文
 隱君何在深眞逸
 孤鶴相隨卓不群
 惟有鍾聲僧寺近
 却疑仙樂十時聞
 小山(소산)

하늘 가운데 높게 쌓인 봉우리에서 구름 생기니
 아래 세상은 아득히 흐려져 분간키 어렵구나.
 골짜기 안은 이미 비어도 빗속에 행하는 꿈이 있고
 산속에 웅당 문혀도 벼슬 이름 붙이는 글이 있도다.
 숨은 군자 어디에 있어 깊이 은일하고 있나?
 외로운 학은 서로 따라도 우뚝이 무리 짓지 않네.
 오직 종소리 울려 절이 근처에 있지만
 문득 신선 음악이 열 시에 들리나 의심한다오.

高積峰頭頭上雲
 來時或聚去時分
 山川嘯送英英氣
 宇宙翻成点点文
 霽影入村仙有跡
 曇光護寺釋爲群
 人間作雨誰能使
 古沼龍吟恍若聞
 錦樵(금초)

높게 쌓인 봉우리 머리 위로 구름이 낀에
 올 때는 간혹 모였다가 갈 때는 흩어진다오.
 산과 냇물이 영롱한 기운을 불어 보내니
 세상은 점점이 문채를 다시 이루었구나.
 상서로운 구름 그림자 마을에 들어 신선 자취 있고
 흐린 빛이 절을 보호하니 중들 무리를 지었네.
 인간이 비 만드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나?
 옛 소(沼)에 용이 주술 율음이 들리는 듯하다.

積氣浮浮上作雲
有時寸合合而分
共鶴忘機超俗界
從龍得路幻作文
深處掩藏高士跡
上頭宛在列仙群
有誰管領自怡悅
塵世風潮都不聞

石樵(석초)

쌓인 기운이 떠서 위에서 구름을 만듬에
때로 조금 합하였다가 또 나뉘는구나.
학과 함께 기미 잊어 속세를 초월한 세계요
용을 따라 길을 얻어 환영 같은 문채라네.
고사(高士)의 자취는 깊은 곳에 감춰져 있고
여러 신선 무리는 꼭대기에 완연히 있으리라.
누가 스스로 관장하고 만족하게 함이 있어서
속세의 풍조가 모두 들리지 않는구려.

130

山高高積上浮雲
起處爲峰散處分
因風箇箇如無跡
傍日飛飛正有文
巫峽千秋神女夢
蓬萊五色列仙群
斯間尙是封禪去
萬歲三呼如可聞

近溪(근계)

산이 높아 높이 쌓인 위로 구름이 떠
일어나는 곳은 봉우리가 되고 흩어진 곳은 나뉘었네.
바람으로 인해 곳곳마다 자취가 없고
별 옆이라 나는 곳마다 바로 문채가 있구나.
무협(巫峽)¹¹⁸은 천추에 신녀(神女)의 꿈이요
봉래(蓬萊)¹¹⁹는 오색 찬란하여 못 신선이 모인다지.
이 사이에 갑자기 봉선(封禪)¹²⁰을 하려 가도
만세 삼창을 하면 들을 수 있을 듯하리.

高積峰頭片片雲
浮來浮去合而分
紫芝洞口金柯葉
綿玉村邊錦繡文
富貴如今於我視

높이 쌓인 봉우리 머리에 조각 조각의 구름은
떠서 오고 떠서 감에 합하였다가 나뉘는구나.
붉은 지초는 골짜기 입구에 금빛 잎을 드리웠고
면옥치(綿玉峙) 마을 주변은 비단 수놓은 문채라요.
부귀함 지금 같음은 나를 보는 것 같으니

118) 무협(巫峽): 중국 양자강의 상류에 있는 삼협(三峽)의 하나로, 험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삼협은 구당협(瞿塘峽), 무협(巫峽), 서릉협(西陵峽)이다.
119) 봉래(蓬萊): 전설상에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봉래도(蓬萊島), 즉 봉래산(蓬萊山)을 이르는데, 삼신산이 동해에 있다는 전설이 있다.
120) 봉선(封禪): 고대 제왕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태산(泰山)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봉(封)이라 하고, 태산 아래 양보산(梁父山)에서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을 선(禪)이라 했다.

清閑若彼與誰群 맑고 한가로움이 저와 같아 누구와 함께할까?
 歸時莫近諸天外 돌아가는 때는 절 밖보다 가까운 것이 없으니
 穿破鍾聲恐有聞 뚝어 깨뜨리는 종소리 들릴까 두렵다오.
 峴愚(현우)

積土爲峰擁以雲 쌓인 흙이 봉우리 되고 구름이 안으니
 高齊天路是三分 높게 가지런한 하늘길이 세 갈래로 갈렸네.
 半空常作蒙籠氣 반쪽 하늘은 항상 몽롱한 기운을 만들고
 絕壁還開錦繡文 절벽은 다시 비단 수놓은 문채를 열었도다.
 雨後從龍林下宿 비 온 뒤에 용을 따라 숲 아래에서 잠들고
 宵來伴鶴月中群 밤이 오자 학을 짝하여 달 속에 무리짓는다.
 世間名利都如彼 세상 속의 명리란 모두 저와 같나니
 不義浮榮不願聞 의롭지 않은 헛된 영화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오.
 笑堂(소당)

高積峰高常有雲 고적봉은 높아 늘 구름이 있으니
 雲峰蒼翠影難分 구름 낀 봉우리는 푸르러 그림자 분간키 어렵네.
 削金鰲立層層骨 금(金)을 깎아 자라 세우니 층층이 뼈대요
 如山龍從都都文 산과 같은 용을 따르니 모두가 문채가 나는구나.
 峯上自怡誰隱跡 봉우리 위에 유유자적함은 누가 은거한 자취인가?
 山中早管土離群 산속에 이른 피리 소리는 선비가 무리 떠나서라오.
 無心出岵歸來晚 무심히 드러난 봉우리에 늦게 돌아옴은
 陶後今人鮮有聞 도연명(陶淵明) 이후 지금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어라.
 雪隱(설은)

高積晴峰迥抻雲 높게 쌓인 맑은 봉우리 멀리 구름 펼쳐져
 雲出無心合又分 구름은 무심히 합하였다 나누는 곳에서 나오네.
 瑞近蓬萊常有色 상서로움은 봉래(蓬萊)에 가까워 늘 색이 있고
 暝歸岩穴述其文 어두움은 바위구멍에 가까워 그 문채를 서술한다오.

明時際遇飛龍子
別處俄過白鷺群
管領多年自怡悅
居人有道不求聞
蓮宇(연우)

날으는 용 새끼는 밝을 때 만나고
흰 해오라기 무리는 이별하는 곳을 잠시 지나는구나.
주관한 지 여러 해 동안 스스로 기뻐하니
사는 사람 도가 있어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는다오.

嶺上紛紛多白雲
斜形倒影郁相分
深堆遠岵圍屏障
淡抹長空耀錦文
碧玉潭凝龍變彩
黃精圃潤鹿呼群
早年能作人間雨
四野魚喁竟未聞
素山(소산)

고개 위에 어지러이 흰 구름 많아
기운 모양에 뒤집힌 그림자 빛나게 서로 나뉘었네.
깊은 언덕 먼 봉우리가 둘러 쌓은 산이요
담담히 칠하여진 긴 하늘 빛나는 비단 문채로다.
벽옥 같은 연못은 용이 변하는 무늬 응축되어 있고
누런 정기의 채소밭은 윤택해 사슴이 무리 부르네.
가뭇이 든 해에 사람이 비를 만들 수 있다면
백성들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는 일 없었으리.

132

高山積翠接浮雲
淡淡閑閑合復分
龍沼晚雷含雨意
爐峰夜月篆烟文
是非不管人間事
去住無心鳥與群
問爾街童師那在
只應深處採歌聞
白又(백우)

높은 산은 푸르름이 쌓여 뜬구름과 접하니
담담하고 한가롭게 합쳤다가 흩어진다.
용소(龍沼)에 늦은 우레 비를 머금은 뜻이요
향로봉(香爐峰) 밤 달은 연기의 무늬로다.
인간사 시비(是非)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새와 무리 지어 가고 음이 무심하구나.
거리 아이에게 스승님 어디에 계시는지 물어도
단지 깊은 곳 약초 캐는 노래만 들을 수 있다 하네.

山與天高恒帶雲
雲同山積渾難分
疊岳奇形疑有寺

산과 하늘이 높으니 늘 구름이 끼어
구름은 산이 쌓인 것과 같아 구분하기 어렵다.
첩첩한 험한 산 기이한 모양이라 절 있을 듯한데

霎時變態曜成文 가랑비 내릴 때 변하는 모양 문채 이름이 빛난다.
 或從處士與之友 간혹 처사와 그의 벗을 따른다고 하지만
 常依龍神他作群 항상 신룡(神龍)이 만든 여러 사물에 의지한다고.
 必也此間居魏野 반드시 이 사이에 위야(魏野)¹²¹⁾가 거처하리니
 韜光晦跡不求聞 빛 감추고 자취 감추어 알려짐을 구하지 않는다오.
 龔岩(농암)

日薄同虛逗晚雲 해는 엷어 없는 듯하더니 저녁 구름에 머물러
 黃旗蒼狗遠微分 누런 깃발인지 푸른 개인지 희미하여 분간키 어렵네.
 神光漢時紛紛舉 신비한 광채의 한치(漢時)¹²²⁾는 어지러이 솟아 있고
 王氣岐山郁郁文 왕 기운의 기산(岐山)¹²³⁾은 빛나는 문채로다.
 飛去只愁霞作伴 노을이 짝을 만들어 날아감을 단지 근심하니
 宿來未覺鳥爲群 새가 무리 지어 자리 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適來適去無爭競 가고 오고 가고 감에 다툼이 없으며
 只有牛鳴隔石聞 단지 소 우는 소리가 건너편 바위에서 들리는구나.
 樵史(초사)

出門獨立見孤雲 문을 나서 홀로 서서 외로운 구름을 보니
 高積青山杳十分 높이 쌓인 푸른 산은 아득하기만 하네.
 飛散無期連海氣 날아 흩어지며 기약 없이 바다 기운에 이어지고
 清閑成性應天文 맑고 한가로움 성품을 이루어 천문(天文)에 응답한다.
 在上曉攀星斗轉 새벽에 잡힐 듯한 별들의 움직임 위에 있고
 俯臨秋送鴈鴻群 가을에 보내는 기러기 무리를 굽어보네.
 此村一面勝仙界 이 마을 한 번 보니 선계(仙界)보다 좋으니

121) 위야(魏野, 960-1019): 송나라의 시인이자 은자로, 자는 중선(仲先)이다. 섬주(陝州)의 동쪽 교외에 다 초당(草堂)을 짓고 살면서 초당거사(草堂居士)로 자칭하였으며 저서로 『초당집(草堂集)』이 있다.

122) 한치(漢時): 한(漢)나라 때 천지(天地)와 오제(五帝)에게 제사 지내던 곳으로, 지금의 협서성(陝西省) 풍상현(風翔縣) 남쪽에 있다. '時'는 『說文解字』에 "천지와 오제가 기틀을 잡은 곳으로 제사를 지내는 땅이다[天地五帝所基址祭地]." 라고 하였다.

123) 기산(岐山): 산 이름. 섬서성(陝西省) 기산현(岐山縣) 동북쪽에 있으며 주 나라의 고공단보(古公亶父)가 북쪽 오랑캐의 침략을 피해 여기에 주 나라 터전을 잡았다.

誰使是非聲到聞 누가 시비의 소리를 들리게 하겠는가?

石下(석하)

高積嶺頭有白雲 높이 쌓인 봉우리 머리에 흰 구름 있으니
 朝朝暮暮合而分 아침과 저녁마다 합하였다가 나뉘는구나.
 一抹英英從地氣 한 가닥 영롱함도 지기(地氣)를 따른 것이요
 萬鱗細細動天文 만 비늘처럼 세세하게 천문(天文)이 동한다오.
 行時必有生靈望 행할 때는 반드시 백성(百姓)의 소망이 있고
 禮處應多誦禪群 예 갖춘 곳은 응당 선(禪) 암송하는 무리 많다네.
 若將青色洛橋去 만약 푸른색의 낙교(洛橋)¹²⁴에 간다면
 快得芳名天下聞 분명 꽃다운 이름 천하에 알릴 수 있으리라.

松隱(송은)

134

七景西南嶺上雲 일곱 번째 경관은 서남쪽의 고개 위의 구름이니
 嶺高雲積杳難分 고개가 높고 구름이 쌓여 아득히 구분키 어렵구나.
 山中獨有遲遲日 산속에 홀로 있으니 더디고 더딘 날이요
 天際遙開郁郁文 하늘 사이가 아득히 열리니 빛나고 빛나는 문채로다.
 萬里相隨龍出洞 용이 나오는 골은 만 리에 서로 따르고
 千年長與鶴爲群 학은 무리를 이루어 천 년을 장수하네.
 太虛一点無人識 하늘에 한 점을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故放雷聲下界聞 우렛소리 풀었기에 아래 세상에서 듣는 것이라오.

迂軒(우헌)

高積峰頭一片雲 높게 쌓인 봉우리 머리에 한 조각 구름이
 恒浮所在不須分 항상 떠서 있는 곳 분간하기 어렵네.
 因風或露晴天景 맑은 하늘 경치가 바람 때문에 간혹 이슬 내리고
 欲雨仍成碧岫文 푸른 봉우리 무늬 비 내리려 하자 이내 이루어진다.

124) 낙교(洛橋):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시의 서남, 낙수강(洛水江)에 놓인 다리를 이르는 말. 수나라 양제가 지었다고 전한다.

往往住時遊俗客
紛紛起處下仙群
丁寧此地非人世
願見年來已熟聞
南溪(남계)

왕왕 머무른 때는 노니는 속세의 객이요
어지러이 일어나는 곳은 내려온 신선 무리라네.
정녕 이 땅은 인간 세상이 아니니
전부터 이미 익숙히 들은 것을 보기 원한다오.

千丈峰頭一点雲
樹間玉葉不相分
常近蓬萊祥有色
暫過石壁繡成文
青山苔濕龍施雨
碧落天遮鳥失群
從知富貴皆如許
於我何求達與聞
退齋(퇴재)

천 길 봉우리 끝 한 점 구름 끼어
숲 사이 옥 같은 잎을 서로 구분하기 어렵네.
항상 봉래(蓬萊)가 가까워 상서롭게 빛이 있고
잠시 석벽(石壁)을 지나도 수놓은 문채를 이루노라.
용이 비를 내리니 청산에 이끼가 습하고
새가 무리를 잃어 푸른 하늘을 가로지른다.
부귀는 모두 허여한 듯함을 알았으니
나에게 어찌 영달과 들림을 구할까?

高積峰頭萬朵雲
山靈川氣合無分
從風不散龍成彩
如霧深藏豹變文
出岵溶溶輕拖影
浮虛点点晚成群
樵夫斜日忘歸否
伐木聲聲這裡聞
訥庵(눌암)

높이 쌓인 봉우리 머리에 만 갈래 구름은
산의 영험함과 내의 기운으로 모두 구분키 어렵구나.
용이 이룬 문채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고
표범의 변하는 무늬 안개처럼 깊이 잠졌다네.
도도히 봉우리에서 나와 가벼이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점점이 허공에 떠서 늦게야 무리를 이룬다오.
나무꾼은 석양에 돌아감을 잊었는가?
나무 베는 소리 이 속에 들려온다.

高積峰高郁郁雲
無心聚合有時分
施雨從龍多變化

고적치 봉우리 높아 무성한 구름은
무심히 모이고 때로 나뉘기도 하네.
비를 내리는 용을 따르니 변화가 많고

隨風伴鶴散奇文
只可悅怡高士宅
惟應禮拜老禪群
陰包陽激升降氣
或引雷聲下界聞

石澗(석간)

바람 따라 학을 짝하니 기이한 문양이 흩어진다.
다만 고사(高士)의 집이 즐길 만하지만
오직 늙은 스님들의 예배(禮拜)에 응한다오.
음(陰)이 싸고 양(陽)이 치면 기(氣)가 오르고 내리니
간혹 우렛소리를 이끌어 하계(下界)에 드린다네.

峰高高積上浮雲
玉葉金柯萬朵分
合作蓋形擎日色
散如篆烟畫天文
採芝誰識尊師處
禮佛應多老釋群
疑汝或從巫峽去
謾成暮雨不堪聞

菊下(국하)

봉우리 높은 고적치 위에 구름이 뜨니
옥 같은 잎과 금 같은 가지가 만 갈래로 나뉘었네.
합하여 만든 지붕 모양은 태양 빛을 받들고
흩어진 듯한 연기는 천문(天文)을 그린 듯하다.
영지 캐는 스승 있는 곳 누가 아는가?
예불 올리는 늙은 스님들 응당 많구나.
네 혹시 무당 따라 협곡에 가는지 의심하니
멋대로 내리는 저녁 빗소리 들림을 감당하기 어렵네.

136

坐看無心出岵雲
有時相合有時分
朝過絕壁開圖畫
暮散空林綴篆文
獨去閑情將斂跡
長隨何處迥超群
莫言高積峰頭在
忽送晴雷下界聞

滄農(창농)

앉아서 무심히 나오는 봉우리 구름을 보니
때로 서로 합하고 때로 서로 나뉘는구나.
아침에 절벽을 지나니 그림 같은 경치 열리고
저녁 빈 산에는 흩어지는 연기가 이어지네.
홀로 가는 한가한 마음에 자취를 거두려 하니
오래 따르며 어느 곳에서 멀리 무리를 벗어날까?
고적치(高積峙) 봉우리에 있다고 말하지 말게
갑자기 개인 우레 보내면 하계(下界)에 들릴 터이니.

高積西南峰上雲
觀其變者若難分

높이 쌓인 서남쪽 봉우리 위에 구름 일어
그 변화를 보아도 구분하기 어려운 듯하다.

風態雨心眞活畫 바람 모양 비 마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그림 같고
 龍鱗鳥羽自奇文 용 비늘 새 날개가 저절로 기이한 문양이라.
 使氣龍光應寶化 기(氣)를 부린 용의 광채는 응당 보물이 되고
 擬烟鶴像不鷄群 연기 헤아린 학의 형상 닭과 무리 짓지 않는다오.
 輪困蕭索如何日 윤곤(輪困)¹²⁵⁾으로 새끼를 꿈이 어느 날일까?
 爲靄爲卿願與聞 상서로운 구름에 경상(卿相)이 됨을 듣기 원하노라.
 晚翠(만취)

高高積積吾家物 높고 높이 쌓고 쌓은 우리 집 물건은
 盡是太虛中 모두 허공에서
 無事往來雲 일없이 왕래하는 구름이라.
 莫教市豎探 저자거리의 장사치가 탐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此路疑九分 이러한 길은 의심함이 대부분이요
 也怒十分 또 분노함이 확실하다.
 吟風弄月猶詩債 음풍농월(吟風弄月)은 시의 부채[詩債]와 같으니
 何必經天緯地文 하필이면 천하를 경영하는 문장(文章)을 하라!
 日日偷閑來且去 날마다 틈날 때면 가는 것은
 魚鱗得所 물고기도 하는 것이고
 麋鹿成群 사슴도 무리를 이루는 것이다.
 悠悠然自樂地 할 일 없이 스스로 즐기는 곳에서
 何事十里外風聲聞 무슨 일로 10리 밖 바람 소리를 듣겠는가?
 東溟(동명)

高積峰頭晚出雲 높게 쌓인 봉우리 머리에 늦게 구름 일자
 有村咫尺不相分 지척의 마을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烟深古洞龍成彩 안개 깊은 옛 골짜기에 용이 문채를 이루어
 霧鎖何山豹變文 안개가 닫은 어느 산이 표범 변하는 무늬인가?

125) 윤곤(輪困): 반송(盤松)의 가지에 옹이가 있어 울퉁불퉁 기괴한 형상을 나타낸 말인데, 여기서는 걸 모습은 기굴(崎嶇)하지만 가슴에는 천자를 보필할 기국과 역량이 있음을 말한다.

起處杳然籠萬樹
屯時宛似擁千群
騰天好作人間雨
隱隱雷聲這裡聞
竹翁(죽옹)

일어나는 곳 아득하게 만 나무를 들렀고
멈출 때는 완연히 천의 무리를 안은 듯하네.
하늘에 올라 사람에게 비 내리기를 좋아하니
은은한 우렛소리를 이 속에서 들을 수 있다오.

高積萬重疊疊雲
秦山楚水盡三分
不移欲雨還無跡
常有非凡或異文
古沼藏深龍吐氣
老松籠影鶴飛群
遙知誰可持相贈
手指明明耳得聞
寄隱(기은)

고적치에 만 겹으로 첩첩한 구름에
진나라 산과 초나라 물이 모두 셋으로 나뉘었네.
비 오려 함이 옮기지 않아도 다시 자취 없고
항상 비범하나 간혹 다른 문양이 있다오.
옛 소(沼)에 깊이 잠긴 용이 기(氣)를 토하고
늙은 소나무 그림자 둘러 학은 무리 지어 나는구나.
누가 가진 것 서로 줌을 멀리 알겠는가?
손으로 가르쳐 줘야 분명히 들을 수 있으리라.

138

高峰積氣結爲雲
浮去浮來故不分
只較陰晴留作色
肯隨虹蜺變成文
中峰捫宿同僧侶
上界徘徊任鶴群
莫向人間風雨出
朝非暮是我曾聞
素軒(소헌)

높은 봉우리에 쌓인 기운이 구름이 되어
떠서 가고 떠서 오며 분간하기 어려워라.
다만 흐림과 개임을 비교하고 남겨 색을 만들고
기꺼이 무지개를 따라 변하여 문채를 이루는구나.
가운데 봉우리에 살며 승려와 함께하나니
상계를 배회함은 학(鶴) 무리에 맡겼어라.
사람들 향해 비바람 내지 말지니
아침에 그른 것이 저녁에는 옳음을 일찍이 들었나니.

高積山頭多白雲
有時而聚有時分
隨風散作英英氣

고적치 산머리에 흰 구름이 많아
때로 모이고 때로 흩어지기도 한다오.
영롱한 기운도 바람을 따라 흩어지기도 하고

如火熾成郁郁文 빛나는 문채가 불같이 이루어지기도 하다네.
 峰光羅列鳳龍勢 봉황과 용의 형세로 봉우리 광채가 펼쳐지고
 林影掩藏麋鹿郡 시슴의 무리 숲 그림자에 감춰져 있다오.
 遙望五采玲瓏裡 멀리 바라보니 다섯 빛깔 영롱한 속에
 必也其人有所聞 반드시 그 사람이 들 바 있으리라.

文式(문식)

高積峰高泛彼雲 고적치 봉우리 높아 저 구름 떠 있음에
 英英郁郁金柯分 맑고 무성하여 금 같은 가지로 나뉘었네.
 根生泰岳千層石 천 층의 바위 뿌리는 태산에서 생겨나고
 影近蓬萊五彩文 다섯 빛깔 문양 그림자는 봉래(蓬萊)에 가까워라.
 油然欲雨龍藏跡 용 감춰진 자취에 유연히 비 내리려 하고
 任意隨風鶴不群 학 무리 짓지 않음에 임의로 바람을 따른다오.
 有誰採去深深處 누가 약초 캐러 가서 깊은 곳에 있는가?
 數曲芝歌隱隱聞 몇 곡의 지초(芝草) 노래가 은은히 들리는구나.

齊根(제근)

高峰積起出浮雲 높은 봉우리 쌓여 올라 구름이 나오니
 雲白山青兩色分 흰 구름과 푸른 산 두 색으로 나뉘었네.
 淡影悠悠含水氣 담담한 그림자 유유히 물기운을 머금어
 奇形郁郁布文文 기이한 모양은 빛나게 문채 나는 문양을 펼쳤다.
 施雨神龍能變態 비 내리는 신훘(神龍)은 모양을 변하고
 有時仙鶴却爲群 때로 선학(仙鶴)은 무리를 버리기도 하는구나.
 蒼空舒捲無窮盡 푸른 하늘에 감추고 펴짐이 무궁함을 다하니
 造物神功見又聞 조물주의 신공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다오.

敬堂(경당)

高峰矗立上浮雲 높은 봉우리 곧게 선 위로 구름 떠 있고
 如霧如烟淡不分 안개인 듯 연기인 듯 담담하여 나누기 어렵네.

還將雨色村容暗 다시 비의 색으로 마을 모습이 어두워지더니
 歸擁山頭樹影文 돌아가 산머리를 안아 나무 그림자에 무늬 있구나.
 浪吟可歎前留跡 멋대로 시 읊다가 전에 남긴 자취에 탄식하고
 洞關時看晚采群 골짜기 열려 늦게 나물 캐는 무리를 때로 본다오.
 塵外遊仙誰識否 속세 밖에 노니는 신선을 누가 알아보는가?
 遠林鳥語此中聞 먼 숲에 새 읊을 이 속에서 듣는구나.
 漢奎(한규)

積翠峰頭有白雲 푸르름 쌓인 봉우리 머리에 흰구름 있으니
 陰陽一理萬殊分 음양(陰陽)이 한 이치이나 만 가지로 나뉜다오.
 無心讀罷歸來駐 무심히 읽기 마치자 재물이 돌아오고
 山畫草成封禪文 낮 산에서 초(草)한 문장으로 봉선(封禪)¹²⁶을 하네.
 丹鳳休來留住士 단봉(丹鳳)¹²⁷에서 쉬러 왔다가 머물러 산 선비오
 碧蘿豈濕別離群 은사는 어찌 습한데 무리와 이별하였나?
 法界三千知不遠 삼천(三千) 법계(法界)가 멀지 않음을 아나니
 過江穿破一鍾聞 강을 지나 뚫고 한 종소리 들린다.
 復來(복래)

140

高積青峰半入雲 높이 쌓은 푸른 봉우리 반쯤 구름에 들어
 明星上應尾箕分 밝은 별과 위에서 응하여 미기(尾箕)¹²⁸를 나누리라.
 朝來楚峽看仙跡 아침에 초협(楚峽)¹²⁹에 와서 신선 자취를 보고
 晝出漢封有瑞文 낮에 한(漢)나라 봉토를 나오니 상서로운 문자 있네.
 隱士被留任管領 은사(隱士)는 머물러져 관리를 맡게 되었으나

126) 봉선(封禪): 고대 제왕이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큰 전례이다. 태산(泰山)에다 제단을 쌓아 하늘의 공에 보답하는 것을 봉(封)이라 하고, 양보산(梁父山) 위에다 장소를 만들어 땅에다 제사를 지내어 땅의 덕에 보답하는 것을 선(禪)이라고 한다.
 127) 단봉(丹鳳): 단봉성(丹鳳城)의 준말로, 황제의 도성을 가리킨다.
 128) 미기(尾箕): 28수(宿) 중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이다. 이는 조선의 분야(分野)에 해당한다.
 129) 초협(楚峽): 초협은 촉 땅의 무산(巫山)을 가리킨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고당(高唐)에 노닐다가 꿈속에 신녀(神女)를 만나 동침하였는데, 신녀가 떠나면서 “첩은 무산(巫山) 남쪽 높은 봉우리에 사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 비가 되어 매일 아침 저녁 양대(陽臺) 아래에 있습니다.” 하였다 한다. 『文選 宋玉 高唐賦』

禮僧遙望自爲群 에승(禮僧)은 멀리 바라보며 저절로 무리 짓는구나.
 有時滿戶團傾盖 때로 집안 가득한 술병을 기울이지
 世外是非不欲聞 세상 밖의 시비 듣고 싶지 않다고.
 駿秉(준병)

高積峰頭起白雲 고적의 봉우리 머리에 흰 구름이 이니
 合時容易又輕分 쉽게 합하기도 하고 가볍게 나뉘기도 하네.
 非烟非霧淡淡色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담담한 색은
 如火如綿郁郁文 불 같기도 하고 솜 같기도 한 빛나는 문양이라.
 不義於人輕富貴 남에게 의롭게 하면서 부귀를 경시하지 않으면
 有光其處出仙群 그곳에 빛이 있어 신선 무리를 벗어나지.
 太虛異日能施雨 하늘이 다른 날 비를 내리게 하여
 一洗塵埃世所聞 한번 때를 씻어 세상에 들음이 있으리라.
 昇栢(승우)

山尖高積起浮雲 산 끝이 높게 쌓여 뜬구름 일어나니
 未及崇朝四海分 아침에 오르는 못했으나 사해가 나누어진다고.
 施雨霏霏均潤物 비를 부슬부슬 내리게 하여 사물을 고루 적시니
 從龍盍盍織成文 용을 따라 가득히 문채를 이루었네.
 悅怡只可幽捫客 기쁨은 단지 그윽이 사는 나그네에게 할 수 있고
 縹緲猶存羽化群 아득함은 오히려 신선이 된 무리에게 오히려 있도다.
 一髮青鬢雖小者 쪽 찢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가 비록 작아도
 奇峰多作使人聞 기이한 봉우리 많아 사람을 듣게 한다고.
 基復(기복)

高峰積翠起浮雲 높은 봉우리 푸르름 쌓아 뜬구름이니
 玉葉金柯散又分 옥 같은 잎과 금 같은 가지는 흩어져 나뉘었네.
 幾近蓬萊常五色 얼마나 봉래가 가까워 항상 다섯 색인가?
 也從芒碭有奇文 또 망탕(芒碭)¹³⁰을 따라 기이한 무늬가 있다고.

興時知有龍嘘氣	흥할 때는 용이 부는 기운 있음을 알고
深處將看鶴出群	깊은 곳을 보면 학이 무리에서 나왔어라.
鬱鬱茲山難可仰	빽빽한 이 산은 바라볼 수 없으니
鼎鑪有耳世人聞	술에 귀가 있음을 세상 사람이 듣는다네.

基成(기성)

仰觀七景在浮雲	우리러 일곱 번째 경치가 뜬구름에 있음을 보니
出岵無心連又分	드러난 봉우리는 무심히 이어졌다가 나뉘었구나.
聳作層峰高秀勢	높이 빼어난 세는 높이 솟아 층봉(層峯)을 만들고
亘如匹練細成文	가늘게 이룬 무늬는 뻗어서 짝을 이루었도다.
曉天影濕歸龍伴	새벽하늘에 그림자도 습하여 돌아가는 용과 짝하고
古巷光述下鶴群	옛 항구는 광채 지어 내려오는 학과 무리 지었네.
早晚山頭誰有管	이르고 늦은 산머리는 누가 관리하는가?
猶留啼鳥日相聞	오히려 머물러 우는 새는 날마다 서로 듣는다오.

昌楫(창우)

142

高積峰頭有白雲	고적치 봉우리 머리에 흰 구름이 있으니
寸膚初合遍相分	처음에 작게 합하다가 다시 서로 나뉘네.
晴天爭發芙蓉色	부용(芙蓉)의 빛 갠 하늘에 다투어 발하고
絕壁重開錦繡文	비단 수놓은 무늬 절벽에 거듭 열린다.
無意蔽空雖所欠	뜻 없이 하늘을 가림은 비록 없는 것이라도
論功作雨孰爲群	공을 논함에 비 만듦은 누구의 무리인가?
古來富貴終如許	예로부터 부귀는 끝내 허여한 듯하였으니
深處人家罕靚聞	깊은 곳에 인가는 보고 들음이 적도다.

黃崑(황곤)

130) 망탕(芒湯): 망탕은 망산(芒山)과 탕산(湯山)이다. 진시황이 동남방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 하여 동쪽으로 순시를 나가 그 기운을 억누르자 고조(高祖)가 도망하여 망산과 탕산의 산중에 숨어다녔다. 그러나 여후(呂后)는 고조가 아무리 깊은 산중에 있어도 늘 찾아내었으므로 고조가 이상히 여겨 그 방법을 물으니, 여후가 말하기를, "당신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하늘에 운기(雲氣)가 서려 있어서 그 구름을 따라가면 늘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史記 卷8 高祖本紀』

高積山高起白雲	고적치 산이 높아 흰 구름이니
英英郁郁有時分	찬란하고 무성하여 때로 나뉘어 있네.
檻前飛落峰綿形	봉우리는 비단 형세로 난간 앞에 날아 떨어지고
壁上歸開錦繡文	비단 수놓은 무늬 절벽 위로 돌아가 열렸구나.
此地也應多隱者	이 땅 또한 응당 은둔한 사람이 많아
斯間庶幾有仙群	이 사이는 거의 신선 무리가 있으리라.
箇中管領猶功業	그 속을 관리함이 오히려 공이지만
不義榮名豈欲聞	의롭지 않은 영예와 이름을 어찌 듣기 바라리오?
炳濟(병제)	



9. 柰川游魚

내천에 노니는 물고기



144

川上靜觀一隊魚
 洋洋自得是攸居
 窮途涸轍猶堪笑
 大勢吞舟可比如
 細雨蒼苔頻出沒
 衝波流沫又歎噓
 人知爾樂忘機久
 半壁斜陽樹影疎

龍洲(용주)

시냇가에서 한 무리 물고기를 조용히 보면
 활발하게 자득한 양 이곳에 살고 있네.
 궁한 길 마르는 수레바퀴 자국¹³¹⁾도 오히려 우습고
 배를 삼키는 큰 형세에 비할 수 있도다.
 가는 비에 푸른 이끼가 자주 출몰하고
 부딪치는 물결에 흐르는 거품은 또 입김 분 듯하네.
 사람들 그 즐거움 알아 기미 잊은 지 오래거니
 반 벽에 지는 태양에 나무 그림자도 성글다.

柰川游泳物嘉魚
 依水分明愛所居
 物是靜觀皆自得
 爾雖潛伏亦昭如

내천에 헤엄치는 살진 물고기는
 물에서 분명히 사는 곳 좋아하는구나.
 사물을 고요히 보면 모두 스스로 터득할 수 있으니
 너는 비록 잠겨 있어도 또한 밝은 것과 같도다.

131) 마르는 수레바퀴 자국[涸轍]: 『장자(莊子)』 「외물(外物)」에,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涸轍]에 고인
 얇은 물속에서 헐떡이는 붕어[鮒魚]가 약간의 물[斗升之水]만 부어 주면 살 수 있겠다고 하소연하
 는 이야기가 나온다.

碧波潑潑神機動 푸른 물결 세차니 신비한 기미가 동하고
 白水洋洋細浪噓 흰 물이 가득하여 가는 물결 불어내네.
 縱躍浮沈時有定 멋대로 뛰고 뗏다가 가라앉음이 때로 정함이 있고
 夕陽洲渚雨聲疎 석양에 물가 모래톱은 빗소리가 성그는구나.
 星史(성사)

柰川水碧物游魚 내천의 물은 푸르고 살찌서 노니는 물고기는
 跳擲洋洋得所居 뛰어놀며 활발히 사는 곳을 얻었네.
 脩尾肥腮多鰕類 긴 꼬리에 살진 얼굴은 쏘가리 종류가 많고
 織鱗巨口認鱸如 가는 비닐에 큰 입은 농어 같은 것이 그렇지.
 荻葉秋風驚影散 가을바람에 물억새잎은 놀라 그림자가 흩어지고
 桃花春浪細沙噓 봄 물결에 도화(桃花)는 가는 모래에 분다.
 隨機潛泳君知否 기미 따라 잠기고 헤엄침을 그대는 아는가?
 他日龍門計不疎 다른 날 용문(龍門)의 계획 성글지 않도다.
 南崗(남강)

晚臨川上賞游魚 늦게 내천 옆에 도달하여 노니는 물고기를 감상함에
 得意渠生丙穴居 득의한 그 삶이니 병혈어(丙穴魚)¹³²⁾가 산다오.
 涸鱗此世窮無所 말라 죽는 물고기 이 세상에 다함이 없는데
 靈沼何時樂自如 영소(靈沼)는 언제나 스스로 그러한 때를 즐길까?
 斜陽遠浦潛還躍 석양의 먼 포구에 잠겼다가 다시 뛰고
 細雨清灘吸復噓 가는 비 맑은 여울에 들이마셨다가 불어내는구나.
 藻末石間深作窟 마름 끈 돌 사이에 깊은 굴 만들어
 藏身妙計未全疎 몸을 숨기는 묘책도 완전하지 않고 성글다오.
 秋畹(추원)

洋洋鼈鼈促鱗魚 활기찬 자라와 재빠른 비늘 물고기는

132) 병혈어(丙穴魚): 잉어 비슷한 맛 좋은 가어(嘉魚)인데, 면수(沔水) 남쪽 병혈(丙穴)에서 잡힌다고 한다.
 『本草 嘉魚』

從古柰川素所居
大則松江鱸亦可
肥於桃水鰕何如
暫推物理仁心活
自得天機細浪噓
芳草池漭清如鑑
歸來養計未全疎

東溟(동명)

예로부터 내천(柰川)을 본래 거처로 했지요.
큰 놈은 소나무 강에 농어가 또한 좋고
살찐 놈은 도화 뜬 물에 쏘가리가 어떠한가?
잠시 사물의 이치를 미루어 어진 마음으로 살리고
스스로 천기를 얻어 가는 물결을 붙어 낸다.
방초(芳草) 우거진 연못에 맑음을 감상하고
돌아와 사는 계획은 온전치 않고 성글기만 하네.

觀魚可觀柰川魚
渠亦當年爰得居
肥水桃流春自足
美泉丙穴古猶如
從游濠上徒知樂
將躍龍門孰假噓
爲語無情閑釣子
魚非負汝莫相疎

小山(소산)

물고기 봄에 내천에 사는 물고기를 볼 만하니
그 또한 그해에 거처를 얻었다고요.
살찌는 물에 도화 흐르는 봄을 스스로 만족하니
아름다운 샘물에 병혈어(丙穴魚)는 예부터 그러했네.
해자 가를 따라 헤엄치는 무리는 즐거움을 알고
용문(龍門)에서 뛰는 놈은 누가 숨을 빌려줬나?
말해도 무정하고 한가롭게 낚시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너를 등진 것 아니니 서로 멀어지지 말게.

146

起看柰川有魚
也知物性亦安居
靜還動處天機否
浮更沈時水澹如
白石洞深朝日斜
碧桃樹暗晚風噓
漁翁去後城猶在
古逕苔生客到疎

錦樵(금초)

일어나 내천에 물고기 있는 것을 보면
또 물성(物性)이 또한 편히 살려함을 알리라.
정(靜)하다 다시 동(動)하는 곳은 천기(天機)인가?
뗏다 다시 가라앉는 때는 물이 담담해서 그런가?
아침 해 기울어도 흰 바위의 골짜기는 깊고
저녁에 바람이 불어도 푸른 복숭아 숲은 어두워라.
어부가 떠난 뒤에도 성(城)은 오히려 남아
옛 길에 이끼 생기고 나그네 이름도 성글구나.

臨水靜觀游戲魚
 柰川一曲抱幽居
 戢鱗潛處若相忘
 掉尾躍時樂自如
 紅桃細浪雨初歇
 芳杜虛汀風乍噓
 始知濠上莊翁趣
 活潑眞衿快若疎
 石樵(석초)

물가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
 내천의 한 굽이는 그윽한 거처를 앓았어라.
 비늘 거두어 잠기는 곳은 마치 서로 잊은 듯하고
 꼬리 흔들어 뛰는 때는 즐거움이 저절로 그와 같네.
 붉은 복숭아 가는 물결에 비가 처음 그침에
 꽃다운 두견화는 빈 물가에서 바람을 불어 낸다.
 해자 옆 별장 늙은이의 멋을 비로소 알아
 활발한 참된 마음 쾌족함이 성 과 같다오.

一曲柰川物躍魚
 洋洋活潑是攸居
 來時泉石觀惟術
 渾忘江湖樂自如
 纔登飛瀑蒼苔滑
 急退中流白浪噓
 鷺立閑窺何意思
 滿汀紅蓼雨聲疎
 近溪(근계)

한 굽이 내천은 살진 물고기 뛰니
 생생하고 활발한 것이 사는 것이다.
 자연에 올 때 관광에 방법이 있으니
 강호를 모두 잊어 즐거움이 저절로 있으리라.
 겨우 나는 폭포에 오르니 푸른 이끼 미끄러워
 급히 중류로 물러나니 흰 물결 불어내는구나.
 해오라기 서서 한가로이 엿보며 무슨 생각 할까?
 물가 가득한 붉은 여뀌는 빗소리도 성글다오.

美穴深深活潑魚
 或爲游泳或潛居
 長竿籊竹歸乎可
 滿尺銀鱗樂自如
 桃花落水紅浮去
 柳浪皺紋綠暗噓
 蔡老已留詩句在
 打楸聲斷雨疎疎
 峴愚(현우)

아름다운 동굴에 깊은 곳에 활발히 사는 물고기
 간혹 헤엄치며 혹은 잠기기도 하네.
 장대에 대나무 통발로 돌아와도 좋으니
 한 자 가득한 은비늘의 즐거움 절로 같다오.
 복숭아꽃 물에 떨어져 붉게 떠서 가니
 버들 물결 주름져 푸른 어두움을 불어내네.
 채희암(蔡希菴)은 이미 머물러 남긴 시구가 있고
 호두 따는 소리 그쳐 빗소리만 성글어라.

閑從川上數游魚
 古柰陰邊得所居
 雖是深淵潛自在
 應思大壑沛乎如
 活機誰識微猶顯
 調息眞能靜極噓
 盡日貪看多爾羨
 浮生身計笑全疎
 笑堂(소당)

한가로이 시냇가로부터 노니는 몇 마리 물고기는
 예로부터 내천 음지에서 사는 곳 얻었어라.
 비록 깊은 연못에 잠겨 스스로 있으나
 응당 큰 골이라 성대함이 이 같음을 생각하였지.
 활발한 기미 미미하나 오히려 드러남을 누가 알랴?
 조식(調息)이 참으로 정하여도 지극히 허하다네.
 종일 부러운 곳을 탐하여 보아도
 헛된 생애의 몸 계책은 모두 성 이 가소롭구나.

柰川活潑子知魚
 鱗作波文是水居
 物理靜觀心自得
 江湖相忘樂何如
 釣臺月上于淵躍
 歌扇風生細浪噓
 閑伴白鷗清興問
 落花紅漲雨聲疎
 雪隱(설은)

그대는 내천에 활발한 물고기를 아는가?
 비늘이 물결 일으키니 이것이 사는 것이라네.
 물리를 가만히 보면 마음으로 터득할 수 있으니
 강호를 서로 잊어도 즐거움이 얼마나 같을까?
 낚시터에 달이 뜨자 연못에 물고기 뛰고
 노래 부채에 바람 일자 가는 물결 보내네.
 한가로이 백구(白鷗)와 짝한 맑은 흥을 물으니
 꽃잎 떨어져 붉은빛 번져 빗소리 성글구나.

148

桃花流水往觀魚
 一曲柰川抱峽居
 林沼沉沉於物躍
 春江滔滔渾忘如
 物性察來皆自得
 至人靜極細同噓
 人中又見黃河鯉
 欲上龍門計已疎
 素山(소산)

도화가 물에 흐르는 곳에 가서 물고기 보면
 한 굽이 내천은 협곡에 사는 곳을 앓았어라.
 숲의 소(沼)에 잠기고 잠겨 살찌고 뛰어오르며
 봄 강은 도도히 모두 잊은 듯하구나.
 물성을 살펴보면 모두自得(自得)하여
 지극한 사람 고요함도 지극해 가늘게 함께 불어내네.
 사람 속에서 또 황하(黃河)의 잉어를 본다면
 용문(龍門)으로 올라가려 해도 계책 이미 성글다오.

川深無奈數游魚
自樂天機反水居
溪柳千絲難釣得
海棠十里可觀如
翻身瞥瞥浮花掠
聚口喁喁細浪噓
彼鷺底心窺不去
滿汀風雨夢中疎

白又(백우)

시내가 깊어 사과나무는 없고 몇 마리 물고기 있어
스스로 하늘의 기미를 즐기며 물에서 산다오.
시내의 버들 가 천 개 실로 낚시하기 어렵고
해당화(海棠花) 십 리는 볼 만 한 듯하네.
소리는 우레소리를 배워 맑은 날에도 비를 뿌리고
입 모아 화답하며 가는 물결 붙어내고
저 해오라기 마음은 엿보며 떠나지 않으니
물가 가득한 풍우(風雨)에 꿈이 성글구나.

清流一帶好觀魚
歷歷人家川上居
搖尾揚揚將海學
翻身閃閃躍金如
斜陽灘上飛蛾撲
蜜藻陰邊細雨噓
此游若在龍門下
點額昇天固未疎

龔岩(농암)

한 줄기 맑게 흐르는 곳 물고기 보기 좋으니
역력히 사람 사는 집이 시냇가에 있네.
꼬리 흔들며 의기양양이 바다를 배우려 하고
몸 돌려 번쩍 뛰어오르니 금빛과 같네.
석양의 여울 가에 나는 나방 잡아먹고
뻑뻑한 마름 그늘 가에서 가는 물결 붙어낸다.
이 해엄침이 용문(龍門) 아래에 있는 듯하니
이마 점지해 승천함은 진실로 드물도다.

篔簹山溪玳鮎魚
避人網擲或潛居
紅鱗莫逐桃花去
碧澗只容柳葉如
濠上子來無爾我
龍門客到借吹噓
老漁自是觀於海
剩笑前川蘋藻疎

樵史(초사)

산 계곡에 채질하면 메기 있으니
사람들 어망 피해 깊은 곳에 사네.
붉은 비늘로 도화 꽃 흘러감을 쫓지 말고
푸른 시내에 버들잎을 용납한 듯하여라.
해자 가에 그대 오면 너와 내가 없나니
용문(龍門)에 나그네 이르면 붙어냄을 도우리라.
늙은 어부 이로부터 바다를 보면
앞 내에 마름 성글게 뜸을 한껏 비웃겠지.

柰川春水往觀魚
淨域初開隱逸居
沾化須知周沼物
忘機正似魯棠如
磯頭落日蒼蒼照
波面微風淡淡噓
穉子敲針翁結網
山家滋味未蕭疎

石下(석하)

내천의 봄물에 가서 물고기 구경하면
맑은 지역 처음 열려 숨어 사는 곳이라고.
변화를 더한 주(周)나라 소(沼)의 살찔임을 알아도
기미 잊음이 노(魯)나라 해당화(海棠花)와 흡사하네.
낚시터 머리는 석양에도 푸르게 비치고
물결 위에 잔바람이 담담이 부는구나.
어린아이는 바늘 두드리고 늙은이는 어망 만드는데
산 집에 자미(滋味)는 흩어져 성글지 않는다오.

杖藜立看柰川魚
生長幾年峽水居
紅桃源裡棲身在
白石江邊得意如
返照莓苔多躍躑
微風楊柳任吹噓
靈沼當年有直釣
古來仁智不相疎

松隱(송은)

지팡이 짚고 서서 내천(柰川)의 물고기 바라보면
몇 년을 성장하며 계곡물에 사는가?
붉은 복숭아 수원 속에 사는 몸이 있으니
흰 바위 있는 강기는 득의(得意)한 듯하네.
반대로 비치는 빛 물풀 속에서 물고기 뛰고
미풍에 버들은 멋대로 흔들거린다.
영소(靈沼)에 당년에 직접 낚시 함이 있으니
예로부터 인(仁)과 지(智)는 서로 성글지 않다오.

150

八景柰川川有魚
四時游泳得攸居
菰蒲雨細渾相忘
蘆荻風高亦自知
始信天機同發育
更推人事一唏噓
龍門迢遞鵬程晚
靜裡幽潛計不疎

迂軒(우현)

여덟 번째 경치인 내천(柰川)엔 물고기가 있으니
사시에 헤엄치며 사는 곳을 얻었다오.
향초와 부들은 가는 비에 서로를 잊었고
갈대와 물억새는 바람 높아도 스스로를 안다오.
천기(天機)가 함께 발육함을 비로소 만나니
사람의 일 한 번 슬퍼함을 다시 헤아리네.
용문(龍門)이 아득히 바뀌고 봉정(鵬程)도 늦어
고요함 속에 그윽이 잠겨 헤아림이 성글지 않다오.

魚之樂矣我知魚
於躍柰川得所居
惟人荒忙隨時變
此物分明遜世如
聽臨流水誰能釣
聊看細沙爾自噓
渤渤地頭觀大志
將歸湖海計無疎

南溪(남계)

물고기의 즐거움은 내가 물고기를 아니
내천에서 뛰며 사는 곳을 얻었다고.
오직 사람이 황망히 때에 따라 변하고
이 사물은 분명히 세상에 감춘 듯하리라.
흐르는 물 옆에서 들으며 누가 낚시할 수 있나?
가는 모래를 애오라지 보며 너 스스로 불어내는구나.
안개 자욱한 땅 머리에서 큰 뜻을 보게나
장차 호수와 바다로 돌아갈 계획 성글지 않나니.

柰川活潑任游魚
丙穴深深常自居
新荷風動悠然逝
秋水糧儲縱所如
霽雨微烟蒼浪起
晚汀寒露白蘋噓
暫歡涸轍猶爲可
不受餌香網亦疎

退齋(퇴재)

내천(柰川)에서 활발히 멋대로 노니는 물고기
병혈어(丙穴魚)는 깊히도 잠겨 항상 산다오.
새 연잎이 바람에 움직이며 유연히 가나니
가을 물은 식량 저장인양 늘어진 듯하네.
개인 비와 가는 안개에 푸른 물결 일고
저녁 물가에 찬 이슬은 마름에 부는구나.
학철(涸轍)도 오히려 가능함에 잠시 기뻐하다가
먹이도 받지 못했는데 그물도 성글구나.

丙穴深深衆出魚
愛看溪老卜閑居
織鱗悠逝歸咸若
同隊不殊躍自如
岩花斜日餘暉射
柳絮飄風細浪噓
安知其樂樂相忘
淡淡綠波烟月疎

訥庵(눌암)

병혈어는 깊이 잠기고 못 고기는 나오니
계곡 늙은이 보기 좋아해 사는 곳 한가롭네.
짜인 비늘로 유유히 가며 돌아감이 모두 같으니
같은 무리로 죽지 않고 뱀이 저절로 이와 같다.
바위에 꽃이 기우는 날 남은 빛을 비추고
버들개지 바람에 날리며 가는 물결 불어내네.
그 즐거움 즐겨도 서로 잊음을 어찌 알랴?
담담하고 푸른 파도 안개 낀 달에 성글도다.

碧波活動柰川魚
潛躍最宜每聚居
鄭池放出悠然逝
周沼觀來物躍如
清江興味心中濶
陸地風塵夢外噓
盆池畜得誰能識
物理河南亦不疎

石澗(석간)

푸른 물결에 활동하는 내천의 물고기는
가장 알맞을 때 뛰고 항상 무리 지어 사네.
정(鄭)나라 못에서 나와 유유히 가고
주(周)나라 소(沼)에 보러 오니 뛰는 물고기와 같다.
맑은 강에 흥미가 마음 속에 넓어
육지의 풍진을 꿈 밖으로 불어낸다오.
동이 같은 못이라서 기를 수 있음을 누가 알랴?
사물의 이치 물의 남쪽에 성글지 않다.

一川清澈見游魚
趁隙悠然安所居
蒲葉長邊依影出
桃花流處逐香如
閃鱗跳浪雙腮曝
搖尾陶沙衆口噓
九島踏環其樂極
能令鷗鷺意全疎

菊下(국하)

한 시냇물 맑게 부딪쳐 노니는 물고기를 보면
무리 지어 유연히 사는 곳 편안히 여긴다.
부들잎 긴 강변에 그림자 의지해 나오고
도화 흐르는 곳 향 따라감과 같다오.
빛나는 비늘로 물결 위로 뛰며 두 뺨을 드러내고
꼬리 흔들며 모래에 여러 입으로 불어 낸다.
아홉 섬을 밟고 도는 그 즐거움 지극하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뜻이 온전히 성글다.

銀鱗玉削柰川魚
渾忘江湖樂自居
龍躍鵬搏知不遠
鰕肥鱸細愧相如
磯頭汕汕青苔食
水面喁喁白浪噓
近世難逢賢聖作
一游靈沼計全疎

滄農(창농)

은빛 번쩍이고 옥빛 빛나는 내천의 물고기는
강호를 잊고 스스로 사는 것을 즐긴다오.
용이 뛰고 봉새가 모이니 멀지 않음을 알고
쏘가리 살찌고 농어 가늘어 서로 부끄러워하네.
물가는 물고기 헤엄치며 푸른 이끼를 먹고
수면은 화답하며 흰 물결 불어낸다.
근세에 성현이 만들어짐을 만나지 못했으니
영소(靈沼)에 한 번 노니는 계획 성글기만 하네.

川上有人川下魚 시냇가에 사람 있고 시냇물 안에 물고기 있어
 人魚較樂樂何居 사람과 물고기의 즐거움 비교하면 어디에 살까?
 翕然來會爭紛若 흡사 와서 모이니 다투어 어지러운 것 같고
 凝爾深聽喜躍如 응축하여 깊이 들으면 기뻐 떨 듯하네.
 潛行亂葉風微動 몰래 가니 어지러운 잎은 바람에 미동(微動)하고
 走呷浮花浪細噓 함께 달린 뜬 꽃잎은 물결에 가늘게 붙어내고
 悟透天機看活潑 천기를 깨달아 활발함을 보나니
 江湖得計未全疎 강호에 계획 얻음이 모두 성글지 않다오.
 晚翠(만취)

李柰前川 이 씨 거쳐 앞 내천(柰川)에
 花初飛 꽃잎 처음 날림에
 躍游魚 노니는 물고기도 뛰다네.
 童子具吾笠備吾簑 사내아이가 나의 삿갓과 도롱이를 갖추니,
 肯向斯中 기꺼이 이 속으로 향하지만
 惜諸居西湖處士已老 서호(西湖)에 사는 처사가 이미 늙음을 아쉬워하네.
 桐江前村漁事古 마을 앞 동강(桐江)에서 물고기 잡던 일 옛날인데,
 何如今 어찌 지금과 같으며
 何瞥瞥鱗處 어찌 물고기 있는 곳을 언 듯 보아도
 水成紋 물이 문양을 이루는가?
 垂楊陰裡 수양버들 그늘 속
 暮沙噓 저녁 모래톱에 바람불면
 弋絲釣餌多事地 일 많은 곳에서 주살에 실 매고 낚시에 미끼 끼어
 無使我欺負情契疎 마음 없는 양 속이고 계(契)를 소홀히 알 수 없다네.
 東溟(동명)

柰川波活躍銀魚 내천 물결에 활발히 뛰는 은빛 물고기는
 隱士漁樵好卜居 은사와 어부와 나무꾼이 살기 좋은 곳이라.

渭水釣璜人果遇
赤江舉網狀何如
垂竿坐處苔磯屹
歌扇搖時細浪噓
莘尾洋洋知自樂
白蘋洲畔夕陽疎

竹翁(죽옹)

위수에 낚시질하는 옥 같은 사람 과연 만날까?
적강(赤江)에서 어망 든 모양은 어떠한가?
낚시 드리우고 앉은 곳에 이끼 낀 바위가 높고
노래 부채 흔들 때 가는 물결 불어오네.
긴 꼬리로 의기양양이 스스로 즐거움 알아
흰 마름 모래톱 가에 석양이 성글구나.

物外柰川活潑魚
洋洋得所衆維居
祗愁驅獺爲淵可
欲學成龍縱壑如
菰葉長汀秋月隱
桃花細浪晚風噓
知渠相忘江湖樂
自是漁人結網疎

寄隱(기은)

세상 밖 내천에 활발한 물고기는
활기차게 무리지어 사는 곳을 얻었네.
다만 수달 모는 근심 있고 연못 좋으니
용 되기를 배우고자 하면 절로 골짜기와 같아야지.
향초 잎 긴 물가에 가을 달 은은하고
도화 지는 가는 물결에 늦은 바람 분다.
어찌 서로를 잊고 강호의 즐거움을 이는가?
이로부터 어부가 어망 맺음이 성글다오.

154

雨後柰川同隊魚
洋洋得所水中居
灘鳴龍沼三江視
石聚雲門九島如
樂解春流相忘在
暖逢風沫自响噓
溪翁夢說豐年兆
從此山家計不疎

素軒(소헌)

비 온 뒤에 내천에 떼를 이룬 물고기는
활기차게 물 속에 사는 곳을 얻었네.
용소에 여울 우는 세 강이 보이고
용문에 바위 모임이 아홉 섬과 같아라.
즐거움 다하여 봄 흘러 서로 잊으니
따스함 만난 바람에 물방울 절로 부는구나.
계곡 늙은이 꿈에 풍년의 징조 이야기하니
이로부터 산가의 계획 성글지 않다오.

春江氷泮戲游魚

봄 강 얼음 반쯤 녹아 노니는 물고기는

一隊悠然得所居 한 무리를 이루어 사는 곳을 얻었도다.
 躍于周沼歎於物 주(周)나라 소(沼)에서 뛰는 물고기에 타식하니
 逝者鄭池樂自如 가는 것은 정(鄭)나라 못의 즐거움이 절로 그러하네.
 桃花流水能潛泳 도화 흐르는 물에 잠겨 헤엄치니
 楊柳小溪任呶嘯 버들 작은 시내는 제멋대로 불어내는구나.
 童子莫從漁子說 동자는 어부의 말을 따르지 않고
 古人已用網羅疎 고인이 이미 성근 그물 다 썼거니.
 文式(문식)

柰川一曲泳游魚 내천 한 굽이 노니는 물고기는
 作隊洋洋丙穴居 병형어는 떼를 이루어 활발하기도 하네.
 潛身於物同其樂 몸을 물에 담그고 즐거움 함께하니
 打尾悠然任所如 꼬리를 치며 유연히 제멋대로 가는구나.
 紅泛桃花春水濶 봄 물이 넓어도 도화는 붉게 떠 있고
 綠翻荷葉晚風噓 늦은 바람 불어도 연잎은 푸르게 뒤집힌다.
 自得昇平活潑像 자득하여 편안하고 활발한 형상은
 江湖鱗族無親疎 강호의 물고기들에게는 친하고 성 이 없다오.
 齊根(제근)

柰川浩浩觀游魚 내천 넓고 넓은 곳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보니
 樂意悠然得所居 뜻을 즐겨 유연히 사는 곳을 얻었구나.
 浪頭出沒時於物 물결 머리에서 출몰하며 때로 살찌니
 水面往來却自如 수면으로 왕래함이 문득 이와 같도다.
 飛鳶戾止天機發 나는 수리가 하늘에 있음은 천기가 발한 것이요
 綵鷁泛來地氣噓 채익(綵鷁)¹³³이 떠서 지기(地氣)를 불어온다네.
 桃鱖松鱸咸若地 도화와 쏘가리와 소나무와 농어는 모두 땅과 같으니
 溪山滴翠雨聲疎 시냇가 산의 빗방울은 푸르고 소리도 성글다오.

133) 채익(綵鷁): 화려하게 꾸민 배를 말한다. 익(鷁)은 물새 이름인데, 옛날 뱃머리에 이 새 모양을 새겨 놓았다.

敬堂(경당)

立馬名區靜看魚	명승지에 말 세우고 가만히 물고기를 보니
溶溶川穴好爲居	시냇물에서 솟아나는 물에 살기 좋아라.
潛是知春多意思	잠겨 있어도 봄을 알아 생각이 많으니
悠然逝浪數何如	유연히 가는 물결에 수가 얼마인가?
桃花流處應肥去	도화 흐르는 곳에 응당 살이 찌고
柳絮開時共樂噓	버들개지 열리는 때 함께 즐거움을 부네.
漁人莫唱清江曲	어부여 청강곡(淸江曲)을 부르지 말게
或恐銀鱗志趣疎	간혹 은빛 비늘 두려워 흥취가 성글어진다네.

漢奎(한규)

一般得意觀游魚	일반적으로 득의(得意)하여 물고기 보며
柰樹川邊久卜居	사과나무 시냇가에 오래도록 살았네.
活潑天機爲喫緊	활발한 천기를 맛봄이 긴밀하니
潛逃人事嘆無如	숨어 사람 일 탄식이 없는 듯하네.
江湖相忘銀鱗泳	은빛 비늘 헤엄치는 속에 강호를 서로 잊고
泡沫唯知巨口噓	큰 입으로 부는 물방울을 누가 알라?
濠上仙翁能識樂	해자 가에 신선은 즐거움을 알아
物吾無間豈親疎	물아(物我)가 사이 없으니 어찌 친소(親疏)가 있으랴?

復來(복래)

柰川一面有嘉魚	내천 한쪽에 맛 좋은 물고기 있으니
活潑天機任意居	활발하여 천기를 알고 멋대로 살아간다.
掉尾悠然其樂只	꼬리 흔들며 유연한 그 즐거움은
細鱗游泳又揚如	가는 비늘에 헤엄치며 또 드날리는 듯하네.
圖溟化鯤垂天翼	큰 바다에 가려 곤어(鯤魚)가 변하여 날개 드리우고
點額成龍吐氣噓	이마 점지해 용이 되어 기운을 불어내네.
千里江湖相忘意	천리 강호에 서로 뜻을 잊으니

溪風颯颯雨聲疎 시내의 바람은 산들산들 빗소리도 성글구나.
 駿乘(준병)

或潛或出柰川魚 잠기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내천의 물고기는
 白石蒼苔是所居 흰 바위 푸른 이끼가 사는 곳이라오.
 躍在深淵眞活潑 깊은 연못에서 뛰어오름이 진실로 활발하여
 縱歸大壑沛乎如 멋대로 큰 계곡으로 돌아감이 크기도 하구나.
 浪頭雨細青山暗 물결 머리는 가는 비에 푸른 산이 어둡고
 水面風來大塊噓 수면에 바람 불어 큰 땅에 불어온다.
 玉尺銀鱗同一隊 옥 같은 은빛 비늘 한 무리가 함께 하니
 蘆花深處樹陰疎 갈대 꽃 깊은 곳에 숲 그림자 성글다오.
 昇栢(승우)

一曲柰川靜觀魚 한 굽이 내천에서 가만히 물고기 구경하면
 東西相對野人居 동서로 촌사람 거처하는 곳을 마주하네.
 天機自得于淵躍 천기(天機)를 자득하여 연못에서 뛰고
 因跡曾無涸轍如 자취 일찍이 없음이 학철(涸轍)과 같다오.
 化作鵬圖風浪起 변화로 봉새 그림 그리니 바람에 물결 일고
 間多龍種水雲噓 사이에 용 종류 많아 물과 구름을 불어내네.
 人非爾也能知樂 남이 내가 아닌데 즐거움을 알 수 있으니
 紅蓼清江興不疎 붉은 여뀌 맑은 강의 흥취 성글지 않다오.
 基復(기복)

柰川流水觀游魚 내천에 흐르는 물에서 노니는 물고기 보면
 丙穴深深自得居 병혈어(丙穴魚)는 깊은 곳에서 사는 곳 얻었구나.
 靈沼何年於物躍 영소(靈沼)는 어느 해에 살진 물고기 뛰었으며
 北溟他日化爲如 북명(北溟)은 다른 날 변화하여 그같이 되었나?
 竹竿籊籊漁翁遠 대나무 장대를 어부는 멀리 보내고
 歌扇搖搖細浪噓 노래 부채 흔들며 가는 물결 불어내네.

天理無間知有樂
錦鱗游泳雨聲疎

基成(기성)

하늘의 이치 끊김이 없이 즐거움 있음을 아나니
비단 비늘로 헤엄치는데 빗소리 성글구나.

靜觀八景在游魚
得所春風丙穴居
水靜雖潛昭亦孔
淵深任躍樂何如
洋洋渡口銀鱗鱗
汕汕灘頭細浪噓
惟有一村川上住
夜來漁火點星疎

昌楫(창우)

여덟 번째 경치가 노는 물고기에 있음을 가만히 보니
봄바람에 병혈어(丙穴魚) 시는 것을 알았도.
물 고요하니 비록 잠겨도 밝은 구멍 같고
연못 깊어 마음대로 뛰니 즐거움이 어떤가?
넓고 넓은 나루 입구에 은빛 비늘 보이니
물고기 헤엄치는 여울머리에 가는 물결 붙어 낸다.
오직 한 마을이 시냇물 옆에 있어서
밤이 오면 물고기 잡는 횃불 점점이 성글구나.

158

前有柰川川有魚
自知魚樂勝江居
靜觀物性浮沈者
剩得天機活潑如
白石梁寒肥可羨
紅桃波暖逐相噓
將游海壑口鱗巨
誰謂汚池眼目疎

黃崑(황곤)

앞에는 내천이요 시내에는 물고기 있으니
물고기 즐거움이 강에 사는 것보다 좋음을 안다오.
물성(物性)을 가만히 보면 부침(浮沈)한 것은
천기(天機)를 얻음이 활발한 듯하다.
흰 바위에 대들보 차도 살쪼미 부러우니
붉은 복숭아 물결 따스해 으며 서로 붙어내네.
장차 바다 골짜기 입구에 노닐면 물고기도 크니
누가 오지라 볼 것 없다고 하였는가?

柰木川中物躍魚
悠然自得淺深居
盆池亦有天機在
濠上誰知樂意如
細雨濛濛青浪濶

내목(柰木)의 시내 안에 살진 물고기 뛰니
유연히 자득하며 깊고 얇은 곳에 사네.
동이 같은 연못이라 또한 천기(天機)가 있으니
해자 가는 즐거운 뜻이 이 같은 줄 누가 알았으랴?
가는 비는 촉촉이 푸른 물결 넓히고

微風颯颯白蘋噓 미풍은 펄럭펄럭 흰 마름에 부네.
漁翁蓑笠猶無事 어부는 도롱이에 삿갓 써도 오히려 일 없어
明月秋江影子疎 밝은 달을 가을 강에 옮겨 놓으니 흥이 깊구나.
炳濟(병제)



10. 山庵暮鍾
산 암자에 저녁 종소리



160

梵鍾續出日西山	범종(梵鍾)의 소리 이어져 해는 서산으로 지는데
聲在未撞動靜間	소리는 부딪치지 않은 동정(動靜) 사이에 있네.
菩薩觀音能頓悟	보살(菩薩)은 소리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閻梨不語自鳴閑	스님(閻梨)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울려 한가롭네.
法雲穿破頭陀岸	불법의 구름이 두타(頭陀)의 언덕을 꿰뚫고
花雨帶來覺海灣	꽃비가 부처 세계(覺海)의 만(灣)으로 몰려온다.
遙想姑蘇城外客	아득히 고소성(姑蘇城) ¹³⁴⁾ 밖의 나그네를 생각함에
霜天半夜刺般還	서리 내린 한밤에 고통스럽게 돌아오리라.
龍洲(용주)	

精舍鳴鍾動碧山	산사에 울리는 종이 푸른 산에 진동하니
洞門深處夕陽殘	골짜기 문 깊은 곳은 석양이 다하는구나.
道僧發省歸三昧	도승(道僧)은 성찰하며 삼매(三昧)로 돌아가고

134) 고소성(姑蘇城): 옛날 오나라 땅인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에 있는 성 이름. 당나라 때의 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 시에, “달 지고 까마귀 울고 서리는 하늘 가득한데[月落烏啼霜滿天], 강가의 단풍 고기잡이 불 곁에 시름겹게 조노라니[江楓漁火對愁眠], 멀리 고소성 밖의 한산사에서[姑蘇城外寒山寺], 한밤중 종소리가 나그네 배에 들려오누나[夜半鐘聲到客船].” 라고 하였다.

泥塑無心坐一團 진흙 불상[泥塑]은 무심히 한 모양으로 앉았네.
 十里鯨音來覺海 십 리에 고래는 소리 내며 부처 세계[覺海]로 오고
 四時仙樂下重巒 사계절 신선은 즐거워하며 첩첩한 산을 내려온다.
 居人飽說圓通理 사는 사람 배부른 즐거움 모두 통달한 속에
 鏗鏘聲中宇宙寬 종과 쇠북 소리 속에 우주를 깨달으리라.

龍洲(용주)¹³⁵⁾

日暮庵鍾起碧山 해 저무는 암자에 종소리 푸른 산에 일면
 應知法侶脫塵間 스님들 속세를 해탈함을 응당 알리라.
 漁村寥寂聲聲近 어촌은 고요하여 소리마다 가깝고
 佛國昇平事事閑 부처 세계는 평온하여 일마다 한가롭다.
 俄爾鯨鳴蒼海窟 등글고 등근 밝은 달이 향료봉에 떠오르니
 宛然龍吼白雲灣 흰 구름 굽이에서 완연히 용이 우는구나.
 諸天不遠孤城外 고소성 밖으로 절이 멀지 않으니
 半夜何江客棹還 한밤에 어찌 강 나그네 노 저어 돌아가리?

星史(성사)

寒山欲暮暮鍾寒 쓸쓸한 산이 저물려 함에 저녁 종소리 쓸쓸하니
 警覺人間昏夢殘 사람들 저녁에 꿈꾸다 놀라 깨네.
 飯後急椎雷共搏 식사 후에 급히 치는 우레가 함께 치는 것이요
 天邊細響月初團 하늘가에 가늘게 울릴 때 달이 처음 등글다오.
 吼鯨隱隱翻蒼海 우는 고래 소리 은은히 푸른 바다에 울리고
 啄雉鏘鏘下碧巒 꿩의 쪼는 소리 분명히 푸른 산을 내려오네.
 如坐姑蘇城外夜 고소성 밖에 앉은 밤과 같으니
 破他寥寂爽懷寬 저 고요함 깨뜨리는 상쾌한 회포가 너그럽다.

南崗(남강)

孤庵一片暮鍾寒 외로운 암자에 한 조각 저녁 종소리 쓸쓸도 하니

135) 저자 표시는 없으나 용주(龍洲)의 시로 보인다.

法界空空日已殘 부처님 세계는 비우고 비워 날이 이미 저물려 하네.
 忙步歸僧飛錫杖 바쁜 걸음으로 돌아가는 스님 지팡이 날아가고
 飽聲老佛坐蒲團 배부른 소리의 늙은 중은 부들방석에 앉았구나.
 鹿門寂寂烟籠樹 녹문(鹿門)¹³⁶은 고요한데 안개가 숲을 들렀고
 鳳頂遙遙月掛巒 봉정(鳳頂)은 아득하여 달이 산에 걸렸네.
 何處客船城外夜 나그네 배는 어느 곳 성(城) 밖의 밤에
 滿江秋色入懷寬 강 가득한 가을빛이 가슴에 들어와 너그러운가?
 秋暉(추원)

從古庵深滿月山 예로부터 암자 깊어 보름달이 산에 뜨면
 飄然鍾落寂寥間 고요한 가운데 표연히 종소리 울렸었네.
 無心雲定諸天暮 무심히 구름 정하여지고 사찰도 저물어
 不語僧來一衲閑 말하지 않아도 스님이 와 옷자락만 한가롭다.
 始覺爭高帖急處 다듬이 소리 급한 곳에 다툼 소리 높은 줄 알고
 漸聞從歇水流灣 물흐름은 굽이의 그침을 따라 점차 들을 수 있네.
 姑蘇城外寒聲否 고소성(姑蘇城) 밖의 쓸쓸한 소리인가?
 住竹客般近夜還 멈춘 객선(客船)은 밤 근처에 돌아오는구나.
 東溟(동명)

空山日暮轉生寒 빈 산에 해지자 더욱 쓸쓸한데
 寺閣岧嶢秋葉殘 절 누각은 산에 높고 가을 단풍 사라져 가네.
 三籟几深南郭隱 삼뢰(三籟)¹³⁷ 안석 깊이 남곽(南郭)에 은거하니
 一聲鍾落白雲團 한 소리의 종어 그치자 흰 구름이 둥글구나.
 人間昏定千忙境 사람의 잠자리 정함은 천 번 바쁜 경계요

136) 녹문(鹿門): 은자가 사는 곳을 뜻하는 말이다. 후한(後漢) 말엽의 고사(高士) 방덕공(龐德公)이 녹문산(鹿門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일생을 마쳤던 데서 유래한다.

137) 삼뢰(三籟) :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보이는 인뢰(人籟)·지뢰(地籟)·천뢰(天籟)를 가리킨다. 남곽자기(南郭子綦)가 안성자유(顔成子游)에게 “너는 인뢰는 들었어도 지뢰는 듣지 못했고 지뢰는 들었어도 천뢰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女聞人籟而未聞地籟 女聞地籟而未聞天籟夫] ” 하였다. 인뢰는 사람이 울리는 소리로 악기의 소리이고, 지뢰는 대지가 일으키는 소리로 바람 소리이고, 천뢰는 인뢰와 지뢰의 근본이 되는 대자연의 소리이다. 여기서는 모든 소리를 뜻한다.

江上青愁幾疊巒 강가에 푸른 근심은 몇 겹의 산인가?
 留鎮山門迴警世 산문(山門)에 머물다가 경계하는 세상으로 돌아오니
 儒夫應立薄夫寬 나약한 사람은 응당 서고 박한 사람은 너그럽구나.
 小山(소산)

白雲鍾落夕陽山 석양의 산 흰 구름 사이로 종소리 울리자
 靜聽餘音細欲殘 고요히 남은 소리 드자니 사라지려 하네.
 銀瀑水聲如答應 은빛 폭포 물소리 물음에 답하는 것 같고
 爐峰月色又生團 향로봉에 달빛은 또 생겨 둥글다.
 山庵如是在烟樹 산 암자 이처럼 안개 낀 나무 있고
 風韻到今浮海巒 바람 소리 지금 이르러 바다 산에 떠 있네.
 三十三天場屋定 삼십삼의 하늘에 집이 정하여지니
 令人心省自清寬 사람 마음을 살피게 하여 저절로 맑고 너그럽구나.
 錦樵(금초)

一打庵鍾動四山 암자의 종을 한 번 울리면 사바의 산에 울리니
 山雲蒼落夕暉殘 석양이 지려 함에 산 구름 어둑해진다.
 十方破寂無邊界 十方세계에 적막함 깨뜨리는 끝 없는 세계요
 萬籟歸空合處團 모든 소리는 공(空)으로 돌아가 합한 곳 둥글다.
 鳥啼人定暗生樹 까마귀 울고 사람 잠들자 어둠은 숲에서 생기고
 霧罷烟收翠聳巒 안개 파하고 구름 걷히자 푸른빛이 산에서 솟아나네.
 百怪驚聞千却息 백 가지 괴이함을 놀라 듣고 천 가지가 문득 그치니
 道場清淨洞天寬 도장(道場)은 청정하고 골짜기 하늘은 너그럽구나.
 石樵(석초)

鐘鳴日暮遠蒼山 멀리 푸른 산에 해지며 종소리 울리자
 響在雲間聽欲殘 구름 사이에서 울리는 소리 사라지려 하네.
 穿來石逕楓林晚 돌길을 뚫고 오니 단풍 숲이 가득하고
 迥徹天街桂影團 하늘길을 멀리 통하니 계수나무 그림자가 둥글구나.

村容淡淡收紅旭
法界深深聳碧巒
徘徊猶在西峰月
遙憶佛前禮數寬

近溪(근계)

마을 모습은 담담하고 붉은 아침 해 거두어지니
법계(法界)는 깊고 깊이 푸른 산에 솟았도다.
배회하니 오히려 서쪽 봉우리에 달이 있어서
부처님 앞에 예배보는 너그러움 아득히 생각한다오.

樵歌已歇寂青山
古寺鍾鳴日色殘
帶雨聲來天漠漠
穿雲響落月團團
始疑鯨怒聞蒼浪
更恐龍吟吼疊巒
憑問姑蘇城外夜
江楓何處客愁寬

峴愚(현우)

나무꾼 노래 이미 그치고 청산은 적막한데
옛 절의 종소리 울리고 해도 저물어가네.
비 내리는 소리 들려오고 하늘은 아득한데
구름 뚫은 울림 사라져도 달은 등글기만 하다.
푸른 물결 소리 듣고 고래가 성냈나 의심하고
첩첩한 산에 울음소리 듣고 용인가 두려워하네.
고소성(姑蘇城) 밖의 밤을 묻고자 하니
강가 단풍 어느 곳이 나그네 근심 너그러운가?

164

一聲鍾落寺邊山
遠樹蒼蒼日影殘
倘是客筇來飯後
也應緇服坐蒲團
初聞清轉經深壑
更作噌吰動碧巒
穿破曇雲蘿月外
鯨音收歇洞天寬

笑堂(소당)

절 옆의 산에서 한 소리의 종이 울리자
먼 숲은 어둑어둑 해그림자 사라지네.
갑자기 나그네가 지팡이 짚고 와서 식사 후에
또 검은 옷으로 부들방석 깔고 앉는구나.
처음 들은 맑은소리가 깊은 골짜기 지나더니
다시 시끄러운 소리 되어 푸른 산을 울리네.
담쟁이 넝쿨에 뜬 달 밖으로 구름 뚫고 나오고
고래 소리 그치자 골짜기 하늘이 너그러워지네.

寺鐘一落暮山寒
城外江楓漁火殘
船客聞聲迴桂棹

절의 종소리 한 번 울리면 저녁 산이 쓸쓸하고
성 밖 강가는 단풍 들고 고기 잡는 불 희미하다.
배 나그네는 소리 듣고 계수나무 노를 되돌리고

道僧不語坐蒲團 도승(道僧)은 말하지 않고 부들방석에 앉았구나.
 西天金氣鳴空界 서쪽 하늘에 금빛 기운 공(空)의 세계를 울리고
 覺海鯨音動碧巒 깨달음의 바다에서 고래 울음이 푸른 산에 진동하네.
 佛樂亦能如許大 부처의 즐거움은 또한 저처럼 큰 것을 용납하나니
 書樓閑聽我懷寬 서루에서 한가로이 듣는 나의 회포가 너그럽다오.
 雪隱(설은)

飯後鍾鳴滿月山 식사 후에 종소리 울리고 산에 보름달이 떴는데
 梵王宮殿夕陽殘 석가모니 궁전은 석양에 저물어가네.
 唄音間奏三乘透 범패 소리 간간이 울려 삼승(三乘)¹³⁸이 통하고
 金氣中空萬法團 금(金) 기운 속에 공(空)은 만법(萬法)이 같다오.
 勢吼鯨鯢翻海窟 고래가 우는 모양과 소리에 바다 굴이 뒤집히자
 聲驚鬼魅遁林巒 귀신 도깨비 소리에 놀라 숲과 산에 숨는구나.
 詩僧應有敲推手 시승(詩僧) 응당 퇴고(推敲)하는 손길이 있고
 雲水行蹤自古寬 구름과 물의 자취에 저절로 너그러워지네.
 素山(소산)

鍾播暮庵山愈寒 종소리 저녁 암자에 퍼지자 산은 더욱 쓸쓸해져
 近聽雄大遠聽殘 가까이서 들으면 웅대하고 멀리서는 사라지네.
 一聲忽落雲如破 한 소리 갑자기 그치자 우름이 깨지는 듯하고
 萬籟皆空月正團 온갖 소리 모두 공허해도 달은 그저 둥글구나.
 有客始聞今夜樂 나그네가 오늘 밤의 음악은 처음 들으니
 何僧自打此間巒 어느 중이 이 산속에서 스스로 연주한다.
 諸天合在藤蘿外 절은 합하여 등라(藤蘿)의 밖에 있으니
 隔岸鯨音慈海寬 건너편 언덕 고래 소리 인자한 바다의 너그러움이라.
 白又(백우)

138) 삼승(三乘): 삼승(三乘) 일반적으로 소승(小乘), 중승(中乘), 대승(大乘) 이 세 가지 해탈의 도를 가리킨다. 불법을 깊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一聲鍾落暮天寒
 三昧僧歸梵語殘
 忽破閑機還性合
 發乎深省覺心團
 碧空雷動逃魑魅
 古窟龍吟裂岳巒
 倚杖問來義憤起
 試把長劍雄風寬

龔岩(농암)

한 가락 종소리 울리자 저녁 하늘 쓸쓸한데
 삼매(三昧)에 든 스님은 돌아가며 불경 외운다.
 한가한 기미 갑자기 깨뜨려 다시 성품 합하고
 깊은 성찰을 하여 깨달아야 마음이 온전하다네.
 푸른 하늘에 우레 동하자 도깨비 도망가고
 옛 굴에 용이 읊조리자 산이 찢기는 듯하구나.
 지팡이에 의지해 물어 와 의분(義憤)이 일어나
 시험 삼아 장검을 잡으니 웅장한 바람 너그럽네.

轟雷鯨吼閣秋寒
 响响林端曳響殘
 般若有心聆法螺
 如來無漏聽蒲團
 更深落葉飛高木
 坐久愁雲退重巒
 非但緇徒知警省
 能令雖俗復回寬

樵史(초사)

가을 누각 차가운데 요란한 우레 고래처럼 울려
 숲 끝에 울리다가 울림이 사라진다.
 반야(般若)에 마음 두어 법라(法螺)¹³⁹를 들고
 여래(如來)는 빠짐없이 부들방석에서 듣는다오.
 다시 깊게 낙엽이 높은 나무에 날리면
 오래 앉으니 시름 구름이 첩첩한 산으로 물러나네.
 비단 승려만이 아니라 경계하여 살필 줄 알아야 하니
 비록 속세에서라도 다시 너그러워지게 해야 하리라.

166

一聲鍾打暮天寒
 詹漏爐香共欲殘
 徐歇霜林危鳥夢
 靜聽蕉院撼蒲團
 孤舟晚泊烟生渚
 齋飯纔過月上巒
 近地居人知祝偈
 六門金佛放光寬

한 종소리 울림에 저녁 하늘 스산하고
 처마에 빗소리와 화로의 향기 모두 사라지려 하네.
 서리 내린 숲에 위태로운 새의 꿈이 천천히 그침에
 파초 정원에 부들방석 당겨 고요히 듣는다오.
 외로운 배 늦게 안개 이는 물가에 정박함에
 재계하고 밥 먹은 후에 달이 산에 뜨는구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알고 쉬기를 빔에
 육문(六門)에 금 불상은 광채가 너그럽기도 하다.

139) 법라(法螺): 불사의 악기로서 예부터 사용되었으며 특히 승려가 수행할 때 사용했던 불구의 하나.

石下(석하)

一鍾當暮響千山 한 종소리 저녁에 온 산에 울림에
 前唱後應故不殘 앞에서 소리 내고 뒤에서 응하여 사라지지 않는구나.
 鳥啼欲罷風還靜 까마귀 울음 그치려 하자 바람이 다시 고요하고
 漁笛已歸月正團 어부의 피리 소리 이미 돌아가도 달은 그저 둥글다.
 早年相對京城閣 경성(京城)의 누각을 이룬 나이에 마주했고
 是夜又聽寒寺巒 한가한 절의 산에서 이 밤에 또 듣는다네.
 隱隱舊聲盈耳在 은은한 옛 소리가 귀에 가득 있으니
 我懷紆鬱亦難寬 나의 회포 우울하여 너그럽기 어렵다오.

松隱(송은)

九景山深寺閣寒 아홉 번째 경치는 산이 깊어 절의 누각도 한산하고
 松聲泉響入雲殘 소나무 소리와 샘의 울림도 구름에 들어 사라지네.
 風恬鳥峴烟初緜 바람이 오현(鳥峴)에 고요하니 안개가 처음 맺히고
 雨洗爐峰月正團 비가 향로봉(香爐峰)을 씻으니 달이 둥글게 뜬다오.
 征鴈翻飛凌碧落 가는 기러기는 푸른 하늘을 뚫고 날아가고
 旅人危坐對重巒 나그네는 첩첩한 산을 마주하고 우뚝히 앉았구나.
 箇中眞景描難得 그 속에 진경(眞景)은 묘사하기 어려우니
 想到鍾圍幾尺寬 생각이 종소리 둘레에 이르면 얼마나 너그러운지?

迂軒(우현)

孤庵卜築碧山寒 외로운 암자 지어도 푸른 산은 한산한데
 鍾扣此時天色殘 종을 칠 이때는 햇빛도 사라지네.
 聲落樓頭千語默 소리 그친 누각 머리는 모든 소리 고요하고
 形如天體一輪團 모양은 하늘의 몸으로 바뀌처럼 둥글다오.
 帶雨遠聞蒼海棹 빗소리에 멀리 푸른 바다의 돛 소리를 듣고
 過江穿破白雲巒 강을 지나자 흰 구름이 산을 뚫고 나오네.
 沙門寂寞黃昏定 사문(沙門)은 적막하니 황혼이 감돌고

坐讀丹經氣宇寬

南溪(남계)

앉아 읽는 단경(丹經)¹⁴⁰⁾은 도량이 너그럽구나.

山外小庵庵外山

數聲鍾落夕陽殘

鹿聽佛經岫雲散

鳥宿禪林花影團

題句客停溪上棹

不言錫下雨中巒

誰有今聞長樂夜

楓燈十載旅魂寬

退齋(퇴재)

산 밖에 작은 암자, 암자 밖에 산

몇 가락 종소리 속에 석양이 지네.

불경 소리 시슴이 듣고 산 구름 흩어지니

선림(禪林)에 자던 새는 꽃 그림자도 등글구나.

시구(詩句)를 쓰니 나그네가 시냇가 탁자에 멈추고

말없이 석장(錫杖)으로 비 내리는 산을 내려온다.

누가 있어 오늘날 장락궁(長樂宮)의 밤을 들을까?

단풍에 등잔은 10년 여혼(旅魂)도 너그러워진다고.

聞說古庵在碧山

鍾聲晚出落輝殘

淨花彩爛慈風振

大地光明慧月圓

飯後誰援蘭寺枹

夜深客到楓橋灣

隱隱破雲還復靜

六塵無染省心寬

訥庵(눌암)

옛 암자 푸른 산에 있음을 듣고 기뻐하였으니

저녁에 종소리 울렀다가 달빛 속에 사라진다.

연꽃은 찬란히 인자한 풍모 떨치고

대지에 빛 밝아 지혜의 달은 등글구나.

식사 후에 누가 난사(蘭寺)의 떡갈나무를 당길까?

밤 깊어 나그네가 풍교(楓橋)의 굽이에 이르렀어라.

은은히 구름 부서다가 다시 고요해지니

육진(六塵)¹⁴¹⁾은 물들지 않아 성심(省心)이 너그럽다.

蘭若數椽倚碧山

暮鍾隱隱白雲間

聽音歸客情懷急

念佛諸僧法界間

절의 몇 서까래는 푸른 산에 의지하였고

저녁 종소리 흰 구름 사이로 은은히 들려온다.

소리 듣고 돌아가는 객은 마음이 급하고

염불하는 여러 승려는 법계(法界)에 한가롭네.

140) 단경(丹經): 도가(道家)의 경전을 가리킨다.

141) 육진(六塵): 중생의 마음을 더럽히는 여섯 가지,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을 말한다.

帶來花雨諸天夜 제천(諸天)¹⁴²의 밤에 꽃비 내리고
 穿破江雲十里灣 십 리 굽이에 강의 구름을 뚫는구나.
 古樂猶在沙門裡 옛 음악이 오히려 사문(沙門) 속에 있으니
 疑是師襄伴磬還 아마도 사양(師襄)¹⁴³이 경쇠를 짝하여 돌아왔는가?
 石澗(석간)

暮鍾初落動群山 저녁 종소리 처음 울려 산양에 퍼지면
 谷樹迷莊返照殘 골짜기 나무와 희미한 수풀 석양에 사라져 간다.
 夕竈催飧傳鉢大 저녁에 부엌은 찬을 재촉하여 큰 바리때를 전하고
 上房禮佛轉珠團 상방(上房)에 예불 보며 구슬 방석 바뀌네.
 時將客帆聽來夜 나그네 돛배 때로 소리 들려오는 밤에
 響過閒雲過去巒 한가로운 구름은 울림 막으며 산을 지난다오.
 滿地呌嚕明我耳 땅에 가득한 시끄러운 소리 내 귀를 밝게 하니
 書巢端倚寫懷寬 서실(書室)에서 바르게 앉아 회포 씌이 너그럽구나.
 菊下(국하)

香積廚中白衲寒 향기 쌓인 부엌 안에 흰 가시는 쌀쌀한데
 蒲牢夕動木魚殘 웅장한 종소리 석양에 동하고 목어(木魚)는 잔잔하네.
 漁航鴈起霜飛泊 고깃배에 기러기 일어나자 서리가 내려앉고
 爐嶂雲穿月湧團 향로봉의 구름 뚫고 달이 솟아 둥글구나.
 烟籠隋苑深秋色 안개가 수(隋)나라 동산을 둘러 깊은 가을의 색이요
 客到吳楓暮雨巒 나그네가 오현 풍교¹⁴⁴에 이르자 저녁 비가 내렸지.
 紅斂塔暉僧不語 탑 광채에 붉은빛 거두어져도 스님은 말이 없고
 疎星升八色天寬 성근 별 스물여덟의 빛의 하늘은 너그럽구나.

142) 제천(諸天): 제천은 불법을 수호하는 하늘의 신들을 말한다. 혹은 불교 사원(寺院)이나 암자의 별칭으로도 쓰인다.

143) 사양(師襄): 춘추 시대의 유명한 악사 양자(襄子)로 거문고 연주에 능했다. 공자가 사양에게 거문고를 배웠다는 내용은 『공자가어(孔子家語)』 「변악해(辯樂解)」에 나온다.

144) 오현 풍교: 오현(吳縣)은 중국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에 있다. 오현(吳縣) 있다. 이곳 서남쪽에 한산사(寒山寺)와 풍교(楓橋)가 있는데, 당나라 시인 장계(張繼)가 이곳에 이르러 「풍요야박(楓橋夜泊)」이라는 시를 지은 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晚翠(만취)

白雲深處出青山	흰 구름 깊은 곳은 푸른 산에서 나오니
飯後鍾鳴日已殘	식사 후에 종소리 울리자 날이 이미 다하네.
一磬悟生歸法界	한 경쇠 소리에 생을 깨달아 법계(法界)에 귀의하고
千珠參佛轉蒲團	천 구슬로 부처에 참배하니 부들방석이 바뀐다.
遠聞疑是龍吟窟	멀리서 듣고 용이 소리 내는 굴인가 의심하고
近度還如豹吼巒	가까이서 살펴보니 도리어 표범 우는 산과 같아라.
回憶姑蘇城外客	고소성(姑蘇城) 밖에 나그네를 생각함에
孤懷今夜正難寬	외로운 회포 오늘 밤에 진실로 어렵구나.

滄農(창농)

山門日落	산문(山門)에 해가 지니
寂寞空汀鍾聲寒	적막한 빈 물가는 종소리 쓸쓸하네.
乾坤復朗魑魅逃	세상이 다시 밝아지니 도깨비 달아나고
蓮花細雨衆星殘	연꽃에 가랑비 내리자 못별이 사라지는구나.
姑蘇何在愁眠罷	고소성(姑蘇城)에서는 어찌 잠을 깨었던가?
啼鳥無語月團團	까마귀 울 때 말없이 달만 둥글었지.
依策整衿起數步	지팡이에 의지해 옷깃을 여미고 몇 걸음 걷자니
雲外參差三兩巒	구름 밖에 들쭉날쭉 두서넛 산이 보이네.
念佛老僧忘苦海	염불하는 중은 고해의 바다를 잊었고
觀音化體這心寬	관음(觀音)의 변화한 몸은 마음 너그러우리.

東溟(동명)

高樓暮對雪峰寒	높은 누각은 저물어 눈 내린 찬 봉우리를 마주해
鏗鏘鳴鍾日色殘	쨍쨍 울리는 종소리에 해도 넘어가려 하네.
祇樹聲傳風瑟瑟	기수(祇樹) ¹⁴⁵⁾ 의 소리 전하는 바람은 쓸쓸하고

145) 기수(祇樹): 지수는 불가의 말로 지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의 약칭인데 이 동산의 정사(精舍)에서 부처가 설법(說法)하였다. 사찰의 의미로 쓰인다.

諸天響落月團團 제천(諸天)에 울려 퍼지는 달은 등글기도 하다.
 魚龍潑潑來聽渚 어룡(魚龍)이 뛰어오르니 물가에 와서 듣고
 鳥獸蹠蹠舞山巒 조수(鳥獸)가 흔들거리며 산에 와서 춤을 추는구나.
 擊磬禪師何處在 경쇠를 치던 선사는 어느 곳에 있는가?
 慈悲濟衆道心寬 자비로 못사람 구제하니 도심이 너그럽다오.
 竹翁(죽옹)

高秋古寺暮鍾寒 높은 가을 옛 절에 저녁 종소리 쓸쓸한데
 霜落山空夜夢殘 서리 내리고 산은 비어 밤 꿈을 설친다.
 宿鳥驚捫移木末 자던 새는 등지에서 놀라 나무 끝으로 옮기고
 老禪念呪坐蒲團 노승은 염불하며 부들방석에 앉았구나.
 明懸新月留孤影 밝게 걸린 새달은 외로운 그림자를 남기고
 聲過織雲過遠巒 소리 막은 기는 구름은 먼 산을 지난다.
 記得人間方外隔 사람이 세상 밖에 떨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野容遼復洞心寬 들은 아득함 포용하고 골짜기는 마음 너그럽다네.
 寄隱(기은)

鍾樓高出遠山寒 종루는 높이 솟고 먼 산은 쓸쓸한데
 一杼聲長夜未殘 한 북소리 오래도록 밤에 사라지지 않네.
 紅樹飄零秋寂寂 붉은 나무 떨어지는 가을은 쓸쓸하기만 하고
 白雲掛在月團團 흰 구름에 걸려 있는 달은 등글기도 하다.
 大鳴空色知幽境 공(空)과 색(色)을 크게 울려 그윽한 경계인 줄 알고
 似到巖塵滯重巒 소음과 먼지 이르러 첩첩한 산에 막힌 듯하여라.
 遁客騷人頻顧盼 은거한 객과 시인은 자주 돌아보니
 三千世界淨而寬 삼천의 세계가 고요하고 너그럽다오.
 素軒(소헌)

古木蒼涼古寺寒 고목(古木)은 푸르고 스산하며 옛 절은 쓸쓸한데
 歸雲憂去數聲殘 돌아가는 구름 어긋나 가는데 몇 소리 사라진다.

居人習聽三更暮
衆釋誦經一座團
宮非長樂猶丹閣
地是豐山但翠巒
聞處使儂心省發
始知佛道大而寬

文式(문식)

사는 사람은 삼경의 밤에도 익히 들었고
여러 중은 한자리에 앉아 경을 읽는구나.
궁은 장락궁(長樂宮)¹⁴⁶이 아니어도 오히려 붉고
땅은 풍산(豐山)인데 다만 푸른 산이랴오.
들은 곳은 내 마음 살피게 하나니
부처님의 도가 크고 너그러운 줄 비로소 알았네.

鍾落孤庵庵在山
催更聲裡夕陽殘
億千萬劫同流去
三十諸天一理團
倚雲睡鶴驚閑夢
尋寺歸僧上翠巒
蕭蕭鳴處鷗風籟
宇宙清閑月色寬

齊根(제근)

외로운 암자에서 종소리 울리고 암지는 산에 있으니
소리 속에 석양이 지는 것을 더욱 재촉하는구나.
억천(億千) 만겁(萬劫)의 시간 동안 함께 흘러가도
삼십(三十) 제천(諸天)은 한 이치로 둥글다.
안개에 의지해 조는 학은 한가로운 꿈에 놀라고
절 찾아 돌아가는 중은 푸른 산을 오르네.
기러기가 바람 소리에 쓸쓸히 우는 곳은
세상이 맑고 한가로워 달빛도 너그러워라.

172

落日拖紅掛碧山
鍾聲晚出白雲間
長樂何年花外盡
楓橋半夜客心閒
清音噌吰渭溪月
遺響飄飄苦海灣
非絲非竹令人省
水涵遺踪鴈隊還

敬堂(경당)

석양은 붉게 물들어 푸른 산에 걸렸는데
종소리는 늦게 흰 구름 사이에서 들려온다.
장락궁은 어느 해에나 꽃 밖으로 다할까?
단풍 우거진 다리는 한밤에도 나그네 마음 한가롭다.
맑은소리 위천(渭川)에 달뜨자 시끄럽게 되고
남겨진 울림은 고헤(苦海)이 만(灣)에 울리는구나.
현악기도 관악기도 아닌데 사람 살피게 하니
물 담은 남겨진 자취에 기러기 때 돌아가네.

146) 장락궁(長樂宮): 장락궁(長樂宮): 한(漢)나라 때 태후(太后)가 거처하던 궁전으로, 전하여 왕후나 대비가 거처하는 궁전을 가리킨다.

一動名區夜氣寒
 鍾聲初轉雨淒殘
 岩邊花落春惟暮
 樹末雲晴月亦團
 鳴來人定山中寺
 響到客閑枕外巒
 小庵近在青林下
 老佛堂前禮數寬
 漢奎(한규)

밤기운 찬 명승지에 한 소리 울리는
 종소리 처음에는 빗소리처럼 처량했지.
 바위 옆 꽃 떨어진 곳은 봄이 오직 저물고
 나무 끝에 구름이 개어 달 또한 등글다.
 울음은 사람 머무른 산속 절에 들리고
 울림은 나그네 한가로운 침실 밖 산에 이르네.
 작은 암자 근처에 있는 푸른 숲 아래에
 낡은 불당 앞에 예우(禮遇)가 극진하다.

鍾在於庵庵在山
 山僧撞出白雲間
 三千法界歸深省
 百八念珠不自閑
 遷客初聞長樂院
 漁舟夜泊楚江灣
 數聲鏗鏘諸天暮
 步月中庭藜杖還
 復來(복래)

종소리는 암자에 있고 암자는 산에 있으니
 산승(山僧)이 흰 구름 사이로 치러 나오는구나.
 삼천의 법계(法界)로 돌아와 깊이 성찰해도
 백팔의 염주는 절로 한가롭지 않구나.
 옮긴 나그네 장락궁(長樂宮)의 뜰을 처음 들었고
 어부의 배는 초(楚)나라 강굽이에 밤에 정박하네.
 저녁 하늘에 몇 마디 종소리 울리는데
 명아주 지팡이로 달빛 아래 뜰을 걷다 돌아왔네.

鍾聲鏗鏘動雲山
 山下孤庵薄暮間
 鷺岑岹嶢猶寂寞
 鯨音噌吰極清閒
 人多發省靈臺上
 佛是觀音苦海灣
 桐漏遲遲提樹暗

종소리 울려 구름산에 진동하는데
 산 아래 외로운 암자는 옅은 저녁 사이에 있네.
 수리 봉우리 우뚝하여 오히려 적막하고
 고래 소리 시끄러워도 맑고 한가로움을 다하였다.
 사람들 성찰함이 많으니 영대(靈臺)¹⁴⁷의 위요
 부처가 관음(觀音)¹⁴⁸이니 고힘(苦海)의 만(灣)이라.
 오동나무에 새는 비 지루하여 몰래 나무 세우니

147) 영대(靈臺): 령스럽다는 뜻으로, 마음을 이르는 말.

148) 관음(觀音):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는 보살.

僧來不語自鳴還 스님이 와서 말하지 않아도 절로 울려 돌아가누나.
 駿乘(준병)

深處孤庵在碧山 깊은 곳 외로운 암자 푸른 산에 있으니
 鐘聲隱隱夕陽殘 종소리 은은하게 석양에 사라진다.
 聽來此地深省發 이 땅에 깊은 성찰 발함을 들어서 왔고
 鑄得何年渾體團 어느 해에 혼연히 몸이 모아 주물을 얻을까?
 佛性圓通知法界 불성(佛性)은 깨달음으로 불법 세계 알고
 鯨音鏗鏘動層巒 고래 소리는 시끄러워 온 산을 울린다네.
 聲聲穿破歸雲過 소리마다 돌아가는 구름이 막음을 뚫고 부수어
 三十三天世界寬 삼십삼천(三十三天) 세계가 너그럽다오.
 昇栢(승우)

174

斜陽鍾落頭陀山 석양에 종소리 지는 두타산(頭陀山)은
 法界茫茫劫夢殘 법계(法界)의 아득한 영겁에 꿈도 사라지네.
 祇樹千年雲靉靆 천년 기수(祇樹)¹⁴⁹⁾에 구름 몽게몽게 일고
 渭溪十里月團圓 십리 위계(渭溪)에 달은 둥글기도 하다.
 心機發省無量佛 가을이 깊게 물들어 붉은 숲의 경치 이루더니
 氣類相通幾處巒 봄이 와 다시 푸른 산의 문양 떠네.
 遙望圓通淵默坐 멀리 깨달음의 연못에서 묵좌(默坐)함을 보니
 嚙呷不絕暮懷寬 종소리 끊이지 않고 저녁 회포는 느긋하구나.
 基復(기복)

鍾聲遠出望瀛山 종소리 멀리 드러나 바닷가 산을 바라보니
 花雨諸天日影殘 하늘에서 꽃비 내리자 해그림자 사라지는구나.
 老釋叅佛依石榻 늙은 중은 석탑(石榻)에 의지하여 부처님에 참배하고
 閣梨飯客坐蒲團 스님은 부들방석에 앉아 손님 밥 먹인다.

149) 기수(祇樹): 기수는 기원정사(祇園精舍)를 말하는데, 인도 중부 마가다국 사위성(舍衛城) 남쪽의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있는 절로, 부처와 그 제자들이 설법하고 수도할 수 있도록 수달장자(須達長者)가 세웠다고 한다.

來從覺海搖明月 깨달음은 예로부터 밝은 달을 흔드니
 穿破法雲聳翠巒 구름을 뚫고 나와 푸른 봉우리가 솟았지.
 溪上遙聞知有寺 시냇가에서 아득히 들어 절 있는 줄 알지만
 幾人到此述懷寬 몇 사람이나 여기에 이르러 회포를 다 말하랴?
 基成(기성)

遠觀九景入雲山 아홉 번째 경치가 구름산으로 들어감을 멀리서 보면
 惟有暮鍾惱夢殘 오직 저녁 종소리에 번뇌의 꿈이 사라지네.
 鳴下洞虛風便送 울리는 소리 골짜기가 비어 바람의 편에 보내고
 破來夜闌月輪圓 깨져 오는 밤의 고요함에 달이 떠올라 둥글다.
 初疑地近姑蘇畔 처음에 고소성(姑蘇城) 물가와 가까운가 의심했으나
 更占天長蘭若巒 다시 하늘이 멀어 난야(蘭若)¹⁵⁰ 산에 점지하였구나.
 禮佛梵音從此起 이곳에서 일어나 범어(梵語)로 예불을 보니
 三千法海此中寬 삼천 법계(法界)의 바다는 이 속에 너그럽다네.
 昌楫(창우)

禪樓葉盡迥秋山 멀리 가을 산 선(禪) 세계의 누각에 낙엽 쳐도
 日暮鍾聲未易殘 석양의 종소리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오.
 極靜塵機身外息 지극히 고요한 속에 속된 생각 몸 밖으로 사라지고
 暗聞慧月眼中圓 어둠에 들으면 지혜의 달빛(慧月)¹⁵¹ 눈 속에 있네.
 春婦村火迷尋徑 방아 짙는 아낙 마을 불로 길을 헤매어 찾고
 飯罷林星漸出巒 식사 끝나자 숲에 별이 점차 산 위로 나타난다.
 應有高僧知不語 고승은 말하지 않아도 응당 알지니
 每逢遠客懷強寬 항상 멀리 온 길손 만나면 마음 너그럽기도 하네.
 黃崑(황곤)

150) 난야(蘭若): 범어 āraṇyaka의 음역인 아란야(阿蘭若)의 준말로, 출가자가 수행하는 조용한 곳, 즉 사원을 말한다.

151) 지혜의 달빛: 불교 용어로 중생의 번뇌를 깨우치는 지혜가 마치 청량한 달빛 같다고 하여 이른 말이다.

鍾在於庵庵在山
一聲帶落雨聲殘
雲間遠出藤蘿外
月下相聞桂子團
歸客問齊携竹杖
老僧念佛坐林巒
令人到此心機發
法界三千宇宙寬
炳濟(병제)

종소리는 암자에 있고 암자는 산에 있어서
한 소리가 들렸다가 빗소리에 사라진다.
구름 사이로 나무 넝쿨 밖으로 멀리 나타나고
달빛 아래 계수나무 꽃 무리 향기를 서로 맡네.
돌아가는 객은 안부 물으며 대 지팡이 짚고
노승은 염불하며 산 숲에 앉았구나.
사람들 여기에 이르면 심기를 발동하게 하니
부처 세계에 삼천 우주는 너그럽기도 하다오.



11. 帽巖漁笛

모암(帽巖, 관모암)의 어부 피리 소리



吹笛漁人上帽巖
滿江蘋蓼恣非凡
神龍吟出瀛洲水
南鶴飛來赤鼻帆
嘔啞村童徒聒耳
徘徊遠客却沾衫
穿雲裂石多般響
獨樂無如少長咸

龍洲(용주)

피리 부는 어부 옆에 관모암(冠帽巖)이 있으니
강 가득한 개구리밥과 여뀌는 모두 범상치 않네.
신비한 용은 영주(瀛洲)의 물을 토해내고
남쪽의 학은 붉은 돛배 위를 날아서 온다오.
종알종알 시골 아이는 다만 귀를 시끄럽게 하더니
배회하는 나그네는 문득 눈물 흘리네.
구름 뚫고 바위 부수는 여러 울림이 있으니
홀로 즐기는 여러 사람 모임만 같지 않다.

177

弄笛漁人傍帽岩
綠蓑圓笠亦超凡
越蘆帶月來帆嶼
楚竹臨風送遠帆

피리 희롱하는 어부 옆이 관모암(冠帽巖)이니
푸른 도롱이에 둥근 삿갓 또한 비범하구나.
월나라 갈대에 뜬 달은 외로운 섬 위로 오고
초나라 대나무¹⁵²⁾에 바람 불어 멀리 돛배를 보내네.

152) 초나라 대나무: 중국 초(楚) 땅에서 나는 대나무를 초죽(楚竹)이라 한다.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시 「어옹(漁翁)」에 “어옹이 밤에 서암 곁에 묵더니, 새벽에 맑은 상수를 길고 초죽으로 불을 때누나.[漁翁夜傍西巖宿 曉汲清湘燃楚竹]” 라고 하였다.

鷗誓清閑依石榻
鶴音瀏亮洗塵衫
滄浪一曲同眞趣
知是江鄉自取咸

星史(성사)

갈매기는 경계하며 맑고 한가히 돌 탁자에 의지하고
학은 노래하며 맑은 물에 찌든 깃털 씻는구나.
창랑의 한 곡조와 같은 참된 흥취를
강마을은 모든 것 스스로 취할 줄 알까?

漁笛聲聲帽子巖
溪翁閑趣亦非凡
半邊斜日欹圓笠
一曲西風落晚帆
折柳塞童城下角
採蓮江女雨中衫
獨憐沙鳥知音熟
舞向烟磯翔集咸

南崗(남강)

어부의 피리 소리마다 모자 같은 바위이니
계곡의 늪은이 한가로운 정취 또한 비범하다.
반나절에 해가 기우니 둥근 샷갓도 기울고
한 굽이 서쪽 바람에 늦은 돛배 끊어지네.
성 아래 모퉁이에는 시골 아이들 버들 꺾고
빗속에 적삼 입고 강 처녀 연밥을 탄다오.
홀로 강가 새는 곡조 알아 익숙함이 가련하니
춤추며 안개 낀 낚시터로 가 모여 날갯짓하네.

178

弄笛漁翁傍帽巖
江風湖月隔塵凡
一生清趣持竿竹
千里閒踪付布帆
芝曲商山雲裡屐
蓮歌越女雨中衫
浮歌何處滄浪叟
收網斜陽競集咸

秋畹(추원)

관모암 옆에는 어부가 피리를 희롱하고
강바람과 호수의 달은 세상을 멀리했네.
일생의 맑은 흥취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천 리의 한가한 자취 돛배에 부친다오.
자지곡¹⁵³은 상산(商山) 구름 속에 나막신 신을 때요
연가(蓮歌)는 서시(西施)가 빗속에 적삼 입을 때라.
들리는 노랫소리 어느 곳에 창랑(滄浪)의 늪은이가
석양에 어망 건으며 다투어 모일까?

漁笛數聲聽帽岩

어부의 피리 몇 가락 소리 모암에 들리니

153) 자지곡(紫芝曲): 상산(商山)의 사호(四皓)가 산에 은거하면서 「자지곡(紫芝曲)」을 지어 불렀는데, “붉은 지초는 요기(療飢)할 수 있네.” 라고 하였다.

一生清趣出於凡
和來樵曲秋深壑
雜入村砧夜泊帆
遠遠斜陽紅暎笠
蕭蕭暮雨細沾衫
吾人詩律同相應
景物古城得有咸

東溟(동명)

일생의 맑은 흥취 비범하기도 하네.
가을 깊은 골에 초동의 곡조와 조화롭게 들려오고
밤 정박한 돛배에 다듬이 소리 섞여 들려온다.
멀고 먼 석양은 샷갓을 붉게 비추고
쓸쓸한 저녁 비는 적삼을 가늘게 적시네.
우리는 시로 함께 서로 화답하노니
옛 성의 경치에 모두 얻은 것이 있어라.

何人落帽此江岩
漁笛時時聽不凡
楓樹古橋愁對火
桃花春浪溯回帆
月明孤鶴南飛翼
雨冷秋荷舊濕衫
知爾山阿眞隱子
白雲深處弄韶咸

小山(소산)

누가 낙조의 모암이 이 강 바위라 했나?
어부의 피리 소리 때때로 들려 평범하지 않구나.
단풍나무의 옛 다리는 불을 대할까 근심하고
도화 뜬 봄 물결에 돛배로 거슬러 올랐다 돌아오네.
외로운 학은 달 밝으니 남으로 날고
가을 연잎에 비가 차니 묵은 습기가 적삼을 적신다.
그 산 언덕에 참 은자가 있음을 아는가?
흰 구름 깊은 곳에서 모두 순임금의 풍류를 즐기네.

吹笛何人向帽巖
問鷗爾亦出塵凡
梅花落處月生鈞
楊柳飄搖雲作帆
但道風烟饒荻岸
不知江雨濕蘿衫
曲終青嶂還歸寂
唯有禽魚慣聽咸

錦樵(금초)

피리 부는 어느 사람이 모암으로 향하는가?
갈매기에 묻는 그대 또한 속세에서 벗어났구려.
매화 지는 곳에 달뜨자 낚시 드리우고
버들가지 드날리는 구름에 돛을 만드네.
바람과 안개가 갈대 언덕을 너넉히 한다고 하면
강에 비가 비단 적삼을 알지 못하는 것이리라.
굽이 끝은 푸른 절벽으로 다시 적막하게 되고
오직 새와 물고기 모두를 익숙히 들을 수 있네.

漁笛聲聲傍帽岩
初聞似俗更殊凡
鰖肥春水桃飜浪
鷺下秋汀月滿帆
斜風細雨輕輕笠
寒蕪疎篁短短衫
快爲數弄欣然立
溪上群峰響應咸

石樵(석초)

어부의 피리 소리마다 모임 옆이니
처음 들으면 평범해도 다시 들으면 비범하리라.
쏘가리 살찌는 봄 물에 도화 뜬 물결 흐르고
해오라기 내린 가을 물기는 만월에 돛배 있네.
가벼운 샷샷 쓰고 기운 바람에 가랑비 내려
짧은 적삼에 차가운 솜옷은 성긴 대숲 같구나.
유쾌한 몇 마디 농담에 기쁘게 서 있자니
계곡 옆 여러 봉우리에서 소리가 울려 온다.

宅近清溪對帽岩
一聲漁笛異乎凡
怨何關塞東風柳
響落寒江暮雨帆
遵渚鴈回紅蓼月
停砧女濕碧蘿衫
款乃曲終餘景盡
山山水水品題咸

近溪(근계)

집 주변 맑은 시내가 모임을 마주하여
한 줄기 어부의 피리 소리는 평범함과 다르네.
머들에 봄바람 불어도 문을 닫고 무엇을 원망하여
돛배에 저녁 비 내림에 찬 강은 울림이 끊어졌나?
물길 따라 기러기는 붉은 여뀌 핀 달빛에 돌아오고
다듬이질 멈춘 아낙은 푸른 적삼을 적신다.
뱃노래 끝나며 남은 경계를 다 했으니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모두 품평한다오.

夕陽無恨下西岩
漁笛清颺異俚凡
一曲桃花紅鰖水
數聲蓼月白鷗帆
手持綠竹清香餌
肩掛青簑暮雨衫
借問閑翁何適取
魚忘受釣出聽咸

峴愚(현우)

석양은 서쪽 바위로 진다고 한할 것 없으니
어부의 피리 소리 맑게 일어 속됨과 다르다오.
한 곡조는 도화 뜬 물에 붉은 쏘가리요
몇 소리는 여뀌 핀 달 돛배에 흰 갈매기라네.
손에 쥐 푸른 대는 맑은 향기가 미끼요
어깨에 걸친 푸른 도롱이는 저녁 비가 옷이로다.
한가로운 늙은이 알맞음을 취했나 물으니
물고기도 낚시를 잊고서 나와서 듣는다고 하네.

落帽何年化此巖 관모 벗어 언제 이 바위가 되었는가?
 名傳千古地非凡 천고에 이름 전하니 땅이 비범하도다.
 誤疑牧豎來攬竹 가축 기르다 와서 대숲 옆에 있나 잘못 의심하다가
 也識溪翁謾駐帆 계곡 늙은이 멋대로 댕 돛배를 또 알았다오.
 墨客正堪多下筆 묵객(墨客)은 많은 글쓰기를 감당하지만
 歌娥未足詎輕衫 노래하는 미녀는 천하고 경박한 옷 어울리지 않네.
 數聲蓼月清秋夜 여뀌 핀 달 맑은 가을밤 몇 가락 소리에
 耳慣如聞護與咸 귀가 익숙히 호(護)¹⁵⁴를 함께 듣는 것 같구나.
 笑堂(소당)

城下居人釣帽岩 성 아래 사는 사람이 모암에서 낚시하는데
 數聲漁笛迥超凡 어부의 피리 몇 가락은 멀리 평범함을 벗어났네.
 落梅樓角花飛檻 낙매 곡조에 누각 난간에는 매화 꽃잎 날리고
 折柳江千絮滿帆 절유 곡조에 강은 수천 버들개지로 돛배가 가득하다.
 細雨不歸青篛笠 가는 비에 푸른 대 삿갓 쓰고 돌아가지 못하니
 斜陽半袒碧蘿衫 석양에 푸른 적삼 반쯤 걸었구나.
 偷閑學得江湖樂 틈을 내어 강호의 즐거움 배우면
 曲曲言情聽者咸 듣는 이가 모두 곡마다 정을 말한다고 하네.
 雪隱(설은)

漁笛數聲出帽巖 어부의 피리 소리 몇 가락이 모암에서 나오니
 非樵非牧異於凡 초동도 목동도 아니고 평범하지 않네.
 興入青山於是隱 흥이 청산에 들어 이에 은거하고
 步隨流水不爲帆 걸음은 흐르는 물을 따르니 돛배가 아니라오.
 恍如清濁滄浪曲 맑고 흐림은 창랑(滄浪)의 굽이와 거의 같으니
 不妨婆娑楚女衫 한가로이 초나라 미녀(서시)도 방해되지 않으리라.
 此翁白髮知有待 백발의 이 늙은이 기다릴 줄 알아서
 雷澤明時願戴咸 우레 치는 연못이 밝아질 때 함께 느끼길 바라오.

154) 호(護): 호는 대호(大護)로 탕(湯) 임금의 음악이다.

蓮宇(연우)

漁翁吹笛坐溪岩	시내 바위에서 어부가 부는 피리 소리
楚竹蕭蕭韻不凡	초나라 대나무처럼 소슬한 소리 평범하지 않네.
聞若蛟吟雲斷壑	시끄럽기는 구름 끊긴 골에서 교통이 우는 것 같고
爽同鴈叫月生帆	시원하기는 달뜨는 돛배에서 기러기 우는 것 같아라.
有時手弄頻投餌	때로 손 놀리며 자주 먹이 던져주고
無事腰携更斂衫	일없이 허리 잡다 다시 적삼 고치네.
城下釣臺孰先買	성 아래 낚시하는 곳은 누가 먼저 샀는가?
芳隣共住李金咸	좋은 이웃으로 같이 사는 이 씨 김 씨 함께로세.

素山(소산)

短髮蕭蕭傍帽岩	짧은 머리로 쓸쓸히 모암 옆에 있자니
斜陽一笛也超凡	석양에 한 피리 소리가 또 비범하구나.
落梅和月飄寒笠	지는 매화는 달과 어울리나 바람에 샷샷이 차고
截竹鳴風掛小帆	휘어진 대나무 바람에 울며 작은 돛배에 걸렸네.
江鳥不驚眠蓼岸	강 새는 놀라지도 않고 여뀌 핀 강가에서 잠들고
水仙何惡泣荷衫	수선(水仙) ¹⁵⁵⁾ 은 무얼 싫어해 연꽃 적삼을 적시는가?
世人誰識曲中趣	세상 사람들 곡 속에 운치를 누가 알랴?
出聽空洲魚若咸	나아가 빈 모래톱에서 물고기 같음을 들어보라.

白又(백우)

碧水澄潭一帽巖	푸른 물 맑은 연못에 모암이 있으니
斯翁漁笛是非凡	이 늙은 어부의 피리 소리가 비범하구나.
弄之忘世同沙鳥	희롱하며 세상 잊음이 모래톱 새와 같고
恐洩閑機擁霧帆	걱정 잊은 한가로운 기미에 안개 낀 돛배를 감쌌네.
復欲清高橫夜月	맑게 높아지려는 한밤의 달은 빗겨 있고

155) 수선(水仙): 물의 신(神)이다. 두보의 「도죽장인(桃竹杖引)」에 “뿌리 자르고 껍질 벗기매 자옥과 같으니, 강비와 수선이 애석해도 어쩔 수 없어라.[斬根削皮如紫玉, 江妃水仙惜不得.]” 라고 하였다. 『古文眞寶 前集』

已辭榮利着蘿衫 영리(榮利)를 이미 사양하고 거친 옷 입었다오.
 箇中意味誰能識 그 속에 의미를 누가 알겠는가?
 滿眼風烟我自感 눈 가득한 풍경도 모두 자신으로부터 이니라.
 龔岩(농암)

魚籃尊士幻慈岩 물고기 바구니 든 높은 선비가 바위에 미혹되어
 獨釣何人迥出凡 홀로 낚시하던 어떤 사람이 특출하였는가?
 長把葉端無孔笛 길게 잡은 잎의 끝은 피리 구멍 없어도
 好吹岸上大慈帆 불기 좋아해 강가에 돛배를 사랑하였네.
 響處夢驚龍女殿 울리는 곳은 용녀(龍女)가 전각에서 자다 놀라고
 曲終淚灑鮫人衫 곡조 끝나자 교인(鮫人)¹⁵⁶⁾이 적삼을 적시게 하네.
 魚游鳥駭簧音巧 물고기 노닐고 새가 놀리는 생황 소리 교묘하여
 山裡松篁率舞咸 산속에 소나무와 대숲은 모두 춤을 춘다오.
 蕉史(초사)

異境奇觀卓犖岩 다른 경계 기이한 경관이 우뚝 빼어난 바위와
 臨風漁笛掃塵凡 바람에 어부의 피리 소리는 속세의 때를 쓸었다네.
 蕭條轉入緜仙弄 소슬한 가지 점점 구선(緜仙)¹⁵⁷⁾ 기룡으로 들어갔고
 颯畚仍隨楚客帆 바람 거센 논은 이에 초객(楚客)의 돛배 따랐다오.
 林靄厭霞來遠眺 숲 아지랑이는 노을이 싫어 와도 멀리서 보고
 川華受月上輕衫 시내의 꽃은 달빛 받아 위가 가벼운 적삼이네.
 某邱某水須將見 어느 언덕 어느 물도 장차 보려고 하면
 萬像伊時爲我咸 만상이 그때 모두 나를 위한다오.
 石下(석하)

156) 교인(鮫人): 남해(南海)에 살고 있다는 인어(人魚). 늘 쉬지 않고 교소(鮫綯)라는 비단을 짜며, 울면 눈물이 진주(眞珠)로 변하며 나온다고 한다. 『述異記』

157) 구선(緜仙): 구선은 생황으로 봉황 울음소리를 내며 이락(伊洛)에서 노닐던 왕자교(王子喬)가 도사 부구공(浮丘公)을 따라 송고산(崇高山)에 올라가 30여 년 동안 신선술을 닦고는 구지산(緜氏山)에서 학을 타고 승천했다는 고사를 말한다. 『列仙傳 王子喬』

一聲漁笛動西巖 어부의 피리 소리 한가락이 서쪽 바위에 울리자
 靜聽始知意不凡 고요히 듣고 뜻이 범상치 않음을 비로소 알았네.
 夜月渭川垂直釣 밤에 달뜨자 위천(渭川)¹⁵⁸에 낚시 드리우고
 秋風吳海放孤帆 가을바람에 오해(吳海)에 외로운 돛배 띄웠지.
 此地尙餘紅蓼岸 이 땅은 오히려 남아 붉은 여뀌의 강언덕이요
 其人宛在綠蓑衫 그 사람 완전히 푸른 도롱이 입고 있구나.
 望美西方終不見 아름다운 서쪽을 보아도 끝내 볼 수 없으니
 將懷椒糈要巫咸 산초와 양식을 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볼까?
 松隱(송은)

十景碧灘白帽岩 열 번째 경치인 푸른 여울에 흰 모암은
 短蓑長笛也非凡 짧은 도롱이에 길게 피리 불어 또한 비범하네.
 將歸東海霜侵鬢 서리가 귀밑머리 침범하여 동해(東海)로 돌아가려니
 欲放西湖雪滿帆 눈이 돛배에 가득함에 서호(西湖)에 정박하고 싶네.
 萬點梅花吹蕩笠 만 점의 매화 꽃잎 부들 샷갓에 날리고
 一江蘆月上荷衫 한줄기 강 갈대에 달은 연잎 적삼 위로 떠 오른다.
 憐君古調無人和 임 그리는 옛 곡조는 응답할 사람 없어
 願入勻天雜護咸 균천(勻天)¹⁵⁹에 들어 호(護)¹⁶⁰와 섞이기를 바라네.
 迂軒(우헌)

閑把漁竿上釣岩 한가로이 낚싯대 들고 낚시터 바위에 오르니
 一雙吹笛異仙凡 한 쌍의 피리 소리에 신선과 범부(凡夫)가 다르네.
 粧石千年留古跡 천년 세월에 바위 장식하여 옛 자취 남겼고
 烟波十里出孤帆 십 리의 안개 물결에 외로운 돛배가 나아간다.
 洞府風搖青蕩笠 신선 사는 곳은 바람에 푸른 부들 샷갓이 요동치고

158) 위천(渭川): 위천에서 낚시질하였던姜태공(姜太公)의 일을 말함.
 159) 균천(勻天): ‘鈞天’이라고도 표기하는데 균천광악(鈞天廣樂)의 준말로, 천상(天上)의 음악이나 궁중의 음악을 말한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조 간자(趙簡子)가 꿈에 천제(天帝)의 거처에서 노닐면서 균천광악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史記 卷43 趙世家』 여기에서는 성대한 음악을 가리킨다.
 160) 호(護): 탕(湯)임금의 음악을 이름.

江干雨透碧蘿衫 강 언덕은 비가 푸른 넝쿨 적삼을 뚫는구나.
 名區逸興清如許 명승지의 빼어난 흥은 맑음을 허락한 듯하고
 竟日忘歸聽亦咸 석양이 되어도 모두 듣느라 돌아감을 잊었네.
 南溪(남계)

漁歌一曲傍西巖 서쪽 바위 곁에서 어부의 노래 한 곡조 올리니
 鳴則不平物大凡 울림은 평범하지 않고 대범한 것이로다.
 杏壇琴奏停歸棹 행단¹⁶¹⁾의 거문고 연주 돌아가는 배를 멈추게 하고
 寒寺鍾鳴到夜帆 조출한 절의 종소리 울려 잠자는 돛배에 이르네.
 紅桃流水携長竹 붉은 복숭아꽃 물에 흐르는데 긴 낚싯대 들고
 細雨斜風拂短衫 가는 비 기운 바람에 짧은 적삼 휘날린다.
 款乃聲中千古意 어부의 노래 속에 천고의 의미 있으니
 有人沽酒聽來咸 사람 있으면 모두 와서 듣고 술에 취해보세.
 退齋(퇴재)

把笛漁翁上帽巖 피리 쥔 어부가 모암에 올라
 臨風吹送曲殊凡 바람결에 보내는 곡조 비범도 하다.
 聲聲折盡三春柳 소리마다 삼월 봄 버들을 다 꺾자니
 汎汎歸遲斜日帆 둥둥 떠 석양에 돛배로 돌아감이 더디네.
 滿江清興問秋月 강 가득한 맑은 흥을 가을 달에 묻나니
 平楚孤烟愁客衫 평지 숲에 외로운 안개는 객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
 如聽棹歌心萬古 만고에 뱃노래 듣는 마음과 같아
 始知山澤氣通咸 비로소 산과 연못의 기운 다 통함을 알겠구나.
 訥庵(눌암)

巖下清川川上巖 바위 아래 맑은 시내요, 시내 위는 바위이니
 尋常漁笛聽非凡 늘 어부의 피리 소리 들어도 비범하구나.

161) 행단(杏壇): 행단은 공자의 묘전(廟前)에 있는 단(壇)의 이름인데, 공자가 생도들을 모아 놓고 여기에서 강학을 했으므로, 후세에는 흔히 강학하는 곳의 뜻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萬波自息龍歸海	용이 바다로 돌아가니 만길 파도도 절로 사라지고
一鶴閑飛月上帆	달이 돛배 위로 뜨자 한 마리 학이 한가롭게 나네.
聲聲隔水弄仙樂	소리마다 물을 건너 신선의 음악을 희롱하고
曲曲臨風飄客衫	굽이마다 바람과 같이하여 객의 적삼 날리게 한다.
蘆花影裡云何者	갈대꽃 그림자 속에 무엇을 말하려는가?
物外閑情自得咸	세상 밖 한가한 정취에 모든 것 저절로 얻으리라.

石澗(석간)

拋却世忙傍帽岩	모암 곁에서 세상의 번다함 문득 던져버리니
而翁意趣異諸凡	옹(翁)의 의취(意趣)는 범인과 다르구려.
烟晴蘆渚斜陽笠	안개 개어 갈대 물가에 샷샷 기울었고
日晏波頭掛一帆	해 늦은 물결 머리에 한 돛이 걸렸어라.
清亮暫諧樵者葉	서늘한 날씨에 나무꾼은 잎 무성하여 잠시 좋아하고
宕繁劇笑舞娥衫	무성히 춤추는 예쁜 적삼에 마구 웃는다.
臨流唱晚江天暮	강가에서 늦게 노래함에 강하늘 저물어가고
魚子雙雙出聽咸	물고기도 쌍쌍이 나와 모두 듣는구나.

菊下(국하)

186

投竿橫笛上高巖	피리 소리 흐르는 높은 바위에 올라 낚싯대 던짐에
取適漁翁迥出凡	어부는 알맞음을 취하여 속세를 벗어났구나.
移坐青山烟雨笠	안개비에 샷샷을 쓰고 푸른 산으로 옮겨 앉으니
雙飛白鶴夕陽帆	석양에 닳을 올리자 흰 학이 쌍으로 나네.
細和楚竹聲聲律	가늘고 조화로운 초죽(楚竹) ¹⁶²⁾ 은 소리마다 운율 있고
半脫江籬短短衫	반쯤 벗은 강리(江籬) ¹⁶³⁾ 짧고 짧은 적삼 같네.

162) 초죽(楚竹): 초죽은 중국 초(楚) 땅에서 나는 대나무이다.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시 「어옹(漁翁)」에, “어옹이 밤에 서암 곁에 묵더니[漁翁夜傍西巖宿], 새벽에 맑은 상수를 길고 초죽으로 물을 때누나[曉汲清湘澗楚竹].” 라고 하였다.

163) 강리(江籬): 홍조류(紅藻類) 꼬시래깃과에 속한 해초(海草). 흑자색 또는 암갈색으로, 수많은 가지가 있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같은 모양이다. 우무를 만들 때 우뭇가사리와 섞어서 쓴다. 우리나라, 일본, 사할린, 타이완 등 따뜻한 지방의 열은 바다에 난다. 초나라 대부(大夫) 자초(字椒)와 초 회왕(楚懷王)의 동생 사마자란(司馬子蘭), 두 사람은 모두 간사한 소인이었다. 그래서 「이소(離騷)」에 이

問爾滄浪歌有節 너에게 창랑가(滄浪歌) 절조 있음을 묻노니
 屈原何事願彭咸 굴원(屈原)은 무슨 일로 팽함(彭咸)¹⁶⁴ 되기를 원했나?
 滄農(창농)

一笛橫秋兀帽岩 한 피리 소리가 우뚝한 모암을 가을에 울리니
 魚聽蛟舞響超凡 울림이 비범하여 물고기 듣고 교룡은 춤을 추네.
 柳風梅雨忘收釣 버들에 바람 불고 매화에 비 오는데 낚시 거둬 잊고
 鴈塞星樓只倚帆 기러기 변방 가고 별 뜨는 누각의 돛대에 기대네.
 竿竹截吹元勝肉 대나무 잘라 피리 붉은 원래 고기보다 좋고
 烟蓑腰揜不須衫 안개에 도롱이 입고 허리 펴니 적삼이 필요 없네.
 滄浪一曲蘆花月 창랑(滄浪)의 한 굽이 갈대꽃에 달이 뜬에
 感有心來聽願咸 감흥 있어 마음으로 왔으니 함께 듣기를 원한다오.
 晚翠(만취)

丈人浮石雲加帽 어른이 돌을 띄우고 구름이 모자를 더했는데
 年古不老世稱岩 해가 오래되어도 늙지 않아 바위라 한다네.
 江上獨饒漁釣趣 강가에서 홀로 넉넉한 물고기에 낚시하는 흥취 있어
 問諸沙礫分聖凡 모래와 자갈에 물으니 성(聖)·범(凡)으로 나뉜다네.
 何來春 어찌 오는 봄은
 水上武陵尋路客 물가에 무릉 길 찾아가는 나그네가
 疎雨聲中乍繫帆 성근 빗소리 속에 잠시 매인 돛배에 잠시 머무는가?
 君莫說炎涼風雨 그대 덥고 서늘한 비바람 이야기하지 말게
 度來苦吾家延 오는 고통 우리 집에 끌어들이면
 歷雲作衣苔作衫 지난 구름은 옷이 되고 이끼는 적삼이 된다오.
 榮辱是非何等事 영욕과 시비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歸來一笛弄彭咸 돌아와 피리 소리에 모두 팽조(彭祖)¹⁶⁵처럼 즐기세.

두 사람이 시속을 따라 변절한 것을 풍자하여, “진실로 시속을 따라 흐르다 보면[固時俗之流從兮], 또 뉘라서 변하지 않을쏘나[又孰能無變化]. 산초와 난초가 이와 같음을 보노니[覽椒蘭其若茲兮], 하물며 계거와 강리 따위야 말해 무엇 하랴[又況揭車與江籬].” 라고 하였다.
 164) 팽함(彭咸): 은(殷) 나라의 개사(介士)로서 뜻을 얻지 못하자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東溟(동명)

龍山落帽掛高岩 용이 사는 산에 떨어진 관모가 높은 바위에 걸러
 吹笛漁人亦非凡 피리 부는 어부도 또한 비범하네.
 嶰谷疎篁風外響 골짜기에 트인 대숲은 바람 밖에 울림이 있고
 秋江紅蓼月中帆 가을 강에 붉은 여뀌는 달 속에 돛배 같네.
 荷肩竿竹同聆律 어깨에 멘 낚싯대는 울령을 들은 것과 같고
 遍體苔衣似着衫 몸이 미친 이끼 옷은 적삼 입은 듯하구나.
 好是雲間韶濩奏 구름 사이에서 소호(韶濩)¹⁶⁶ 연주함이 좋으니
 洋洋水族出聽咸 낭랑한 소리 물고기 어룡들 모두 나와 들으리라.

竹翁(죽옹)

襟水枕山鍾帽岩 물을 입고 산을 베개 삼았다가 모임을 만나니
 數聲漁笛也超凡 몇 가락 어부의 피리 소리 또 속세를 벗어났네.
 柰川閑設游魚網 내천(柰川)에 물고기 잡는 어망을 한가히 설치하고
 花嶼遙望落照帆 화등(花嶼) 석양에 돛배를 아득히 바라본다.
 互苔苔磯投巧釣 이끼 낀 물가 바위에 교묘히 낚싯대 드리워
 何妨蓼雨濕寒衫 여뀌에 비 내려 찬 적삼 적신들 무슨 방해가 되랴?
 曲終不見問無處 굽이가 끝남이 보이지 않아도 물을 곳 없으니
 誰某居人姜李咸 아무개 사는 사람은 강 씨와 이 씨라네.

寄隱(기은)

短笛斜陽傍帽岩 석양에 모임 옆에서 짧은 피리 부니
 漁翁閑意出群凡 어부의 한적한 뜻이 출중도 하구나.
 橫來蘆荻花間道 갈대꽃이 꽃 사잇길로 날려 오고
 泛去木蘭月下帆 목란(木蘭) 핀 달빛 아래에 돛배가 떠서 가네.

165) 팽조(彭祖): 팽조는 성은 전(錢)이고, 이름은 경(鏗)이다. 요(堯) 임금의 신하로 하(夏)나라, 상(商)나라, 주(周)나라까지 800여 세를 살았다고 하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莊子 逍遙遊 註』

166) 소호(韶濩): 소호(韶濩)라고 쓰기도 하는데, 소(韶)는 순(舜) 임금의 음악이고 호(濩)는 탕(湯) 임금이 음악이다. 『禮記注疏 樂記』

白鷺羞同黃鶴玉
綠簑不換紫羅衫
曲終仍向雲門入
古樂何時復奏咸

素軒(소헌)

백로는 황학의 옥과 같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푸른 도롱이는 붉은 비단 적삼과 바꾸지 않는다오.
굽이가 끝남에 운문(雲門)을 향하여 들어가니
옛 음악을 어느 때 다시 다 연주할까?

如帽方圓名是巖
奇形怪狀見非凡
手弄落梅長短曲
中懸明月去留帆
隱釣行裝青蕩笠
近山制度碧蘿衫
魚龍出聽潛蛟舞
能使物情暨若咸

文式(문식)

관모처럼 각지고 둥글어 이 바위 이름 지움에
기이한 모양과 괴상한 형태가 비범함을 드러냈네.
장단의 곡조를 손으로 연주하며 지는 매화 희롱하고
가고 머무는 돛배 가운데는 밝은 달이 매달렸네.
숨겨진 낚시터는 푸른 부들 샷갓으로 행장을 꾸렸고
가까운 산은 푸른 담쟁이덩굴의 적삼을 꾸미는구나.
어룡이 나와 듣고 잠긴 교통 춤을 추니
모두 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듯하구나.

漁笛蕭蕭自帽岩
清閑適趣亦非凡
聲聲折柳春如水
曲曲落梅月滿帆
夢隔紅塵陌紫路
載歸綠笠青簑衫
更和棹歌歌款乃
慣聽鷗鷺集聽咸

齊根(제근)

모암에서 어부의 피리 소리 쓸쓸하고
맑고 한가로운 흥취 또한 비범하도다.
소리마다 버들가지 꺾어 봄은 물과 같고
굽이마다 매화꽃 떨어져 달이 돛배에 가득하네.
속된 세상 변화한 거리와 꿈은 멀리 떨어져
푸른 샷갓에 푸른 도롱이 입고 배 타고 돌아가리.
다시 뱃노래[棹歌]에 화답해 어부가[款乃歌] 부르니
늘 갈매기 해오라기 듣듯이 모두 모여 들어보세.

一帶寒江白帽岩
帽岩漁笛出塵凡
武夷山下雲生石

한 줄기 차가운 강에 흰 모암은
모암에 어부의 피리 소리 속세를 벗어났네.
무이산(武夷山) 아래 구름 이는 바위요

赤壁江中月滿帆 적벽강(赤壁江) 속 달 가득한 돛배라오.
 妙曲將來傳樂府 묘한 곡조 들려와 악부(樂府)를 전하고
 餘音遠播舞輕衫 남은 음은 멀리 퍼져 가벼운 적삼에 춤을 춘다.
 鳳笙龍管非關事 봉황 생황과 용 피리가 관여할 일 아니니
 忘世斯間適趣咸 이 속에서 세상 잊고서 모두 유유자적하세나.
 敬堂(경당)

漁笛秋風下帽巖 가을바람에 어부의 피리 소리 모암 아래에 퍼지니
 分明數曲聽非凡 분명 여러 굽이에 들림이 비범했으리라.
 飛花流水人閑地 흐르는 물에 꽃잎 날려도 사람들 한가한 땅이요
 小棹青山客到帆 푸른 산에 작은 노로 나그네 실은 돛배라네.
 只疑游子聲聲濁 다만 노니는 사람은 소리마다 탁한가 의심하여
 誤認晴朝采采衫 개인 아침 화려한 적삼을 오인하네.
 鸞管鳳蕭餘外響 난 피리 봉황 통소 밖의 울림이
 來傳詩韻和相咸 시운(詩韻)을 전해 와 서로 모두 조화롭구나.
 漢奎(한규)

190

特立江中一帽巖 강 안에 우뚝 선 한 모암(帽巖)은
 漁人長笛亦殊凡 어부가 길게 피리 불며 또한 비범하다.
 柯亭昔日中卽竹 가정(柯亭)¹⁶⁷⁾은 옛날에 알맞은 것이 대나무였고
 赤壁清宵進士帆 적벽(赤壁)은 맑은 밤에 진사(進士)의 돛배였네.
 楊柳飄搖驚遠夢 버들은 바람에 흔들려 멀리 꿈을 놀라게 하고
 梅花落盡襲香衫 매화꽃 다 지며 향기가 옷에 스며오네.
 飛禽率舞龍吟水 나는 새는 모두 춤을 추고 용은 물을 뿜으니
 樂府何時雜護咸 즐거운 마을은 어느 때나 모두 호(護)¹⁶⁸⁾가 섞였구나.

167) 가정(柯亭): 가정은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품질 좋은 대나무가 생산되는 곳이라 한다. 진(晉)나라 복도(伏滔)가 지은 「장적부(長笛賦)」의 서문(序文)에 “한(漢)나라 채옹(蔡邕)이 강남(江南)으로 피난 갔다가 가정의 관(觀)에 연목(椽木)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나무가 특이한 것을 보고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 소리가 절묘했다고 한다.” 하였다.

復來(복래)

石丈儼然化帽巖 석장(石丈)¹⁶⁹이 분명히 모암(帽巖)이 되었거니
 聲聲漁笛聽非凡 어부의 피리 소리마다 비범함을 듣는다오.
 折來楊柳風生壑 바람 이는 골에서 버들을 꺾어서 오니
 落盡梅花雪滿帆 눈이 가득한 돛배에는 매화가 다 떨어져 있네.
 遠客乍聞懷古里 먼 나그네는 잠시 듣고서 고향을 생각하고
 村童依和曳輕衫 마을 아이는 온화한 날씨에 얇은 옷을 질질 끈다.
 曲終江上無人見 곡 끝나도 강가에 사람들 보이지 않고
 山澤相通氣自咸 산과 못이 서로 통하여 기가 절로 함께하는구나.

駿秉(준병)

溪上兀然一帽岩 시냇가에 우뚝이 한 모암(帽巖)이 있으니
 數聲漁笛弄非凡 어부의 피리 소리 몇 가락은 비범함을 즐기는구나.
 秋江明月南飛鶴 가을 강 밝은 달에 학(鶴)은 남으로 날아가고
 春水紅桃逐去帆 봄물에 붉은 도화(桃花)는 돛배를 따라가네.
 折柳玉關難見色 버들 꺾어도 옥관(玉關)¹⁷⁰에서는 색깔 보기 어렵고
 落梅江城襲輕衫 지는 매화는 강가 성에서 가벼운 적삼으로 진다오.
 斷續斜陽無限景 석양에 끊어졌다 이어지는 무한한 경계는
 村童啞嘔共聽感 시골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들린다.

昇楫(승우)

漁笛溪邊有一岩 어부의 피리 소리 울리는 시냇가에 한 바위 있으니
 形如冠帽不爲凡 모양이 관모(冠帽)와 같아 평범하지 않다오.

168) 호(護): 탕(湯) 임금의 음악을 이름.

169) 석장(石丈): 원림(園林) 안에 있는 절벽이나 큰 바위를 높여 이르는 말로 석장인(石丈人)이라고도 한다. 북송(北宋)의 문인이자 서화가인 미불(米芾)은 천성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였는데, 무위군(無爲軍)에 부임하였을 적에 청사(廳舍)에 있는 기석(奇石)을 보고는 매우 좋아하여 즉시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그 돌에게 절을 하고 그 돌을 석장(石丈)이라고 불렀다. 『宋史 卷444 米芾傳』

170) 옥관(玉關): 중국 감숙성(甘肅省) 둔황(敦煌)에 있는 옥문관(玉門關)의 준말로, 여기서는 외딴 지방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有時聽去龍吟水	용이 읊는 물소리를 때로 들으며 가고
永夜載歸月上帆	달뜨자 돛배는 밤에 싣고 돌아오네.
裂石穿雲知隱者	바위를 찢고 구름을 뚫는 은자를 알아도
落梅折柳濕征衫	매화를 따고 버들을 꺾자 나그네 적삼을 적신다.
鼓吹宦海還如夢	관로(官路)의 길을 고취해도 도리어 꿈과 같아
惟有漁翁志氣咸	오직 어부 지기(志氣)만을 가졌어라.
基復(기복)	

冠帽爲形一石岩	관모의 형상이 된 한 바위에
漁人長笛出塵凡	어부의 긴 피리 소리는 평범한 속세가 아니라고.
溪深如有垂翁釣	계곡은 깊어 낚시 드리운 늙은이 있을 듯한데
地僻恨無到客帆	땅은 외져 이르는 사람 없음을 원망한다네.
折柳春光未及塞	버들 꺾어도 봄빛이 외지에 이르지 않더니
落梅香臭疑盈衫	매화 떨어지니 향기가 옷에 스몄나 의심한다.
白蘋紅蓼晴江興	흰 마름 붉은 여뀌가 맑은 강에서 피니
斷續斜陽感意咸	석양에 끊어졌다 이어지는 모든 감흥이라.
基成(기성)	

終觀十景步東岩	끝내 10경을 보고 동쪽 바위로 걸어가니
漁笛斜陽亦匪凡	석양에 어부의 피리 소리 또한 비범하구나.
沙岸爭飛驚夢鳥	모래 언덕엔 줄다 놀란 새가 다투어 날고
渡頭暫住暮歸帆	포구 머리엔 저녁에 돌아가는 돛배가 잠시 머물렀네.
和歌釣客欵輕笠	낚시꾼은 가벼운 삿갓을 기울이고 화답하는 노래하니
默聽溪翁立短衫	계곡 늙은이는 짧은 적삼으로 서서 묵묵히 듣는다.
數曲聲中頓忘世	몇 곡의 소리 속에 세상일 잊음에
江村烟月俗熙咸	강촌 안개와 달에 백성들 모두 기뻐하네.
昌楫(창우)	

欵笠漁翁傍帽岩	삿갓 기울인 어부 옆이 모암이니
---------	-------------------

數聲秋笛脫塵凡 가을 피리 몇 소리에 속세를 벗어난다오.
 一竿在手忘投餌 한 낚싯대 손에 있으나 미끼 던지는 것 잊고
 小艇容人不掛帆 작은 배는 사람 태워도 닻을 올리지 않았다오.
 響落青山逢住錫 울림 끊어진 청산에서 머무는 사람 만나고
 曲終紅照滿征衫 굽이 끝나자 붉은 노을에 옷깃을 적시네.
 此眞取適非魚取 이는 참으로 알맞음을 취할 뿐 물고기 잡지 않으니
 庶見飛潛遂性咸 거의 날고 잠기는 사물이 모두 성품 이룸을 보리라.
 黃崑(황근)

石尖冠帽作奇巖 바위 끝 관모는 기이한 암석을 만들고
 漁笛善鳴物大凡 어부의 피리 소리 아름답게 울려 비범하네.
 雲穿武夷來晉鶴 구름을 뚫고 무이산¹⁷¹에서 진(晉)나라 학이 왔고
 月明牛渚弄桓帆 달이 밝은 우저(牛渚)¹⁷²처럼 돛을 올리고 놀았네.
 清音絕世傾人耳 맑음 소리 세상에 없어 사람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妙曲入神執子衫 묘한 곡조 신묘함에 들어 그대 옷을 붙잡는다오.
 紅蓼白蘋無恨景 붉은 여뀌 흰 마름의 무한한 경치에
 聲聲相感澤山咸 못과 산이 모두 소리마다 서로 감응하는구나.
 炳濟(병제)

171) 무이산(武夷山): 무이산의 산신인 무이군(武夷君)이 진 시황(秦始皇) 2년에 마을 사람들을 산꼭대기로 초청하여 만정(幔亭)의 연회를 베풀고 술과 음식을 주었다는 '무이만정(武夷幔亭)'의 고사를 말한다. 『雲笈七籤 卷96』

172) 牛渚(우저): 동진(東晉) 때에 사상(謝尚)이 우저(牛渚)의 풍월(風月)에 즐거이 놀았다는 고사가 있다.



12. 追錄

덧붙여 쓰다.



194

十條佳景是漁城
 泉石鳥烟次第成
 龍沼灘鳴琴枕冷
 爐峰月隱斗牛明
 落照花林看瀑布
 慈雲山寺聽鍾聲
 帽岩高積奈川上
 漁笛樵歌聊付生

可山(가산) 崔思吉(최사길)

열 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어성(漁城)이니
 샘물과 바위와 오현(烏峴)의 안개가 차례를 이루네.
 용소(龍沼)의 여울이 우니 거문고 누워 썰렁하고
 향로봉(香爐峰)에 달이 숨어 두우(斗牛)가 밝다.
 낙조가 든 꽃 같은 숲에서 폭포를 보고
 은혜로운 구름 뜬 산사에서 종소리를 듣노라.
 관모암(冠帽巖), 고적치(高積峙), 내천(柰川) 가에
 어부의 피리와 초동의 노래에 애오라지 생을 붙인다.

十景重重盡碧城
 名區泉石一村成
 浮雲遠接樹烟起
 落照又迎峰月明
 飛瀑難分漁篴聽
 鳴灘半雜暮鍾聲

십경은 거듭거듭 모두 푸른 성인데
 명승이라 샘물과 바위가 한 마을을 이루었네.
 뜬구름은 멀리 숲의 연기 일어남과 접하고
 낙조는 또 봉우리 달 밝음을 맞이한다.
 날리는 폭포에 어부의 피리 구분해 듣기 어렵고
 울리는 여울은 저녁 종소리와 반쯤 섞였어라.

居人亦識游魚樂 사는 사람 또한 노니는 물고기 즐거움을 안다면
 柰葉川邊老此生 사과 나뭇잎 시냇가에서 이 생애 늙어가리.
 晚釣(만조) 崔鳳集(최봉집)

口傳名號曰雲門 입으로 전하는 이름이 운문이니
 日月千秋石帶痕 천년의 세월에 바위는 흔적을 남기었네.
 卜築茅茨猶勝地 몇집 지으니 오히려 명승지요
 也持景物是真源 경치를 또 가졌으니 참 근원이네.
 原野烟籠青欲出 언덕과 들은 안개 둘러 푸른빛은 다하려 하고
 山疊風箒爽如飜 산과 수문(水門)은 바람이 쓸어 서늘함이 더한다.
 羽衣仙客憑虛立 신선 차림의 나그네는 허공에 의지하여 섬에
 六坎分明佛不言 물의 형세가 분명함은 부처도 말이 없으리라.
 可山(가산)

鑿鑿混混關洞門 보고 봐도 흐릿흐릿 골짜기 문 열리어
 昔人往往筆生痕 옛사람 자주 부 흔적 남겼어라.
 仙緣疑有金丹竈 신선의 인연으로 금단(金丹) 만든 곳인가 의심하고
 道氣先看活水源 도(道)의 기운으로 살아있는 물의 근원을 먼저 보네.
 危壁霜濃蒼蘚老 위태한 절벽은 서리 질어 푸른 이끼 늙어가고
 寒潭風動錦鱗翻 찬 연못은 바람 불어도 비단 비늘 번쩍이는구나.
 勝名妙合耶溪寺 명승지는 오묘하게 야계(耶溪)¹⁷³⁾의 절과 부합하여
 賀監舊遊誰與言 옛날 노닐며 보던 곳을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까?
 晚釣(만조)

仙庄茶竈晚炊烟 신선집 차 만드는 부엌에 저녁밥 짓는 연기 일어
 烟樹蒼蒼似去年 안개 낀 숲은 푸르고 푸르름이 지난해와 비슷하네.
 年少輩人憑夢景 나이 어린 사람들 꿈속 경치에 의지하지만

173) 야계(耶溪): 야계는 약야계(若耶溪)로, 중국 절강성(浙江省) 회계현(會稽縣) 동남쪽에 있는 시내 이름이다. 춘추 시대 월나라의 미녀 서시가 그 근처에서 연밥을 따고 빨래를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景明春日織文天
天光雲影釜淵谷
谷靄林霏珠寺邊
邊幅青山鳥下暮
暮林啞啞吊歸仙

可山(가산)

경치 밝은 봄날은 문채 나는 하늘을 이룬다오.
부연(釜淵) 골짜기에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어리고
명주사(明珠寺) 주변 골엔 아지랑이에 가랑비 온다.
주변 한 폭의 청산은 까마귀 내려앉는 저녁이라
저녁 숲에 까마귀 울음이 돌아가는 신선을 조문하네.

居人曾是老風烟
峴樹蒼蒼閱幾年
如霧如霾深鎖壑
和雲和雨翠連天
晝開鉛墨濃淡裏
帳設青羅遠近邊
夕照朝暉迷望處
餐芝薪桂摠神仙

晚釣(만조)

사는 사람 일찍이 풍경 속에 늙어가나니
고개에 나무는 푸르고 푸르게 몇 년을 보냈나?
안개 끼고 흠비 내리면 골을 깊게 닫았다가
온화한 구름과 온화한 비에는 푸르게 하늘을 이었네.
먹물의 농담 속에 그림 같은 풍경이 열리어
푸른 비단이 멀고 가까운 주변에 펼쳐졌구나.
저녁 빛과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버섯 먹고 계수나무 때는 것이 모두 신선이라도.

196

紅沉返照落峯花
籠樹碧峰一逕斜
客步忙忙催策馬
童樵暮暮帶林鴉
斂將翻石山高地
窮且入雲海近家
問是景公齊下淚
同今視古以予嗟

可山(가산)

붉은빛 감도는 석양이 봉우리의 꽃을 비추고
나무를 두른 푸른 봉우리에 한 길이 빗겨 있구나.
나그네는 말 채찍 재촉하여 총총히 걷는데
아이는 까마귀 앉은 숲에서 저녁마다 나무하네.
산 높은 땅에 은거하니 물이 돌을 뒤집고
바다 가까운 집은 길 다하여 구름으로 들어간다.
이곳이 제나라 경공이 눈물 흘린 곳¹⁷⁴⁾인지 묻나니
옛날을 봄이 오늘과 같아 탄식하게 하는구나.

174) 제나라 경공이 눈물 흘린 곳: 춘추 시대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우산(牛山)에서 노닐다가 자연경관에 감탄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고사가 있음.

峯似懸燈燈似花	봉우리는 매단 등불 같고 등불은 꽃 같으니
長明不患夕陽斜	오래도록 밝아 석양이 기울어도 근심하지 않네.
草邊雙笛驅來犢	풀 가에 쌍 피리 송아지를 몰고 오고
木末孤烟帶去鴉	나무 끝 외로운 구름은 까마귀와 함께 간다오.
溪水拖紅翻石壁	계곡물은 붉은빛 끌어 석벽에 부딪히고
林陰轉翠暗山家	숲 그늘은 더욱 푸르러 산 집을 어둡게 하는구나.
齊公當日牛山淚	제(齊)나라 경공(景公)은 우산(牛山)에서 눈물 흘려 ¹⁷⁵⁾
千載令人堪可嗟	천년토록 사람들 탄식하게 하는가!

晚釣(만조)

銀瀑飛流碎玉潭	은빛 폭포 날아 흘러 옥 연못 부수고
四時霹靂動西南	사계절 천둥소리 주변을 진동시키네.
終看大海趨歸勢	큰 바다로 돌아가는 형세를 끝내 보리니
休道長虹雜詠談	긴 무지개 같은 허황한 말은 하지 말게나.
絕壁懸崖玄落落	절벽의 깎아지른 벼랑은 아득히 떨어지고
衝波春白碧淡淡	부딪치는 물결이 방아 찌어 푸르고 담담하네.
莖纓一濯滄浪外	창랑(滄浪)의 물결 외에 한 줄기 갓끈 씻어도
爽豁精神惹興酣	정신을 시원하게 뚫어 좋은 흥을 인도하는구나.

可山(가산)

削成鐵壁插銀潭	깎아 철의 절벽 이루어 은빛 연못에 꽂으니
白割青山限北南	흰 구름 청산을 나누어 남과 북으로 그어놓았네.
四序雷鳴眞別界	사계절 우레 울리니 참으로 별세상이요
九天河落豈虛談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짐이 어찌 헛된 말이라?
紫烟耀日凝眸遠	붉은 안개에 태양 비추어 멀리 응시하니
玉屑生風拂面淡	옥가루에 바람 일어 얼굴을 담담히 만져주네.
最愛激聲聾我耳	폭포 소리 귀먹게 함을 가장 사랑하나니

175) 우산(牛山)에서 눈물 흘리고: 춘추 시대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우산에서 노닐다가 북쪽으로 제나라 국성(國城)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강물이 질펀히 흐르는 이 고장을 버리고 죽는단 말인가[若何滂滂去此而死乎].” 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렸던 데서 온 말이다.

不聞世利夢如酣 세상의 이익 듣지 않아 잠도 단술 같아라.
晚釣(만조)

千秋龍逝自鳴灘 천년의 용이 떠나니 절로 여울 올리는데
龍沼深深寂寞寒 용소(龍沼)는 깊고 깊어 적막하고 쓸쓸하네.
往往潮聲蕭灑急 지나고 지나도 물소리 맑고도 급하지만
源源泉脉慣聽安 깊은 근원의 샘물줄기 너그럽게 들려 편안하다.
落波古渡澎澎石 옛 나루에 지는 물결은 바위에 일렁이고
疎雨斜陽籊籊竿 석양의 성근 비에 긴 낚싯대 드리우네.
篁韻松風松水畔 대숲의 소리와 소나무의 바람과 물가에 소나무와
主人琴韻要人看 주인의 거문고 소리는 사람들이 보길 바라오.
可山(가산)

198

碧沼老龍吼石灘 푸른 소에 늙은 용 있어 바위 여울이 우니
怒濤聒聒入窓寒 성난 물결 넘실넘실 창으로 한기가 드네.
如聽雷動心常恍 우레 동하는 소리 들은 듯 마음 항상 두렵고
半雜風聲夢不安 바람 소리 반은 섞여 꿈자리 편치 못하네.
武曲境深元晦棹 원회(元晦)가 노 젓던 무곡(武曲)의 경계 깊고
桐江波激子陵竿 자릉(子陵)¹⁷⁶⁾이 낚시하던 동강(桐江)의 파도 격하네.
揚清滌穢原其性 맑음을 드날려 더러움 씻음이 원래 성품이니
勇義精神這裏看 용기와 의로운 정신을 이 속에서 볼 수 있느니라.
晚釣(만조)

爐峯之上月如峰 향로봉 위의 달은 봉우리 같아
恨不及時與子逢 한이 이르지 않을 때 그대와 만났지.
門戶榮光誰折桂 가문에 영광으로 누가 등과(登科) 하였는가?

176) 자릉(子陵): 후한(後漢) 사람. 엄광(嚴光)의 자(字) 엄광이 어릴 때 광무제(光武帝)와 같이 공부하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숨어 사는 것을 광무제가 찾아 간의 대부(諫議大夫)에 제수(除授)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였음.

樓臺興味我哦松 누대(樓臺)에 흥은 나도 소나무를 읊으면 되리라.
 初膺山河秋淡蕩 처음에 산하(山河)는 가을이라 맑았고
 漸盈宇宙夜從容 점차 세상 가득 밤이 찾아와 조용해지네.
 香烟紅日芸窓曉 향기로운 안개에 붉은 해는 새벽 창에 향기로우
 高積浮雲影又濃 고적치에 뜬구름 그림자 또다시 짙어진다.

可山(가산)

峯云高積積層雲 봉우리 높이 쌓였다 해도 층층의 구름 쌓였고
 每驗年豐五色分 늘 풍년 경험해도 다섯 색을 나눈다네.
 化處蒼茫巫峽夢 변하는 곳은 무협몽(巫峽夢)¹⁷⁷이 아득하고
 湧時想像退之文 솟아날 때는 한유(韓愈)의 문장을 상상하네.
 歸藏洞府龍應蟄 돌아가 동부(洞府)¹⁷⁸에 은거하면 용도 응당 숨고
 飛出天衢鴈共群 날아서 하늘길로 나오는 것은 기러기 무리이지.
 大地生靈乾雨望 대지의 백성들 하늘에 비를 바라니
 殷湯聖德更無聞 은나라 탕왕(湯王)의 성덕은 다시 듣지 못했다고.

晚釣(만조)

峰非高積疊浮雲 봉우리가 고적치(高積峙) 아니어도 첩첩한 구름이라
 雲復如峰渾不分 구름이 다시 봉우리 같아 구분하기 어렵구나.
 秋晚粧成紅樹景 가을이 깊게 물들어 붉은 숲의 경치 이루더니
 春來歸帶碧山文 봄이 와 다시 푸른 산의 문양 띄네.
 最喜聞中禽鳥語 한가로운 속에 새의 노랫소리 가장 좋아하니
 時看這裡鹿麋群 이 속에 사슴의 무리 때로 본다오.
 茶床題罷治遊興 차 마시다 글쓰기 다하면 노니는 흥 일고
 峰復如雲虛籟聞 봉우리는 다시 구름 같아 빈 울림을 듣는다.

可山(가산)

177) 무협몽(巫峽夢): 꿈속에 정신이 나가 노니는 것을 이른 말로, 초 회왕(楚懷王)이 꿈에 무산(巫山)의 선녀(仙女)와 정사(情事)를 가졌다는 무산몽(巫山夢)을 이른다.

178) 동부(洞府): 도교(道敎)의 용어로, 신선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轉輾水輪上轟峰
 開門欣若故人逢
 蟾光不沒香飄桂
 鶴睡先驚影掛松
 公遠銀橋如可見
 嫦娥玉鏡爲誰容
 謫仙采石停盃後
 到此文章醉興濃

晚釣(만조)

돌고 도는 달 옆의 무성한 봉우리
 문 열고 기뻐함이 친구를 만난 듯하구나.
 달빛은 향기 이는 계수나무에서 사라지지 않고
 학은 졸다 그림자 걸린 소나무에 먼저 놀라네.
 공원(公遠)¹⁷⁹의 은(銀) 다리를 볼 수 있다면
 항아(嫦娥)¹⁸⁰의 옥 거울은 누구를 위해 단장할까?
 이백(李白)이 채석강(采石江)에서 잔을 멈춘 이후에
 이 문장에 이르러 취한 흥이 깊구나.

柰川歸路坐觀魚
 理在深淵自得居
 搖尾翻鱗眞箇好
 泳游活潑果如何
 沉蒲臥柳俄而隱
 沙暖風微更欲噓
 寄語前村敲釣者
 朝來莫向雨聲疎

可山(가산)

내천(柰川)의 돌아가는 길에 앉아 물고기 구경하자니
 이치는 깊은 연못에 있으니 스스로 터득하여 사네.
 꼬리 흔들고 비늘 움직이며 참으로 좋으니
 헤엄치며 노니는 활발함은 과연 무엇과 같은가?
 부들에 잠기고 버들에 누워 잠간 사이에 사라지더니
 모래 따스하고 바람 잔잔하니 다시 노래하고자 하네.
 앞마을에 부탁해 낚싯대 두드리는 사람
 아침에 와서 빗소리 성글어도 향하지 않는구나.

仰昔先王信及魚

옛날 선왕의 믿음이 물고기에 미침¹⁸¹을 우러르니

179) 공원(公遠): 당(唐) 도사(道士) 나공원(羅公遠)을 이름. 그는 중추 밤에 계장(桂杖)을 공중에 던져 은(銀) 다리를 만들어 현종(玄宗)과 함께 월궁(月宮)에 올라 선녀들의 춤을 구경하고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을 듣고 돌아왔다 함.

180) 항아(嫦娥): 달 속에 있다고 하는 선녀의 이름이다. 하(夏)나라 때 예(羿)가 일찍이 선녀(仙女)인 서왕모(西王母)에게 불사약(不死藥)을 얻었는데, 미처 먹기 전에 그의 처인 항아가 몰래 훔쳐 먹고는 달로 달아났다고 한다. 『淮南子 覽冥訓』

181) 믿음이 물고기에 미침: 『주역』 「감괘(坎卦)」 정전(程傳)에 “지성은 금석을 관통하고 수화를 헤쳐 나갈 수 있으니, 무슨 험난함인들 형통하지 못하겠는가.[至誠, 可以通金石 蹈水火, 何險難之不可亨也.]”라고 하여 정성이 지극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다. 『주역』 〈중부괘(中孚卦) 단(象)〉에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치게 되면 길하다고 한 것은 그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豚魚吉, 信及豚魚也.]” 라고 하여,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감동시키기 어려운 미물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川潛淵躍各安居
孟曾買放恩知否
莊亦游…缺…

시내에 잠기고 연못에 뛰은 거처를 편히 여겨서라.
맹중(孟曾), 매방(買放)은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별장 또한 노니는 …결(缺)…

庚申孟冬粧衣

1920년 10월에 표지를 입힘.

어성십경창화시

발행인 양양문화원 원장 윤여준
번역 강원도립대학 교수 양언석
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기범
발행처 양양문화원
인쇄처 대양프리컴
발행일 2020년 12월



